대협(大俠)의 깊은 잠.

양과는 골짜기에 들어간지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사흘 동안 많은 위험을 겪고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 결국 그토록 그리워 하던 사람과 이 험한 곳을 떠나게 되자 그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이 때 하늘은 희끄무레하게 밝아 오는 새벽빛을 띠고 있었다.두 사람은 높은 산봉우리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다.울창한 수목 가운데로 새벽 햇살이 찬란하게 비쳐 오고, 눈앞에 온통 푸른 물결이 출렁거려 마치 구름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양과는 소용녀의 손을 이끌고 큰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말했다.

[아가씨.....!]

소용녀는 그의 가슴에 몸을 기대고 어여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다시는 날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

양과는 심중으로는 일찍부터 그녀를 사부로 대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아가씨 >라고 부르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의 이 말을 듣자 너무도 달콤해 양과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칠흙같이 검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뭐든지 부르고 싶은대로 불러. 모든것은 너에게 달려 있으니까.]

양과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일생 중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바로 고묘안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던 때였어요.그때 내가 당신을 아가씨라고 불렀으니 그냥 죽을 때까지 아가씨라고 부르죠, 뭘!]

소용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너의 엉덩이를 때릴 때에도 즐거웠어?]

양과는 두 팔을 뻗어 그녀를 품속으로 끌어안았다.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숨소리와 신비한 향기가 산골짜기 사이에 있는 꽃과 나무의 맑은 향기와 어우러져

마음과 혼이 모두 취할 것만 같아서 양과는 어쩔줄을 몰랐다.

[우리 이렇게 18 일동안 떨어지지 말고 즐겁게 지내다가 죽어요.더 이상가서 곽정-황용이고 뭐고 죽이지 말고요.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며 욕망대로 찾아 죽이고 목숨을 걸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즐겁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소용녀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좋아.이전에 나는 줄곧 너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오직 네 말만 듣겠어.]

그녀는 안색이 차가왔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넘쳐 눈썹끝에서 발끝까지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온마음 온힘을 다해서 양과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만 같았다.양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왜 눈에 눈 물이 고여있어요?]

소용녀는 그의 손을 잡고 뺨을 그의 손등에 대고 가볍게 비비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나도 몰라.]

잠시 후 말했다.

[아마도 내가 너를 너무나 좋아하나봐]

양과가 말했다.

[나는 무엇때문인지 알고 있어요.]

소용녀는 고개를 들었다.돌연 눈 물이 샘솟듯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 들어 흐흐흑, 흐느끼며 말했다.

[과아야, 너.....,아니 우리는 이제 겨우 18 일밖에 살지 못하는 데 그게, 그게 충분하단 말이야?]

양과는 가벼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나는 네가 영원히 내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백 년, 천 년, 만 년토록!]

양과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그녀의 발그스레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좋아, 누가 뭐라고 해도 곽정,황용을 죽여야해.]

혀끝에 그녀가 흘린 눈물의 짠맛이 감돌자 갑자기 감저이 복받쳐 올라 온몸이 마치 터질것만 같았다.갑자기 왼쪽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이 큰소리로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가 필요한 처지일 텐데 이렇게 박대할 건 없잖아?]

양과가 고개를 돌리니 10여장 밖의 산봉우리위에 금륜법왕,윤극서, 소상자, 니마성, 마광좌 다섯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금륜 법왕이었다.양과와 소용녀가 홀연히 골짜기를 떠나자 법와 등이 뒤를 따라 온 것 같았다.

양과와 소용녀는 큰 고난을 겪은후 다시 만난서 상대방이외에는 다른것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자신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법와등이 멀리서 보고 있는 줄도 몰랐다.

양과는 절정곡에서 법왕이
여러 차례나 자기를 곤경에 빠뜨려 그의 말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것을 생각했다.

일찌기 그가 이럴줄 알았더라면 황산에서 움막을 엮어 상처를 치료할 때
단일장에 그의 목숨을 빼앗았어야 했는 데오히려 양과는 그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도와 주었었었다.

그런데 그는 일파의 종주로 마침내 이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것이다.소용녀는 그의 눈에 노기가 서리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에게 신경쓰지마, 저런사람들은 아무리 몰려다녀도 우리 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리가 없어.]

마광좌가 외쳤다.

[양형,용아가씨, 우리와 함께 갑시다.이 황량한 산에는 술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라곤 없으니.]

양과는 오직 소용녀와 조용하게 한순가 한순간을 즐거게 보내기만을 바랐는데 뜻하디 않게 별로 흥미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 소란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광좌는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낭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대형이 한 걸음 앞서 가시오.소제는 곧 뒤를 따르겠소.]

[좋소, 그러면 빨리 오시오.]

금륜법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뭐 그렇게 신경을 쓰오? 그들은 이 황량한 산과 들에서 18 일동안 누워있고 싶어하는 데.......]

대청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천척이 18 일뒤에 독이 발작한다는 말을 들어 모두 알고 있었다.마광좌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발끈내며 법왕의 옷자락을 단숨에 움켜지고 욕을 했다.

[야. 이 못된 중대가리야! 너는 심장에 못된 독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양형과 함께 골짜기에 들어 왔는 데 너는 그를 도와 주지 않는 거도 옳지 않거늘 계속 차가운 말만 쏟아 대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법왕은 가볍게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이손 놓지 못하겠느냐?]

마광좌는 노하여 말했다.

[안 놓겠다면 어떻게 할 테냐?]

법왕은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마광좌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 마광좌가 말했다.

[좋다 해보겠다는 거냐?]

마광좌는 부들 부채 처럼 큰 손을 들어 그의 주먹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법왕의 이 주먹은 허초였다. 왼손을 급히 뻗어 그의 등에 대고 강한 힘과 부드러운 힘을 동시에 내자 마광좌의 거대한 몸체가 곧장 날아 산언덕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마침 산언덕에는 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또한 단단한 몸에 살이 많이 쩌서 이렇게 떨어지고도 중상은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는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와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올라

오기 시작했다.
양과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마광좌가 분명히 호되게 당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급히 가 도와 주려고 했지만 세 걸음도 채 못가서 마광좌는 이미 다시 한번 떼굴 굴 굴러떨어졌다. 마광좌는 비록 아둔한 사람이었지만 맞서서 싸우다가는 분명히 화상을 이겨 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중얼거리며 소리쳤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이 못된 중대가리한테 부러졌다.]
금륜법왕은 몽고의 왕자 쿠빌라이의 초빙을 받아 몽고 제일의 국사(國師)의 봉함을 받았지만 소상자와 니마성은 줄곧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그가 이토록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서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나누었다. 소상자가 말했다.
[대사의 무공은 과연 훌륭하군요. 몽고 제일의 국사의 봉호가 부끄럽지 않군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법왕이 말하면서 안색을 살피니 니,소 두 사람은 즉시 대들 태세였고 양과와 소용녀도 한쪽 옆에서 뛰어들 기세였는데 윤극서의 심중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무공이 높고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만약 이 다섯 고수가 연합하여 공격한다면 막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몸을 빼낼 계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마광좌가 중얼거리며 천천히 그의 등뒤로 걸어와서 갑자기 주먹을 들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법왕의 뒤통수를 정통으로 때렸다. 법왕의 무공으로는 마광좌가 아무리 기습을 해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지금 그가 온 정신을 양과, 소상자 등의 다섯 사람에게 집중하고 마광좌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자 않고 있었기에 그의 커다란 주먹에 한번 얻어맞자 마치 쇠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눈앞에 별리 오락가락했다. 그는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팔꿈치를 돌려 치자 마광좌는 팔꿈치 끝에 가슴을 맞아 크게 소리르 지르면서 앞으로 풀썩 스러졌다. 법왕이 두 다리를 살짝 구부리자 마광좌의 거대한 몸

집이 마침 그의 어깨에 걸쳐졌다. 법왕은 곧장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큰소리로 떠들어 댔다. 양과가 제일 먼저 뒤쫓아 내려갔다. 법왕은 어깨에 비록 300근 가까이 나가는 거인을 지고 있었지만 나는 듯이 달리고 있었다. 양과, 소용녀, 니마성 등은 모두가 일등의 경공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미 그에게 한 발 뒤처지자 수십 장안에 쉽사리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발에 속력을 더하여 점차로 가까이 접근했다. 법왕은 갑자기 멈춰 서서 고개를 돌리더니 흉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다, 너희들 함께 덤비겠느냐, 아니면 하나씩 싸우겠느냐?]
말을 하고 나서 마광좌를 거꾸로 들어 그의 머리를 산언덕 근처에 있는 바위에 내동댕이치려는 태세를 취했다.
양과는 그의 뒤를 돌아가서 먼저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당신이 만약 그의 목숨을 해치면 우리는 한꺼번에 공격할것이다.]
법왕은 하하, 하고 한번 웃더니 마광좌를 땅에 내던지고 말했다.
[이런 바보 멍청이를 구해서 어쩌자는 거냐!]
하며 두 손을 뻗어 장삼자락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왼손에는 흰빛이 오른손에는 노란빛이 번쩍이는 것이, 이미 은륜과 동륜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다. 은륜과 동륜을 부딪치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온 산골짜기에 퍼져 나갔다. 법왕이 거만하게 말했다.
[어느 분이 먼저 나설 테냐?]
윤극서가 히히 웃으며 말했다.
[각자 무학을 연마하시는데 이 장사꾼은 옆에서 구경이나 해야죠.]
법왕은 생각했다.
(이자가 도와 주지 않는다면 강적이 하나 줄어드는 셈이군.)
소상자는 다른 사람이 한차례 싸워서 그의 힘을 다 소모하게 한 뒤에 그 틈을 타 승리를 하혀고 생각했다.
[니형, 당신의 무공이 소제보다 강하니 먼저 나서시지요!]
니마성은 소상자의 말을 듣고 이미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무학을 수련하여 천축(天竺)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

직 적수를 만나지 못했던 터였다. 그리하여 금륜법왕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참하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즉시 산언덕의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서 소리쳤다.

[좋소, 내 한번 당신의 둥근 바퀴 두개를 시험해 보겠소.]

큰 바위를 들어 법왕의 가슴을 향해 내던졌다. 이 큰 바위는 아무리 적게 보아도 300여 근은 족히 될 듯 싶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큰 바위를 들어 공격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금륜법왕도 이 난장이가 이토록 신통한 힘을 타고나 바위를 들어 내려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당장 맞받을 수가 없어서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오른손의 동륜으로 그의 등을 공격했다. 니마성은 커다란 바위를 든 채 손을 돌려 막았다. 동륜과 커다란 바위가 서로 맞부딪치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대앵, 하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흔들었다. 법왕은 왼쪽 팔까지 시큰거려 오자 생각했다.

(이 왜흑탄(矮黑炭)의 무공은 극히 괴이하여실로 대적하기가 힘들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어도 이 큰 바위를 들고 있으니 얼마 못견디겠지.)

법왕은 은륜과 동륜을 춤추듯 두 바퀴를 돌리며 날려 니마성의 몸을 맴돌게 했다.

양과는 마광좌를 구해 일으키고 소용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움을 지켜보았다. 니마성은 힘이 뛰어나고 무공이 특이한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이 다시 얼마간 싸웠지만 니마성의 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아파성(阿婆星)!]

돌연 니마성의 대갈일성과 함께 바위를 쳐들어 법왕에게 집어던졌다.

그의 이 일척(擲)의 무공은 바로 천축 석씨(釋氏) 일문의 무시무시한 무공으로 <석가척상공(釋迦擲象功)>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불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져 내려온다.

<석가모니가 태자가 되었을 때, 하루는 성을 나갔는데 큰 코끼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태자가 코끼리 발을 들어 공중으로 던졌는데 사흘이 지나 코끼리가 다시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져서는 깊은 웅덩이가 패였는데, 그

것을 척상구(擲象溝)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우언(寓言)으로 불벌의 불가사의함을 형용한 것이다. 후세에 천축에서 한 무학지사가 일문의 외공을 연마하여 이루었는데, 거대한 힘으로 물건을 집어던질 수 있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때 니마성이 이 신공을 움직여 바위를 던지자 바위가 공중에서 급속도로 회전하면서 한 줄기 매서운 바람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법왕에게 날아갔다.

금륜법왕의 무공이 비록 강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체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 서둘러 뛰어 피했다. 니마성의 몸이 돌연 날아올라 바위를 좇아가 쌍장을 쳐내자 바위는 방향을 바꾸어 다시 법왕을 좇아갔다.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다시 던지자 첫번째의 여세에 두번째의 힘이 더해져 그 힘이 더욱 강해졌다.

무공의 조예로 따지자면 법왕이 사실 니마성의 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석가척상공은 그가 이제껏 보지 못한 것이어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라 큰 바위가 방향을 바꾸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재빨리 뛰어 피할 수 밖에 없엇다. 니마성은 승세를 타서 계속 추격했다. 커다란 바위는 갈수록 힘이 더하여 더욱 사나와졌다. 법왕은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는다면 이 난장이의 손에 패하고 말 것이니 계책을 바꿔야겠다. 마침 그가 먼저 도전을 했으니 내가 독수를 써서 재빨리 그를 죽이면 다시 대들지 못하겠지. 양과와 소용녀는 몸에 독이 있으니 그 옥녀소심검법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때 갑자기 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펴져 우뢰가 치는 듯 하더니 깃발을 펄럭이며 한떼의 인마가 나타났다. 법왕과 니마성은 한창 악전고투를 벌이는 중이라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양과 등이 돌아보니 사람은 강하고 말은 장대하며 긴 칼과 강한 노궁(弩弓)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한 대(隊)의 몽고 기병이었다. 수십 장 밖까지 와서 앞에서 병사를 이끌던 군관이 손을 들자 전 대(隊)가 고삐를 잡고 멈췄다.

깃발 아래 한 사람이 말을 멈추고 잠시 싸움을 지켜 보다가 말을 재촉하여 앞으로 달리며 외쳤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 사람은 빛나는 머리에 황포(黃抱)를 입고 손에는 철궁을 들고 있었다. 바로 몽고 왕자 쿠빌라이였다.

니마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위로부터 쌍장으로 나란히 밀자 거대한 바위가 쿠당탕탕 선언덕으로 굴러가며 모래와 돌덩이를 나려 그 위세가 실로 무시무시했다.

쿠빌라이는 잽싸게 말에서 내려 왼손으로 법왕을 이끌고 오른손으로 니마성을 이끌며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보니 두 분께선 이곳에서 무공을 연마하고 계셨군요.]

그가 어찌 두 사람이 정말로 싸우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는가! 그러나 쌍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볍게 한마디 한 것이었다. 법왕이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이분 니형의 무학은 실로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렀소, 정말 훌륭하오, 훌륭해!]

니마성은 괴이한 눈초리로 법와을 한번 쏘아보고 말했다.

[어찌 몽고 제일의 국사가 나 따위를 당해 내지 못한단 말이오? 원래..... 흐흠!]

법왕은 발끈 화를 내며 생각했다.

(설마 내가 정람로 너를 당해 내지 못할 것 같으냐?)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쿠빌라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곳의 풍물이 정말로 아름다우니 어찌 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애들아, 술을 가져오너라! 자, 우리 신나게 한잔 마셔 봅시다.]

몽고인은 원래 광야에서 자라서 천지를 모두 집으로 삼고 황량한 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집 안에서와 다름이 없었다. 즉시 시종들이 독한 술과 마른 포를 가져다 땅에 늘어놓았다.

쿠빌라이는 소용녀의 두 눈을 쳐다보고는 마음속으로 저으기 놀랐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도 있단 말인가!)

그녀와 양과가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아주 가까운 사이 같아서

양과에게 물었다.
[이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양과가 말했다.
[이분은 용아가씨입니다. 소인에게 무공을 가르쳐주신 사부이며, 소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는 절정곡에서 한차례 생사의 위험을 겪고 나자, 온천하의 창생을 얽어매는 예법과 습속 따위는 털끝만큼도 안중에 두지 않게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 양과는 사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리라고 생각했다.
몽고 사람들은 무슨 존사중도(尊師重道)니 남녀대방(男女大防)이니 하는 등등의 예법은 본래 한인(漢人)처럼 꼬치꼬치 따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양과의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이 소녀가 그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공경의 뜻이 우러나 웃으며 말했다.
[과연 남자는 재주가 있고 여자는 미모가 뛰어나니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한쌍이군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자 모두를 한잔 비워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립시다.]
하고 말한 뒤,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 버렸다. 법왕도 미소를 흘리며 잔을 들어 비웠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술을 마시는데 마광좌는 계속해서 세 잔이나 비웠다.
소용녀는 몽고 사람들에 대하여 본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없었는데, 방금 쿠빌라이가 자기와 양과가 좋은 짝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반 잔의 술을 마시니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났다.
(한인들은 모두 나와 과거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 몽고 왕야는 연방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몽고 사람들의 식견이 훨씬 넓구나.)
쿠빌라이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께서 사흘 동안 돌아오시지 않아 소왕은 마침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양양(襄陽)의 군무가 급박하여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소왕이 이

미 대영(大營)에 전달을 해 놓았으니 여러분께서는 양양군 앞에 가셔거 시범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마침 만났으니 크게 회포를 푸시지요.]

법왕이 말했다.

[왕야께 묻겠습니다만, 아군이 양양을 공격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쿠빌라이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양양을 지키는 장군 여문덕(呂文德)은 본래 위인이 못 됩니다. 소왕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곽정 한 사람 뿐입니다.]

양과는 마음이 섬 하여 물었다.

[곽정이 분명히 양양에 있습니까?]

쿠빌라이가 말했다.

[곽정으로 말하자면 소왕의 웃어른으로 총각 시절에 선왕과 팔배(八拜)의 교분이 있었고 저의 조부 징기스칸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일의 장수였습니다 이 자는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추어 군대를 거느리고 서역을 원정하여 뛰어난 계책을 여러 번 내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선왕께서 일찌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조(南朝)는 임금이 어리석고 신하는 간사하며, 장군은 겁 많고 병사는 약하니 사람 수는 비록 많으나 우리 몽고의 정병을 당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곽정을 만나면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왕께서는 과연 선견지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양양성 밖에 주둔하여 오랫동안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곽정이 중간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 곽가는 소인의 부친을 죽인 원한이 있습니다. 소인에게 그를 찔러 죽이라는 명을 내려 주십시오.]

쿠빌라이는 기뻐하며 말했다.

[소왕이 여러 영웅호한을 초빙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이 곽정의 무공은 아마도 중원의 한인

중에 제일이고, 또한 적지않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무사들이 그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소왕이 여러번이나 용사를 보내어 찔러 죽이도록 했지만, 한결같이 실수를 하여 사로 잡히거나 죽어서 하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양형제가 비록 무공이 뛰어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소왕은 여러 영웅께서 일제히 양양에 들어가 힘을 합해 싸울 것을 청합니다. 곽정만 제거한다면 양양을 함락하는 것은 손바닥에 침 뱉는 일보다 쉬울 것이오.]

법왕, 소상자 등은 일제히 일어나 손을 모으고 말했다.

[왕야의 명을 받들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어느분이 곽정을 죽이든 간에 함께 가신 분은 모두 큰 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찔러서 죽인 사람을 소왕은 대한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분에게는 공후세작(公侯世爵)을 내려 주고 대몽고국 제일 용사 칭호를 드릴 것입니다.]

소상자, 니마성 등은 공후세작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대몽고국 제일 용사의 칭호를 얻게 된다면 이름을 천하에 드날리는 것이니 모두들 실로 평생토록 원하던 바였다. 몽고는 지금 병사의 위세가 사방으로 펼쳐져서 땅의 넓이는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광활했다. 서역으로는 수만리를 뻗어있고 중국도 또한 3분의 2를 차지하여 제국의 중심으로 부터 사방 국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빠른 말이라도 1년능 달려야 도달할 수 있으니 만약 제일 용사의 칭호를 얻게 되면 온 천하의 영웅호걸들이 저절로 흠모하고 우러러볼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분기충천했다 금륜법왕 조차도 눈에서 이상한 빛을 발했다.

양과는 처량하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소용녀는 깊은 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 보다가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공후세작이고 천하 제일 용사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오직 너만 무사히 살아나길 바랄 뿐이야.)

사람들은 다시 몇 잔을 마시고 일어섰다. 몽고 무사가 말을 끌고 오자 양과, 소용녀, 금륜법왕 등은 일제히 말에 올라 쿠빌라이의 뒤를 따라서 질풍

같이 남으로 달려 양양을 향하여 갔다.

가는 길에 길가의 가가호호는 열에 아홉은 텅 비어 있었으며 땅에는 시체와 뼈가 즐비했다. 몽고병은 한인만 보면 마음대로 학살을 자행했다. 양과는 이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나서서 막으려고 했지만 쿠빌라이의 면목이 장애가 되어 생각했다.

(몽고병이 이토록 잔인하여 우리 한인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니 내가 곽정, 황용을 죽인 뒤에 반드시 몽고에서 가장 악랄한 자를 몇놈 쳐 죽여 이 분함을 씻으리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양양 교외에 도착했다. 그때는 양쪽 군대가 공격하고 수비하며 교전을 벌인 것이 이미 한 달이 넘어서 산과 들에는 온통 부러진 창, 갈라진 방패, 피 묻은 뼈다귀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 주고 있었다.

몽고 군중에서는 사대왕(四大王) 쿠빌라이가 친히 임하여 적 앞에 나선다는 보고를 받고 전군의 원수, 대장들이 30리 밖까지 영접을 나왔다. 따르는 군위(軍衛)들의 성난 말들이 날듯 뛰어다니고 철갑이 청렁거려 군대의 위용은 극히 장엄했다. 각 장수들은 멀리 쿠빌라이의 모습이 보이자 일제히 말에서 뛰어내려 길 옆에 엎드렸다.

쿠빌라이는 가까이 다가가자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고는 한참 있다가 흥, 하고 코방귀를 뀌며 말했다.

[양양성을 오랫동안 공격하고도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했으니 이 어찌 우리 대몽고의 위명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겠느냐?]

장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소장은 죽어 마땅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사다왕께서 죄를 다스려 주십시오]

쿠빌라이는 채찍을 내리쳐 말을 탄 채 질풍같이 앞으로 달렸다. 여러 장수들은 오랫동안 감히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저마다 벌벌 떨고 있었다.

양과는 쿠빌라이가 자기와 금륜법와 등에게는 매우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제장을 통솔하는 것이 이토록 엄한 것을 보고 생각했다.

(몽고군은 병사가 강하고 말이 튼튼하며 기율이 엄명하니 대송<大宋>이 어

찌 그 적수가 되겠는가?)

양과는 저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다.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몽고군은 대거 성을 공격하여 화살을 비 오듯 퍼 붓고 돌을 우박 쏟아지듯 날리며 분분히 성 안을 공격했다. 이어서 군사들은 사다리를 놓고 사면팔방에서 성을 올라갔다. 성 안에서는 수비가 엄밀하여 여덟 명의 병사가 함께 커다란 나무 하나씩을 들고 사다리를 밀어냈다 공격과 저항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수백 명의 몽고 병사가 성 위를 공략했다 몽고 군중에서는 환호성이 하늘을 뒤흔들며 하나하나의 백인대(百人隊)가 개미떼처럼 성에 달라붙어 원조했다. 갑자기 성 안에서 막대기 소리가 급히 울리더니 성벽 꼭대기에서 궁수부대가 나타나 화살을 쏘아대어 몽고 원군이 위로 올라가 원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어서 또 송병부대가 나타나 횃불로 사다리를 불태워 사다리에 있던 몽고병이 어지려이 떨어졌다.

성 위와 성 아래에서 환호성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성 꼭대기에서 돌연 용장호한(勇壯好漢)들이 나타나 성벽을 올라간 몽고병을 긴 창과 날카로운 칼로 공격했다. 이 사람들은 송군의 복장을 하지 않고 때로는 검은색의 짧은 옷을, 때로는 청포를 입고서,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대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손놀림이 민첩하여 몸에 무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위로 올라가 공격한 장병은 모두가 군중의 용감한 병사들로, 이제까지 무적의 병사들이었는데 이 호한들을 만나 수합을 치고 싸우자 여지없이 죽거나 패하여 성 위에 세로 쓰러지거나 성벽 아래로 떨어져 뼈가 부러졌다. 송군 중에 한 중년의 호한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난히 사나와 적수공권(赤手空拳)을 써서 종횡으로 움직이며, 송군이 위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 몸을 날려 포위를 풀고 장풍이 이르는 곳에 몽고 병장들이 쓰러지는데, 호랑이가 양떼를 몰아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쿠빌라이가 성 아래에서 친히 독전하다가 이 호한이 이토록 영웅다웁고 용감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며 말했다.

[천하의 용사 중에 어느 누가 이 자에게 미칠 수 있을까?]

양과는 그의 옆에 서 있다가 물었다.

[왕야는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쿠빌라이는 깜짝 놀라 말했다.

[곽정이 아니고 누구겠소?]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 성 위에 있던 수백 명의 몽고병은 이미 모두 죽임을 당하여 몇 명 남지 않았다. 오직 가장 용맹하고 사나운 세명의 백부장(百夫長)만이 손에 창과 방패를 들고 성곽의 모퉁이에 의지하여 싸우고 있었다. 성 아래의 만부장(萬夫長)이 호각을 불어 다시 대대를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여 성 위에 세 명의 백부장과 호응하려고 했다.

곽정은 길게 휘파람을 불며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한 명의 백부장이 창을 들어 찌르자 곽정은 창끝을 잡아 앞으로 보내며, 이어서 왼발을 날려 다른 한 명의 백부장을 방패로 찼다. 두 명의 백부장이 비록 용감했지만 어떻게 이 두 차례의 신력을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즉시 성 위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근육이 잘리고 뼈가 부러져 죽었다.

세번째 백부장은 나이가 이미 많고 머리카락은 회백색이었는데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듦을 스스로 알고 장도를 휘두르며 위 아래로 공격하여 마치 성난 호랑이 같았다. 곽정이 왼팔을 번개같이 뻗어 칼을 쥐고 있는 그의 팔뚝을 잡고 우장을 내려치려고 하다가 문득 깜짝 놀랐다. 그 백부장도 임 곽정의 얼굴을 알아보고 외쳤다.

[금도부마(金刀駙馬), 바로 당신이었군요!]

원래 그는 곽정이 당년에 서장을 정벌할 때의 옛 부하로, 황용이 계락을써서 살마이한(撒魔爾罕)을 빼앗을 때, 가장 먼저 성으로 날아 들어간 용사 중의 하나였다.

곽정은 옛정을 떠올리며 외쳤다.

[음, 너는 악이다(鄂爾多)로구나.]

그 백부장은 곽정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가득 괸 채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소인이 악이다입니다.]

[좋다. 옛날의 정분을 생각하여 오늘은 너의 목숨을 살려 주마. 다음에 다시 나에게 사로잡히면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곽정은 고개를 돌려 좌우의 병졸들에게 말했다.

[줄을 가져다가 이 사람을 묶어서 내려보내라!]

두명의 건장한 병졸이 길다란 줄을 하나 가져와 악이다의 허리를 묶어서 그를 성 아래로 내려보냈다.

악이다는 몽고 군중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유명한 용사였는데 돌연 성 위에서 송군에게 줄에 묶여 내려오자 성 아래의 몽고 병장은 모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제히 뒤로 수십장을 물러나고 성 위에서도 화살이 멈추어 양군은 잠시 싸움을 중단하게 되었다. 악이다는 성 아래에 닿자 곽정을 향하여 땅에 엎드리고는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도부마께서 이곳에 계시니 소인은 만 번을 죽어도 감히 다시는 면전에 나서지 안겠습니다.]

곽정은 성 위에 서서 위풍도 늠름하게 호통을 쳤다.

[몽고의 주수(主帥)는 들어라. 대송과 몽고는 예전에 한 마음으로 맹약을 맺어 힘을 합해 금을 멸망시켰는데 너희들 몽고는 어찌하여 우리 경계를 침범하고 우리 백성을 해치느냐? 대송의 백성은 너희들 보다 열 배가 많으니 만약 서둘러 군사를 물러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 대송의 의병이 사방에서 모여 너희들 10여만 몽고 군사들을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이 몇 마디 말은 몽고어로 기백이 흘러 넘쳐 한 자 한 구가 똑똑하게 성 아래까지 전해 다. 성벽이 매우 높고 양군의 거리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몇 마디 말은 수만 몽고 장병들에게 똑똑하게 들려 그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서로 쳐다보며 얼굴의 핏기를 잃었다.

한 명의 만부장이 악이다를 이끌고 쿠빌라이 앞으로 와서 연우를 보고했다 악이다는 당년에 곽정을 따라 서장을 정벌할 때 금도부마가 어떻게 귀신같이 용병을 하고, 어떻게 적을 이겼는가를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쿠빌라이는 잠시 수심에 잠기더니 소리쳤다.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악이다가 소리쳤다.
[억울하옵니다!]
그 만부장이 말했다.
[사대왕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 악이다는 옛날부터 전공이 있으니....]
쿠빌라이가 손을 휘두르자 네 명의 위사(衛士)가 이미 악이다를 끌고 나가 목을 베어 와서 바쳤다. 두려워 떨지 않는 장수들이 없었다.
쿠빌라이는 만부장에게 말했다.
[악이다는 작전중에 죽은 것이니 위무하는 에서 그의 처자에게 황금 천근, 노예 30 명, 가축 300 마리를 상으로 주어라.]
만부장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지만 대답만 할 뿐이었다.
[이예, 이예!]
쿠빌라이가 말했다.
[내가 이미 이자를 죽이고도 오히려 그의 가족에게 상을 주니 너희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렸다?]
모든 장수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청컨대 사대왕께서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쿠빌라이는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백부장은 곽정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고 곽정의 무서움을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군심을 동요시켰으니 마땅히 참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용맹스럽게 먼저 올라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힘껏 싸웠으니 어찌 상을 주지 않을수 있겠느냐?]
장수들은 모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몽고병의 군심이 이미 꺾이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오늘 즉시 다시 힘을 모아 성을 공격한다 해도 헛되이 피해만 입을 뿐이어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성 아래에 수천의 몽고군 시체가 쌓여 있었고, 모두가 백전을 경험한 정예 무사들이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양양의 성벽이 견고하고 수비가 엄밀하여 실로 한치의 틈도 없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토해 내고 즉시 명령을 전하여 군사를 40 리나 후퇴시켰다.

좌우 두명의 위사가 서로 한번 바라보더니 똑같이 말했다.

[소인 사대왕과 근심을 나누고자, 남만의 예기를 한번 꺽어 보이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 몸을 날려 말을 올라타고 성 아래까지 달려 철궁을 당기어 두개의 낭아조령(狼牙雕翎)을 곽정을 향해 쏘았다.

이 두사람은 기마술이 뛰어나고 활 솜씨도 정확하여 그야말로 말은 바람같이 달리고 화살은 번개같이 날았다. 성 위와 성 아래에서 막 고함이 터지는가 했더니날던 화살은 이미 곽정의 가슴과 배에 이르렀다.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곽정이 두 손을 안으로 나꿔채자 두 손에는 이미가가 우전(羽箭) 하니씩을 쥐고서 손을 들어 휘둘러서 아래로 던졌다. 두명의 아직 채 말을 돌리기도 전에 돌연 화살이 이르러 가슴을 뚫고 지나가 두사람은 말에서 고꾸라졌다. 성 위의 송군은 우뢰와 같이 갈채를 보내며 전고(戰鼓)를 쳐서 위세를 더욱 뽐내었다.

쿠빌라이는 매우 기분이 상해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후퇴했다. 대군이 몇리를 행군하자 양과가 말했다.

[왕야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이 길로 성에 들어가 곽정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쿠빌라이는 손을흔들며

[그 곽정은 지혜와 용기를 두루 겸비했다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소. 오늘 한번 보고 나서 더욱 이 일의 어려움을 느꼈다오.]

[소인은 곽정의 집에서 몇년을 묶은 적이 있고 또한 그를 위하여 힘을 쓴적이 있으므로 그는 결코 저에 대하여 방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속담에, 정면에서 대드는 창은 피하기 쉬워도 몰래 쏘는 화살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방금 성을 공격할 때 양형제는 내 옆에 서 있었으니 그가 성 위에서 이미 보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소?]

[소인은 이미 이 일에 대비를 했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 용아가씨와 함께 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가죽옷으로 목을 둘렀으니, 그는 결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왕 뜻이 그렇다면 당신이 큰 공을 세우기 바랍니다. 상을 주겠다는 약속은 결코 식언이 아님을 밝혀 두오.]

양과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소용녀와 함께 나가려고 하다가 금륜법왕, 소상자, 윤극서 등의 얼굴에 모두 이상한 빛을 도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자들은 지금 내가 가서 곽정을 죽여 몽고 제일 용사의 봉호를 받을까봐 분명히 중간에서 방해를 하여 내가 대공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양과가 쿠빌라이에게 말했다.

[왕야, 소인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인이 가서 곽정을 죽이려는 것은 저 개인의 원한을 갚고, 그의 목을 가지고 가서 목숨을 건질 단약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야께 도움이 되어 대사를 이룰 수 있게 했을지라도 몽고 제일 용사의 봉호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소인의 무공이 여기 계신 여러 분들에게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제일 용사라고 하겠습니까? 왕야께서 이 일을 윤허하셔야만 소인은 감히 움직이겠습니다.]

쿠빌라이는 그의 말이 간절한 것을 보니 분명히 본심인 것 같고, 또한 다른 사람의 표정을 펴본 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사람은 각자 뜻이 있는 것이니 나도 더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법왕 등은 쿠빌라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과연 기뻐하는 기색을 나타냈다.

양과는 말머리를 돌려 소용녀와 함께 나란히 양양으로 달려갔다. 도중에 모자와 가죽옷을 버리고 한인 복장으로 다시 꾸몄다. 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성 위에는 일개 대대의 병졸이 손에 횃불을 들고 왔다갔다하며 순시를 하고 있었다. 양과는 크게 소리쳤다.

[저는 성이 양이요, 이름은 과입니다. 곽대야를 특별히 뵈러 왔습니다.]

성위의 수장들이 양과의 소리를 듣고 내려다보니 그는 한 명의 여자만을 데리고 있어서 즉시 곽정에게 보고 다.

얼마 되지 않아 두 청년이 성 위로 달려와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한 사람이 외쳤다.

[이제 보니 양대형이었군요. 두분만 오셨소?]

양과는 무씨 형제를 보고 생각했다.

(곽정이 나의 부친을 해칠 때 무씨 형제의 부친도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았을까?)

[무대현, 무이형! 곽백부는 성안에 계신가요?]

무수문이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곧 병졸에게 명하여 성문을 열고 조교(窕橋)를 내리게 하여 양과와 소용녀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무씨 형제는 두 사람을 이끌고 어느 커다란 집 앞으로 갔다. 곽정은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무에서 나와 소용녀에게 읍하여 예를 표한 뒤, 양과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과아야, 정말 잘 왔다. 오랑캐가 한창 급하게 성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오니, 마치 팔 하나를 더 얻은 듯하구나. 이는 정말로 온 성안 백성들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소용녀는 양과의 사부이기 때문에 곽정은 그녀에게 보통 동년배의 예로써 공경을 표시하여 겸 게 집으로 들어가도록 권했지만, 양과에게 매우 친숙하게 대했다.

양과는 왼손이 그에게 잡히자 이자가 바로 부친을 죽인 대원수 인데 뻔뻔스럽게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여 너무도 한스러운 나머지 검을 뽑아 즉시 그를 찔러 죽이고 싶었지만 그의 무공이 두려워 감히 섣불리 손을 쓰지를 못하고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며 말했다.

[곽백부 안녕하셨어요?]

그는 분함과 원망이 넘쳐 끝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았다. 곽

정은 활달대도하여 이런 자잘한 예절 따위에는 괘념치 않았다.

대청에 이르러 양과는 안으로 들어가 황용에게 인사를 하려 했다. 곽정이 웃으며 말했다.

[곽백모는 이제 분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 며칠 몸이 불편하니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하자.]

양과는 속으로 기뻤다.

(황용은 지계가 뛰어나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탄로날까 봐 걱정했는데 몸이 불편하다니 정말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중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여대수(呂大帥)께서 곽대야께 연회에 참석하셔서 오늘의 대승을 축하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곽정이 말했다.

[돌아가서 대수께 연회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라. 나는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시어 나갈 수가 없구나.]

중군은 양과가 나이도 어리고 별로 특이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곽정을 공을 경축하는 원수의 잔치도 물리치면서 이 소년을 접대하려고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가 여문덕(呂文德)에게 보고했다.

곽정은 내당에 조촐한 주안상을 차려 놓고 소용녀와 양과를 접대하며 주자류(朱子柳), 노유각(魯有脚), 무씨형제, 곽부 등을 함께 하게 했다. 주자류는 양과가 곽도(廓都)에게서 해약을 빼앗아 그의 몸의 독을 치료해 준 일에 대해 계속 감사를 표시했다. 양과는 담담하게 웃고는 몇 마디 겸손의 말을 했다.

곽부는 그를 보고도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양오빠!]

곽정이 꾸짖었다.

[부야, 지난번에 네가 금륜법왕에게 사로잡혔을 때 만약 양오빠가 목숨을 걸고 구해 주지 않았다면 네가 위험한 함정에 빠졌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의 엄마까지도 큰일이 날뻔하지 않았느냐! 어찌 양오빠에게 감사를 표시

하지 않는 거냐?]
 곽부가 몸을 일으켜 말했다.
 [양오빠가 이전에 저희를 구해주신 것은 정말로 고마와요.]
 양과가 말했다.
 [할일을 했을 뿐인데, 고맙기는!]
 곽부는 더이상 말을 받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술자리에서도 그녀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며 불만이 가득한 듯했으며, 무씨 형제도 줄곧 그의 눈빛을 피했다. 노유각과 주자류는 도리어 신이 나서 오랑캐를 크게 이긴 일에 대하여 계속 기염을 토했다.
 주연이 끝났을 는 이미 초경이었다. 곽정은 딸에게 소용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함께 자도록 하고, 자기는 양과를 데리고 같은 침상에서 잤다. 소용녀는 안으로 들어갈 양과를 한번 쳐다보며 조심해야 한다는 눈짓을 보냈는데, 그 표정에 담긴 깊고 깊은 정이 끝이 없었다. 양과는 심사가 탄로날까 봐 고개를 돌리고 감히 그녀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다.
 곽정은 양과의 손을 이끌고 함께 자기의 침실로 가서 그가 금륜 법왕과 힘써 대적하여 주루와 난석진에서 황용, 곽부와 무씨 형제를 구출한 것을 칭찬하고, 이어서 그 동안의 생활을 물었다. 양과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을까 봐 정영, 육무쌍, 멍청이 아가씨, 황약사 등을 만난 일에 대해서는 일체 꺼내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했다.
 [조카는 부상을 당한 뒤 와딴 골짜기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나중에 사부를 만나서...... 함께 이렇게 백부를 찾아 왔습니다.]
 곽정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면서 말했다.
 [과야, 눈앞에 강한 오랑캐가 국경을 억눌러 대송 천하는 실로 바위 밑에 깔린 계란과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단다. 양양은 대송 강산의 병풍과 같은 곳이어서 만약 이곳을 잃게 되면 대송의 천만 백성들은 모두 몽고의 노예가 될 판이다. 몽고인이 잔혹하게 이족을 죽이는 참상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정말로 피가 끓어 오르더구나.]
 양과는 곽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중의 몽고병들이 자행한 모든 무섭고

한스럽고 잔혹한 행위를 떠올리고는 저도 모르게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곽정이 다시 말했다.

[우리가 무학을 연마하여 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협의(俠義)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곤궁에서 구제하는 그것이 바로 본분이 아니겠느냐! 강호에서 나를 한결같이 <곽대협>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은 사실 내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이 한 몸 돌보지 않고 양양의 수호를 돕는 것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재주와 힘에 한계가 있어 백성을 위하여 곤경을 풀어주지 못하니 실로 <대협>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너는 총명함과 지혜가 나보다 열배는 뛰어나니 장차 나보다 더 뛰어난 성취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나는 오직 제가 머릿속에 <위국위민(爲國爲民), 협지대자(俠之大者)>라는 여덟 글자를 늘 기억하여 이후에 명성을 천하에 드날리고 만민의 경앙을 받는 진정한 대협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은 매우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양과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다. 곽정의 표정이 장엄한 것을 보고 비록 그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모리게 엄숙한 공경심이 일어나 대답했다.

[곽백부,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반드시 오늘밤의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곽정은 그가 오늘밤 자기를 찔러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래, 이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다. 나라가 만약 망하면 너의 곽백부도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렵다. 듣자 하니 쿠빌라이는 용병에 뛰어나다고 하니, 오늘은 비록 퇴군했지만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며칠 중에는 반드시 한바탕 대살육이 벌어질 거야.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버틸 것이다. ......자, 시각이 너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자자.]

[예.]

양과는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어 절정곡에서 가지고 온 비수를 살이 닿는 곳에 숨기고는 생각했다.

(네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불 속에서 한 칼에 찌른다면 너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피할 수가 있으랴!)

곽정은 며칠 동안 악전을 벌이느라 심력을 크게 소모하여 베개를 베자마자 곧 깊이 잠들었다. 양과는 심사가 온통 뒤엉켜 있었으니 어찌 쉽게 잠이 오겠는가! 그가 침상에 누워서 곽정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니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뿜는 숨소리의 간격이 극히 멀어 은근히 그의 내공의 심후함에 탄복했다. 한참이 지나자 사방은 온통 침묵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수군의 나팔소리만이 은은히 울려퍼졌다. 양과는 살며시 일어나 앉아 옷 속에서 비수를 꺼내며 생각했다.

(내가 이자를 찔러 죽인 뒤에 다시 가서 황용을 찔러 죽여야 한다. 그녀가 해산을 하려는 임심부라지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대사가 일단 이루어 지면 아가씨와 함께 절정곡으로 달려가 그 반 조각의 단약을 가질 수 있다. 이 뒤에 나는 그녀와 고묘에 숨어 살면서 인간의 복을 모두 누릴 것이니 이놈의 천하가 대송이건 몽고이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매우 만족한 듯 득의양양한데 갑자기 이웃에서 한 아기가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어머니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아기는 점차 울음을 멈추었다. 양과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며칠 전 길에서 보았던 어린아이 생각이 갑자기 났다. 한 몽고 무사가 긴 창으로 어린아이의 뱃가죽을 벗긴 뒤, 공중에 높이 들어 장난을 치는데 그 어린아이는 아직 죽지 않아 처참하게 울부짖는 모습이었다.

(내가 이 순간 곽정을 죽이는 것은 손을 들듯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가 일단 죽으면 양양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 성안에 있는 천 명 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몽고 병졸의 잔혹한 학살의 노리개가 될 것이 틀림없다. 나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수한 백성의 목숨을 해치게 한다면 이 어찌 크나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양과는 다시 생각을 돌려 보았다.

(내가 만약 이자를 죽이지 않으면 구천척이 어찌 그 반 조각의 절정단을 내게 내 줄 것인가. 만약 내가 죽으면 아가씨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소용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돌렸다.

(그만둬라, 그만둬, 양양성의 백성이고 뭐고, 대송의 강산이고 뭐고. 내가 고통 받을때 아가씨 이외에 어느 누가 진심으로 나를 아껴 주었던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단 말인가!)

즉시 비수를 치켜들고 오른쪽 팔에 있는 힘을 다 넣어 비수의 끝을 곽정의 가슴에 겨누었다.

방안의 촛불은 이미 꺼졌지만 양과는 어두운 중에도 어렴풋이 사물을 볼 수 있었다. 비수를 내려 찌르려고 하는 순간 곽정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안색은 그럴 수 없이 자애롭고 온화하며 편안한 것이 아주 달콤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자기가 소년 시절에 곽정이 이모저모로 자기를 아끼고 보호해 주던 정이 뭉클 마음 속에서 솟아올랐다. 도화도에서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어떻게 천 리 먼 곳의 종남산에 까지 자기를 보내어 무예를 배우도록 했으며, 어떻게 외동딸을 자기에게 짝해 주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곽백부는 일생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시어 실로 충후(忠厚)한 어른이신데 그 사람됨으로 보아서는 나의 부친을 해칠 리가 없다. 혹시 멍청이 아가씨가 정신이 맑지 않아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이제 단칼에 내려쳐서 만약 좋은 사람을 잘못 죽였다면 만 번을 죽어도 속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이 일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그래서 양과는 천천히 비수를 거둬들이고 자기가 곽정 부부를 만난 이래의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황용이 자기에 대하여 때때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여러번이나 그들 부부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다가 자기만 보면 화제를 돌렸던 일을 떠올리고 그들 부부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자기에게 속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음을 알았다.

(곽백모는 나를 제자로 거두어들였는데 왜 나에게는 책 읽는 것만을 가르

치고 무예는 조금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곽백부가 나를 그토록 잘 대해 준 것은그가 내 부친을 해친 죄의식 때문에 나를 더 잘 대해 줌으로써 보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가 정말로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면 또 어찌 나에 대해서 조금도 방비를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은 침상에서 자면서 마음대로 찌를 기회를 허락한단 말인가?)

장막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물결처럼 솟아올라 어지러울 정도였다

곽정은 비록 깊은 잠이 들어 있었지만 그의 호흡이 급박하여 이상함을 느끼고, 잠이 깨어 눈을 뜨고 물었다.

[과야, 어찌 된 일이야? 아직도 잠을 못 이루었느냐?]

양과는 가벼이 떨며 말했다.

[아, 예 예.]

곽정이 웃으며 말했다.

[너 만약 나와 같은 침상에서 자는 것이 싫으면 내가 탁자 위에서 자마.]

양과는 황급히 말했다.

[아니, 아니예요. 신경쓰실 것 없어요.]

[그래? 그럼 어서 자거라.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가장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

잠시 지나자 양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곽백부, 그해 당신이 저를 중양궁에 보내어 무예를 배우도록 하실 때 종남산 기슭에 있는 우두사(牛頭寺)에서 제가 한 마디 여쭤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신은 대로하여 비석을 치면서 전진교의 여러 도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까지 되었는데, 제가 물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곽정은 잠시 회상해 보더니 말했다.

[그래, 그날 네가 내게 물었지. 너의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셨냐고.]

양과는 그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저의 아버지를 죽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남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양과는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좋게 죽지는 않았겠지요?]
곽정이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이 지나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 죽었을 뿐 누가 그를 죽인 것은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임 셈이지.]
양과는 일어나 앉아 격정적으로 말했다.
[절 속이지 마세요! 세상에 어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설사 나의 아버지께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고 해도 죽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곽정은 어쩔 줄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말했다.
[과야, 너의 조부와 나의 부친은 이성골육간이요, 너의 부친과 나도 금란(金蘭)의 결의형제를 맺었다. 너의 부친이 만약 억울하게 죽었다면 내가 어찌 그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않았겠느냐?]
양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하마터면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다.
(당신 자신이 그를 죽였으니 어떻게 원수를 갚는단 말이오?)
그러나 이 말이 나왔다 하면 곽정이 분명 방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찔러 죽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어서 즉시 고개만 끄덕일 뿐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의 아버지의 우여곡절은 너무나 많아서 한 마디로 다 할 수가 없다. 당년에 네가 물었을 때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분명하게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이미 네가 장성해서 시비 흑백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니 모랑캐가 물러나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주마!]
말이 끝나자 곽정은 다시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양과는 평소에 그가 말하는 것이 모두 진실이어서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는 도리어 반신반의하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욕했다.
(양과, 양과, 너는 평소에는 하는 일이 거칠 것 없이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더니 오늘은 어찌 그리 바보처럼 굴었단 말이냐? 설마 내심으로 그의 무공이 무시무시한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가? 오늘밤을 계석 질질 끌다가 좋은 기회를 잃었으니, 내일 만약 황용에게 모든 것이 탄로나면 아가씨까지도 모두 죽어서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소용녀를 생각하자 다시 정신이 바짝 들어 손을 뻗어 품속의 비수를 더듬으니 갈끝이 살에 닿아 피가 끓는 듯했다.

영웅이 갈 길

양과가 막 비수를 뽑으려고 생각할 때 돌연 창 밖에서 누군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눈을 감고서 움직이지 않았다.
곽정은 놀라서 다시 일어나 앉았다.
[용아가씨인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군.]
창밖에서는 다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곽정은 양과가 달콤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우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침대를 내려와서 문을 밀고 방 밖으로 나갔다. 황용이 뜰에서 자기에게 손짓하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오?]
황용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의 손을 잡고는 후원으로 가서 사방을 살펴본 뒤에야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당쉰과 과아의 대화를 창 밖에서 모두 들었어요. 듣자 하니 그가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느끼셔는지요?]
곽정은 겁을 먹었다.
[무슨 좋지 않은 감정을?]
[제가 과아의 말을 들어 보니 그는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해쳤다고 의심

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비록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해도 내가 이미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의 사정을 말해 줘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신, 정말로 털끝만한 숨김도 없이 그에게 다 말해 주셨나요?]
[그의 부친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은 데 대해 나도 속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지. 양강형제가 비록 길을 잘못 들었지만 우리도 그를 잘 타일러서 구해 주려고 하지 않았었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해 줘요? 단지 그가 일찍 죽지 않은 게 한스러울 따름이예요. 그랬더라면 당신의 몇분 사부께서도 도화도에서 그렇게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곽정은 그때의 가슴 아픈 일을 떠올리고는 저절로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주형(朱兄)께서 말씀하시길, 이번에 양과가 양양에 온 것이 그의 표정으로 볼때 그리 심상치 않다고 하며, 당신과 그가 함께 잠자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계속해서 창밑을 지키고 있었지요. 당신은 아무래도 그와 다른 방을 쓰는 게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으니...... 그의 아버지 양강은 나의 어깨를 한번 치고 나서 중독되어 죽었으니까요.]
[당신이 꼭 그를 죽였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
[그러나 이미 우리 둘은 모두가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었고, 결과도 그는 나 때문에 죽은 셈이 되었으니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았든 죽였든 큰 차이가 없게 죠!]
곽정은 잠시 생각에 골똘했다.
[당신 말이 옳아. 내가 아직 그에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지. 여보, 이미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서 쉬도록 해요. 오늘밤만 지내고 내일부터는 군영으로 옮겨 가겠소.]
그는 이미 사람하는 아내의 식견과 지모(智謀)가 자기를 백 배 이상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양과가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그녀의 말은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처럼 말하자 그 뜻에 따랐

다. 그녀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는 천천히 내당을 향해 걸었다.
[과아가 분발해서 무림의 맹주 자리를 탈취하는 것이 국가의 대사(大事)에 어떨지는......? 두 번에 걸쳐서 당신과 부아를 구해 주는 등 자신의 안위(安危)를 생각하지 않는 그의 의협심이 어찌 그의 아버지와 비교가 되겠소?]
황용도 이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아는 원래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예요. 그의 가슴속에는 두 개의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사인(死因)이고 또 하나는 그의 사부와의 애정 문제입니다. 내가 비록 용소저를 설득해서 그에게서 떠나도록 했건만 과아의 집념과 능력이 대단하니 어찌 그녀를   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들 사이를 보건대, 절대 쉽게 헤어질 것 같지 않아요.]
곽정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돌연 말했다.
[여보! 당신은 과아보다 더욱 신통하니 무슨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좋든 싫든 간에 그가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인도해 줍시다.]
[과아의 일만은 나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딸 문제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보! 내 마음속에는 단지 당신만이 있었고, 당신의 마음 속에도 오직 나만이 있었는데, 우리 딸은 전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지 않아 마음속으로 동시에 두 명의 소년 낭군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 무씨 형제는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워 부모로서도 어찌해야 좋을지 참으로 난감해요.]
곽정은 그녀를 방에 들여보내고 침대에 다가가 이불을 덮어 주며, 그녀가 잠을 이룰 때까지도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근 보름 동안 그들 두 사람은 군국(軍國)의 일에 바빠서 부부 사이에 이처럼 평온하고 달콤한 시간을 잠시도 나눌 수가 없었다. 두사람은 서로 말이 없었지만마음속으로는매우행복한기분이들어 서로 손을 잡고 그의 손등으로 가볍게 자기의 뺨을 쓸었다.
[여보, 우리의 두번째 아기는 당신이 이름을 지어 주세요.]
[당신은 내가 못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나를 놀리는구료!]

[여보, 당신은 항상 못났다고 하시는데, 온 천하의 남자들 가운데 당신보다 훌륭한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 몇 마디의 말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간절했다. 곽정은 고개를 숙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만약 사내아이라면 우리는 그놈을 곽파로(郭破虜)라 부르고, 만약 계집애라면? ......잘 생각나지 않는데, 당신이 한번 이름을 지어보구료.]

[구처기 도장께서 당신에게 <정>자를 주어 당신으로 하여금 정강(靖康)의 치욕을 잊지 않게 하셨지요. 지금 금나라가 멸망해서 몽고의 철굽이 이미 변방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이가 양양에서 태어나니 그 아이를 곽양(郭襄)이라 불러서 후일 그 아이가 자기가 이처럼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태어났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어때요?]

[좋지, 그러나 계집애라면 언니같이 말괄량이가 되어서 나이가 먹도록 부모들을 걱정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있다면 그뿐이지요. 그러나......]

하며 황용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남자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가문의 뒤를 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곽정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사내아이건 계집아이건 다 같지 않겠소? 자, 이제 그만 자요. 다른 생각 그만 하고......]

곽정은 이불을 덮어 주고 촛불을 물어 끈 뒤, 몸을 돌려서 방을 나왔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양과는 담콜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멀리서 삼경(三更)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펴지는 것을 들으며 곽정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양과가 몸을 숨기고 그들 부부가 후원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똑똑하게 들었었다. 곽정과 황용이 내당으로 들어간 동안 양과는 왔다갔다하면서 황용의 말만을 되새겼다.

(그가 일찍 죽지 않은게 한스러울 따름이예요...... 나의 어깨를 한번 치고 나서 중독되어 죽었으니...... 우리 둘은 모두가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

었고, 결과도 그는 나 때문에 죽은 셈이 되었으니.)

잠시 후,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들 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 확실하다. 저 황용은 매우 교활해서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오늘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과는 즉시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누워서 곽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곽정은 돌아와서 그의 이불을 덮어 주면서 양과가 가볍게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

(과아는 아주 잘 자고 있구나.)

곽정은 슬그머니 베개를 배고는 그가 잠이 깰까 조심했다. 잠시 후 몽롱하게 잠이 들려 하는데 돌연 양과가 천천히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코고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누구든지 꿈속에서 몸을 뒤척일 때는 반드시 코고는 소리를 멈춘다. 과아의 호흡이 이상한데! 설마 그가 내공을 연습하다가 기가 거슬러 흘렀나? 그렇다면 보통일이 아닌데......!)

그러나 곽정은 결코 양과가 거짓으로 잠을 자는 체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양과는 천천히 다시 몸을 뒤척이며, 곽정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코를 골면서 침대에서 내려왔다. 원래 처음에 그는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서 곽정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와서 만약 곽정이 죽음에 임박해서 반격을 가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움을 두려워해 다시 침대에 앉아서 칼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의 무공이 너무 출중해서 두려운 일이었다. 결국 양과는 침대를 내려와 단번에 곽정의 급소를 찌르고는 즉시 창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자기의 콧소리가 끊어지면 곽정이 이상하게 여길까 봐 한편으로 침대를 내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코고는 소리를 계속해서 냈다.

양과는 품속에서 천천히 비수를 뽑아 오른손에 쥐고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곽정의 침대로 갔다. 팔을 들어올려 힘을 다해서 막 찌르려는 순간 곽정의 말소리가 들렸다.
[과아야, 무슨 악몽을 꾸었느냐?]
양과는 이 뜻 밖의 말에 놀란 나머지 몸을 돌려서 창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는 매우 빨리 달렸으나 즉시 뒤쫓아온 곽정의 손에 잡혔다. 양과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의 무공이 결코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알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곽정은 그를 안고 방으로 되돌아와서 그를 침대에 눕힌 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두 손을 단전(丹田)앞에 늘어뜨려 놓았는데, 바로 현문연기(玄門練氣)의 자세였다.
양과는 이 모습을 보고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다.
(그가 어떤 악독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는지 모르겠구나!)
돌연 소용녀가 생각나서 양과는 심호흡을 하고는 큰소리를 지르려 했다.
(아가씨, 내가 사로잡혀서 생명이 위험해요.)
곽정은 그가 갑자기 기가 빨리 도는 것을 보고는 양과가 내공을 연습하다가 기도(氣道)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했다.
(이처럼 위험할 때는 단지 천천히 기를 삼켰다. 토했다 해야 하는데 이같이 큰소리를 지르려 하면 매우 위험하다.)
곽정은 급히 두 손으로 그의 아랫배를 눌렀다.
양과는 곽정의 심오한 내력으로 단전이 눌리자 아무런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소용녀의 안위가 걱정되어 발버둥 치려고했으나 단전이 눌리는 것으로 전신이 제압당해 조금도 움직일 수 가 없었다.
[과아야, 연공이 너무 급하구나. 너무 서두르면 이룰 수 없으니 지나치게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기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도와 주마.]
양과는 놀라서 그의 이 무엇인지 몰 랐으나 한 줄기 따뜻한 기가 그의 장심으로부터 점차 자기의 단전에 전해 옴을 느끼고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자, 천천히 기를 토해라. 이 온기가 수분(水分)에서 건리(建里)에 이르

고, 거궐(巨闕), 구미(鳩尾)를 거쳐서 옥당(玉堂), 화개(華蓋)에 이른다. 우선 임맥을 통과하고 다른 경맥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 돼!]

양과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내공으로 자기의 맥이 통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창피하구나. 원래 그는 내가 연공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발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나.)

즉시 그는 몰래 내식(內息)을 해서 고의로 사지가 흔들리고 떨리게 해 거의 억제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곽정은 이 모양을 보고는 걱정이 되어 장심의 내력을 강화해 그의 사지에 움직이고 있는 난기(亂氣)를 한곳에 모았다. 양과가 비록 가장하고 있었으나 이때 그의 내력도 이미 얕지 않아 몸 속에서 내식이 발광하자, 곽정도 일시에 바로잡지 못해 반 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양과의 역행하던 기식이 모두 순조로와 졌다.

이러한 소란으로 양과는 이미 기진맥진해졌으며 곽정도 극히 피곤해져서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 누워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원기가 회복되었다.

[과아야, 괜찮으냐? 너의 내력이 그처럼 깊은 줄을 몰랐다. 나도 하마터면 너를 돌볼 수 없을 뻔했다.]

양과는 그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 아낌없이 공력을 사용한 것을 알고는 매우 감동했다.

[곽백부님, 저를 간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카가 어젯밤 사지가 요동쳐서 아주 위험했습니다.]

(어젯밤 소란중에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을 네가 모르니 다행이구나. 그렇지 않다면 네가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으랴!)

그는 양과가 이 일을 알까 두려워서 화제를 바꾸었다.

[이제 나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사성(四城)의 방비를 살펴보자.]

[예!]

두 사람은 각각 말을 타고 나란히 성을 나섰다.

[과아야. 전진파의 내공은 천하 내공의 정종으로, 배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각양각색의 무공을 네가 모두 섭렵했

지만 내공은 여전히 현문 공부만을 수련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적병이 물러나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연습을 할 생각이다.]

[어젯밤 제가 실수한 일을 결코 백모께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백모가 이 일을 아신다면 저를 비웃고 용아가씨의 좋지 않은 공부를 배워서 곽백부를 고생시켰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암, 아무 말도 않으마! 사실 용소저의 공부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 다만 네가 허튼 생각을 하고서 잡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과는 <아!>하는 탄성을 질렀다.

[저는 삼국(三國)의 고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유황숙(劉皇叔)께서 말을 타고 건넜다는 단계(檀溪)원래 이 시냇물이었군요.]

[유비(劉備)가 그때 타고 있던 말의 이름이 노(盧)였었지. 말의 생김새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그에게 해가 될 것이라 했으나, 어찌 이 노가 시냇물을 뛰어 넘어 적병의 추격을 물리치고 유황숙의 목숨을 구하리라고 생각했었는가!]

이렇게 말하며 곽정은 양과의 아버지 양강이 생각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노마와 같아서 선하려 하면 선해지고 악하려 하면 악해진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찌 일정 하겠는가? 단지 마음속의 자세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양과는 마음이 오싹해졌다. 곁눈질로 곽정을 쳐다보니 그의 표정에 비애만 가득 서려 있을 뿐 자기를 빗대어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당신들이 몰래 우리 아버지를 해친 일을 설마 선이라 하지는 않겠지? 이처럼 큰소리를 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다니......)

그는 곽정의 모든 점을 흠모하였으나 그들 부부의 손에 의해서 부친이 죽음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가슴속에 나쁜 감정이 솟구쳤다.

두 사람은 말을 몰아 조그만 산에 올라서 전방을 살폈다. 한수(漢水)는

유유하게 남쪽으로 흐르고 사방의 들판에는 짐을 지고 멘 남녀노소의 난민들이 양양으로 몰려드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말 채찍을 들어 난민의 행렬을 가르켰다.

[몽고의 병사들이 갈수록 심하게 백성을 도륙하여 백성들이 거처를 잃고 떠돌아다니다니 실로 한스럽구나.]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길 옆에 돌비석이 하나 보였다. 비석에는 한 줄의 커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공부랑(唐工部랑) 두보(杜甫)의 고리(故里)>

[양양성은 정말로 좋은 고장이군요. 대시인인 두보의 고향이 바로 이곳인 줄은 몰랐습니다.]

[큰 성은 철같이 굳세고, 작은 성은 높이가 만여 장이고......, 구름같이 진을 펼쳤으니 하늘을 나는 새도 지나가기 어렵구나.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굳게 지키면 어찌 다시 사방이 소란하겠는가?...... 긴 창을 휘두르며 싸우니 만세(萬世)의 사나이가 아닌가?]

양과는 곽정이 격양돼서 읊조린 시귀를 듣고서 잠시 따라서 중얼거렸다.

[곽백부, 이 시귀는 참 좋습니다. 두보가 지은 것인가요?]

[그렇다. 며칠 전 백모와 양양성의 방비 문제를 논의하다가 두보의 이 시가 생각났다. 그녀가 종이에 써서 나에게 보여 주었지. 나는 이 시를 매우 좋았했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수십 번을 읽었지만 겨우 이 몇 귀절만을 을 뿐이다. 중국의 문인들은 모두가 시를 지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두보를 천하 제일의 시인으로 꼽는다. 그것은 그가 우국애민(憂國愛民)을 노래한 까닭이지.]

[말씀하신 것은 <위국위민(爲國爲民)은 협지대자(俠之大者)>란 것이지요! 그러니 문무가 비록 다르다고는 해도 도리는 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곽정의 그의 깨달음이 이 같음을 알고서는 매우 기뻐했다.

[나는 경서(徑書)의 문장을 한 줄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비록 지위가 낮고 보잘것 없어도 단지 위국위민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사나이고 호걸이 아니고 무었이겠느냐!]

[곽백부, 양양성을 질킬 수가 있을까요?]

곽정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손으로 서쪽 구릉지의 울창한 숲을 가르켰다.

[고래로 양양의 가장 뛰어난 인물은 단연 제갈량(諸葛亮)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20여 리 가면 그곳이 바로 그 당시 그가 밭을 갈면서 은거하던 곳이다. 제갈량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었던 뛰어난 솜씨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헤아리기 힘들다. 그는 일찌기 <최선을 다하도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말하여, 최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나와 너의 백모도 양양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하지 않았다. 다만 <최선을 다하다 죽으면 그뿐이다>라는 말만을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말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돌연 성문 앞에 있던 난민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데도 뒤쪽에 있는 난민의 행렬이 계속 앞으로 밀리는 광경이 벌어져 순식간에 양양성 밖은 시끌벅쩍 아수라 장을 이루고 있었다. 곽정이 외쳤다.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문을 열어서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때 곽정은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화살을 난민에게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짓이냐? 빨리 성문을 열어라.]

수비대장은 곽정을 보고서 급히 문을 열어 양과와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모든 백성들이 몽고병의 도륙(屠戮)을 받으려 하는데 어찌 그들을 성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단 말인가?]

[여대수(呂大帥)께서 난민 가운데 몽고의 첩자가 끼여 있으니 절대로 그들을 성 안으로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 하시며, 만약 들여보냈다가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두 명의 첩자가 있더라도 어찌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겠는가? 자, 빨리 성문을 열어라.]

곽정은 이미 오랫동안 성을 지켜서 많은 공적을 세워 명망이 높았다. 비록 관직이 없더라도 수비대장은 감히 그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문을 열고는 동시에 안무사(安憮使)인 여문덕(呂文德)에게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알렸다.

많은 백성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는 손을 잡고서 성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거의 다 들어왔을 무렵 돌연 먼 곳에서 부터 먼지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몽고군이 북으로 부터 공격해 오는 것이었다. 송나라 병사들은 급히 흩어져 성벽 뒤에 몸을 숨기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성 아래 적군의 앞에는 의복이 남루하고 손에는 막대기 만을 들었을 뿐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지 않고 걸어왔다.

[활을 쏘지 말아요. 우리들은 모두 대송의 백성이랍니다!]

몽고의 정병인 철기는 그 무리들의 뒤에 숨어 있었다.

징기스칸 이후 몽고군이 성을 습격할 때는 항상 적국의 병사들을 앞으로 내몰아 활을 쏘지 못하게 하고는 그들은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군의 백성을 줄일수도 있었지만 적군의 마음도 동요시켰으니 가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는 악랄한 방법이었다. 곽정은 오랫동안 몽고의 군중에 있어서 자연히 그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압할 묘책이 없었다. 단지 몽고병이 창과 칼을 들고는 송나라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기만을 할 뿐이었다. 그들은 점점 성에 가까이 다가와 최선두는 이미 사다리로 성을 오르고 있었다.

양양 안무사 여문덕은 푸른 말을 타고 사성을 순시하다가 정세의 위급함을 보고는 명령을 내렸다.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활을 쏘아라!]

성 위에 있던 병사들이 소나기 퍼붓듯 활을 쏘자 많은 백성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나머지는 달아나려 했다. 그러자 몽고병은 칼로 그들의 목을 베고 창으로 찔러서 백성들이 다시 성을 공격하도록 윽박질렀다.

양과는 곽정의 옆에 서서 이러한 참상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여문

덕의 명령을 듣고만 있었다.
[활을 쏘아라!]
다시 한 무리의 화살이 아래로 날아갔다.
[안 됩니다. 착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착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어찌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너는 어제 저녁 기를 단련하다 몸을 상했으니 오늘은 절대로 힘을 써서는 안 된다. 성 위에서 보고만 있어라.]
양과는 몽고의 병사들이 한인(한인)들을 개 돼지 처럼 죽이는 것을 보고는 곽정을 따라가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곽정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어제 저녁은 결코 연공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꾹 참고 성 꼭대기로 올라갔다.
곽정은 무리를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달려나가 우회해 몽고군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다. 백성들의 뒤에 있던 호송부대가 병사를 나누어 대적했다. 곽정이 거느린 대부분은 개방의 고수들이고 나머지는 각지에서 온 충의에 가득 찬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 마침내 양군은 접전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일백여 명의 몽고군의 목을 베었다. 이 몽고의 천인대(千人隊)가 견디지 못하자 다시 옆으로 또 다른 천인대가 긴 칼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공격해 왔다. 몽고군의 백전의 노장으로 용맹하고 사나와서, 곽정이 거느린 장사들이 비록 무예가 뛰어나다고 해도 일순간에 쉽게 승리를 거둘 수는 없었다. 성을 공격하라고 압박받던 백성들은 몽고군이 곽정과의 싸움에 몰두하자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다.
동쪽에서 호각 소리가 들리면서 두 무리의 몽고 천인대가 질풍같이 달려나왔고, 이어서 서쪽에서도 또 두 무리의 천인대가 달려와 곽정의 무리가 포위되었다.
여문덕은 성 위에서 몽고병의 이 같은 위세를 보고는 크게 겁을 먹었다.
양과는 전세를 관망하고 속으로 곽정의 말을 되새겼다.
(선량한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가 포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양과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성 위에서는 계속해서 활을 쏘아야 한다. 화살에 맞아 백성이 죽으면 몽고병이 공격해 올 방법이 없다. 곽백부가 지금 위험에 빠진 것도 모두 착한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백성들과 그는 원래 알지 못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그가 목숨을 던져 그들을 구하고 있다. 그런 그가 어찌 우리 아버지를 해쳤겠는가?)

성 아래의 격렬한 싸움을 바라보는 양과의 머릿속에서는 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맴돌고 이었다.

(그와 우리 아버지는 의형제를 맺어 사귀이 깊었는데, 마침내 그의 손에 해를 입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토록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의리가 있고 잘생겼으며 무예가 뛰어난 천하 제일의 호걸이라 생각했으므로,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찍부터 은밀히 아버지가 곽백부에 미치지 못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즉시 억제하곤 했었다.

이때 성 아래에서는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곽정의 일천여명 무리들은 좌충우돌 시종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있었다. 주지류는 일대(一隊)의 병사를 거느리고, 무씨 형제와 곡부도 병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접전을 벌이고 싶었지만 몽고의 또 다른 네 무리의 천인대가 성문 앞에 이르고 있었다.

[성문을 열지 마라!]

이 명령과 함께 칼과 도끼를 든 일백여 명의 병사들이 다시 엄하게 성문의 주변을 지키며, 감히 성문을 열리고 하는 자를 참살하려고 했다. 대장 왕견(王堅)은 궁수를 거느리고 성 위에서 계속 화살을 날렸다.

성 안팎이 혼란에 빠지자 양과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심하게 갈등을 일으켰다. 어떤 때는 곽정이 혼란의 와중에서 죽기를 바랐고, 잠시 후에는 그가 적을 죽이고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돌연 몽고군의 군세가 어지러워지며 수천의 기병이 마치 조수같이 양편으로 갈라섰다. 손에 긴 창을 든 곽정이 맨 앞에 말을 달려나오고, 그 뒤로 방진을 이룬 사내들이 앞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 방진은 매우 엄정하여 순간에 성문 앞에 이르렀다. 곽정은 말머리를 돌려서 긴 창을 휘둘렀다. 계속해 칠팔명의 몽고병이 말에서 떨어지자 몽고병들은 감히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여문덕은 곽정이 성을 의지해 위험을 벗어났음을 알고는 매우 기뻐했다.

[문을 열어라! 그러나 조금만 열어야 한다!]

즉시 성문이 삼사척 정도 겨우 일기(一騎)가 통과할 정도로 열려서, 방전을 이루었던 사나이들이 계속해 성으로 들어왔다. 몽고 중군(中軍)의 황기가 펄럭이자 양편의 군마가 달려들었다.

[곽정형제, 빨리 들어오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곽정이 어찌 부하들이 무두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고서도 먼저 성으로 들어갈 위인이겠는가! 오히려 말을 돌려 제일 가까이까지 접근한 두 명의 몽고 용사를 찌르고 있엇다.

그러나 곽정의 무공이 비록 심오하다 해도 대군이 마치 조수처럼 움직이자 혼자 힘으로 그들 모두를 대적할 수는 없었다. 주자류는 성 위에서 정세의 위급함을 보고는 긴 줄을 던졌다.

[곽형제, 잡으시오!]

곽정이 돌아보자 최후의 한명 개방의 형제가 급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보였다. 그때 십여 명의 몽고 병사들이 성문으로 들이닥쳤다. 칼과 도끼를 들고 성문 옆에 있었던 병사들은 한편으로 적에게 대항하고 한편으로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 두척 두께의 철문이 천천히 닫혔다. 곽정은 소리를 지르며 몽고의 십부장(十夫長) 한 명을 찌그고 몸을 날려서 긴 줄을 잡았다. 주자류가 힘을 다해 잡아 당기자 곽정의 몸은 즉시 한 장(丈) 정도 솟아올랐다.

몽고군을 독전(督戰)하던 만부장(萬夫長)이 소리쳤다.

[활을 쏘아라!]

순식간에 일천여 개의 화살이 날아갔다. 곽정은 뛰어오를 때 이미 이것을 막고자 장포의 옷소매를 찢어, 오른손으로 줄을 당기고 왼손으로는 장포를 몸 앞에서 마치 큰 방패가 춤추듯 흔들어 모든 화살이 모두 여기에 가로막

혔으나 타고 있던 말은 성문 앞에서 수백 개의 화살에 명중되어 마치 고슴도치 처럼 되었다. 주자류는 두 손을 교대로 하여 곽정을 높이 끌어올렸다.
그의 몸이 성 위에서 불과 이장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몽고군에서 돌연 마른 중이 누런색 가사를 걸치고 나타났다. 바로 금륜법왕이었다. 그는 몽고의 병사로부터 철궁과 긴 화살을 건네 받았다. 곽정과 주자류는 모두 무예에 정통해 만약 그의 몸을 향해서 쏜다면 반드시 이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금륜법왕은 밧줄을 향해서 쏘았다. 이 화살은 매섭게 날아갔는데 곽, 주 두 사람에게서 한 장 정도씩 떨어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금륜법왕은 그들이 돌연 기법(奇法)으로 방해할까 두려워 다시 주자류와 곽정을 향해 한 발씩 화살을 날렸다. 첫번째 화살이 밧줄을 끊었고, 두번째와 세번째 화살은 질풍처럼 그들 두 사람에게로 날아갔다.
밧줄이 이미 끊어져 곽정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자 두번째 화살은 자연 그에게 명중할 수 없었다. 주자류는 손이 갑자기 허전해짐을 느꼈다.
[아, 안 돼!]
그때 화살이 이미 눈앞에 이르렀다. 이 화살은 매우 빠르고 발사자의 내력이 깊어서 주자류는 자기가 고개를 숙여서 피한다면 이 화살이 반드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명중하리라 생각했다. 그는 급히 왼손의 두 손가락을 뻗어 날아오는 화살을 비틀자 화살은 비스듬히 성 아래로 떨어졌다.
곽정은 줄이 끊어지자 당황했다. 비록 성 아래로 떨어졌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천군만마(千軍萬馬)의 포위를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몰랐다. 이 적군은 성문에 이미 이르렀는데 만약 성문을 열고 접전을 벌인다면, 적군은 반드시 이 기회를 틈타서 문으로 난입할 것이 뻔했다. 위급한 가운데 곽정은 자세히 생각지도 않고 왼발로 성벽을 밟고는 뛰자 몸이 돌연 한 장 정도 솟았고, 오른 발로 다시 성벽을 밟자 또 한 번 한 장 정도 솟아 올랐다. 이것은 <상천제(上天梯)>의 고급 무공으로서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이것을 단련하면 매 한 걸음에 이, 삼장씩 오를 수 있었으나 이처럼 매끌매끌한 성벽을 타고 오르는 것은 한 걸음에 한 장 정도 올라도 놀라운 무공이 아닐 수 없었다. 잠시만에 성 안팎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며 수많은 눈길이 모두 그의 몸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금륜법왕은 매우 놀랐으나 이 상천제의 무공은 다숨에 뛰어올라야 하며 단지 중간에 조그만 방해만을 받아도 세번째 걸음부터는 다시 솟아오를 수 없음을 알고는 활에 화살을 재어 다시 곽정의 등을 향해서 날렸다.
 바람처럼 화살이 날아가자 성 안팎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활을 쏘지 말아라!]
 양편은 곽정의 무공을 보고서 놀라 모두 그를 흠모하여 그가 성 위에 이르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몽고병은 비록 적군이었지만 영웅호걸을 숭상하였는데, 돌연 누군가 몰래 그를 해치려 하자 일제히 분개해서 외친 것이었다.
 곽정은 등뒤에서 매섭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느끼고는 중얼거렸다.
 [두고 보아라!]
 손을 뒤로 내밀어 화살을 튕겼다. 양편의 군사들은 그가 마치 등에 눈이 있는 것처럼 급습하는 화살에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자, 환호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갈채 가운데 곽정의 몸은 조금씩 아래로 떨어져 성 위에서 불과 수척 정도의 거리를 남기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다.
 양군이 격전을 벌일 때 양과의 마음속도 마치 양군이 겨루는 듯 했는데, 곽정이 위난에 빠져서 성벽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순식간의 기복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다. 이 기회에 그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를 구해줄 것인가?)
 곽정이 상천제의 무공을 사용해 성 위에 오르려 할 때 그가 매섭게 손바닥을 내밀어 떨어뜨리면 곽정은 공중에서 어쩔 수 없이 중상을 입고 성 아래로 떨어지리라 생각했다. 그가 잠시 지체하는 사이에 곽정은 이미 법왕이 쏜 화살에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올라올 방법이 없었다. 양과의 마음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양과는 돌연 왼손으로 주자류 손에 있던 끊어진 줄을 잡고 성 아래로 내려가 오른손으로 곽정의 팔을 잡았다.
 이 급작스런 사태에 주자류는 즉시 대응하여, 재빨리 두 팔에 힘을 주어 아래로 떨어지던 줄을 힘껏 끌어당겼다. 양과와 곽정 두 사람은 반공 중에

서 원을 그리는 게 마치 커다란 새 두 마리가 공중을 나는 것 같았다. 성 안팎의 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곽정은 공중에서 다시 법왕의 기습을 받으며 어찌 패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금륜법왕이 또 활을 쏘는 것을 보고는 왼발로 성 위에 떨어지며 즉시 거기에 있던 병졸의 활과 화살을 낚아채 손을 당겨서 화살을 금륜법왕이 쏜 화살을 향해서 날리자 공중에서 두개의 화살이 만나면서 법왕이 쏜 화살이 두 동강 났다. 법왕은 잠시 멍청해졌는데 돌연 바람이 몰려오더니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철궁이 부려졌다. 법왕과 곽정의 무공은 백중지세였으나 곽정은 어려서부터 몽고의 신전수(神戰手) 철별(鐵瞥)에게서 활 다루는 기술을 전수받은데다가 내력이 심오했으니 활 쏘는 기술은 가히 천하에 둘도 없는 경지였다. 법왕은 당연히 그의 한 수 아래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해 세개의 화살을 쏘았다. 첫번째는 법왕의 화살을 두 동강 내고, 두번째는 활을 부수고, 세번 는 쿠빌라이의 커다란 깃발을 향해 쏘았다.

이 큰 깃발은 바람을 맞아서 펄럭이고 있어서 천군만마 가운데 매우 위풍당당했으나, 돌연 맹렬하게 화살 한개가 날아와서 줄을 끊자 쿠빌라이의 왕기는 즉시 아래로 쳐져 휘감겼다. 성 안팎의 양군은 다시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쿠빌라이는 곽정의 이 같은 무공을 보고는, 이미 군사의 사기가 저하됐음을 알고 즉시 퇴각을 명령했다.

곽정은 성 위에 서서 몽고군의 형세가 엄숙하고, 후퇴할 때도 질서 정연해 앞서 가는 자는 서두르지 않고 뒤처지는 자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고는 저절로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저러한 몽고의 정예군대를 어찌 우리의 약해 빠진 송군으로 대적 할 수 있단 말인가?)

곽정은 나라 일을 생각하고는 근심이 생겨서 눈썹을 찡그렸다. 주자류, 양과 등은 그가 적진의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고, 만인의 앞에서 무예를 빛냈는데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속으로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쿠빌라이는 수십 리를 퇴각하면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지만, 곽정이 저편에 있는 이상은 양양성을 차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전하, 직접 보신 것처럼 만약 양과가 그를 구해 주지 않았다면 곽정은 오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제가 보건대 이놈은 왔다갔다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놈입니다.]

[그렇지 않소! 양과가 곽정을 죽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했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는 않을 것이오. 내가 보건대 그는 날래고 용맹하며 의리가 있어서 결코 비겁한 짓을 할 소인배가 아니오.]

법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감히 반박을 하지 못했다.

[전하께서 원한다면 뜻하신 대로 하십시오.]

몽고병이 물러간 다음에 양양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안무사 여문덕은 크게 기뻐하여 원수부(元帥府)에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큰 잔치를 열었는데, 양과는 주빈의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가 몸을 날려 곽정을 구할 때의 민첩함과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했다.무씨 형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양과가 공을 세운 것을 보고는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곽정이 그가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딸을 그에게 시집보낼까 두려워했다. 두 형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독한 술만 들이켰다.

연회가 끝난 이후 일행은 곽정의 거처로 갔다. 황용은 양과를 내당으로 불러서 따뜻한 칭찬의 말을 했따. 양과는 계속 겸손해 했다.

[과아야, 그처럼 힘을 썼는데 가슴은 아프지 않느냐?]

곽정은 엊저녁의 양과의 실수를 걱정해 오늘 성 위에서 힘을 많이 써서 그의 내장이 상했을까 걱정했다.

양과는 황용이 그 이유를 추궁해 전모를 눈치챌까 두려워 황망히 대답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하며 즉시 화제를 바꾸었다.

[곽백부의 성을 타오르는 무공은 정말로 무림레서 독보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그만 둔지 이미 오래 돼, 수년 동안 단련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

그가 만약 어제 저녁 양과의 단전을 눌러서 크게 원기를 소비하지 않았다면 그 상천제의 공부를 사용할때 비록 법왕이 쏜 화살의 방해를 받았다고 해도 별 어려움이 없었을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단양자(丹陽子) 마도장(馬道長)이 몽고에서 이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뜻밖에 오늘 사용할 줄이야. 네가 만약 흥미가 있다면 이 공부를 며칠 네게 전수해 주마!]

황용은 양과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구석이 있고, 말하는 가운데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음을 보고, 그가 오늘 힘을 다해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곽정을 구해 주어서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느꼈다.

[여보, 제가 몸이 좋지 않으니 오늘밤은 저를 좀 간호해 주세요.]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과를 쳐다보았다.

[과아야, 오늘은 모두 피곤할 테니 일찍 돌아가서 쉬도록 하자.]

양과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홀로 방으로 돌아왔다. 누각에서 이경(二更)을 아리는 북소리를 들으며 양과는 탁자에 앉아서 촛불이 돌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과아야, 아직 잠들지 않았지?]

바로 소용녀의 목소리였다. 양과는 매우 기뻐서 단번에 뛰어나가 방문을 열자 소용녀가 엷은 녹의를 걸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너를 보려고 왔지.]

양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아가씨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화원으로 걸어나갔다. 화원에서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다. 소용녀는 반달을 쳐다보았다.

[그를 반드시 네손으로 죽여야 하니? 시간이 많지 않잖아!]

양과는 급히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많으니 그 일을 꺼내지 말아요.]

소용녀는 멍청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보름달이 되면 열 여드레의 기간이 다 되는 거야.]

양과는 놀라서 손가락을 꼽아서 계산해 보니 구천척(駒薦脊)에게 인사하고 떠나온 지 이미 구일이 되어, 만약 12일 내에 곽정 부부를 죽이지 못하면 독이 발동되기 전에는 절정곡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소용녀와 나란히 호숫가 바위 위에 앉았다.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으나 부드러운 정이 점점 피어오르며 마음이 통해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눈앞의 일 따위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돌연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화원을 사이에 두고 다가왔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나를 괴롭히려면 차라리 칼을 내 목에 대고 찔려서 내가 자질 구레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해요.]

한 남자가 화가 나서 씨근덕 거렸다.

[흥, 네가 여러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 양과란 놈이 양양에 와서 크게 체면을 세웠다. 네가 종전에 했던 말을 어찌 안심하고 믿는단 말이냐?]

목소리를 들어보니 무수문과 곽부였다. 소용녀는 양과를 쳐다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 표정은 마치 그가 곳곳에서 연애사건을 일으켜 많은 여자들을 애타게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웃으면서 소용녀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겨 손으로 그녀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 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다.

곽부는 무수문의 이 말을 듣고는 곧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

[이미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종전에 했던 말은 엉터리 소리가 되었어요. 나는 혼자서 멀리멀리 가서 영원히 양과를 보지 않고 우리도 영원히 이별하도록 해요.]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무수문이 곽부의 소매를 당기자 그녀가 뿌리친 것 같았다. 그녀의 말에는 노기가 가득했다.

[나를 끌어당겨서 어쩔려고? 누가 체면을 세웠든 안 세웠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에게 시집보낼려고 하신다면 못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결코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강요하신다면 멀리 도망쳐 버릴 테야. 양과란 놈은 어려서 부터 날뛰더니 스스로 대단해 졌지만 나는 결코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흥, 내가 보기에는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 우선 의심을 풀고 절대 화를 내지 마. 이후 다시 이런 짓을 하면 나는 좋게 죽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도 개자식으로 태어날꺼야.]

무수문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다. 괍부는 살짝 웃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곽부는 무수문을 꾸짖으며 한편으로는 어리광을 피우며 그를 구슬리는 것이, 속으로는 그에게 은근한 정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사모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셔서 밤낮으로 옆에 너를 두고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 사모께서 너를 그 양과에게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하시자 사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흥, 와가 뭘 안다고 그래? 아버진 비록 엄마의 의견에 따르지만 큰 일에 있어서는 엄마가 결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너도 나에게 그와 같으니 그려면 됐잖아?]

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수문은 <어?>하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왜 사람을 치는 거야?]

[누가 오빠 마음대로 지껄이라고 했어? 나는 양과에게도 시집가지 않지만 오빠 같은 작은 원숭이에게도 시집갈 수가 없어!]

[좋다. 오늘 저녁 너의 마음을 전부 털어놓아 봐라. 나에게 시집올 수 없다면 결국 나의 형수가 되겠다는 말인가? 네게 말하겠다, 네게 말하......]

숨이 가빠지며 무수문은 말을 계속 잇지 못했다.

곽부의 말투가 돌연 부드럽게 변했다.

[작은 오빠! 나를 좋아한다는 말은 이미 수천 번 들어서 오빠의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큰오빠는 비록 나에게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시집가든 한 사람은 크게 삼심할 거예요. 내 입장이 되어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괴로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무돈유, 무수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도 없이 자라 둘 사이의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는데, 근래 들어서 둘다 곽부를 사모하여 저절로 경쟁하는 마음이 생겼다. 무수문은 마음이 조급해 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곽부는 수건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 주었다.

[작은 오빠, 우리들은 어려서 부터 함께 자랐어요. 나는 큰 오빠를 존경했지만 작은 오빠하고 더욱 마음이 통했잖아요. 두분에 대해 나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애썼어요. 작은 오빠가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하라고 강조하지만 만약 작은 오빠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만약 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다고 하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겠어.]

좋아요. 오늘은 그만해요. 아버지가 적과 목숨을 걸고서 싸우셨는데 우리는 뜰에서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만약 들으시기라도 한다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작은 오빠는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조그만 전공 이라도 세운 적이 있었나요? 하루 종일 내 곁에서 맴도니 어찌 우리 부모님이 좋게 보시겠어요?]

무수문은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렇다! 내가 쿠빌라이를 죽여서 양양성의 포위를 풀게 할 테다. 그때는 내게 시집오겠지?]

[그처럼 큰 공을 세운다면 내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겠지. 그러나 쿠빌라이의 곁에는 많은 호위병들이 있을 텐데? 금륜법와 하나만 해도 아버지조차 이기지 못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잠이나 자요.]

무수문은 곽부의 어여쁜 얼굴을 사랑스런 눈길로 쳐다보았다.

[응, 어도 일찍 자!]

그는 몸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돌연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곽부 동생, 오늘 저녁 꿈꿀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만약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일까?]

[아마도 나는 꿈속에서 한 마리 작은 원숭이를 만나겠지.]

무수문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사라졌다.

소용녀와 양과는 화원 뒤에서 그들의 애정어린 대화가 계속되는 것을 듣고는 서로 마주 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은 열렬히 사랑하고, 상대방은 마음을 정하지 못함을 보고, 자기 두 사람은 함께 사랑해서 죽어도 후회가 없음을 비교하며 속으로 매우 흡족해졌다.

무수문이 가고 나자 곽부는 홀로 돌 의자에 앉아서 멍청하게 달을 쳐다보고 있다가 한참만에 긴 한숨을 쉬었다. 돌연 누군가 앞에 나타났다.

[곽부 동생, 왜 한숨을 쉬지?]

바로 무돈유였다. 양과와 소용녀는 모두 놀랐다. 그가 일찍 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자기들 보다 먼저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오는 것을 어찌 모를 수가 있었단 말인가.

[큰오빤 항상 짓궂단 말야. 내가 그하고 한 말을 모두 들었지, 그렇지?]

무돈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멀찌감치 정면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곽부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없이 얼마동안 서로 쳐다보았다.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는 것은 너도 잘 알잖아?]

하고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곽부는 무돈유의 뒷모습을 줄곧 보고 있었지만, 그는 가산(假山)을 돌아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큰 오빠든 작은 오빠든 세상에 단지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곽부는 다시 긴 한숨을 내쉰 뒤 홀로 방으로 돌아갔다.

양과는 그녀가 멀리 가자 웃으며 물었다.
[만약 아가씨가 그녀라면 누구에게 시집가시겠어요?]
소용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에게 가지.]
[나는 빼고요. 곽소저는 조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말은, 아가씨가 그녀라고 한다면 무씨 형제 가운데 누구에게 시집을 가겠느냔 말입니다.]
소용녀는 <으응!> 하며 속으로 무씨 형제를 비교해 보았다.
[나는 그래도 네게 시집가겠다.]
양과는 웃으면서 매우 감격해, 그녀를 품에 끌어 안았다.
[그녀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가씨는 단지 나만을 좋아한다 이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등뒤의 살의(殺意)

동쪽 하늘 높이 해가 떠올랐어도 그들은 여전히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때 하인 한 사람이 총총 다가오더니 그들에게 아침 인사를 올렸다.
[곽나으리께서 양나으리를 찾으시니 빨리 가시지요. 무슨 상의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양과는 그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보고 틀림없이 김요한 일이 터졌음을 느끼고 소용녀에게 인사를 한 뒤, 그 하인을 따라서 내당에 들었다.
[제가 여러 곳을 았는데, 나으리께서는 거기에서 꽃을 감상하고 계셨군요.]
[곽어른꼐서 나를 한참 동안 기다리셨는가?]
[무씨 형제들이 돌연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곽나으리와 마님께서 모두 걱정하시고 아가씨도 벌써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리셨는지 모릅니다.]
양과는 놀랐지만 이미 그 이유를 알았다.
(무씨 형제는 사매를 아내로 삼기 위해 성을 나갔을 것이다. 쿠빌라이를

죽여 공을 세우려는 것이겠지.)

양과가 총총 내당에 이르자 황용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헐렁한 옷을 입고 한쪽에 앉아 있었고, 곽정도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으며, 곽부는 두 눈을 붉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두 자루의 잠검이 놓여 있었다.

곽정이 양과를 보고 황망히 물었다.

[과아야, 그들 무씨 형제가 적진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

[무씨 형제가 적진에 갔습니까?]

[그래, 너휘들간에 무슨 말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예감도 느끼지 못했느냐?]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 형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건대 그들 두 형제는 성이 포위된 어려움을 보고는 적진에 들어가 몽고의 대장을 죽이고자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곽정은 한 숨을 쉬며 탁자위에 있는 두 자루의 칼을 가르켰다.

[생각은 가상하나 무공이 부족하니...... 게다가 적진에서 그 둘의 무기를 모두 돌려보냈다.]

이것은 양과에게도 뜻밖의 일이었다. 그는 무씨 형제가 뜻을 이루기 힘들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들의 무공과 지혜로 어찌 법왕, 윤극서, 소상자 등의 고수와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몇 시간 만에 그들의 무기가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곽정은 두자루의 칼 아래에서 한 통의 편지를 집어서 양과에게 건네 준 뒤, 황용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양과는 편지를 펼쳤다.

<대몽고국 제일 호국법사 금륜법왕이 양양성 곽대협께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총명한 무씨 형제를 사로잡았습니다. 명문에서 뛰어난 제자가 난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오랫동안 곽대협의 풍채와 신묘한 무공을 흠모해 왔습니다. 얼마 전 대승관 영웅연에서 잠시 만나고 총총히 헤어져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이 글을 특별히 올려서 삼가 초대하는 바입니다. 군영에서 무릎을 맞대

고 술잔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귀하께서 한번 오신다면 똑똑한 제자들을 무사히 보내드리지요. 어떠실는지요?>

편지의 어투는 매우 공손해 마치 곽정을 초대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무씨 형제를 인질로 해 곽정이 온다면 풀어준다는 뜻이었다. 곽정은 양과가 편지를 다 보기를 기다렸다.

[어떻게 할까?]

양과는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곽백모의 지모가 나보다 열 배 이상 뛰어나니 만약 나에게 묘책이 있다면 그 정도를 어찌 그녀가 모르겠는가? 그녀가 나하고 상의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은 나와 아가씨가 곽백부와 함께 몽고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일게다. 곽백부는 법왕, 소상자 등이 힘을 합쳐 대항한다면 반드시 패하여 죽거나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아가씨가 있으면 그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도 했다.

(그러나 만약 나와 아가씨가 그를 배반한다면 우선 당황하고, 강약의 전세가 더욱 뚜렷해져서 그를 해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법왕 등의 손을 빌어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절묘한 방책인가!)

[곽백부, 제가 사부와 함께 백부를 따라 가겠습니다. 백모께서 저와 사부가 힘을 모아 금륜법왕을 물리친 것을 알고 계시니, 세 사람이 함께 간다면 적들이 결코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할 것입니다.]

곽정이 크게 기뻐했다.

[너의 총명함이 너의 백모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따를 수가 없겠구나. 백모의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다.]

(황용, 아! 황용, 네가 아무리 총명해도 오늘 나에게 한번 당해봐라!)

[일은 늦추면 안 되니 지금 곧 떠나지요. 저와 저의 사부는 백부의 종자로 가장하면 백부 혼자서 간다는 영웅의 기개가 더욱 돋보이겠지요.]

[좋다!]

곽정은 황용을 바라보았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과아와 용소저가 함께 간다면 비록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들 세 사람은 능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오.]

그는 옷을 단정히 했다.

[용소저와 어디 이야기를 해 볼까.]

황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저의 뜻은 과아 혼자서 당신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용소저는 꽃송이 같은 처녀이므로 우리는 그녀를 위험에 빠지게 할수 없어요. 그녀는 여기에 있도록 해요.]

양과는 매우 당황했다.

(곽백모가 아직 나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가씨를 이곳에 인질로 삼아 내가 감히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내가 계속해 아가씨와 함께 간다고 고집하면 더욱 의심을 받겠구나.)

그래서 양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정이 생각했다.

(용소저의 검술이 오묘해서 만약 함께 간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황용이 천천히 입을 였었다.

[당신의 파로나 양아가 막 세상에 나오려고 해요, 용소저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정말 멍청해! 과아야, 자, 우리들은 가자.]

[아가씨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네가 백부와 함께 적진에 가서 반나절이 지난 후쯤 돌아온다고 전해 주마.]

양과는 황용과의 지모 싸움에서 항시 패했으나 곽정의 순박하고 어리숙함은 결코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함께 몽고군의 진영으로 가서 그를 처치하고 다시 돌아와서 소용녀를 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곽정과 함께 성을 나왔다.

곽정이 타고 있는 말은 한혈보마(汗血寶馬)였고, 양과는 누런색의 마른 말을 타고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치달려서 잠시만에 몽고의 대영에 이르렀다

쿠빌라이는 곽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놀랐고도 기뻐서 즉시 장막 안으로 들게 했다.

곽정이 큰 장막으로 들어서자 한 명의 소년 왕자가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네모지고 큰 귀에다 두 눈이 깊이 들어간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그의 부친인 타뢰(拖雷)와 너무도 닮았구나.)

소년시절 타뢰와 매우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나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을 생각한 곽정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쿠빌라이는 자리에서 내려와 손을 모으고 땅에 엎드렸다.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곽정 숙부의 영웅대의(英雄大義)를 말씀하셔서, 저는 한없이 흠모하던 터였는데 오늘 존귀한 모습을 직접 뵈오니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곽정고 손을 공손히 모았다.

[타뢰와 저와의 정은 핏줄보다 더했다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모자(母子)는 징기스칸의 비호와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연 세상을 떠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쿠빌라이는 그의 말투가 진지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는 소상자, 윤극서 등과 인사를 시키고 자리를 권했다.

양과는 곽정의 뒤에 서서는 그들을 모르는 체했다. 법왕들은 그가 이번에 무슨 뜻으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사람들을 모르는 체하자 그와 말을 하지 않았다.

[양형......]

다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윤극서가 마광좌의 넓적다리를 매섭게 꼬집었다.

[어야야!]

[무슨 일이야?]

윤극서는 고개를 돌려 모르는 체했다. 마광좌는 누가 자기를 꼬집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중얼거리며 누군가를 욕하면서 양과를 부르는 일을 잊어버렸다.

곽정이 자리에 앉아서 마유주(馬乳酒)를 한잔 마신 후에, 무씨 형제가 보이지 않아 막 물으려 하는데 쿠빌라이가 좌우에 분부를 했다.

[빨리 무씨 형제를 모셔오너라!]

좌우에 있던 호위병은 명령을 받고 나가서 무돈유와 무수문을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의 손과 발은 모두 소의 힘줄로 만든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걷지도 못하고, 겨우 천천히 기어왔다. 그들은 사부를 보고는 창피하여 소리쳤다.

[사부님!]

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들지 못했다.

곽정은 현제가 공명을 탐하여 그에게 알리지도 않고 와서 이 같은 소란을 피우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이 찢어지고, 몸의 핏자국으로 보아 한바탕 싸움을 벌인 후 사로잡힌 것을 알았다. 또 이들이 이같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정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한조각 위국위민의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무학의 사나이는 일생 동안 반드시 무수한 고통과 좌절을 맛보는 법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쿠빌라이는 짐짓 좌우를 문책했다.

[내가 그들을 잘 모시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무례하게 대접했느냐? 빨리 풀어 드려라.]

좌우의 호위병은 즉시 두 사람을 풀어 주었다. 그러나 끈에 묶인 채 다시 물에 젖어서 몸이 부어 일시에 끈이 잘 풀리지를 않았다. 곽정은 자리에서 내려가 무돈유 가슴에 있는 매듭을 가볍게 잡아당기자 소의 힘줄로 만든 끈이 끊어졌다. 다시 무수문의 몸에 있는 끈도 끊어서 풀어 주었다. 이 손의 공부는 보기에는 매우 가벼웠으나 사실은 극히 심오한 내력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소상자, 니마성, 윤극서 등은 서로 쳐다보며 그의 무공을 속으로 칭찬했다.

[술을 더 가지고 와서 두 분 형제께 사죄하라.]

곽정은 오늘 이곳의 일이 결코 좋게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만약 무씨 형제가 일찍 가지 않는다면 짐만 되리라 생각하고 즉시 사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네번 손을 모았다.

[저의 어리석은 제자들이 왕자와 여러분께 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곽정은 무씨 형제를 쳐다보았다.

[너희들은 먼저 돌아가서 사모님께 내가 옛 친구의 아들을 만나서 그 동안의 회포를 풀고서 곧 돌아간다고 말씀드리도록 해라.]

[사부님, 저......]

그는 엊저녁에 일을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소상자에게 사로잡혀, 적진에 고수들이 구름같이 있음을 떠올리며 곽정의 안위를 걱정했다.

[빨리 가거라! 너희들은 여안무(呂安憮)께 성을 굳게 지켜, 어떠한 변고가 있어도 결코 성을 열지 말도록 해서 적의 기습을 막도록 전해 드려라.]

이 말은 매우 당당해서 쿠빌라이 등이 들을 수 있었다. 즉 자기는 이미 이처럼 되었지만 양양성은 결코 적에게 항복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었다.

무씨 형제는 사부가 직접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 준 것을 알고는 감격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해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인사를 올리고는 성으로 돌아왔다.

[두 분의 제자께서 어제 저를 죽이려 한 사실을 곽숙부께서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고 있소. 다만 그놈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감히 소란을 피웠다는 것만 알고 있지요.]

[그래요. 곽숙부와 나는 삼대(三代)의 교분이 있고, 아버님과의 우정을 생각하면 곽숙부께서 결코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公義)는 중요하고 사정(私情)은 가벼운 것입니다. 과거에도 타뢰께서 군대를 이끌고 양양을 공격해 왔을때 나는 일찌기 그를

죽여서 적을 물리치려 했으나 마침 징기스칸께서 위독해 스스로 물려나서 이 금란(金蘭)의 우정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인의 말씀에, 대의는 핏줄이 앞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친구의 우정이야......!]

이 올바르고 굳센 말에 법왕, 윤극서 등은 모두 서로 쳐다보며 안색이 변했다. 또한 양과는 생각했다.

(그래, 의형제를 죽이는 일은 그가 자주 하는 일인 모양이구나. 내 아버지가 그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손에 해를 입으셨다. 곽정!, 아! 곽정, 당신은 평생 동안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단 말인가?)

이처럼 생각하자 그에 대한 나쁜 감정이 가슴속에 치솟았다.

쿠빌라이는 무표정하게 미소를 띄었다.

[그렇다면 곽숙부는 두 제자가 소란을 피운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무예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무공도 뛰어나지 않으니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두 명이 샐패해서 당신들의 방비가 더욱 강화되어 다시 누군가 또 온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오.]

쿠빌라이는 크게 웃었다.

(오랫동안 곽정은 충섬심이 강하고 소박하며 말솜씨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의 말솜씨가 이처럼 날카로운가.)

사실 곽정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면 입으로 그대로 말하여 속으로 생각만 잘 하면 말을 잘 하는 편이었다. 법왕등은 그가 홀로, 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천군만마의 몽고 진영에 들어와 이처럼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그의 기개를 흠모했다.

쿠빌라이는 곽정의 기세가 대단함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만약 이러한 사람을 휘하에 거느리면 양양성을 10 개 얻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곽숙부, 조(趙)가의 송나라 임금이 어리석어 백성이 곤란에 빠졌고, 간신이 조정에 가득 차서 충신이 억울하게 죽고 있소. 나의 이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소. 이종(理宗)황제는 무도하고 어리석으며, 재상 가사도(賈似道)는 악독한 간신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천만 뜻밖에도 그가 직접적으로 송나라의 황제와 신하를 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요. 곽숙부는 당대의 위대한 영웅호걸인데 어찌 어리석은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곽정이 몸을 일으켰다.

[곽모가 비록 아무리 못났어도 어찌 그러한 임금을 위할 수가 있겠소? 그러나 몽고가 잔혹하게 우리의 강호를 침범해 우리 백성을 죽이니, 곽모의 끓는 피는 우리 신주(神州)의 구천만 백성을 위함이오]

쿠빌라이는 탁자를 내리쳤다.

[그 말은 정말로 옳습니다. 여러분 곽숙부를 위해 한잔 합시다.]

하고 말하며 잔을 들어서 마유주를 한번에 비웠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초조해져 쿠빌라이가 선대의 우정을 생각하고, 게다가 다시 곽정의 말에 감동되어 그를 놓아 주면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을 걱정했다. 쿠빌라이가 잔을 들자 그들도 각자 잔을 비웠다. 좌우의 호위병이 각각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귀국의 성인께서 일찌기 말씀하셨소. 백성이 귀하며, 사직(社稷)은 다음이고, 임금은 대수롭지 않다고. 이 말은 정말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천하는 천하인의 천하이고 단지 덕이 있는 자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몽고의 조정은 깨끗하고 평온하며, 백성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해 각각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요. 우리의 대한(大汗)께서는 남쪽의 백성들이 고통 속 빠졌서 누구도 어쩔 수 없음을 보시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왕을 벌하기 위해 남정을 하시는 번거러움도 꺼리지 않으셨소. 이러한 생각은 곽숙부와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 영웅들의 생각은 과연 통하는 바가 있군요. 자, 우리 술 한잔 더 마십시다.]

하며 쿠빌라이는 다시 잔을 비웠다.

법왕 등도 잔을 들어서 입에 댔다. 곽정이 긴 소매를 휘두르자돌연 바람이 일면서 쨍그랑,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모든 사람의 술잔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 곽정은 크게 화를 내었다.

[그만두시오! 당신들 몽고병이 우리 송나라를 침략한 이후, 유민이 늘어나

고 백골은 산을 이루며 피가 시내를 이우었소. 우리 송나라 백성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당신들 몽고병의 창칼에 죽었는지 모르는데, 무슨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고 지껄인단 말이오?]

이 소매를 흔든 것이 매우 갑작스럽고 뜻밖이라 법왕 등은 모두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의해 술잔이 날아가자, 모두 얼굴에 노기를 띠고 일제히 일어나서 쿠빌라이의 명령만 내려지면 행동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었다.

[곽숙부는 영웅 무적이라 우리 몽고병들이 흠모해 왔는데 오늘 직접보니 과연 그렇군요. 나는 감히 아버지의 우정을 훼손하지 못하여 오늘 예정을 나누고 더 이상 국사를 논하지는 않겠소.]

[타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기개가 뛰어나서 몽고의 제왕 누구도 그를 필적하지 못해 반드시 후일 국가의 중책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충성스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곽정은 두 손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 남조는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며 절개를 숭상하오. 뛰어난 인물이 많아서 지금까지 이민족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몽고가 비록 일시 변경을 침략했지만 이후에 반드시 북쪽으로 쫓겨 갈 것입니다. 그때는 원기가 이미 손상되어 후회해도 늦으니 원하건대 쿠빌라이께서는 재삼 생각하시기 바라오.]

[좋은 가르침 고맙습니다.]

곽정은 그의 이 대답이 매우 건성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다.

[간단하게 지나칠 일이 아니고 후일 반드시 그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두 손을 잡았다.

[손님을 보내 드려라.]

법왕 등은 서로 쳐다보며 크게 놀라서 일제히 쿠빌라이를 쳐다보았다.

(쉽게 어망에 들어온 고기를 어찌 그리 쉽게 풀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쿠빌라이가 공손하게 곽정을 장막 밖까지 배웅하자 사람들은 감히

어찌할 수가 없었다.
곽정은 큰 걸음으로 장막을 나섰다.
(쿠빌라이의 그릇이 크니 이같이 나를 대하는구나.)
곽정은 양과를 보고 걸음을 빨리 해 말 옆으로 가라고 눈짓했다.
돌연 옆에서 여덟명의 몽고 사나이가 끼어들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곽정이오? 당신이 양양성 밑에서 많은 우리 형제들을 상하게 하고 오늘 다시 몽고 진영에 와서 위세를 과시 했소. 왕자께서는 당신을 놓아 주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소.]
하는 소리와 함께 여덟명의 사나이들이 동시에 몽고 씨름의 수법을 사용해 16 개의 손이 곽정을 향해 달려들었다.
씨름의 구부려뜨리는 기술은 원래 몽고인이 천하 제일이었다. 이 여덟명의 사나이는 게다가 뛰어난 고수로서 쿠빌라이가 특별히 곽정을 잡기 위해 장막 밖에 매복시켜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곽정은 어릴 때부터 몽고에서 성장하여 말타기, 활쏘기, 씨름은 이미 능숙했다. 그들이 달려들자 두 손을 내밀며 오른쪽 다리를 휩쓸어 순식간에 네명은 그에게 잡혀서 쓰러지고, 다른 네명은 쓸려서 넘어졌다. 그가 사용한 것은 몽고의 정통 씨름 기술로, 고급 무술의 기본이 되고 팔다리의 힘이 매우 강하니 이 여덟명의 사나이가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쿠빌라이는 장막 밖에다 한 무리의 친병 천인대를 배치해 놓았었다. 그들 천 명의 병사들은 마음대로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곽정의 손동작이 예리해 일시에 여덟명의 고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껏 보지 못한 신기(神技)에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갈채를 보냈다.
곽정은 그들을 향하서 주먹을 쥐고 모자를 벗어서 흔들었다. 이것은 몽고인이 씨름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관중의 환호에 답례하는 인사였다. 병사들은 더욱 열광했다. 이 여덟명의 사나이들은 몸을 일으켜서 곽정을 멍청히 바라보며 계속 싸워야 할지 그만 두어야 할지 망설였다. 곽정이 양과에게 말했다.
[가자!]

호각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천인대와 백인대가 달려왔다. 쿠빌라이는 군마를 동원해서 이미 곽, 양 두 사람을 겹겹이 둘러쌌다. 곽정은 겁을 먹었다.

(우리 두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어도 어찌 이 군마의 포위를 뚫을 수 있겠는가? 쿠빌라이가 단지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병사를 동원할 줄은 몰랐구나.)

그는 양과가 겁을 먹을까봐 얼굴 표정을 찡그리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의 말이 빠르니 질주해서 우선 두 개의 방패를 빼앗아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도록 하자. ......그리고 우선 남쪽으로 달렸다가 다시 말을 돌려서 북으로 향하자.]

(양양은 남쪽에 있는데 왜 북으로 향하는가?)

(그렇다. 쿠빌라이가 필시 군마를 남 쪽에 배치해서 그가 양양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니 북쪽은 허술할 것이다. 우선 남쪽으로 달렸다가 다시 북쪽으로 향하면 뜻밖의 일에 당황할 것이니 이 기회를 틈타서 탈출한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를 방해해야 하는가?)

양과의 가슴이 고동쳤다. 그 , 쿠빌라이의 장막에서 몇 사람의 그림자가 뛰쳐나와 길을 막고 동시에 큰소리를 내면서 1개의 동륜과 철륜이 두마리의 말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바로 금륜법왕이 두 사람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었다. 곽정은 두개의 무기가 날아오는 것이 극히 맹렬함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어 잡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두 손으로 2마리의 말목을 눌려서 두마리의 말이 앞다리를 구부리게 했다. 동륜과 철륜이 곧바로 말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 공중에서 원을 그리고는 다시 법왕의 수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시간을 끄는 동안에 니마성과 윤극서가 두 사람 앞에 이르렀으며 법왕과 소상자도 뒤를 따라서 네명이 그들을 포위했다.

금륜법왕, 소상자 등은 모두 일류 고수로 다른 이와 싸워서 자신의 지위를 추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승리를 탐했다. 그들 모두는 <몽고 제일의 용사>란 칭호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수칠까 두려워했다. 그들이 쥐고 있는 무기에서는 백광이 번쩍였고 누런 빛이 눈을 어지럽혔다.

법왕의 손에는 금륜이, 윤극서의 손에는 진주와 옥을 끼워 박은 황금연편(黃金軟鞭)이, 소상자는 곡상봉(哭喪捧) 모양의 간봉(桿捧)을 갖고 있었다. 니마성의 무기는 가장 괴이해서 철로 만든 영사단편(靈蛇短鞭)으로, 그의 팔을 빙빙 감고서 마치 한 마리 살아있는 뱀과 같았다.

곽정은 네 사람이 달려오는 자세와 무기의 수법을 보아서 그 가운데 윤극서가 비교적 약한 것을 알고는 즉시 두 손을 내밀어 소상자의 면전을 공격하였다. 소상자의 간봉이 서면서 봉의 끝으로 그의 장심을 찌르려 했다. 곽정은 간봉에 흰색 띠가 감겨져 있고 봉의 머리에는 마로 만든 끈이 늘어져 있어 마치 효자가 장례식 때 잡고 가는 곡상봉과 흡사한 것을 알고, 이 사람의 무공이 대단하여 사용하는 무기도 괴이하다고 생각했다. 즉시 오른손을 돌려서 신룡패미(神龍敗尾)의 동작을 취해 윤극서의 금편을 잡았다. 윤극서는 금편을 흔들며 반격하려 했으나 금편의 한 쪽이 이미 적의 수중에 잡혀서 끌려가자 몸을 곽정에게로 날렸다. 왼손에는 번뜩이는 비수가 들려 이었다. 이 동작은 공격으로 수비를 하는 18소금수(十八小擒手)의 절묘한 동작이었다.

[좋다!]

곽정은 두 손으로 동시에 금수를 펼치면서 오른손은 여전히 금편을 잡고 있으면서 왼손은 그의 비수를 빼앗으려 했다. 이때 오른손은 그의 오른손 무기를, 왼손은 왼손의 무기를 빼앗아 상황이 뒤바뀌었다. 윤극서는 비수를 찌르면서 적이 금편을 놓으면 반드시 비수를 피하리라 생각했지, 감히 그의 비수조차 한번에 빼앗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때 법왕의 금륜과 소상자의 간봉이 동시에 공격해 왔다. 곽정이 금룡편을 당기며 소리치자 한바탕의 정기가 금편에 전해졌다. 윤극서의 가슴은 마치 철망치에 일격을 당한 것처럼 눈앞에 별이 보였다. 끄윽, 하는 소리와 함게 윤극서의 입에서 선혈이 흘렸다. 곽정은 이미 금편을 놓고 대항하고 있었다. 윤극서는 상처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서 천천히 물려나서 땅에 책상다리를 하고 단전에 기를 움직이자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았다.

법왕과 소상자, 니마성은 곽정이 단숨에 윤극서에게 상처를 주자 모두 놀

라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놀란 것은 자기들도 그의 이 같이 매서운 손에 당할까 두려워서였고, 기뻐한 것은 <몽고 제일의 용사>라는 명예를 다투는 사람이 하나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세 사람은 곧바로 돌진하지 못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곽정은 몇 동작을 전개하며 소상자와 니마성의 두 가지 괴이한 무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곡상봉은 두껍고 견고한 무기라는 것 이외에는 이상한 점을 얼른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니마성의 뱀모양 무기는 더욱 이상하여 머리가 세 갈래인 독사 같았고, 뱀의 몸은 부드럽고 무수한 작은 쇠구슬이 박혀 있었다. 뱀의 머리와 꼬리는 매우 예리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뱀의 몸이 어느 때 구부러지며 뱀의 머리와 꼬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철뱀 같은 단편은 니마성의 수중에서 변화 무쌍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곽정은 옛날에 구양봉의 사장(蛇杖)의 동작을 보았는데 그때 지팡이에는 진짜 뱀이 있어서 이를 데 없이 극독했다. 니마성의 뱀모양 무기가 매섭다고 해도 죽은 것이고, 동작을 취할때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역시 제일 두려운 상대는 금륜법왕이었다.

네 사람이 몇 동작을 펼치자 돌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큰 걸음으로 달려왔는데 그 장대한 모양이 마치 산 같았다. 바로 그가 마광좌였다. 그는 손에 굵고 긴 숙동곤(熟銅棍)을 들고서 니마성의 뒤쪽에서 곽정의 머리를 내려쳤다. 네명의 고수는 각각 지극히 엄밀해 결코 조금의 빈틈도 없었다. 곽정의 장풍, 법왕의 금륜, 소상자의 간봉, 니마성의 철사(鐵肆)는 서로 엇갈려서 칼의 그물을 형성했다. 마광좌가 숙동곤으로 내리쳐서 이들 내사람이 형성한 그물에 부딪치자 비록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숙동곤은 갑자기 튕겨 나갔다. 동곤은 반공 중에서 멈췄고 그의 손에서는 그 충격으로 붉은 피가 흘렀다.

[사문(邪門), 사문?]

마광좌는 손에 힘을 더하여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법왕은 그와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의 이번 공격고 크게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는 단지 가볍게 냉소를 보냈다. 양과는 옆에서 비록 그의 힘이 강하지

만 무공은 곽정을 저혀 따를 수 없어 맹렬히 공격해도 만약 곽정이 천하 제일의 강룡십팔장(降龍十八掌)으로 정면에서 맞선다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양과는 이 어리석고 마음이 착한, 그리고 일찌기 자기를 몇 번이나 보호해 주었던 그가 눈앞에서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다.

[마광좌 칼을 보아라!]

양과는 군자검을 뽑아 들고 그의 등을 공격하려 했다.

마광좌는 멍청해져 동곤을 공중에서 멈추었다.

[양형, 지금 나하고 한번 싸우자는 것이오?]

[이 멍청한 놈, 여기서 무슨 소란을 피우느냐? 나에게 어서 덤벼라!]

장검을 흔들며 계속해 몇 번을 찌르자 마광좌의 손과 발이 빨라지며 계속해 뒤로 후퇴했다. 양과는 장검을 찔러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후퇴시켰다 마광좌의 발검음은 매우 커서 한 걸음 이 보통 사람의 두 걸음에 해당되어 10 여 걸음쯤 물러나자 곽정에게서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눈앞에 번쩍이는 칼을 전력을 다 해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으나 양과가 어째서 돌연 그에게 매섭게 덤벼들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양과도 몇 걸음을 물러나서 칼로 땅을 가르키며 속삭였다.

[마형,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알고 있소?]

[뭐라고?]

[소리를 적게 해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해요.]

[어째서? 나는 저 곽정이 두렵지 않아.]

이 몇마디는 우렁찼으나 그에게는 보통의 말씨였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좋아요, 입 다물고 내 말을 듣기만 해요.]

마광좌는 귀를 기울여 양과의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 곽정이 요법을 사용해 입으로 주문을 중얼거리면 능히 상대방의 머리를 잃게 되니 당신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마광좌는 눈을 크게 뜨고는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양과는 만약 곽정의 무공이 대단하다고 하면 그가 결코 설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는 곽정이 요법을 사용한다고 말해야 이 멍청한 마광좌가 믿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당신의 동곤이 그의 머리를 치면 곤은 아무것도 치지 못하고 오히려 튀어나오는데 어찌 이상하지 않단 말이오? 이 보석을 파는 오랑캐의 무공이 대단한데도 단번에 그를 해치우는 걸 보면 모르겠소?]

마광좌는 거의 이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법왕, 소상자 등을 쳐다보았다.

양과는 그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았다.

[저 화상은 부적을 그릴줄 아는데 그는 소상자와 니마성 에게는 부적을 주어서 몸에 지니게 하여 요법을 두려워 하지 않게 했소. 화상이 당신에게는 주지 않았지요?]

[주지 않았소.]

[그래? 저놈들은 의리도 없구나. 내게도 주지 않았으니...... 나중에 그에게 따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되지, 뭘!]

[양형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오.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주다니......]

마광좌는 숙동곤을 쥐고는 곽정 등 네 명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곽정이 이때 펼치는 것은 뛰어난 무공으로 무림에 널리 알려진 강룡십팔장이었다. 법왕 등 세 명을 빈틈없이 포위하며, 그의 내력이 심오하고 장풍이 무섭다 해도 오랫동안 견디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곽정은 근 20여 년 간 구음진경을 단련해 와서 비록 처음에는 진 면목을 드려내지 않았지만 수십 동작이 지나자, 강룡십팡장의 힘이 돌연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며 제일 강한 가운데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느 묘기를 펼쳤다. 이것은 그때 홍칠공도 하지 못했던 신공으로 세 명의 고수가 지닌 무기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빈틈을 이용해 공격해서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 갔다.

양과는 옆에서 관전 하면서 한없이 경탄했다. 그가 고묘에서 구음진경을 단련할 때에 신력이 부족해서 진경의 신기가 이 같은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진경의 구결과, 곽정의 장법을 보고 즉시 극히 오묘한 이치를 적지않이 깨달아 묵묵히 음미하면서 잠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

금륜법왕의 무공과 곽정의 무공은 백중지세로 곽정이 비록 묘수를 사용해도 법왕은 그에 비해서 20여 세가 많아서, 즉 20여 년의 공력을 더 쌓아서 두 사람만이 싸움을 벌인다 해도 일천 동작 안에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거기에 소상자와 니마성의 일류 고수가 가세해 법왕의 승리가 어렵지 않았으나, 곽정의 강룡십팔장의 위력이 실로 대단하고 그의 장법 가운데 전진교의 청강북두진의 진법이 섞여서 한 사람이 마치 일곱 사람처럼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단번에 윤극서를 해치워 사람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세 사람은 우선 수비에 치중해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니, 비록 세 사람이 하나를 상대한다고 해도 균형을 이루었다.

다시 수십동작을 펼치자 법왕의 금륜이 점차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니마성의 철사도 제법 날카롭게 공격을 해 왔다. 곽정은 매우 초조했다.

(이처럼 계속해 간다면 결국 내가 패한다. 과아와 마광좌가 저쪽에서 구경하고, 그의 무공이 보통이니 별 걱정은 안 된다. 아무래도 과아와 상의해서 함께 탈출을 꾀해야 겠다.)

세 사람은 힘을 다해 접전을 벌여서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수가 없었다. 양과와 마광좌는 10여 장 밖에서 관전하고 있었다.

돌연 괴상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서 소상자의 두 다리가 굳어지며 공중에서 곡상봉이 내러왔다. 곽정은 몸을 피했으나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며 곡상봉의 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며 비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 냄새에 곽정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는 봉 가운데 독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는 급하게 몇 걸음 물러났다. 소상자는 그가 자기의 봉 가운데서 나온 독약의 냄세를 맡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가 쓰러지지 않자 크게 놀랐다

(비록 호랑이 같은 맹수라 하여도 봉에서 나온 두꺼비의 독을 만나면 어지

러워 쓰러지는데......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소상자는 계속 해 두 번이나 봉을 휘둘러 독을 뿌렸다.
옛날에 소상자는 호남의 황산에서 연공하던 중 한 마리의 두꺼비가 오래 관 속에 숨어있다가 입으로 독을 뿜어서 큰 구렁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두꺼비를 잡아서는 그 독액을 얻어서 곡상봉 가운데 숨겨 두었었다. 봉의 꼬리에는 장치가 있어서 손가락으로 누르자, 독이 더욱 격렬하게 뿜어졌다. 한 번 이 독봉을 우연히 큰 구렁이에게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구렁이는 즉시 죽어 자빠졌었다. 그러나 곽정의 내력이 강하여 이렇게 극악한 독이라도 능히 버텨 낼 수 있음을 그가 어찌 알랴!
법왕과 니마성은 곽정의 옆에 서 있어서 비록 독을 많이 맡지 않았지만 속이 이상해 지면서 토할 것 같아 급히 먼 곳으로 피했다. 소상자는 콧속을 해독약으로 막아서 검은 연기 가운데를 뚫고 나가서 봉을 휘둘렀다. 곽정은 견룡재전(見龍在田)으로 그의 무릎을 내리쳤다. 소상자는 봉으로 급히 막았지만 몸은 이미 장력으로 오척 정도 날아갔다.
곽정은 몸을 기울여서 니마성의 철사가 닥쳐오는 것을 보고는 잠용물용으로 상대했다. 니마성은 재빨리 철사를 휘저어 오른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고 왼손으로 머리를 잡았다. 가슴을 막았다. 그러나 곽정의 장력이 이르는 곳이 여러 곳임을 알지 못해 장심이 비록 그의 가슴에 겨냥했다고 해도 가슴은 조금도 힘을 받지 않아 니마성은 허공을 막았다. 이때 그의 얼굴과 아랫배는 이미 장력을 받았다. 그의 몸은 작아서 행동이 민첩하였는데, 즉시 땅에 쓰러지며 몇 번을 뒹굴자 마치 가죽공이 굴러가는 듯했다.
곽정은 잠시 빈틈이 있음을 알았다.
[과아야, 자, 우리는 가자!]
금륜법왕은 그가 포위망을 벗어나려고 하자 즉시 가로막았다. 곽정의 뒤는 몽고병과 겨우 수장 정도 떨어져 10여 장 되는 긴 창이 그의 등을 향하고 있었다. 곽정은 두 팔을 흔들어 긴 창에 대항하고 오히려 두 명의 몽고 병졸을 잡아서 법왕에게 던졌다.
[받아라!]

법왕은 손을 뻗어서 그들을 받았다. 이같이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에 곽정은 멀리 뛰어나갔는데 돌연 옆에서 어깨를 치면서 두 명의 군사가 뛰쳐나오고 금륜법왕은 곽정의 뒤를 치려 했다.

곽정은 즉시 그에게 붙어서 몇 동작을 펼치자 니마성과 소상자가 다시 공격해 왔다. 곽정은 즉시 그의 뒤를 찌르는 두개의 긴 창을 빼앗았다. 그의 다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등에 마치 눈이 있는 것 처럼 법왕의 오르쪽 어께를 찌르고 다시 그의 가슴을 찔렀다. 법왕은 속으로 갈채를 보내며 금륜을 휘두르자 두개의 창이 모두 부러졌다. 곽정이 이때 몽고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몽고군은 쿠빌라이의 명령을 받아서 장막 밖에 층층히 도열해서 곽정을 사로잡으려 하였으나, 이때 그가 진중을 끼어들자 군사들은 그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단지 창과 칼이 맞부딪쳐 오히려 법왕 등 세 사람의 추격을 방해하게 되었다.

곽정은 군마 가운데에 몸을 숨기니 마침 숲속에 있는 것 같아 광야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오히려 몸을 피하기가 쉬웠다. 그는 몇 번을 돌고서 백부장의 말 앞에 이르러 말등에 뛰어올라서 군중(軍中)을 좌충우돌하면서 진을 헤치고 나온 뒤 긴 휘파람을 불었다. 이 한혈보마(汗血寶馬)는 먼 곳에 있다가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바람처럼 달렸왔다.

양과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는 돌연 한혈보마가 곽정에게로 달려가자 탄셩을 질렀다.

[대단한데!]

양과는 속으로 곽정이 일단 이 보마를 타게 되면 쿠빌라이가 천하의 정병을 모아서 그를 쫓아도 따를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처럼 급박한 때에 양과가 갑자기 큰 소리리로 외쳤다.

[아, 아파 죽겠다.!]

몸을 비틀거리며 양과는 금방 땅에 쓰러질 것 같았다. 비틀거리면서 양과는 마광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소리 말고 빨리 떠나시오. 멀리 가면 갈수록 좋소.]

이 큰 소리는 단전의 기로 질러서 비록 소란한 와중에서도 곽정이 반드이 이 소리를 듯고서 자기를 구하려 오리라 생각하고 지른 것이었다. 그가 왔을 때 마광좌가 옆에 있다면 마광좌는 영락없이 그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마광좌는 양과의 말을 잘 들었으나 그의 뜻을 모른 채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장막을 향해서 달렸다.

곽정은 양과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무슨 큰 위험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즉시 말머리를 다시 진중으로 돌려서 양과가 서 있는 곳으로 뛰어 들었다. 법왕은 잠시 생각을 한 뒤, 양과의 뜻을 알고는 곽정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의 퇴로를 막기로 했다. 곽정은 말을 달려서 양과 앞에 이르렀다

[과아야, 무슨 일이냐?]

양과는 거짓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공을 하다가 기가 거슬렸는지 단전의 통증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은 전혀 흠이 없었다. 마광좌의 무공이 평이해 그가 공격했다고 하면 곽정이 이미 보았을 것이고, 만약 마광좌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 곽정의 의심을 면할 수 없게 될 일이었으나 내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표면상으로는 전혀 눈치를 챌수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엊저녁에 자신의 내공을 잘못된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어서 그 의 상처가 다시 발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곽정이 생각하리라 여긴 것이었다. 곽정은 그의 왼손이 아랫배를 누르고 있고, 이마에 식은 땀이 나느 것을 보고는 상처가 가볍지 않음을 알았다.

[내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메고 가겠다.]

[곽백부 혼자서 빨리 가세요. 저는 죽어도 되지만 백부는 양양성의 간성이 아닙니까! 백성과 병사들이 모두 백부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는데 어찌 너를 두고 가겠느냐? 빨리 업혀라.]

양과는 머뭇거렸지만 곽정은 두 다리를 쪼그리고 그를 끌어서 자기의 등에 업으려 했다. 바로 이때에 곽정이 타고 들어왔던 준마가 화살에 명중되어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쓰러졌다. 곽정은 일생 동안 무수한 위험을 겪어서

정세가 위급해지면 질수록 더욱 용기를 내어 침착하게 대응했다.

[과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몸을 일으커서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법왕, 니마성, 소상자 등이 다시 공격해 왔다. 곽정은 사방에 군마가 운집해서 이전보다 더욱 포위가 엄중해진 것을 알았다. 왕자의 장막 앞 큰 깃발 아래에 쿠빌라이가 잔을 들고 관전하고 있었는데, 승리가 이미 손 안에 있다는 듯이 매우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곽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양과를 업고서 쿠빌라이를 향해서 달려들었다. 잠시만에 그의 앞에 이르렀다. 좌우의 호위병은 크게 놀라서 긴 칼과 긴 창을 들고서 앞을 가로막았다. 곽정의 장풍은 대단해 손바닥이 한쪽으로 펼쳐지자 한 명의 호위병이 그의 장력에 넘어갔다. 겨우 몇발만 앞으로 나선다면 장력은 쿠빌라이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호위병들은 목숨을 버리며 막으려 했으나 어찌 곽정의 신기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법왕은 이러한 위급을 보고는 금륜을 곽정의 머리를 향해서 날렸다. 곽정은 머리를 향해서 날렸다. 곽정은 고개를 숙여서 피하고는 제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그가 쿠빌라이를 사로잡는다면 몽고인들은 감히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활로(活路)를 내 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 것인가!)

양과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또 한번 물었다.

[곽백부,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백부가 죽이셨나요?]

곽정은 양과의 이 말에 매우 놀랐지만 이때에는 자세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되는 대로 말했다.

[그는 적에게 아부하고 국가를 배신하고 백성을 해쳐서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 했었다.]

[네 알았어요!]

양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군자검을 빼들고 그의 목을 찌르려했다.

돌연 눈앞에 불빛이 번쩍 하면서 한 자루의 봉이 그의 장검을 가로막았다.

양과는 상대방의 봉과 부딪쳐 잠시 멈칫 하는 순간, 이봉이 소상자가 휘두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양과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내 칼이 곽정을 찌르려 하는데 왜 그가 방해를 할까?)

잠시 후에야 양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 그렇군. 곽정이 내 칼에 죽으면 몽고 제일의 용사란 칭호가 나에게 돌아오지. 하하, 너 소상자가 어찌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지, 내가 보잘것 없는 속세의 허명(虛名)에 마음을 쏟지 않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는 계속해 칼을 휘둘러 소상자의 곡상봉을 물리치며 곽정의 등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소상자가 여전히 봉을 휘둘러서 방해했다.

이때 곽정은 장력으로 법왕의 금륜과 니마성의 철사에 대적하고 있어서 양과가 자기의 등 위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소상자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조심해! 그의 봉에는 독이 있어.]

법왕과 니마성은 곽정의 앞에 있어서 이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과가 목적을 달성하려 하면 소상자가 계속해 방해하는 것을 보았다.

[소상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소상자는 음흉하게 웃으면서 맹렬하게 봉을 휘둘러서 양과를 공격했다. 양과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세번 로 독수를 뻗쳤으나 소상자가 다시 봉을 휘둘러 장검을 막았다. 곽정은 양과가 몸에 상처가 있어서 곡상봉을 막지 못할까 두려워서 왼손을 휘둘러 소상자의 가슴을 공격했다. 소상자는 급히 몇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때 양과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자 다시 검을 휘둘러 곽정의 목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소상자는 양과가 뜻을 이룰까 두려워 하여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와서 곡상봉을 휘둘러 양과의 등에 있는 급소를 찔러서 그가 어쩔수 없이 우선 자신을 보호하도록 했다. 곽정은 오른손으로 법왕 등과 상승내력으로 대결하면서, 자기와 양과가 동시에 위험에 빠졌음을 알고는 왼손을 써서 신룡패미로 소상자의 간봉을 공격했다. 소상자의 온몸이 떨리면서 열이 나더니 새하얀 얼굴이 돌연 붉어졌다.

이때에 니마성이 굴러들어와 철사를 휘두르며 공격하자 뱀의 머리가 이미 곽정의 왼쪽 옆구리를 쳤다. 곽정의 온몸의 힘은 거의 금륜법왕을 상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의 힘은 소상자의 간봉을 공격하여 철사의 공격을 막을 만한 여력이 없었다. 위급한 가운데 왼쪽 옆구리가 뒤로 반 척 정도 움츠러들어서 적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철사의 뱀머리는 그의 옆구리를 이미 수 촌(寸) 정도 찔러 들어갔다.

곽정은 기를 움직여서 피부에 탄력을 주어 철사가 더 이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왼발을 날리자 니마성이 쓰러지며 몇 번을 굴렀다. 니마성은 철사가 그의 급소에 꽂혀서 곽정의 생명을 빼앗아 <몽고 제일의 용사>라는 명예가 자기에게 굴러오는 것으로 알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결코 적이 패배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무서운 공부로 반격을 가할 줄은 상상조차 못 한 것이었다. 이 한번의 발 공격은 가슴에 명중하여 졸지에 갈비뼈가 세개나 부려졌다.

한쪽에는 소상자와 니마성이 동시에 패하여 나가떨어졌다. 곽정은 장력에 힘을 배로 가했다. 그러나 곽정의 왼쪽 옆구리 기문(기문)이 이미 손상을 입어서 계속 대적할 수가 없었다. 무슨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를 눌러서 더 이상 계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그간 20여 년 간 의 내공을 한 동작에 모아서 공격하려 하자 우왁,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그는 양과를 생각하고 있었다.

[과아야,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가거라. 내가 그들을 막아줄 테니.]

양과는 그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보호해 주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가 치솟았다. 그 순간 양과는, 곽백부느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니 만약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그를 구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즉시 그의 등에서 뛰어내려 군자검을 어지럽게 휘두르며 곽정을 보호했다. 그는 미친 듯이 하나 하나의 동작에 목숨을 걸었다. 법왕과 소상자는 잠시 멍청해졌다.

[양형,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양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칼을 휘둘러 법왕을 찌르려 했으며, 칼끝이 흔들리면 다시 소상자에게 칼을 돌렸다. 두 사람은 그의 붉어진 두 눈과 이상한 그의 태도를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그가 자기들처럼 <몽고 제일의 용사>란 명예를 탐내어서 혼자 곽정을 죽이는 공을 세우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과아야, 빨리 떠나거라. 너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곽백부! 제가 백부를 해치려 했는데, 오늘 여기서 함께 죽겠어요.]

칼날을 번쩍이며 양과는 단지 곽정을 보호하며 자기의 안위는 살피지 않았다.

법왕과 소상자는 무기를 들고서 한꺼번에 곽정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양과의 칼이 신속하여 두 사람은 감히 곽정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몽고의 수많은 병사들은 사방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면서 세 사람이 어울려 싸우는 것을 보았다.

곽정은 계속해 양과에게 도망치라 재촉하였으나 그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는 걱정하는 가운데 감격을 하자, 곧 내상을 입어 더 이상서 있지 못하고는 무릎을 끓고 땅에 주저앉았다.

니마성은 갈비뼈가 세개나 부러져서 고통이 극심했으나 철사를 들고서 천천히 다가와 곽정을 죽이려 다. 양과는 미친 듯이 검을 찌르며 몸을 숙여 곽정을 업고서 밖으로 탈출하려 했다. 그의 무공은 법왕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곽정까지 업었으니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몇 번을 다시 접전하자 그의 왼쪽 팔에 금륜법왕이 가한 긴 상처가 생겼다.

화염 속에 새 생명이

몽고군 진영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더니 한 절름발이 늙은이가 왼손에는 쇠지팡이를 짚고 오른손으로 철추를 휘두르며 뛰어들었다.

[양공자, 어서 밖으로 내달리시오. 적의 배후는 내가 차단하겠소.]

양과가 얼른 보니, 바로 도화도 황약사의 제자인 대장장이 풍목풍이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돌연 이곳에 나타났는지 궁금했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풍목풍은 몽고 병영에 들어가 병기를 제조하고 수리해 주는 생활을 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비밀리에 벌써 몽고군의 군관을 두 명이나 주여 버렸다. 그러나 그의 솜씨가 워낙 은밀하여 발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풍목풍은 고함소리가 하도 요란하기에 멀리서 보니, 곽정과 양과가 포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곧바로 커다란 철추를 휙휙 휘두르며 뛰어들었다. 그의 철퇴를 맞은 자는 그자리에서 즉사했다. 결국 그의 출현으로 곽정과 양과는 혈로를 뚫을 수 있었다.

양과는 살았다 싶어 세차게 검을 휘둘러 댔다. 그러나 법왕의 금륜이 그의 검초와 풍목풍의 철추를 동시에 받아넘겼다. 소상자의 곡상봉이 곽정의 등뒤를 찔러 들어가자 법왕은 양과를 풀어 주어 곽정을 죽이게끔 했다. 만약 그의 금륜이 곽정을 치려 했다면 소상자도 그렇게 했을 것이었다. 만약 그들 두 사람이 공을 다투지만 않았더라면 양과가 비록 죽어라 하고 싸운다 해도 곽정은 이미 살아남기 힘들었을 일이었다.

쿠빌라이는 그날 몽고 제일의 용사라는 영호(榮號)를 내려 모두들 용감히 싸우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각자가 서로를 견제하여 일을 그르치게 될 줄은 그러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곽정이 비록 한순간 목숨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몽고군들은 이미 주위를 철벽처럼 에워쌌다. 소상자와 법왕이 서로 앞을 다투었다. 니마성은 고통을 참느라 입을 악물면서도 허점을 틈타 돌연 악랄한 초식을 펼쳤다.

곽정과 양과는 이미 한 시간 정도 적진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햇빛이 약간 비스듬히 비추기 시작했다. 법왕의 초식이 돌연 변하더니 띵, 하며 양과의 장검과 부딪쳤다. 군자검은 강철도 자를 수 있는 보검으로, 금륜에 한줄 흠집을 냈다. 법왕은 기세를 몰아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밀고들어왔다. 양과는 곽정이 다칠까 봐 피하지도 못하고 검으로 맞섰다. 금륜이 비스듬히 비끼면서 찌익, 하고 양과의 오른손 팔꿈치 아래를 그어 버렸다. 상처는 비록깊지 않았으나 혈관을 터뜨려 이내 새빨간 피가 흘러나왔다. 몇 초 사이에 다리에 점차 맥이 빠지며 힘도 점차 빠져 갔다. 상대의 공격이 워낙 강해 지혈을 할 틈이 없었다.

풍목풍이 철추를 휘두르며 힘껏 달려들었다. 그러나 법왕은 왼손으로 일장을 뻗어 막아낼 뿐이었다. 풍목풍이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양과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조차 어려울 판이었다. 소상자가 이때다 싶어 니마성의 영사 단편을 들고 펄쩍 뛰어 곽정의 머리에 독모래를 뿌리려 했다.

양과는 기겁을 하고 얼른 왼손을 뻗어 봉두(捧頭)를 잡으려 하며 오른손의 장검을 찔러 들어갔다. 순간 그의 전신이 그대로 들어나 버렸다. 법왕이 단지 가볍게 손만 놀려도 바로 그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다. 그러나 법왕은 그의 손이 소상자에게 옮아간 것에만 신경을 썼다. 법왕은 얼른 일장을 뻗어 풍목풍을 밀어젖히고 곽정을 생포하려고 왼손에 기공을 넣어 그의 등 뒤를 움켜잡으려 했다. 소상자는 양과가 이처럼 무작정 달려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몸이 채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의 병기가 이미 양과에게 잡혀 있어 공중에서 힘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눈앞에 백광이 번쩍 하더니 칼끝이 어느새 가슴팍까지 바싹 다가왔다. 사태가 너무나 다급하여 봉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풍목풍은 철추와 쇠지팡이를 함께 시전하여 급히 법왕의 등 뒤를 쳤다. 법왕이 금륜을 휘두르자 따당, 하는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순간 풍목풍의 엄지와 검지 사이(호구:虎口)가 터져 버렸다. 풍목풍은 병기를 내던져 버리고 포효하는 듯한 소리를 내지르며 두 손을 뻗어 법왕을 꽉 끌어안고는 땅에 함께 쓰러졌다.

법왕은 화가 치밀어 마치 풍목풍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을 듯이 그의 어깨에 연속 맹타를 퍼부었다. 풍목풍은 뭉고 군중에서 몽고군들의 잔인 포악한 면과 세찬 기세로 양양을 공격하는 것을 보던 중, 곽정이 사투를 벌여 적군을 격퇴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곽정과는 평소 알지도 못했고, 그가 사뭉의 사위인 줄은 더더구나 몰랐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양양을 고수하기가 힘들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곽정을 구해야 겠다고 풍목풍은 뜻을 굳혔었다. 법왕은 쾌속하게 계속 일장을 뻗었다. 파바박, 몇 변 얻어맞자 풍목풍은 근골리 절단되고 내장에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그는 두손을 놓지않고 법왕의 가슴팍 살을 더욱

힘껏 움켜쥐었다.

몽고군들은 법왕 등의 고수들이 승리하리라 여겨 끼어들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데 돌연 법왕이 땅에 쓰러지고 소상자가 뒤로 물러나자 우르르 몰려들었다.

당시의 정세로 보아 설사 곽정이 부상을 입지 않았고 양과 두 사람의 무공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동시에 몰려드는 일천여 명의 몽고군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양과는 탄식을 했다.

(다 틀렸다. 이제 끝장이구나!)

소상자의 봉을 마구 휘둘러 대는데 돌연 푸우, 하는 소리와 함께 봉 끝에서 시커먼 연기가 터져나오면서 앞 쪽에서 달려들던 10여 명의 몽고군들이 독연기에 소여 쓰러지기 시작했다. 양과는 곡상봉을 마구 휘둘러 대다 자신도 모르게 봉 속에 숨겨진 두꺼비 독을 분출 시키는 장치를 건드렸던 것이다.

양과는 순간 멈칫 했으나 즉각 사태를 깨달았다. 양과는 곽정을 부축해 성큼성큼 앞으로 내달았다. 몽고군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자 그는 손잡이를 눌러 시커먼 연기를 계속 뿜어 냈다. 또 10여 명의 병졸들이 독에 맞아 쓰러졌다. 몽고군의 병졸들은 비록 전투는 잘 했지만 모두 미신을 믿는 터인지라 양과가 이처럼 봉을 휘둘러 연기를 뿜어 10여 명씩이나 한번에 처치해 버리자 모두둘 고함을 질러 댔다.

[저자가 봉으로 요술을 부린다. 모두 피해라!]

쿠빌라이의 친위병들은 용맹무쌍할 뿐만 아니라 왕의 군령을 태산 처럼 여겼다. 비록 눈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여전히 앞으로 달려들었다. 양과가 봉을 누르자 시커먼 연기와 함께 또 10여 명이 나자빠졌다.

이윽고 그가 길게 휘파람을 불자 황마가 번개같이 달려왔다. 양과는 곽정을 말등에다 올려놓았다. 손발이 나른해지며 말에 올라탈 힘조차 없었다. 양과는 말잔등을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다.

[나의 애마야. 어서 떠나거라!]

황마는 매우 영물인지라 주인이 타지 않자 머리를 치켜들어 히히힝, 울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몽고군이 사방에서 밀려 들었다. 봉의 독연기가 있다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양과는 봉으로 냅다 말 잔등을 후려갈기며 소리쳤다.

[이 멍청한 황마야! 어서 가란 말이다!]

그는 이미 힘이 빠져 있어 말잔등을 겨냥하고 때린다는 것이 그만 곽정의 다리를 때렸다. 곽정은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데 얻어맞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눈을 떠보니 양과가 말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얼른 양과의 가슴팍을 붙잡아 말등에 올려 태웠다. 황마는 길게 울부짖으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호각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곽정이 휘파람을 불어 대자 홍마가 이어 달려왔다. 몽고군의 군마들도 추격해 왔다. 홍마는 황마 곁으로 달려오며 계속 곽정의 몸 가까이에 붙었다. 양과는 황마가 비록 영물이긴 하나 홍마만큼 빠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각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곽정을 껴안고는 홍마위로 올라탔다. 이 때 등뒤에서부터 휘잉, 소리를 내며 금륜이 날아왔다. 양과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풍목풍이 끝내 법왕의 손에 죽었구나.)

금륜의 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양과는 말잔등에 바싹 몸을 숙여 금륜이 스쳐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금륜은 홍마의 다리를 노린 듯 아래쪽에서 소리가 났다.

금륜법왕은 풍목풍을 처치하고 나서 일어나 보니 곽정과 양과가 이미 말을 집어 타고 도망가고 있었다. 쫓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즉각 금륜을 던진 것이다. 그는 양과를 맞혀 죽인다 해도 곽정은 끝내 홍마를 타고 도망갈 것이니, 말의 다리를 자를 셈으로 낮게 던졌다.

금륜이 점점 더 가까이 오자 검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기력이 이미 다 소진되어 검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으나 딱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금륜은 벌써 2 척 정도로 바싹 다가왔다. 휘잉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욱 졸였다. 그는 검을 내려뜨려 말의 다리를 보호하려 했다. 그때 홍마는 뒤에서 위험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 더욱 빨리 내달렸다. 순간 금륜

과의 거리는 여전히 2척 정도로, 더 이상 가까와지지 못했다. 마침내 금륜의 기세는 점점 약해져 금륜과의 거리는 3척 정도에서 4척, 이어 5척으로 점점 멀어지더니 끝내 대앵, 하며 땅에 떨어졌다.

양과가 숨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황마가 복부에 화살을 맞고는 땅에 쓰러져 주인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양과는 마음이 아려 와 그만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홍마는 유성처럼 빠르게 내달아 순식간에 추격병들을 멀리 뒤편으로 떨구었다. 양과는 곽정을 끌어안고 물었다.

[곽백부, 괜찮아요?]

곽정이 <음!>하고 대답했다. 양과는 곽정의 호흡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호흡이 거친 것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 순간 양과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해져, 말등에 엎어진 채 홍마가 달리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돌연 전면에 또 무수한 군마들이 나타났다. 양과는 즉각 장검을 휘두르며 고함쳤다.

[곽백부를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

그는 어지러이 마구 검을 휘둘렀다. 눈앞이 휘미해 지며 사람들이 빙그르르 춤을 추는 것같이 보이더니, 끝내는 말애서 떨어졌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고함쳤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나쁜 놈은 나니까 곽백부는 건드리지 말아라!]

별안간 하늘이 빙빙 도는 것을 느낀 양과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양과가 서서히 정신을 되 은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곽백부, 곽백부! 괜찮아요? 곽백부를 해치지 말아요!]

곁에 서 있던 사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과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곽백부는 잠시 요양하면 곧 좋아질 거야.]

양과가 고개를 돌려 보니 황용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해 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녀의 뒤로 눈에 이슬이 맺힌 채 정이 그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소용녀였다. 양과가 놀라 물었다.

[아가씨, 어떻게 왔어요? 몽고군에게 잡혀서 왔지요? 어서 도망쳐요. 나는

상관 말고......]

소용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지금 안전하게 양양성에 있으니까.....]

양과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지가 말할수 없이 노곤해져 그는 곧 눈을 감았다. 황용이 말했다.

[그가 이제 정신이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여기서 계속 돌봐 주는게 좋겠군요.]

소용녀는 양과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용이 몸을 일으켜 막 문을 나서려는데 지붕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황용은 금새 안색이 변하며 좌장을 뻗어 촛불을 껐다.

양과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자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가 받은 상처는 단지 가벼운 외상일 뿐인데 피를 많이 흘린데다가 힘을 많이 써서 기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벌써 반나절이나 요양을 했고, 황용인 준 도화도의 영약인 구화옥로환(九花玉露丸)도 복용했는데다가 나이도 젊고 건강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거의 회복이 되어 있었다. 천장에서 돌연 소리가 들리자 그는 일어나 적을 막으러 했던 것이다. 소용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침상 머리맡에 있던 군자검을 뽑았다.

[과야, 너는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지킬 테니.]

그때 지붕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한 바탕 웃더니 낭랑하게 소리쳤다.

[소생이 서신을 전하려 왔는데, 설마 남조의 예절이 깜깜한 곳에서 빈객을 맞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못 볼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소생, 잠시 후 다시 옴이 어떨지요?]

말 투를 들어보니, 바로 금륜법왕의 제자인 곽도왕자였다. 황용이 말했다.

[남조의 예절은 사람에 따라 맞추어 베푸는 것이다. 밝은 대낮에는 광면정대한 빈객으로 접대하는 것이고, 깊은 야밤에 찾아온 손님은 흉계를 꾸미려는 도적으로 알고 맞이한다.]

곽도는 말문이 막혀, 즉각 가볍게 정원으로 뛰어내리며 말했다.

[이 서찰을 곽정 대협께 드리시오.]

황용이 방문을 열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

곽도는 방안이 컴컴하여 즉각 들어서지 못하고 방문 밖에 서서 말했다.

[서찰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오.]

[자칭 빈객이라더니 어째서 들어오지 않는 거요?]

곽도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군자는 자고로 위험한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법이오.]

[세상에 소인의 마음을 지닌 군자도 있다던가!]

곽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황방주의 입심이 원래 대단하여 그녀와 설전(舌戰)을 해 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문을 바라보며 서찰을 건네 주었다.

황용이 죽봉을 휘둘러 돌연 그의 얼굴을 찍었다. 곽도는 깜짝 놀라 급히 뒤로 펄쩍 뛰었다. 순간 수중의 서찰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원래 황용은 죽봉 끝으로 서찰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해산일이 가까와서 아랫배가 물록 튀어나와 있어 외부인을 만나기를 싫어했다. 곽도는 그만 주눅이 들어 입성할 때의 예기가 어느 정도 꺾였다.

[서찰을 전했으니, 그럼 내일 저녁에 봅시다!]

황용이 생각했다.

(이 양양성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아느냐? 네놈 멋대로 들어오고 멋대로 나가게 말이다.)

황용은 탁자위의 차 주전자를 들어 홱 뿌렸다. 차 주전자의 뜨거운 찻물이 주전자 꼭지에서 실처럼 쭉 뻗어나갔다.

곽도는 그때 방안에 무슨 안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여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찻물은 다른 암기처럼 소리나 냄새가 없었다. 곽도는 목, 가슴, 오른손에 찻물을 맞았다. 그는 깜짝 놀라 <아앗!>하고 소리를 지르며 급히 옆으로 피했다.

황용은 문 옆에 서 있다가 이 틈을 타 죽봉을 뻗어 타구봉법 주의 <반(絆)>자 구결을 시전해서 곽도를 넘어뜨렸다. 곽도는 몸을 날려 뛰어올랐다. 그

러나 이 <반>자 봉법은 제 1봉을 피해 즉각 숨어 버려야 제 2봉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 제 1봉에 걸려들었으니 몸을 일으키며 제 2봉을 막아내기란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었다. 발밑이 마치 늪에 빠진 듯, 수많은 덩굴에 얽힌 듯, 넘어졌다 일어나면 또 넘어졌다.

사실 곽도의 무공도 원래는 대단하여 만약 황용과 정식으로 대결한다면 이렇게까지 낭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단지 갑자기 몸에 뜨거운 찻물이 닿자 무슨 지독한 독극물에 맞는 줄로 알아 경황이 없던 중에 황용의 돌연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제 1봉에 걸려든 뒤, 제 2봉에는 더더욱 반격할 틈이 없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넘어졌다.

이때 무씨 형제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황용이 소리쳤다.

[저 도둑놈을 잡아라!]

곽도는 얼른 꾀를 내었다. 몸을 일으키다가 또다시 넘어지게 되자, <어이쿠>하고 소리를 내지르며 짐짓 크게 당한 듯 나가 떨어져 꼼짝도 안 했다. 무씨 형제가 달려가 그의 몸을 덮쳤다. 순간 곽도의 철골접선(鐵骨摺扇)이 돌연 타닥,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다리 혈도를 찍어 버렸다. 곽도는 두 사람의 몸을 동시에 밀어내며 황용의 죽봉을 막아내고는 몸을 날려 담장 위로 올라섰다. 두 손을 모아 읍을 하며 말했다.

[황방주, 대단한 봉법에 밥통 같은 제자로군요!]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네 몸에 이미 독이 중독되었는데 이제 누가 너와 접촉을 하려 들겠느냐?]

곽도가 이 말을 듣더니 얼굴색이 확 변했다.

(이 독물은 피부를 데게 하고 또 찻잎의 기운까지 지니고 있으니 어떤 기괴한 약물인지 모르겠군.)

황용이 그의 의중을 눈치채고 말했다.

[너는 극독에 중독되었으면서도 독물의 이름조차 모르니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겠구나. 좋다. 내 네게 알려주마. 이 독물은 자오견골차(子午見骨茶)라 부르는 것이다.]

[자오견골차?]

[그렇지. 피부에 단 한 방울만 맞아도 전신이 뼈만 남게 되어 열 두 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지. 아직 열 두 시간은 살 수 있으니 어서 꺼져라.]

곽도는 평소에 개방 황방주의 무공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지모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부친인 황약사는 상당히 박식하여, <약사(藥師)>라는 이름은 약리에 정통하다는 것을 하는 말이었다. 그녀의 총명함에 가전지학(家傳之學)을 함께 한다면 자오견골차 정도는 손쉽게 만들어 낼 것 같았다. 곽도는 담장 위에서 멍하니 선 채 그냥 돌아가야 좋을지, 아니면 그녀에게 해약을 달라고 머리를 숙여야 할지 몰랐다.

황용은 그가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독물이라고 잠시 그를 속일수는 있었도 시간이 지나면 곧 발각될 것이었다.

[나는 본래 너와 원수진 일이 없다. 만약 네가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곽도는 이 말에서 한가닥 희망을 가져 자기 신분 따위는 말끔히 버리고 얼른 담장 위에서 뛰어내려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소인의 무례를 황방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은 문 뒤로 숨었다가 나오며 구화옥로환을 튕겨 주며 말했다.

[어서 먹어라.]

곽도가 얼른 약을 받아 들었다. 그는 생명이 걸린 약이라 생각하여 소중히 받아 입 안에 넣었다. 쏴, 하는 향내가 단전으로 내려갔다. 전신이 말할 수 없이 편해졌다. 그는 또 한 번 깊숙이 절을 하며 말했다.

[황방주,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 그의 기세는 이미 완전히 꺽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러나 담벽에 이른 뒤, 담을 뛰어 넘어 황급히 성 밖으로 나갔다.

황용은 그가 멀리 사라진 것을 본 후 가볍게 탄식을 했다. 그녀는 무씨 형제의 혈도를 풀어 주며 방금 곽도가 한 말을 생각했다.

(대단한 봉법에 밥통 같은 제자라?)

비록 적을 물리쳤지만 황용은 조금도 신나지가 않았다. 타구봉법으로 곽도를 쓰러뜨릴 때 힘을 쓴 탓으로 그녀는 배에 은근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쉬었다.

소용녀가 촛불을 켜자 황용이 서찰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몽고 제일 호국법사 금륜법왕이 곽대협에게...... 당신의 왕림은 정말로 평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이었소. 원래는 밤이 깊도록 담화를 나눌 작정이었는데 노구의 접대가 소홀하였는지 어찌 그리도 총총 가셨습니까? 백발이 새롭게 나듯이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뵐 터이니 천 리 밖에서 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용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찰을 양과와 소용녀에게 건네주며 말 다.

[양양성 성벽이 비록 강하고 무림 고수들이 많으나 곽백부가 중상을 입고 나 또한 힘을 쓸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 적이 아마 대거 공격할 모양인데......]

양과가 말했다.

[곽백부......]

소용녀가 그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책망하는 빛이 담겨져 있었다. 양과는 자신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곽정을 구하려 했던 것을 소용녀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얼른 입을 다물어 버렸다. 황용이 수상쩍게 여겨 물었다.

[용아가씨. 양과는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니 우리 편에서는 오직 당신과 주자류(朱子柳)만이 적을 맞아 대적해야겠군요.]

소용녀는 말을 꾸며 댈 줄 몰라 생각나는 대로 담담하게 말했다.

[난 단지 양과 한 사람만을 보호할 거예요. 남들이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황용이 이상하게 느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황용은 양과에게 말했다.

[곽백부가 말씀하시길, 이번에 살아서 돌아온 건 전적으로 네 힘 때문이다고 하시더구나.]

양과는 자신이 세 차례나 곽정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조카놈이 무능하여 곽백부께서 중상을 입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황용이 말했다.
[자, 편히 휴식이나 취하고 있어라. 적들이 공격을 해 와 만약 우리들이 대적해 나가기 힘들어지면 지모로 대항하면 될 테니까......]
하며 고개를 돌려 소용녀에게 말했다.
[용아가씨, 내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이리 좀 오시오.]
소용녀가 주저하며 말했다.
[그는......]
양과가 양양성에 다시 돌아온 후, 소용녀는 그의 침상에서 지금껏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황용이 잠깐 나가자고 하자 양과가 심히 걱정되었다. 황용이 말했다.
[적들이 내일 공격하겠다고 했으니 오늘밤은 별 일 없을 거예요. 내가 할 말은 양과와 관련이 있는 말이예요.]
소용녀는 머리르 끄덕이며 양과에게 조심하라고 속삭인 후, 황용을 따라 방을 나섰다.
황용은 그녀를 자기의 침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후 말했다.
[용아가씨, 당신은 우리 부부를 죽이려고 생각했지요, 그렇죠?]
소용녀는 비록 천성이 순진하였지만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었다. 그녀는 양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곽정 부부를 죽이려고 생각했었다. 황용이 만약 말을 돌려서 물었다면 그녀가 어찌 심정을 그대로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황용은 그녀의 성격을 헤아려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것이다. 소용녀는 순간 멈칫하며 더듬더듬 말했다.
[나......, 난......, 당신 부부가 이렇게 잘 대해 주는데 내가 어찌......, 왜 당신 부부를 죽이려 하겠어요?]
황용은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자 자신의 짐작이 들어맞았음을 알았다.
[나를 속이려 들지 말아요. 난 벌써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그의 부친을 해쳐 우리 부부에게 복수하겠다고 양과가 이미 말했어요. 당신은 양과를 사랑하니까 그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 그를 도우려는 것이지요?]

소용녀는 더이상 상대방을 속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양과가 이미 말했다는 것을 듣자 함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정말 모르겠어요.]

[무엇을?]

[양과가 어째서 죽를 뻔하면서도 곽대협을 구출해 왔는지 말이예요! 그는 금륜법왕과 함께 곽대협을 죽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황용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비록 양과가 어떤 꿍꿍이 속이 있다고 짐작했지만 그가 몽고인들과 결탁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음색하나 변하지 않고 이미 그 모든것을 알고 있는 양 말했다.

[아마 곽대협이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의협심이 깊은 것을 보고는 그가 끝내 손을 쓰지 못한 것 같군요.]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이니 처연히 말했다.

[일이 이 지경에 됐으니 모두 말하겠어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답니다. 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호인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어요. 설사 자기가 죽을지언정 원수를 죽이려 들지 못했던 거예요.]

황용은 잠시 머리를 빠르게 회전하여 추측해 보았지만 그녀가 한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말투가 하도 처량하게 들려 위로하는 말을 할 뿐이었다.

[양과의 복수에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그가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니 며칠만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테니 너무 걱정 하지 말아요.]

소용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진주 같은 눈물을 주르륵 떨구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 사람은......, 그는 단지 칠일밖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떠...... 어떻게 며칠을 쉬란 말이예요?]

[칠일밖에 살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어서 얘기해 봐요. 그를 구해낼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소용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러다가 결국 절정곡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양과가 어떻게 정화지독에 맞았으며 구천척이 어떻게 그에게 절정단의 반쪽을 먹게 했으며, 어떻게 해야 나머지 절정단 반쪽을 얻을 수 있는지를, 또한 이 극독이 발작될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등 모든 것을 얘기해 주었다.

황용은 들으면 들을수록 놀랐기만 했다. 구천리, 구천인 형제 외에 누이동생 구천척이 있어 이러한 화근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

소용녀는 그 동안의 경위를 다 말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칠일밖에 살 수가 없으니 오늘밤 당신부부를 죽인다 해도 절정곡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설사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오로지 양과를 구하려는 생각뿐이지, 그의 복수가 어찌됐건 사실 안중에도 없답니다.]

황용은 처음에 양과가 오로지 복수의 일념만을 품고 있는 줄로 알았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보니 그 사이에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을 줄이야! 그가 곽정을 힘껏 구해 준 것은 진실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살신성인(殺身宬仁)의 마음은 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 했다. 그녀는 지모가 뛰어나 곤경에 빠질 때마다 책략이 떠오르곤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황용은 몇 시간이나 골똘히 생각애 잠겼다. 고수의 적들이 대거 몰려든다면 자신이 양과에게 말한 <지모로 대항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소용녀의 모든 생각은 오직 양과에게만 있었다. 황용의 마음은 반으로 나누어져 하나는 남편, 하나는 딸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찌해야 남편과 곽부가 무사할까?)

그러다가 황용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양과도 남을 위해 자신을 휘생하려 했는데 나라고 그렇게 해 낼수 없으랴!)

황용은 곧바로 몸을 돌려 거리낌없이 말했다.

[용아가씨. 나에게 양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이 있는데 따라 해 주시겠어요?]

소용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전신이 떨렸다.

[나......, 난......, 내가 죽는다 해도 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설령 죽음보다 더하다 해도......, 난......, 난......!]

[좋아요 이 일은 오직 당신과 나만이 알도록 해요. 절대로 발설을 하면 안 돼요. 양과조차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소용녀는 그러마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당신과 양과가 손을 잡고 곽정을 보호해 위기가 일단 지나가면 나의 수급을 당신에게 주겠어여. 그럼 양과가 한혈보마를 타고 절정곡에 가서 단약과 바꾸며 될 거예요.]

소용녀가 흠칫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황용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자신의 생명보다 양과를 더 사랑하지 않나요? 오로지 그가 무사하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쾌념치 않는 걸로 아는데요?]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당신이 양과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자식이 없어 에미 된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을 모를 거예요. 난 단지 내 남편과 자식을 잘 돌보아 달라고 당신께 부탁 할 뿐이예요. 그 외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소용녀는 가만히 듣기만 했다. 황용이 계속 말했다.

[만약 당신이 양과와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금륜법왕을 격퇴시키지 못할 거예요. 양과는 이미 몇 차례나 내 남편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단 한번이라도 그를 구해 주지 못하겠어요? 그 한혈보마는 하루에 천 리를 내달리니 삼일이 못 되어 절정곡에 다다를 거예요. 구천리와 양과의 부친 모두 나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니 절대로 내 남편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천척이 내 수급을 보게 된다면 비록 마음에 차지는 않을지라도 해약을 내 주지 않을 순 없을 거예요. 이후에 당신 두 사람은 나라를 위해 힘을 써 주고 백성들을 위

해 적을 막아 준다면 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심산유곡에 숨어 은거한다 해도 나로서는 감격할 뿐이예요.]

이런 말은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소용녀는 요근래에 줄곧 어떻게 곽정, 황용을 해쳐 양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지금 황용이 스스로 이러한 말들을 꺼내자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고개만 흔들어 대다가 소리쳤다.

[그건 안 돼요!]

황용이 다시 설명을 하려는 순간 문 밖에서 곽부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다. 황용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애야, 무슨 일이냐?]

곽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곽부는 소용녀가 옆에 있는 것을 개위치 않고 곧바로 황용의 품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엄마, 무씨 오빠들이......]

하며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황용이 눈쌀을 찌푸리며 물었다.

[또 무슨 일이냐?]

곽부가 울면서 말했다.

[그들......, 무씨 오빠들이 성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황용은 화가 나서 꾸짖듯이 말했다.

[왜 싸워? 그들 형제들이 자기들 끼리 싸운단 말이냐?]

곽부는 모친이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네. 싸우지 말라고 말려도 내 말은 듣지 않아요. 그들......, 그들은 만약 지는 사람은 죽기 전에는......, 나......, 나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황용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었다. 적을 앞에다 두고 온 성안의 백성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이들 형제들은 계집애 하나를 놓고 죽어라 하고 싸우고 있다니! 그녀는 노기 때문에 순간 아랫배에 고통이 와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넌는 음성을 낮추어 물었다.

[네가 중간에 끼어든 것이 분명하다. 조금도 거짓 없이 자세히 얘기해 보아라.]

곽부는 소용녀를 쳐다보고는 얼굴이 다소 붉어지며 그만 <엄마!>하고 소리쳤다.

소용녀는 양과를 걱정하고 있다가 무씨 형제들이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양과를 보기 위해 나갔다. 소용녀는 마음 속으로 묵묵히 방금 황용이 한 말을 되씹어 보았다.

곽부는 소용녀가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엄마, 그들이 몽고 진영에 들어가 쿠빌라이를 없애려다 그만 잡히게 되어 아빠가 중상을 입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된 것은 순전히 제 잘못이었요. 이 일을 진작 애기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진 않으시겠지요?]

그녀는 무씨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을 놓고 다투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황용은 극도로 화가 났으나 꾹 참고 다만 그녀를 밉살스레 노려볼 뿐이었다. 곽부가 말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줘요. 그들 형제들은 모두 각자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어찌 한 사람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들에게 적을 없애 공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의 마음에 들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잡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황용이 화를 내며 말했다.

[무씨 형제의 무공이 대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양과는요? 그는 무씨 형제보다도 몇 살 어린데 어떻게 법왕과 상대를하고 적진에 들어가요? 게다가 그 역시 잡혔던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황용은 자기의 딸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말투를 배워 좀처럼 말에는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왕 벌어진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돌아왔으면 됐지, 왜 또 성 밖으로 나가 싸운단 말이냐?]

[엄마, 엄마가 잘못이예요. 엄마가 그들을 보고 밥통 같은 제자들이라고

말한 탓이에요.]

황용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네가 언제 그랬느냐?]

[무씨 형제들이 말하길, 방금 곽도가 왔을 때 엄마가 그들은 보고 곽도를 붙잡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혈도를 잡히자 엄마가 그들 복 밥통이라고 질책했다던데요!]

황용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주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밥통 같은 제자>란 말은 비로 곽도가 한 말이다.]

[하지만, 엄마가 곽도와 언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을 묵인한 셈이지요. 두 형제는 매우 불만스러워 설왕설래(設往設來)하다가 끝내는 다투게 되었지요. 서로 손을 늦게 다고 하다가, 또 몸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려 패했다고 말이예요. 두 사람은 점점 사납게 다투다가 끝내는 무기를 꺼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오빠들이 양양성 안에서 싸움을 벌였다가 남들이 보게 되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몸에 중상을 입고 있는 터인데 만약 화라도 돋우게 된다면 난 영원히 오빠들을 보지 않을 테예요>, 하고 말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성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황용이 신음을 하며 말했다.

[눈앞에 온갖 일이 꼬여 있는데...... 이 일은 난 모르겠다.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니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곽부는 황용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어떡해요!]

황용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그들이 적을 대항할 생각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저휘들끼리 다투는 것이니 죽어도 싸다, 싸!]

곽부는 모친의 태도가 평소 자신을 대하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엄하자 더 이상 말을 못 하고 얼굴을 감싸고 뛰쳐나갔다.

이 서서히 날이 밝아 와 창 밖은 이미 훤해졌다. 황용은 홀로 방안에 남아 무씨 형제들을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친자식처럼 그들을 키워 온 황용은 오늘 그들이 이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자,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눈물을 닦은 황용은 곽정의 상세가 걱정이 되어 그의 방으로 가 보았다.

곽정은 침상에 앉아 조용히 운공을 하고 있었다. 비록 안색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매우 고르게 들렸다. 며칠만 더 요양하면 완전히 치유될 것 같았다. 예날 어린 시절 두 사람이 임안부 우가촌의 밀실에서 요양하던 일이 생각났다.

곽정이 천천히 눈을 떴다. 황용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발견한 곽정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며 말했다.

[여보, 내 상세가 대단치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오? 오히려 당신이 편히 쉬어야 할 텐데......]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요 며칠간은 뱃속의 움직임이 상당히 커요. 당신의 곽파로(郭破虜), 아니면 곽양(郭襄)이 당신을 보고 싶은 모양이예요.]

그녀는 곽정이 걱정할까 봐 곽도가 전서(戰書)를 주고 갔다는 사실과 무씨 형제가 성 밖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곽정이 말했다.

[무씨 형제들에게 엄중히 경계하라고 이르시오. 적들은 내가 상처를 입은 것을 알고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일이오.]

황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곽정이 또 물었다.

[양과의 상세는 좀 어떻소?]

황용이 막 대답하려는데 방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다. 이어 양과의 목소리가 들렸다.

[곽백부, 저는 단지 내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곽백모께서 주신 구화옥로환을 복용하였더니 거뜬해졌어요.]

하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는 이미 성곽을 한바퀴 둘러 보았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마치 무씨 형제......]

황용이 기침을 하며 그에게 눈짓을 했다. 양과는 황용의 뜻을 즉시 알아차

리고 말머리를 돌렸다.

[무씨 형제가 말하기, 곽백부가 그들 때문에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적들이 만약 쳐들어 오면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내 당신의 은혜를 갚고야 말겠다고 하던군요.]

곽정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들 형제는 지혜를 좀더 키워야 해, 천하의 일들을 너무 쉽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

[곽백모, 용아가씨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같이 있었지. 아마 자러 갔을 거야. 네가 상처를 입은 후, 그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

양과는 으음, 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황용과 말을 마친 후 다른 때 같으면 당연히 자신에게 알리려 왔을 것이다. 사실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양과는 성곽을 돌아보려 나갔던 것이었다. 원래 처음 그가 양양성에 들어왔을 때는 곽정 부부를 죽이려고만 했었다. 그러나 며칠간을 같이 지내며 그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분투하는 것을 보자, 양과는 상당히 감동을 받게 되었다. 또한 몽고 진영에서 일전을 벌일 때 곽정은 위험을 무릎쓰고 자신을 구해 주었다. 그제서야 양과는 곽정을 해치려던 마음을 포기하고, 오히려 보답하려고 생각했다. 이제 칠일만 지나면 정화지독이 퍼지게 된다. 다른 모든 일은 젖혀 놓고라도 이 칠일간에 한두가지 착한 일을 한다면 헛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곽정이 중상을 입은 것을 틈타 적군들이 공격해 오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래서 아직 원기가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성곽을 순찰하였던 것이었다.

양과는 소용녀가 걱정되어 그녀를 찾아나섰다. 그 순간 10여장 밖 옥상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쩌엉쩌엉,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금철(金鐵)소리가 어울려 났다. 바로 금륜법왕이 온 것이었다.

곽정은 얼굴빛이 약간 변하면서 손을 뻗어 황용을 잡아 끌어 자신의 몸 뒤에 숨기려 했다. 황용이 소곤댔다.

[여보! 양양성이 더 급해요, 제가 더 급해요? 당신 몸이 더 급해요?]

곽정이 황용의 손을 놓고 말했다.

[그래, 국사위중(國事僞重)이지!]

황용은 죽봉을 꺼내 문을 막아섰다. 자신이 방금 소용녀에게 한 말을 그녀가 아직 양과에게 하지 않아 그가 적을 막으러 나갈 것인지, 아니면 틈을 타서 사사로운 원수를 갚을지를 몰라서였다. 이 사람은 심성이 자주 변하여 착한지 악한지 예측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황용은 죽봉을 쥐고 문 앞을 막고는 있었지만 연신 양과를 쳐다보았다.

곽정 부부가 방금 나눈 짧은 대화가 양과에게는 청천벽력처럼 가슴을 뛰게 했다. 그가 곽정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그의 의협심에 감동받은 것으로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때 돌연 <국사위중>이란 말을 듣자, 곽정이 일전에 양양성 밖에서 말했던, 의협심 있는 자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말들이 생각났다. 양과는 가슴이 돌연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 부부의 정리와 깊은 뜻을 본 것이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해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사사로운 복수심과 소용녀와의 사사로운 정리를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 언제 나라를 걱정할 틈이 있었던가!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비굴하게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양과는 어린 시절 황용이 도화도에서 그에게 가르쳤던 <살신성인 사생취의(殺身成仁, 捨生取義:목소리를 걸고 뜻을 지킴)>란 어귀가 번개같이 떠올랐다.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워 진땀이 나기도 했으며 또 웅지가 피어오르기도 했다. 강적이 쳐들어와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자 갑자기 대오각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이처럼 뜻을 세우자 마치 몸이 훨씬 커진 것 같았다. 얼굴 표정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확 바뀌었다.

그가 마음속으로는 허다한 생각들을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황용이 그의 표정을 보니, 미혹하는 얼굴에서 부끄러운 빛으로, 격동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것이, 도대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순간 양과가 말했다.

[안심하세요!]

하는 맑은 목소리와 함께 그는 군자검을 뽑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금륜법와은 양손에 금륜을 들고 옥상 위에 서 있었다.

[양형제, 너는 조삼모사(朝三모四)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인배같이 놀고 있구나. 그 재미가 좋으신가?]

만약 옛날 같았으면 양과의 성미로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화를 내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이 맑아져 그냥 속으로 생각했다.

(네말이 맞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내 뜻을 굳혔지. 이후론 백년을 살아도 , 한 시간만을 살아도 좋다. 난 영원히 이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법왕, 당신 말이 맞소이다. 무슨 귀신이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곽대협을 도와 도망쳐 왔소이다. 그러나 그가 양양에 도착하고 나서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가 없소. 난 그를 찾지 못하게 되어 지금 후회막심이오. 당신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법왕은 그를 흘켜보며 , 이놈이 워낙 꾀가 많아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아 수가 없다고 여겼다.

[만약 내가 찾아낸다면 어찌할 셈이냐?]

[그럼 내 단칼에 끝내 버리지.]

[흥, 네가 그를 찔러 버린다고?]

[누가 그를 찔러 버린다 했느냐?]

법왕이 괴이해 물었다.

[그럼 너는 누구를 찌른다 말이냐?]

사악, 하는 소리를 내어 군자검이 바람을 일으키며 그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너를 찌르지 누구겠느냐!]

이 일검은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습격으로, 금륜법왕은 급한 김에 왼손을 휘둘러 밖으로 비껴 버리게 해서 검끝을 막아내려 했다. 그러나 군자검은 상당히 예리하여 그의 팔뚝에 길게 금을 그으며 선혈이 길

게 흘러내렸다.

법왕은 비록 양과가 교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으나 그가 그렇게 갑자기 일초를 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양양에 입성하자마자 상처를 입었으니 법왕의 예기는 이미 둔해졌다. 그는 화가 치밀어올라 오른손의 금륜을 윙윙 소리를 내며 연달아 공격했다. 동시에 왼손의 은륜을 집어던졌다. 양과는 일보도 물러서지 않고 적의 삼초를 받았으며 또한 삼초를 반격했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몽고군 진영에서 당신의 금륜에게 받은 상처는 이것으로 갚은 셈이다. 이 검에 괴이한 점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으신지?]

법왕은 은륜의 공격을 계속하며 물었다.

[무엇이 괴이하다는 것이냐?]

[괴이하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진 말기를......]

[교활한 놈 같으니라고! 누가 원망한단 말이냐?]

양과가 득의양양하서 말했다.

[이 검은 절정곡에서 얻은 것이다. 공손지가 늘 독약을 묻혀 놓았던 것인데 이후 당신이 운이 좋아 죽지 않게 된다면 그를 찾아가 따져 봐라.]

법왕은 깜짝 놀랐다. 정말 공손지가 이 검끝에 독약을 묻혀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자연 동작이 느려졌다. 사실 검에 무슨 독이 묻어 있었겠는가? 양과는 황용이 찻물로 곽도를 속이던 일을 생각해 내어 법왕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법왕이 자신보다 무공이 강해 정면 승부를 하면 승산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보아하니 이 말은 이 말은 대단한 효력을 발생하는 듯했다. 양과느 즉시 수비에서 빈틈을 이용, 반격을 가해 그가 상처를 감싸지 못하게 하려했다. 법왕의 왼팔의 상세는 비록 깊지 않았으나 계속 피가 흘렀다. 설사 독이 없었다 해도 시간이 끌수록 힘이 약해질 판이었다. 법왕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직 속전속결만이 상책이었다. 그래서 그는 금륜과 은륜을 휘둘러 대며 맹공을 가해 왔다.

양과는 그의 이러한 의중을 눈치채고 잠검으로 엄밀하게 수비에 임하였다. 법왕의 공격은 점차 강해졌다. 갑자기 금륜이 위에서 내리쳐 오며, 은륜이

옆에서 날아왔다. 양과는 두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즉각 뒤로 펄쩍 뛰어 피했다. 법왕이 소매를 찢어 상처를 싸매려는 순간 양과가 또 검을 찔러 들어갔다.

이렇게 몇 번 공격과 수비가 계속되자 법왕은 한 가지 꾀가 생각났다. 그가 뒤로 후퇴하는 순간 동시에 자신도 뒤로 물러나 은륜을 던져 양과가 부득불 뒤로 더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졌다. 양과가 다시 공격해 오기까지의 짧은 시간에 법왕은 찢어 놓았던 소매로 왼팔을 감아 상처를 감싸 버렸다. 상처는 통증만 느껴질 뿐 이상한 점이 없었다. 보아하니 검에 독이 묻었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인 것 같아 마음이 다소 편해졌다.

이때 동남쪽에서 병기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양과가 바라보니 소용녀가 장검을 휘두르며 소상자와 니마성, 두 사람과 대항하고 있었다. 소상자의 곡상봉은 몽고진영에서 양과에게 빼앗겨는데 양과가 기절해 버리는 통에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지금 보니 그의 손에 봉을 하나 잡고 있는데 형상과 사용법이 예전 것과 비슷했다. 그렇다면 그것에도 속에 독연기가 들어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양과가 생각하기를, 곽정 부부가 바로 아랫방에 있어서 아직 발각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적들을 멀리 유인하면 할 수록 좋다.그러나
이 일은 조그마한 꼬투리도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적의 일을 도와 주는 꼴이 되게 된다. 양과가 소리쳤다.

[아가씨, 서둘지 말아요. 내가 갑니다!]

몇 번 펄쩍 뛰어 니마성의 몸 뒤로 내달아 그의 배후를 찔러 들어갔다.

법왕은 양과의 계략에 넘어가 극도로 화가 뻗쳤다. 그러나 이 일의 목적은 곽정을 해치우는 것으로서 이 교활한 놈에 대한 복수는 다음으로 미루어도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곽대협! 노구가 찾아왔는데 어째 손님을 접대하지 않는 것이오?]

그가 몇 번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단지 북서쪽에서 한바탕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의 두 제자인 달이파와 곽도가 주자류를 협공

하고 있었다. 양과와 소용녀는 소상자, 니마성과 일시에 승패가 나기는 힘들 것처럼 보였다. 지붕 아래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다. 성 안의 병정들이 적들의 내습을 알고 몰려들었으나 지붕 꼭대기로 올라오지 못해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법왕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아무래도 걸리적거릴 것 같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곽정이, 곽정아! 일세의 영웅이라더니 오늘은 왜 목을 움츠린 거북이가 되었느냐?]

그는 곽정을 끌어내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 댔다. 그러나 끝내 곽정의 종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생각에 잠겼다.

(양양에 수만 가구가 사는데 어떻게 해야 그가 숨은 곳을 알아 낼수가 있을까? 그가 굴욕을 참고 상세를 회복하고 나면 그를 대적하기 힘들텐데...)

신음을 하다가 퍼뜩 독계가 떠올랐다. 법왕은 바로 지붕에서 뛰어내려 후원의 장작더미를 찾아 불을 질렀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방에다 불을 지르고 나서 지붕 위로 돌아왔다. 불길이 세지면 그가 집에서 안 나오고는 못 베기리라 생각한 것이다.

양과는 비록 소상자, 니마성 두 사람과 접전을 하면서도 시시각각 법왕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법왕이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자 곽정이 있는 거실의 남북 두 곳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 깜짝놀라는 순간, 하마터면 니마성의 철상에 가슴을 맞을 뻔했다. 만약 니마성이 지난번 곽정에게 근골이 부러지지 않아 지금 제 힘을 다해 공격했다면 양과는 이 일초에 중상을 입었을 것이었다. 양과가 생각했다.

(큰일이다. 곽백부는 중상을 입은 몸이고 곽백모는 분만일이 가까워졌으니 이렇게 불길이 거세지면 밖으로 안 나올 수가 없게 되겠구나.)

양과는 즉각 소용녀에게 적 두명을 맡겨 버리고 지붕에서 뛰어내린 불길 속에서 곽정부부를 찾아갔다.

황용은 곽정의 침상 곁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연기가 꾸역꾸역 밀려들어왔다. 곽정은 눈을 감고 운공을 하고 있었으며 황용의 두 눈썹이 약간 꿈틀거렸다. 그러나 얼굴빛은 평온해 보였다. 양과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단

지 가볍게 웃어 보였다. 양과는 두 사람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순간 한 계책이 떠올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내가 적들을 유인할 테니 어서 곽백부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신하세요.]

하면서 그는 곽정의 모자를 벗겨 창을 넘어 나갔다.

황용은 그가 어떤 묘책을 쓸 것인지 몰라 순간 당황했다. 불길이 점점 더 다가와 곽정을 부축하며 말했다.

[우리, 자리를 옮겨요.]

손에 막 힘을 주는 순간 복부에 심한 통증이 와 <아얏!>하며 도로 침상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상당히 다급해졌다.

(이놈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필이면 지금, 세상에 나오려 하다니. 아비 에미의 목숨을 해치려는 마음이라도 품었단 말인가?)

원래 그녀의 해산일은 며칠 더 남았었는데 요사이 연일 놀라는 일들만 터져 출산이 재촉되었던 것이다.

양과가 창 밖으로 나가서 보니 사방에 병졸들이 아우성이었다. 물통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 지붕 위로 화살을 쏘는 사람, 땅위에서 장검을 휘두르며 발을 동동 구르며 고함을 지르는 사람 등등...... 양과는 회색옷을 입은 한 병졸 뒤로 다가가 그의 혈도를 누른 다음 곽정의 모자를 씌워 그를 들쳐 업고 검을 휘두르며 지붕위로 올라섰다.

이때 소상자, 니마성은 소용녀를, 달이파, 곽도는 주자류를 협공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금륜법왕의 금륜과 은륜으로 곽부를 붙잡아 놓고 있었다 그는 금륜과 은륜으로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그을 듯이 휘둘러 대며, 그녀의 부모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했다. 곽부의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의 끝도 금륜에 부딪쳐 부러져 있었다. 곽부는 오로지 이를 악물며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다. 법왕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곽부는 화가 상당히 치밀었다.

(무씨 형제가 싸우려 가지 않고 지금 셋이 손을 합한다면 어찌 이 늙은이가 두렵겠는가?)

끝내 곽부는 견디 내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다.

[좋다. 너휘 둘이 다투기만 하다 결국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돌아와 봐야 내 죽은 시신 밖에는 보지 못할 것이다.]

법왕이 물었다.

[뭐라고? 곽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곽부의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양과가 어떤 사람을 들쳐 업고 서북쪽으로 급히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가 업은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곽정처럼 보였다. 금륜법왕은 즉각 곽부를 포기하고 추격해 갔다. 소상자, 니마성, 달이파, 곽도 네 사람도 양과와 법왕을 보고서는 상대방을 버리고 뒤를 따라갔다. 주자류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즉시 뒤 았다.

양과는 지붕위로 올라섰을 때 소용녀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에게 눈짓을 하며 웃어 보였다. 소용녀는 그가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계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또 적들의 세력이 워낙 대단하니 안심할 수가 없어 뒤를 따라가려고 했다. 돌연 지붕 아래에서 응애 응애, 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곽부가 좋아하며 말했다.

[엄마가 내 동생을 낳았어요!]

하며 땅으로 펄쩍 뛰어내렸다.

소용녀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양과는 지모가 뛰어나니 그녀에게 웃음을 보낸 것은 분명 어떤 계책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믿은 소용녀는 황용의 아기를 보러 방으로 들어왔다.

금륜법왕은 기를 끌어올려 급히 쫓아갔다. 양과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속으로 기뻐하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네놈이 내 손아귀를 벗어나 도망칠 수 있나 보자!)

그가 들쳐 업은 사람의 머리에 바로 어제 곽정이 썼던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의심할 나위 없는 곽정이었다.

양과의 고묘파 경공은 가히 천하무쌍이었다. 비록 등에 사람을 업고 있었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달아나면 그만큼 곽백부의 위험은 멀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죽어라고 내달려, 법왕도 금방 그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양

과는 지붕 위로 한바탕 달린 후, 등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는 것을 느끼자 아래로 뛰어내렸다. 조그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 뱅글뱅글 돌아 법왕이 잡지 못하게 숨어 버렸다.

양과의 경공이 비록 법왕보다는 뛰어났지만 등에 사람을 업고 있어 만약 평원에서였다면 벌써 따라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숨어 들어가 버리자 법왕도 끝내는 그를 쫓아가지 못했다. 두 사람이 몇 바퀴 돌고 나자 소상자, 니마성, 주자류 세 사람도 도달했다.

법왕이 니마성에게 말했다.

[니형, 이 골목 입구를 지키시오. 내가 들어가 그 토끼 새끼를 몰고 나올 테니......]

니마성은 눈알을 부릅뜨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지?]

법왕은 이 천축의 난장이놈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자 담장 위로 뛰어올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양과가 곽정을 부축해 담당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살금살금 담 위로 다가가 막 뛰어내려 덮치려 했다. 순간 양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려 종적을 잃어버렸다.

법왕이 불을 지른 것은 곽정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도처에 연기가 퍼져 오히려 그를 찾아내기가 힘들게 되었다. 여기저기 있던 중 달이파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다!]

법왕이 소리나는 곳으로 다려가 보니 달이파가 황금저를 휘두르며 양과와 싸우고 있었다. 법왕은 몸을 앞응로 날려 먼저 양과의 퇴롤르 차단했다. 양과는 질풍같이 앞으로 내달려 달이파의 몸 가까이 다가섰다. 이 순간 법왕의 은륜을 내던져즈에 업었던 병졸의 어깨죽지를 스쳐 그의 등뒤로 깊은 상처를 내고 말

았다. 법왕이 좋아하며 소리쳤다.

[멈춰라!]

그런데 등에 업은 사람의 생사에는 상관도 않고 여전히 내달렸다.
양고가 골목 어귀까지 왔을 때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꼬마놈아. 항복하라!]
바로 소상자가 봉을 집어 들고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때 양과는 퇴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담장 위에 시커먼 게 서 있는데 바로 니마성이었다. 양과가 몸을 날려 담장 위로 오르려는 순간 니마성은 그를 골목안으로 떨구려고 머리르 내려치려 했다. 그러나 그는 황용이 지금쯤은 위험에서 벗어났으리라고 여
겨져 등뒤에 업고 있던 병졸을 잡아 니마성에게 던져 주며 말했다.
[곽정이나 받아라!]
니마성은 놀람과 희열이 교차했다. 양과가 오히려 항복해 오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제 자기는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얼른 손을 뻗어 병졸을 안았다. 그 순간 양과가 번개같이 발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 그를 담장 밑으로 떨어뜨렸다. 니마성은 큰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곽정을 잡았다. 난 몽고 제일의 대용사이다!]
소상자와 달이파가 어찌 그에게 공을 빼앗길 사람들이겠는가. 서로 달려들어 세 사람이 그 병졸의 수족을 서로 잡아 당겼다. 세 사람이 전력을 다해 잡아당기자 그 병졸은 그만 세 토막으로 잘려졌다. 그의 머리의 모자가 떨어져 버리자 세 사람은 그가 곽정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아무 소리도 못했다.

표범의 젖

법왕은 그때 양과가 곽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자 이미 어떤 계락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법왕은 세 사람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자 코방귀를 뀌며 욕을 해 댔다.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법왕은 곧바로 양과를 뒤쫓아갔다. 만약 오늘 곽정을 잡지 못하면 저 교활한 꼬마놈이라도 없애야 양양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

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양과가 도망친 곳을 알 수가 없어 어디로 쫓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양과 이 생쥐 같은 놈이 가짜 곽정을 업고 이렇게 죽어라고 도망친 것은 나를 끌어내기 위한 수작이었구나. 곽정은 분명 내가 불을 질렀던 부근에 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가 간교를 부린다면 나도 계략을 사용해 그를 유인해 낼 것이다.)

그는 방향을 돌려 불길이 가장 거세게 오르는 곳으로 달려갔다.

양과는 어느 치마밑에 숨어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법왕이 잽싸게 곽정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곽정이 얼마나 달아났는지 몰라 살금살금 법왕의 뒤를 따라갔다. 법왕은 그 가옥 부근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며 소리를 질렀다.

[곽정,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어서 나와 함께 가자!]

양과가 깜짝 놀라 뛰어내리려는 순간, 병기들이 서로 부 딪치는 소리와 함께 법왕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곽정, 어서 항복해라!]

이어서 금속성 물체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양과는 두 눈을 굴리며 웃었다.

(나쁜 놈. 하마터면 네놈에게 속을 뻔했군. 가소롭게도 병기 부딪치는 소리를 내다니. 곽백부가 지금 어떻게 너와 병기를 들고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네가 날 속이려 들지만 난 여기 숨어서 네놈 하는 꼴이나 봐야겠다.)

법왕이 갑자기 큰소리로 말했다.

[양과, 이번엔 네놈이 죽을 차례다!]

양과가 생각했다.

(뭐, 내가 죽는다고?...... 나를 유인해 내지 못하자 곽백부를 유인해 낼 참이군.)

법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양과 네 이놈! 네놈의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렸으니 살기는 다틀린 줄

알아라.]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갑자기 연기 속에서 흰 그림자가 번쩍 하더니 한 소녀가 법왕에게 달려들었다. 양과가 소리쳤다.

[아가씨, 나 여기 있어요!]

그러나 법왕은 벌써 금륜을 휘둘러 소용녀를 상대하고 있었다. 법왕이 소리를 질러 대자 양과가 위기에 빠진 줄로 알고 소용녀가 뛰쳐나오게 된 것이었다. 양과는 검을 들고 소용녀와 마주보며 웃었다. 그녀는 옥녀소심검법을 시전해 법왕을 검광 안에 가두어 버렸다. 법왕이 속으로 씁쓰레한 미소를 지었다.

(화를 불러일으켜 두 사람이 검을 합치게 하였구나.)

사방에 열기가 들끓고 여기저기에서 기둥들이 넘어졌다.

법왕은 힘껏 금륜을 휘들러 두 사람의 쌍검을 밀어젖혀 급히 북서쪽으로 도망 다.

양과가 소리쳤다.

[오늘 그가 도망쳐 버리면 후일 또 화근이 될 것이다.]

양과는 장검을 휘두르며 그의 목덜미를 찔러 들어갔다.

법왕은 지난번 옥녀소심검법에 호되게 당한 일이 있어 이 검법에 대항할 무공을 깊이 연구해 보았다. 상대방의 쌍검이 합해지면 오묘무쌍하고, 두 사람의 심령이 합일되면 하나의 무학 고수로 변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내게 되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워낙 형세가 다급하여 자신의 오륜대전(五輪大轉)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한번 시전해 볼 수밖에 없었다.

법왕은 품안에서 세개의 고리들을 꺼내 차르륵,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렸다. 그는 수중에 여전히 금, 은륜을 하니씩 잡고 있었다. 금, 은, 동, 철, 연(金銀銅鐵鉛), 오륜의 무게와 크기는 각각 달랐다. 그가 던진 고리는 어느것은 곧바르게, 어느것은 비뚜름하게 날아갔다.

양과와 소용녀는 순간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양과는 왼쪽으로 찔러들어가며 몸을 오른쪽으로 붙였다. 소용녀가 즉각 양과의 뜻을 알아차리고 수중의

숙녀검을 오른쪽으로 잇달아 찌르며 발걸음을 옮겨 양과의 몸과 가까이 했다. 두 사람은 적의 초식이 괴이하여 감히 공격은 못 하고 우선 수비에 치중해, 적의 초식의 방향을 살펴본 후 다시 반격하려고 했다.

법왕은 오륜을 나는 듯이 시전했지만 두 사람의 검기가 종횡으로 하나의 그물을 형성해, 오륜의 위력이 비록 대단했지만 검광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

(내 이 오륜을 함께 시전해도 이 두녀석의 쌍검을 합친 것에는 도리가 없다니......!)

법왕이 의기소침해 있는데 갑자기 소용녀의 품안에서 응애응애, 하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법왕뿐만 아니라 양과도 깜짝놀랐다. 세 사람이 멈칫 하는 사이 자연 초식이 느려졌다.

소용녀가 왼손으로 품안을 가볍게 토닥거리며 말했다.

[울지 말고 내가 이 화상을 어떻게 격퇴시키는가 잘 보아라.]

그러나 갓난아기는 더욱 세차게 울어 댔다. 양과가 슬그머니 물었다.

[곽백모의 아기?]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법왕을 찔러 들어갔다.

법왕은 금륜을 들어 막아냈다. 그는 양과가 묻는 말을 잘 듣지 못하여 소용녀가 왜 품안에 아기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 법왕은 즉각 금륜을 움직여 맹렬히 소용녀를 공격했다. 양과는 계속 검을 휘둘러 그의 공격을 받아내며 고개를 옆으로 돌려 물었다.

[곽백부 곽백모 모두 무사하지요?]

[황방주가 곽대협을 부축해 화염속에서 도망쳐......]

그녀는 법왕의 왼손 은륜 공격을 막아내며 말했다.

[당시 상황이 매우 급했어. 대들보가 쓰러져 넘어왔어. 내가 침상에서 이 여자아이를......]

양과는 법왕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검을 휘둘러 법왕이 소용녀를 향해 휘두른 연륜을 물리치고 나서 말했다.

[계집아인가 보죠?]

그는 곽정에게 이미 딸애가 있으니 이번에는 남자 아이를 낳으리라고 생각했기에 의외였다.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집아이야. 자, 어서 받아......]

하며 소용녀는 왼손으로 갓난아기를 양과에게 건네 주려 했다.

갓난아기가 우는 가운데 법왕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 졌다. 세개의 고리가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내리칠 기세였고, 수중의 쌍륜도 더욱 거세졌다. 양과는 있는 힘을 다해 겨우 막아냈다. 소용녀가 말했다.

[어서 갓난아기를 안고 한혈보마를 타고서......]

따땅, 소리를 내며 법왕의 쌍륜이 두 사람을 더욱 거칠게 공격했다. 소용녀는 더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달라져 옥녀소심검법의 위력도 자연 떨어졌다.

양과는 자신이 갓난아기를 받아 들면 소용녀가 마음 놓고 공격할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소용녀도 갓난아기를 양과에게 건네 주려던 참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합일되자 잠시나마 법왕을 두 발자국 뒤로 몰아붙였다.

소용녀가 왼손으로 아기를 건네 주고 양과가 막 받으려는 순간,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철륜이 비스듬히 갓난아기 쪽으로 날아왔다. 소용녀는 아기가 다칠까 봐 왼손의 갓난아기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철륜을 거머쥐려 했다. 철륜의 기세가 매우 거칠었는데, 고리 끝에는 예리한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소용녀의 손에는 금사장갑을 끼고 있어 손바닥과 철륜이 닿는 순간, 철륜이 회전하는 기세가 사뭇 약해져 버렸다. 소용녀는 철륜을 위로 가볍게 들어 잡아 쥐었다. 바로 사량발천근(四兩撥千斤)의 묘기였다.

이   양과는 이미 갓난아기를 받아 들고 소용녀가 철륜을 잡아 쥔 것을 보자 <잘한다!> 하고 소리쳤다. 법왕의 철륜이 만약 소용녀를 향해 던져졌다면 그녀가 잡아내지 못했을 것이었다. 다행히 철륜이 갓난아기를 조준했기 때문에 그녀가 옆에서 손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소용녀는 철륜을 잡아 쥐고서는 매우 기뻐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냉담했다. 소용녀는 법왕의 초식

을 알아차려 철륜을 적에게 던져 버렸다. 상대의 초식으로 상대를 혼내 줄 셈이었다.

법왕은 상당히 당황했다. 오륜 중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 오륜대전은 동시에 파괴된 것이었다. 그는 얼른 양륜을 거두어들였다. 수중의 금, 은륜 두개만으로 휘둘러 대자 위력이 다시 증가되기 시작했다.

양과는 왼손으로 어린애를 안고 말했다.

[우선 이 늙은이부터 처치하고 나서 천천히 애기해요.]

[좋다!]

소용녀는 왼손으로 철륜을 들어 가슴을 막고 양과와 함께 쌍검으로 공격해 갔다. 그녀의 수중에 무기가 하나 더 있게 된데다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부담이 없어져 위력이 당연히 증가되어야 했다. 그러나 수초가 지났으나 양과와 검법이 서로 맞지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째서 그런지는 몰랐다. 옥녀소심검법의 조화는, 검을 사용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티끌하나 없는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었다.

이때 쌍검 중에 철륜이 끼어든 것은 마치 애인 사이에 제삼자가 끼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파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찌 서로 뜻이 통할 수 있으리오? 두 사람은 모두 이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여러합을 교환했다. 두 사람이 각자 싸우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들었다. 소용녀가 다급해져서 말했다.

[오늘 그와의 싸움은 안 되겠다. 어서 어린아이를 안고 절정곡으로......]

양과는 순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때 만약 한혈보마를 타고 성을 나선다면 칠일 안에 능히 절정곡에 다다를 수가 있을 것이었다. 비록 곽정, 황용의 수급을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들 두 사람의 딸애를 갖고 왔으니 구천척에게 말하기가 수월할 것이었다. 곽정부부가 딸을 생각해 반드시 절정곡으로 찾아올 것이므로 그때 복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득하면 될 것이었다! 몸의 극독이 풀리게 되면 다시 이 아기를 구해 도망치면 된다. 이러한 계책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구천척도 부득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양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

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를 위하는 곽정의 마음에 감복한 후인지라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의 자식을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었다. 만약 그의 갓난아기를 절정곡으로 데리고 간다면 이는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양과는 가볍게 신음을 토하며 말했다.

[아가씨, 그건 안 돼요!]

소용녀가 다급해져서 말했다.

[하지만......]

그때 칙, 소리가 나며 소용녀의 왼쪽 어깨의 옷이 금륜에 맞아 찢어졌다. 양과가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곽백부를 다시 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면목으로 이 수중의 검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며 군자검을 들어올렸다. 소용녀는 단지 양과의 중독된 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양과가 이렇게 말하자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두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긋나자 자연히 검법도 서로 엇갈렸다. 법왕이 기승을 부리며 팔을 구부려 양과의 왼쪽 어깨를 후려쳤다.

양과는 몸의 반쪽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안고 있던 갓난아기를 그만 놓쳐 버렸다.그들 세 사람이 지붕위에서 악전고투를 하는 사이, 갓난아기는 양과의 품에서 땅으로 떨어줄어내렸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법왕은 두 사람이 계속 하는 대화를 듣고 이 갓난아기가 곽정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곽정을 잡지 못했으니 그의 딸애를 인질로 잡아 곽정이 항복하게 된다면 이 역시 공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보아하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지라 법왕은 오른손을 휘둘러 금륜을 날렸다. 금륜은 정확히 갓난아기의 포대기 밑에 바쳤다.

금륜은 땅에서 오척 가량 떨어져 수평으로 날아가 갓난아기를 고리 위에 받쳤다. 세 사람은 일제히 뛰어내려 그 금륜을 잡으려 했다. 양과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 금륜이 점점 낮게 날아가 곧 땅에 떨어질 판이었다. 양과는 즉각 오른발로 땅을 찍어 데구르르 굴러 금륜 밑으로 들어가 금륜과 사람을 같이 잡아 갓난아기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다. 돌연 옆에서 팔 하나가 불

쑥 나오며 금륜을 붙잡아 갓난아기를 끌어안더니 곧바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양과가 몸을 일으켰을 때는 법왕과 소용녀도 이미 그의 곁에 왔다. 소용녀가 말했다.

[바로 내 사자(師姉)인 이막수다!]

양과가 보니 몸에 황포를 걸치고 오른손에 불진을 잡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이막수의 뒷모습이었다. 그녀가 어 서 이곳 양양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괴팍하고 악독한 성격으로 보아 이 갓난아기가 무사할 성싶지가 않았다. 그는 급히 뒤를 쫓았다. 소용녀가 고함을 쳤다.

[사자, 사자! 이 갓난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데리고 간단 말이오?]

이막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고묘파는 대대로 처녀가 물려 왔다. 너는 어린애까지 낳고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내 아기가 아니에요. 어서 돌려줘요.]

그녀가 계속 소리쳤으나 이미 10여 사람
이 북쪽으로 사라지자 소용녀도 즉각 뒤를 따랐다.

이때 성 안에는 병마들이 왔다갔다하며 도처에 아우성 소리가 가득했다. 소용녀는 즉각 성벽으로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았다. 노유각이 한 무리의 개방 사람들을 데리고 북문을 순시하고 있었다. 그는 소용녀를 보자 급히 물었다.

[용아가씨, 황방주와 곽대협은 무사하시겠지요?]

소용녀는 대답 대신 노유각에게 물었다.

[양공자와 금륜법왕을 보지 못했나요? 그리고 아이를 안은 여인을 못 봤습니까?]

노유각은 성 밖을 가르키며 말했다.

[세 사람 모두 성에서 뛰어내렸어요.]

소용녀는 깜짝 놀랐다. 성벽이 이처럼 높은데 제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해도 잘못하면 다리뼈가 부러질 텐데, 어떻게 세 사람 모두 뛰어내렸단 말인가?

자세히 물어 보려는데 개방 제자 중의 한 명이 곽정의 한혈보마를 끌고 와서 털을 빗겨 주고 있었다.
(양과가 갓난아기를 빼앗는다 해도 이 홍마가 없으면 어떻게 절정곡에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소용녀는 성큼 앞으로 나가 말고삐를 잡고는 노유각에게 말했다.
[내 급히 성 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이 말 좀 쓰겠어요.]
노유각은 오로지 황용, 곽정 두 사람이 걱정이 되어 또 물었다.
[황방주와 곽대협은 무사하지요?]
소용녀는 말에 오르며 대답했다.
[그들 두 사람은 무사해요. 황방주가 방금 낳은 갓난아기를 그 여자에게 빼앗겼어요. 내가 가서 찾아와야겠어요.]
노유각은 깜짝 놀라 황급히 성문을 열라고 호령했다.
성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고 다리가 아직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소용녀는 벌써 말을 타고 성을 나섰다. 한혈보마는 과연 뛰어난 말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가 구름 속을 나는 듯 호성하(護城河)를 건너 뛰었다. 성 위의 장병들이 보고서는 일제히 감탄의 환호성을 질렀다.
소용녀가 성 밖으로 나와서 보니 성 밑에 두명의 병졸과 말 한 필이 죽어 나자빠져 있었다. 고개를 들어 멀리 보았지만 산과 들뿐으로, 세 사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급한 나머지 아무런 계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말아, 말아. 난 너의 어린 주인을 구하러 가는 길이야. 어서 나를 데러다 다오!]
한혈보마는 정말 그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길게 울부짖으며 땅을 박차고 북동쪽으로 내달렸다.
한편 양과와 법왕은 이막수를 쫓아 바로 성벽까지 이르렀었다. 그들은 성벽이 너무 높고 그녀의 퇴로가 막혔으니 이제는 잡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이막수는 성벽위로 올라가 병졸 한명을 잡아 성 밑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난 뒤 밑으로 뛰어내렸다. 그 병졸이 지면에 막 닿으려는 순간 그녀

는 왼발로 그 병졸의 등을 찍어 떨어지는 기세를 죽인 후 몸을 앞으로 날려 가볍게 땅에 내려 앉았다. 품안의 갓난아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병졸은 목뼈가 부러져 찍 소리도 못 내고 죽어 버렸다. 법왕이 욕을 해댔다.

[못된 년!]

금륜법왕도 그대로 따라서 병졸 한 명을 집어던진 뒤 뛰어내렸다.

양과는 차마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없어 급한 김에 말 한 필을 끌고와 성 밖으로 밀어 버린 뒤, 말이 채 땅에 닿기 전에 말등을 밟고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 말도 뼈가 으스러져 죽어 버렸다. 그는 얼른 법왕의 뒤를 쫓았다. 그는 몽고 진영에서 일전을 벌이다 법왕의 금륜에 다쳐 피를 많이 흘린 탓으로 아직 원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곽정의 어린애가 이막수나 법왕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화를 당할 게 뻔하다고 생각되어 비록 힘이 들었지만 급히 쫓아갔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상당히 빨랐다. 그러나 이막수는 수중에 갓난애가 있었고, 법왕은 팔에 검상(劍傷)을 당해 검에 독이 있는지의 여부가 걱정스러워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문에 모두들 평소의 쾌속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자 양양성이 점점 뒤로 물러났다. 세 사람은 여전히 10여 장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법왕은 이막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양과는 법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자 이막수 앞에 구릉이 나타났다. 또 한참을 달리자 산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더욱 발걸음을 빨리 했다. 계곡에 들어서기만 하면 몸을 숨기기가 용이할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소용녀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양과가 이처럼 죽어라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녀와 양과의 아기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 갓난아기만 끼고 있으면 그녀가 얻지 못한 사문비전인 옥녀심경도 걱정할 바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사방에 온통 수목이 빽빽한 곳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다. 법왕은 그녀가 수풀 속으로 숨어 들면 찾아내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껏 이막수와 겨루어 보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경공이 대단한 걸로 보아 상당

한 고수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신의 오륜 중 이미 두개를 잃어 고리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세가 다급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법왕은 큰소리로 소리쳤다.

[어서 아기를 내놓지 못할까!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화상이 무정하다고 책망하지나 말거라!]

이막수는 깔깔거리며 발에 더욱 힘을 주었다. 법왕은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다. 휘잉 바람 소리와 함께 은륜이 흰 무지개를 뿌리며 그녀의 등뒤로 날아갔다.

이막수는 깔깔거리며 발에 더욱 힘을 주었다. 법왕이 오른팔을 휘둘렀다. 휘잉 바람소리와 함께 은륜이 흰 무지개를 뿌리며 그녀의 등뒤로 날아갔다. 이막수는 상대방의 은륜이 상당히 세게 날아오자 몸을 돌려 불진을 휘 두를 수밖에 없었다. 은륜을 향해 불진을 흔들려는데 갑자기 은륜이 급전하더니 은빛이 눈앞을 가렸다. 불진에 맞으면 불진이 바로 절단될까 그녀는 두려웠다. 그녀는 얼른 몸을 비껴 은륜의 정면 공격을 피해 냈다. 법왕이 두 발을 내디디며 동륜을 던졌다. 이번에는 먼저 밖으로 내던져 돌아오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이막수는 여전히 바로 받아내지 못하고 뒤로 3보나 물러나 상승의 경공으로 피해 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법왕과의 거리가 바짝 좁혀졌다. 법왕이 왼손으로 은륜을 받아 쥐고 오른손의 연륜(鉛輪)을 그녀의 왼쪽어깨를 향해 내던졌다. 이막수는 불진을 비스듬히 휘둘러 금침처럼 법왕의 눈에다 뿌려 댔다. 법왕은 연륜을 내던져 그녀의 일초를 막아내며 오른손으로 동륜을 계속 날려 두 손을 교차해 가며 은.동 양륜을 사용했다. 따앙,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곡에 울렸다. 왼손의 은륜은 어느새 오른손으로 바뀌고 오른손의 동륜이 어느새 왼손으로 바뀌며 쌍륜이 위치를 바꾸면서 일제히 공격해 댔다. 이막수는 돌연 대적을 만나게 되자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이 비쩍 마른 화상의 출초가 신속하고 무공도 이토록 대단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지금까지

그녀가 배운 무공을 힘을 다해 시전하며 응수했다. 두 사람이 수
초를 겨루는 사이 양과도 따라왔다. 그는 수 장 밖에 떨어져
구경하면서 한편으로는 호흡을 조절하며 갓난애를 빼았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결이 갈수록 빨라져 3개의 고리와
불진이 아래위로 춤을 추어 다. 내공으로 말한다면 법왕이 한
수위였다. 게다가 이막수는 품에 갓난 아기를 안고 있으니 1백초도
못 되어 그녀가 패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기를 감싸며
법왕의 날카로운 고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매번 고리가
갓난아기 가까이 오면 오히려 신속히 초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알아차렸다.

(이 화상은 갓난애를 빼앗으려는 것이지 아기의 생명을 노리는
것은 아니구나.)

그녀의 악랄한 심성은 남의 죽음 따위는 돌보지 않았다. 이미
법왕의 심사를 알아챈 그녀는 막아내기 어려운 공격에는 얼른
갓난아기를 들어 급소를 막았다. 이렇게 되자 갓난아기는 짐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법왕이 잇달아 수 초를
공격했지만 이막수가 갓난아기로 막는 바람에 공격에 실패했다.
양과는 보다 못해 뛰어들려고 했다. 순간 법왕의 오른손의 은륜이
돌연밖에서 안으로 돌아 들어오고 왼손의 동륜이 이어 평평히 밀고
들어갔 다. 이렇게 되자 양륜이 서로 감싸안는 양, 이막수를 두 팔
사이게 포위한 셈이 되었다.
이막수는 얼굴이 다소 붉어졌다. 이 중놈이 출가한 신분에 맞지
않는 초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속으로 욕을 했다. 이막수는 즉시
불진을 뒤로 휘둘러 은륜을 막아내고 왼손으로 갓난아기를 들어
가슴팍을 보호했다. 법왕은 두 손으로 감싸안은 초식을 사용할 때
이미 나중 동작까지도 계산해 두었다. 왼손을 느슨하게 하자 동륜이
돌연 위로 치솟아 그녀의 면전을 강타하려 했다. 이 동륜은
그녀와의 거리가 불과 1척도 안되는 곳에서 갑자기 날아왔으니 그

기세가 매우 대단하여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막수는 일생 동안 강 호를 떠돌며 수많은 접전을 1 백여 차례나 겪었으므로 실전 경험은 법왕보다도 풍부했다. 그녀는 다급한 김에 몸을 뒤로 젖혀 두 발을 단단히 땅에 고정시키고는 오히려 불진으로 상대의 어깨에 반격을 가했다. 법왕은 오른쪽 어깨를 급히 움츠려 불진이 스쳐지나게 했다. 그러나 몇 개의 불사가 어깻죽지에 와 맞았다. 그는 왼 손이 빈손이어서 그대로 이막수의 왼쪽 팔은 내리쳤다. 이막수는 팔에 힘이 쫙 빠져 아얏,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어 올랐다. 그때 갓난아기는 이미 법왕의 손으로 넘겨진 뒤였다. 법왕이 좋아하는 순간 등뒤에서 바람소리가 나며 양과가 달려들어 어느새 갓난아기를 빼앗아 땅을 한번 구르더니 장검을 휘들러 몸을 보호하며 일어 섰다. 장검의 일 초는 순수퇴주(顺水堆舟)라 하여 2 명의 적이 몸에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양과는 갓난아기가 법왕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자 머뭇거렸다 가는 다시 빼앗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그가 미처 제대로 안지 못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다행히도 성공한 것이었다. 갓난아기가 세 사람의 수중으로 전전한 것은 실로 순간적인 일이었다. 이막수가 칭찬을 해 댔다.

[양과, 손놀림이 대단해!]

법왕은 화가 치밀어 거칠게 쌍륜을 휘둘렀다. 양과는 장검을 거짓으로 찌르는 체하며 몸을 돌려 도망가려 했다. 돌연 등뒤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이막수가 불진을 휘들러 퇴로를 막아서며 말했다.

[양과야, 도망가지 말아라! 잠깐 이 화상과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냐?]

법왕의 동륜이 어느새 다가와 할 수 없이 검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연일 대적해 이미 상대방의 술수를 모두 알고 있어 공격들이 매우 날카로왔다. 두 사람의 신형이 어른거리며 3 줄의 백과이 위아래로 춤을 추며 어느새 20 여 초를 겨루게 되었다.

이막수는 속으로 놀람을 금치 못했다.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이 꼬마의 무공이 어쩌면 이 같은 경지에 이르렀을까!)

사실 양과의 무공은 상당한 진전이 일었다. 게다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 곽정의 양육지정에 보답코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달려드는 법왕과 대결할때 법왕이 갓난아기를 피해 공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아기는 곽정의 애인데 어찌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는가? 법왕은 양과가 이막수와는 달리 갓난아기를 보호하려고 하자, 갓난아기를 공격 하면 할수록 양과의 반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자 양과는 허둥대게 되었고 결국 당해 내지 못하게 되어 큰소리로 외쳤다.

[이사백, 어서 이 늙은 화상을 공격해 줘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할 테니까요.]

법왕이 이막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만 짓고 서있을 뿐 도우려하지 않았다. 법왕은 마음속에 의혹이 일어났으나 풀리지가 않았다.

(소용녀도 그녀에게 사자라 불렀으니 이 여인이 분명 그의 사백임에 틀림없을 텐데 어째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무슨 계교가 있는것일까? 어쨌거 나 어서 이 꼬마녀석을 처치해 갓난애를 빼앗아야지.)

이막수는 법왕이 갓난아기를 해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양과가 도와 달라는 말을 못 들은 체 뒷짐을 지고 유유자적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 한바탕 겨루고 나자 양과는 가슴에 은근히 통증이 왔다. 자신의 내공이 상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처럼 계속 나가다가는 끝내는 당할 판이었다. 한참 동안이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양과는 걱정이 되어 얼른 아기를 쳐다보았다. 아기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참 예쁘게 생겼다. 새까만 두 눈을 뜨고서 양과를 응시하고 있었다. 양과는 평소

곽부와는 친하지 않았지만 품안의 이 갓난아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 널 위해 싸우지만, 다행히도 네가 살아 남는다 해도
난 7일후면 죽게 된다. 네가 이 다음에 장성한 후에 어찌 나를
기억이나 할 수 있으랴!)

양과는 걱정이 밀려와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막수가
보아하니, 그의 힘이 점점 다하여져 잠시 후면 쌍륜에 목숨 을 잃을
판이었다. 도와 주려고 손을 뻗으려다 순간 생각을 바꿨다.

(이 녀석의 무공이 상당히 진전했다. 지금 이 기회에 화상이
처치해 버리게 놔두는게 옳겠다. 그렇제 않으면 나중에 더욱
다루기 힘들게 될 것이다.)

세 사람 중 무공은 법왕이 가장 강했고, 이막수는 가장 악랄하고,
지모에 있어서는 단연 양과였다. 그는 즉시 계책을 생각해 냈다.
이막수가 자기를 도와 주려 하지 않지만 자신은 이막수편에 서기로
작정했다. 즉시 휘익, 양검을 들어 법왕에 대항하며 급히 뒤로
두발자국 물러서서 별안간 이막수에게 갓난아기를 건네 주며
말했다.

[자, 받아요!]

이막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얼른 손을 뻗어 갓난아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양과가 말했다.

[이사백, 어린애를 안고 어서 도망가요. 내가 이 도적놈을
맡을테니!]

양과는 양검을 힘껏 휘둘러 법왕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막수는 생각했다.

(그는 내가 사문의 정리를 생각해 어린애를 해치지 않으리라
여겨 내게 이 애를 건네 준 모양이구나.)

그녀는 양과의 속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달아나려고 했다. 순간
법왕이 팔을 휘둘러 은륜을 격출시켰다. 은륜은 정확히 그녀의

등뒤를 향해 날아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륜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막수는 어쩔 수 없이 불진을 휘둘러 막아냈다. 양과는 계략이 적중된 것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기를 염려해 이막수처럼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두사람이 양패구상(兩敗俱傷)을 입게 되면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즉시 검을들어 법왕에게 달려들었다. 어느새 붉은 해는 중천에 떠올라 밀림 속에서도 틈틈이 양광이 비쳐들었다. 양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왕을 향해 일검을 가했다. 쨍, 하는 소리가 나며 은륜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양과는 돌연 한 가지 계책이 생각나 말했다.

[이사백, 화상의 은륜을 조심해요. 방금 떨어져 나간 흠집에는 극독이 감염되었으니 절대 건드리지 말아요.]

이막수가 물었다.

[뭐라고?]

[내 검에 묻어 있는 극독을 매우 위험하다니까요!]

법왕은 아까 양과의 장검에 상처를 입고 난 후, 줄곧 독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별반 이상한 점이 없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양과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공손지는 사람됨이 음흉하여 정말 검에 독을 발라 놓았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자 기세가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이막수는 불진을 맹렬히 휘두르며 말했다.

[양과야, 독검으로 화상을 찔러!]

그녀는 암기를 발사하는 것처럼 손을 들어 휘둘렀다. 법왕은 얼른 쌍륜을 휘둘러 앞가슴을 보호했다. 이막수는 법왕의 뛰어난 무공때문에 그녀의 빙백 은침을 발사해도 맞추지 못하리라고 여겨

이처럼 허장성세를 부려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를 속임으로써 그녀는 쌍륜의 위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가 있었다. 금륜법왕은 양과의 검에 독이 있을까 봐 불안했지만 상처에 별반 이상이 없었고 가렵거나 부어오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하고 부상만 당한채 돌아가기가 싫었다. 이막수가 달아나는 것을 보자 즉시 쫓아갔다. 양과는 이처럼 쫓아만 가다가는 어느 판국에 끝이 날지 몰랐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광야의 찬바람을 쐬게 되면 비록 구해 온다 해도 살아 남을지 겁이 났다. 우선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법왕을 격퇴시킨 후, 양책(良策)을 생각 해 날 수밖에 없었다.

[이사백, 도망가지 말아요! 이 도적놈은 독에 감염돼 얼마살지 못할 거예요.] 양과의 말이 끝나는 순간, 이막수는 산기슭에 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다. 법왕은 감히 쫓아 들어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양과는 이막수가 아기를 빼앗아 어디에 쓸지 몰랐으며, 그녀가 돌연 독수를 펼칠지 몰라 겁도 났지만 그는이미 자신의 생사는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 즉시 장검으로 가슴을 보호 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은빛이 번쩍했다. 즉시 검을 휘둘러 3 개의 빙백은침을 떨어뜨렸다.

[이사백, 나야!]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었다. 이막수는 왼손에 아기를 안고, 오른손에는 빙백은침을 잡고 있었다. 양과는 자신이 적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밖으로 몸을 돌려 동굴 입구를 지키서며 말했다.

[우선 힘을 합해 저 도적놈을 물리칩시다.]

법왕은 두 사람이 쉽사리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 여겨 동굴 옆에 주저앉아 옷을 벗어 상처를 살펴보았다. 검상을 당한 곳의 혈색이 다소 붉을 뿐 독에 중독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눌러 보니

상처 부위에 약간 통증이 느껴 질 뿐이었다. 내공을 한차례 돌려 보았으나 한 군데도 걸리는 곳이 없었다. 순간 양과의 검에 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에게 속아 한나절이나 걱정했던 일에 화가 치밀었다. 동굴을 살펴보니 동굴 입구에 잡초가 무성했다.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자신을 키가 커 설서 들어간다 해도 몸을 돌리기가 힘들어 암습을 받기가 쉬울 것 같았다. 좋은 계책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돌연 산밑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대화상,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요?]

목소리로 보아 천축의 니마성이었다. 법왕은 여전히 동굴 입구를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토끼 세마리가 굴 속에 들어갔길래 잡으려고 하지.]

니마성을 양양성 전투에서 별 공도 세우지 못하고 군영으로 돌아가는 도중 멀리서 법왕의 은.동.연 삼륜이 공중에서 난무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법왕이 누군가와 대결하고 있다고 여겨 냅다 달려온 것이었다. 법왕이 동굴 입구를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혹시나 하여 물었다.

[곽정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소?]

법왕이 코방귀를 뀌며 말했다.

[수놈 한 마리, 암토끼 한 마리, 그리고 새끼토끼 한 마리가 들어갔소.]

니마성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아, 그래요? 곽정 부부하고 양과놈이군요!]

법왕은 그가 제멋대로 생각하지 대꾸도 하지 않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곧 마른 가지와 풀들을 모아 동굴 입구에 쌓은 뒤 불을 지폈다. 때마침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와 짙은 연기가 굴 속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갔다. 법왕이 마른 가지 등을 주울 때 양과는 벌써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 이막수에게 알렸다.

[내 이 동굴 안에 다른 출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올께요.]

양과가 안으로 7,8 장을 걸어들어가자 동굴의 끝이 나왔다.
[이사백! 그들이 연기를 피워 대는데 어쩔 셈이오?]
이막수는 생각하기를, 정면 대결로는 법왕에게서 벗어나기 힘들것 같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여기에 그대로 있을 작정도 아니었다. 정 어쩔 수 없다면 이 갓난아기를 건네 주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법왕과는무슨 원한 관계도 없고, 그는 갓난아기만 원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공연히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이막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볍게 차가운 웃음을 띄었다. 동굴 속에는 금방 연기가 자욱해졌다. 두 사람은 호흡을 참자 별 문 제가 없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콜록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막수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쓰라리냐?]
양과는 이 아기를 안고 사생결단, 일전을 겨루는 사이 어느덧 아기에 대해 정이 갔었는데 아기가 심하게 우는 것을 보자 말했다.
[내가 안을께요!]
손을 뻗으며 한 발 다가섰다. 이막수가 획 불진을 휘두르며 말했다.
[가까이 오지 마! 너는 빙백은침이 무섭지도 않느냐?]
양과는 뒤로 물러서며 빙백은침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곧바로 소매를 찢어 오른손을 감싸고 나서 동굴 입구로가 방금 이막수가 그에게 격출한 빙백은침 3 개를 집어들었다. 양과는 은침 끝이 밖으로 나오게 흙 속에다 은침을 꽂고 위에다 모래를 약간 뿌려 은침 끝이 번쩍거리며 빛나는 것을 숨겼다. 마침 동굴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한데다가 연기가 자욱하여 그가 몸을 숙여 은침을 꽂는 것을 법왕이나 니마성이 전혀 보지 못했다. 양과는 다 꽂고 나서 되돌아와 이막수에게 살며시 소곤거렸다.
[적을 격퇴시킬 계책이 섰으니 애를 달래어 울지 못하게 해요.]
하고 말한 뒤, 밖에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됐어요! 안에 출구가 있어요. 빨리 갑시다!]
목소리가 기쁨에 넘친 듯이 들렸다. 이막수가 멈칠하여 진짜냐고
되물으려는 순간, 양과가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거짓말이예요. 저 도둑놈들을 속이려는 것이죠.]
법왕과 니마성은 양과의 환호성을 듣자 깜짝 놀랐다. 동굴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도 점차 멀어져
갔다. 양과가 도포자락으로 아기의 얼굴을 감싸 덮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로 동 굴 뒤쪽의 출구로 나간 줄로만 여겼다. 니마성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몸을 날려 산 뒤쪽으로 갔다.
법왕은 워낙 주도면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 보았다. 아기의
울음소 리는 비록 작고 미약하게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지는
않았다. 법왕은 바 로 양과의 농간인 것을 간파했다. 자신들이
산위로 간 후에 동굴을 빠져 나올 심산이란 것을 알아차리고는
냉소를 금치 못했다.
(이 꼬마녀석의 조호이산(調虎離山)의 계략에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그는 얼른 동굴 옆으로 몸을 숨기고 은.동 양륜을 들고 양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양과가 말했다.
[이사백, 그 도둑놈들이 갔군요. 자, 나갑시다]
라고 말한 뒤 돌연 갑자기 낮게 소곤거렸다.
[우리가 동시에 깜짝 놀라며 떠들어 그가 안으로 들어오게
유인합시다.]
이막수는 양과가 어떤 계책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 양과가
꾀가 많아 자신도 여러 차례 속은 적이 있어 필시 어떤 묘책이
있으리라고 여 겼다. 게다가 아기는 자기 손에 있으니 법왕만
쫓아낸다면 양과는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일제히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양과는 짐짓 큰
부상을 입 은 양 신음소리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왜 내게 이처럼 독수를 펼쳐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살며시 속삭였다.

[당신도 생명이 위태로운 척하세요.]

이막수가 노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오늘......, 비록 네 손에 죽지만 네 녀석도......, 살아 남진 못할 거다.]

동굴 입구에서 이 소리를 들은 법왕은 매우 기뻐했다. 두 사람이 아기를 서로 빼앗으려다 함께 다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기가 위태롭다고 여 겨 쌓아 놓은 풀더미와 나뭇가지를 즉시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두 걸 음을 옮겨 놓는 순간, 왼발바닥에 약간 따끔한 통증이 느겨졌다. 순간 그는 오른발에 근력을 가해 얼른 밖으로 튀어나왔다. 왼발이 땅에 닿는 순간 종아리에 마비가 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자신의 발바닥이 독침에 찔렸다는 것을 알고 신발을 벗어 살펴보려는데 어느새 니마성이 되돌아와 소리쳤다.

[그 녀석한테 속았어요. 산 뒤에는 출구가 없어요. 녀석들이 안에 있는게 틀림없어.]

법왕은 손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는 양 말했다.

[니형 생각이 맞소. 그런데 동굴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아마 연기에 질식해 버렸나 보지!]

니마성은 곽정을 잡는 공로가 자기에게 떨어질 생각에만 급급해, 왜 법왕 이 이 공로를 차지하려 들지 않는가를 생각지도 않고 냅다 안으로 뛰어들 어갔다. 양과는 이 은침들을 땅에 꽂을 때 보폭의 대소에 관계 없이 하나 정도는 밟지 않으면 안 되게 해 놓았었다. 니마성은 몸도 작고 걸음도 짧 아 빨리 걸어들어갔다. 결국 오른발이 은침을 밟았다. 따끔 하는 순간 왼발이 또 다른 은침을 밟았다. 천축국은 날씨가 무더워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녔다. 니마성도 신발을 신지 않았다. 비록 발바닥이 쇠가죽처럼 두터웠지만 예리한 은침 은 벌써 발바닥 깊숙이 박혀 버렸다. 그는

심성이 용감해 발바닥의 상처 정도는 개의치 않고 철사봉으로
땅밑을 쓸어 보았다. 앞쪽에 더 이상 찔 릴 것이 없음을 확인한
니마성은 계속 안으로 뛰어들어 곽정 부부를 잡으 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결국 그는 휘청, 하며 넘어졌다.
그제서야 은침의 독성이 매우 지독하다는 것을 알고 급히 몸을 굴려
밖으로 나와 버렸다. 법왕이 신발을 벗어 시커멓게 부어오른 왼쪽
다리를 움켜 쥐고 독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니마성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나쁜 자식! 독침에 중독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게 말해 주지 않았지?]

[법왕! 네놈부터 요절을 내야겠다!]

그의 두 발은 이미 힘이 빠져 왼손으로 땅을 짚고 법왕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오른손의 철사봉으로 법왕의 머리를 내리쳤다.
법왕은 동륜으로 철 사를 막아내며 즉시 팔을 휘둘러 팔꿈치를
내리쳤다. 니마성의 몸은 공중 에 떠 있어 피하기가 힘들었다.
법왕의 이 일초는 기세가 대단해 니마성 의 어깻죽지에 강타되었다.
니마성은 비록 근골이 강건했지만 극심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발작적으로 달려들어 법왕을 꽉 끌어안고 목밑의
기사혈(氣舍穴) 위를 물 어 버렸다. 법왕은 발밑에 맞은 독침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전신의 내공 을 독기와 싸우는 데 사용했다.
그는 독기가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의 곡천혈(曲泉穴)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정강이 쪽을 제거해 버린다 해도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이었다. 니마성이 달려들어올 때 그는 내공을
다 사용하고 있어 단지 외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 니마성도
전력으로 상대의 혈도를 물고 늘어져 좀처럼 풀려고 하지 않았다.
법왕의 오른발이 니마성을 걷어찼다. 니마성과 법왕이 동시에 땅에
넘어졌다. 법왕은 손으로 그를 떼어 놓으려 했지만 대혈이
제압당한데다가 손의 힘도 크게 감소해 요지부동이었다.할 수 없이

그의 목덜미 부근의 대추혈(大椎穴)을 눌러 그가 독수를 펼치지
못하게 했다. 두 사람은 본래 모두 일류 고수들이었지만, 중독되고
난후 몸을 잡고 싸우게 되자 신분 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고
건달들처럼 마구잡이로 싸우게 되었다. 두 사람은 땅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며 점점 계곡의 절벽 쪽으로 굴러갔다. 법왕이
소리쳤다.

[어서 손을 놔라. 한 발만 더 가면 우리 둘은 뼈도 못 추리게
된다!]

그러나 니마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운기를 하여 내공이
법왕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다. 계속 밀어젖히자 법왕이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 이제 절벽과의 거리는 불과 수척이었다. 밑은 깊은
계곡이었다. 법왕은 얼른 꾀를 부려 소리쳤다.

[곽정이 온다!]

니마성이 흠칫하여 물었다.

[어디?]

그가 말하는 순가 법왕의 혈도가 풀어졌다. 법왕은 좌장을 냅다
뻗어 그를 밀어냈다. 니마성은 속은 것을 알고,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허리를 굽혀 달려들었다. 법왕은 이 일장으로 니마성을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미 두 발이 중독되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날 수가 있겠는가? 도리어
앞으로 달려들어 두 사람이 서로 엉키는 순간, 몸이 공중에 뜨며
함께 계속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양과의 기발한 계략이 적중된
것을 보고 이막수는 속으로 크게 감탄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밖에서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험이 사라졌음을 알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순간 법왕과 니마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바로 두 사람이 계곡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른 소리였다. 그러나
동굴 입구와 절벽과의 거리는 10 여 장이나 떨어져 있었고, 중간에
바위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어서 동굴 입구에서는 외부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 두 사람이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막수가 말했다.

[양과야, 저들이 왜 저러지?]

양과는 그들이 계곡으로 떨어진 것을 알 리가 없었다.

[그 도둑놈들은 꾀가 많아 우리를 속여 밖으로 끌어내자는 것일 거예요.]

이막수도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며 소곤거렸다.

[그래. 그들은 나를 밖으로 유인해 해독약을 얻으려는 게야.]

그녀는 천천히 동굴 입구로 걸어가 밖의 사정을 살펴보려고 했다. 양과가 소리쳤다.

[땅의 은침을 조심해요!]

하고 말한 뒤 양과는 곧 후회했다.

(내가 왜 이 여마두에게 조심하라고 했을까?)

이막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뒤로 물러났다.

어느새 동굴 입구의 불은 다 꺼지고 동굴 안은 다시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양과처럼 어둠 속에서 물건을 잘 보지 못하여 은침 3 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몰랐다. 만약 마구 걸음을 옮겼다면 십중팔구 은침을 밟았을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해독약을 갖고 있었지만 은침의 독이 매우 지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료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독에 중독되면 양과가 그 틈을 타 공격해 오면 치료할 틈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독침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어서 은침을 뽑아 버려!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양과가 말했다.

[잠시 기다렸다가 그들 두 사람이 독이 퍼져 죽은 후 천천히 나가지요.]

이막수가 코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사실 양과를 두려워했다. 그와 함께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다는 것은 순간순간이 위기였다. 그녀는

동굴을 빠져나갈 묘책을 고개를 숙여 곰곰이 생각했다. 동굴 밖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동굴 안의 두 사람도 각자의 생각으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갑자기 아기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젖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던 것이다. 이막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사매는 자신의 아기가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구나!]

[누가 아가씨의 아기라 말했어요? 이 아기는 곽정 대협의 딸이에요.]

[흥, 네가 곽대협의 이름을 들먹여 나를 겁주려 하는데 내가 겁낼 줄 아느냐? 만약 다른 사람의 아기라면 네가 이처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 이 아기는 너희들 사제지간에서 태어난 씨앗임에 틀림없어!]

양과가 대로(大怒)하여 말했다.

[그래, 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요. 그러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겠소? 당신 주둥아리 청소나 좀 하시지.]

이막수는 냉소를 흘리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너랑 사부의 행동이나 깨끗이 하시지.]

양과는 소용녀를 하늘같이 대해 왔는데 그녀를 능멸하는 소리를 듣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사부는 백옥처럼 깨끗한데 허튼소리 하지 말아라!]

[백옥처럼 깨끗할 것 좋아하시네. 팔뚝 위의 수궁사는 어떡하고?]

쉭, 하고 양과는 군자검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찌르며 말했다.

[나를 욕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소. 그러나 사부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소.]

쉬쉬쉭, 잇달아 3 초를 전개했다. 이막수는 단지 바람소리만 듣고 초식을 알아냈다. 비록 조금의 실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피해 낸 심정이었다. 양과는 검세의 위력은 있었지면

그녀가 아기에게 독수를 펼칠까 봐 마음놓고 시전하진 못했다. 두 사람이 10 여 합을 겨루는데 돌연 아기가 울음을 멈추었다. 이어 숨소리도 없어졌다. 양과가 매우 놀라 즉시 검을 회수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막수는 그가 이처럼 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자 이 아기는 필시 그의 자식이라 여기며 말했다.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아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순간 양과는 전율을 느꼈다. 평소에도 그녀는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갓난아기쯤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당신은 내 사백이오. 내 사부를 욕하지만 않는다면 당신 말을 듣지요.]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이막수는 아기만 자기 수중에 있으면 그가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좋다! 네 사부를 욕하지 않으마! 먼저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보고 와라.]

양과가 밖은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법왕과 니마성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법왕이 지모가 뛰어난 점을 두려워해 숨어 있을 말한 곳을 찾아 부근의 잡초들을 한차례 찔러 보았다. 아무도 숨어 있지 않자 양과는 동굴로 되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없어요. 중독되고 난 후 놀라 달아났겠지요.]

[흥, 내 은침의 독에 중독되고 달아나려면 멀리 달아날 수 있을 줄 아느냐? 어서 동굴 입구의 은침을 뽑아 내 앞에 내놓아라.]

양과는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에게 무엇인가를 찾아 먹여야겠다고 생각해 손을 감싸 쥐고 은침을 뽑아 그녀에게 주었다. 이막수는 3 개의 빙백은침을 침낭 속에 넣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양과도 따라나왔다.

[아기를 안고 어딜 가려고?]

[내 집에 데리고 간다.]

[아기를 어디에 쓰려고? 그 애는 당신이 낳은 것도 아니잖아?]

이막수의 두 뺨이 붉어지며 말했다.

[무슨 헛소릴? 네가 고묘파의 옥녀심경을 보여 준다면 아기를 네게 돌려주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말야.]

하는 말은 남기고 이막수는 경공을 펼쳐 북쪽으로 내달았다. 양과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우선 아기에게 젖부터 먹여야 해요.]

이막수는 몸을 돌려 얼굴이 온통 빨개지며 말했다.

[너는 어째서 아래위도 없이 자기 이익만 구하려 하느냐?]

[뭐, 내가 어쨌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께 손해를 끼쳤단 말이오? 어린애가 젖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난 옥처럼 몸을 지켜 온 처녀인데 어떻게 네놈의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가 있겠느냐?]

양과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사백. 내 말은 젖을 찾아서 아기에게 먹이자는 것이지, 당신이 직접......]

이막수가 한바탕 웃었다. 그녀는 시집도 안 가고 평생을 도검 속에서 지내 갓난아기를 기르는 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심각하게 말했다.

[어디서 젖을 찾는담? 아기에게 밥은 줘도 될까?]

[아기에게 이가 있나 좀 보시오.]

이막수가 아기의 입을 벌려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 개도 없는데.]

[우리, 마을로 가서 막 아기를 낳아 젖을 먹이는 여편네를 찾아 이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여야겠어요.]

[넌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두 사람이 구릉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니 멀리 서쪽 산기슭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한 조그마한 마을에 닿았다. 양양성 부근은 이미 몽고군의 말발굽 아래 황폐해져 이런 깊숙하고 외진 곳에만 약간의 민가가 있을 뿐이었다. 이막수가 차례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네번째 농가에서 한 젊은 아낙이 한 살 정도 된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이막수는 상당히 기뻐하며 그녀의 품안의 아기를 단번에 잡아 바닥에 내던졌다. 대신 갓난애를 그녀의 품안에 안겨주며 말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라.]

그 젊은 아낙의 아기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낙은 얼른 다가가 아기를 일으켜 안았다. 그 　 은 아낙은 즉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막수의 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갓난애에게 젖을 먹이란 소릴 못 들었느냐? 누가 네 아기를 안으라고 했느냐?]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들려 양과가 놀라 고개를 돌려 보니, 그 농가의 아기는 담장 밑에 쓰러져 머리통이 깨져 피가 흥건한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아낙은 황급히 곽정의 딸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이막수는 대로하여 불진을 들어 아낙의 등뒤를 치려 했다. 양과가 급히 검을 뻗어 막으며 생각했다.

(세상에 이처럼 악독한 여자가 있을까?)

[이사백. 만약 그 여자를 죽이면 아기에게 젖을 줄 사람이 없어져요.]

[난 네 아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무슨 참견이 그리 많단 말이냐?]

양과가 생각했다.

(이 애는 분명 내 애가 아닌데 그녀는 말끝마다 내 아기라 하는구나. 만약 진짜 내 아기라면 어째서 참견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양과는 곧 웃으면서 말했다.

[이 애는 배가 몹시 고프니 젖부터 빨리 먹이는 것이 급해요.]
하며 바닥에서 아기를 끌어안았다. 이막수가 불진을 들어 그의 손을 막아 서며 말했다.

[감히 아기를 빼앗으려는 게냐?]
양과가 뒤로 1 보 물러서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안지 않으면 되지요.]
이막수가 갓난애를 안고 다시 그 젊은 아낙의 품에 안겨 주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아낙은 이미 종적을 감춰 버렸다. 그녀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틈을 타 자식을 안고 몰래 후문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이막수가 노기충천하여 얼른 문을 나섰다. 그 아낙이 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 이막수는 냅다 따라가 불진을 휘둘렀다. 휙, 바람소리가 지나가자 농부의 아낙과 자식, 두 사람은 골이 터져 즉사해 버렸다. 그녀가 다시 농가를 뒤졌지만 모두 남자들뿐이었다. 이막수는 더욱 화가 치밀어 미친 듯이 몇 명을 죽여 버리더니 불씨를 찾아 농가의 지붕에 불을 지르고서는 촌락을 빠져나왔다. 양과는 그녀의 이처럼 악독한 면을 보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서 산길을 10 여 리 갔을 때 아기는 우는 것도 지쳤는지 그만 이막수의 품안에서 잠이 들었다. 곧바로 나아가는데 이막수가 갑자기 아앗! 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두 마리의 표범 새끼들이 서로 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차 버리려고 했다. 순간 옆의 수풀 속에서 와앙, 하는 우렁찬 소리가 나더니 한 마리의 표범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옆으로 물러섰다. 그 표범은 바로 몸을 돌려 달려들었다. 이막수가 불진을 들어 쉭, 하고 표범의 두 눈 사이를 때렸다. 표범은 고통스러운지 어흥, 하고 포효한 다음 더욱 흉폭스럽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땅에 웅크리고 앉아 두 눈에 시퍼렇게 불은 켜 대며 적은 노려보았다. 이막수는 왼손을 약간 흔들어 표범의 두

눈에다 은침을 격출했다. 양과가 급히 멈추라고 외친 뒤 장검을
휘둘러 은침을 떨어뜨렸다. 이때 표범이 몸을 날려 휙, 하고
공중에서 달려들었다. 양과도 몸을 날려 오른쪽 주먹으로 표범의
목뒷뼈를 강타했다. 표범은 고통에 겨워 포효하더니 땅에 떨어진 후
즉시 뒤로 물러나며 다시 뛰어올라 양과를 덮쳤다. 양과는 옆으로
몸을 틀며 좌장을 격출했다. 이 일장은 약 오성(五成) 정도의
내공을 실어, 표범은 얻어맞은 후 한바퀴 공중회전을 하여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막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2 개의 은침으로
표범을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왜 표범을 구해 주었는지,
그리고 난 뒤 왜 이처럼 표범에 맹타를 가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양과는 계속 일장을 가해 표범이 꼼짝도 못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매 일장은 모두 표범의 급소를 피하고 있었다. 표범의 포효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10 져 장을 얻어맞더니 표범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이미 표범이 달아날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얼른 표범의 꼬리를 잡아 나꿔채려고 했다.
그러나 표범은 이미 기세가 꺾여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감추고 있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바로 경공을 펼쳐 따라갔다. 그 표범은
수장을 뛰어가다 몸을 돌려 두 마리의 새끼표범들은 부르는지
어흥거렸다. 양과는 좋은 생각이 나서 얼른 두 마리의 새끼들의
목덜미를 양손에 높이 움켜쥐었다. 어미 표범은 새끼들이 잡힌 것을
보자 미친 듯이 다시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양과는 새끼들을
이막수에게 던져 주며 말했다.

[잡아 놔요. 죽이지는 말고......]

하며 양과는 표범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서 정확히 표범의
등에 올라타 표범의 두 귀를 밑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표범이 힘껏
발버둥을 쳤지만 전신의 급소를 제압당해 그만 커다른 주둥아리를
땅에 처박고 말았다. 양과가 말했다.

[이사백, 어서 이놈을 묶어요.]

이막수가 코방귀를 뀌었다.

[난 너와 함께 놀 시간이 없어.]

하며 몸을 돌려 그냥 가려 했다. 양과가 급히 말했다.

[누가 논댔어요? 이 표범에게 젖이 있단 말예요!]

이막수는 그제야 깨달은 듯 웃으며 말했다.

[네 머리는 참 기가 막히구나!]

그녀는 즉시 10여 개의 나무 줄기를 벗겨 얼른 끈을 꼬았다. 우선 표범의 주둥이를 꽉 묶은 뒤 앞뒤 다리를 묶어 버렸다. 양과는 몸의 흙을 탁탁 털며 일어났다. 표범은 꼼짝도 못하고 두려운 기색을 보였다. 양과는 가볍게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면서 말했다.

[잠시만 유모가 되어 주면 돼! 네 목숨을 빼앗지 않을 테니......]

이막수가 갓난아기를 안아 표범의 젖꼭지에 갖다 댔다. 아기는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아기는 포만감에 잠이 들었다. 이막수와 양과는 갓난아기가 젖은 먹고 나서 잠이 든 것을 바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시종 아기의 귀여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기의 잠든 얼굴에 귀엽게 웃는 모습을 띠자, 두 사람은 기뻐서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이렇게 웃자 두 사람 사이에 도사리고 있던 경계의 마음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이막수의 얼굴에는 온유한 기색이 그득했다. 한 손으로 아기를 다독거리며 그녀는 어느덧 노래를 흥얼거렸다. 양과는 부드러운 풀은 찾아 나무 그늘 밑의 커다란 바위에다 자리를 만들었다.

[아기를 여기다 눕혀요!]

이막수가 급히 손짓을 하며 아기를 깨우지 못하게 했다. 양과는 혓바닥을 내밀어 귀신 얼굴을 흉내냈다. 아기가 편안히 잠든 것을 보자 양과는 휴우,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돌려 보니 새끼 표범들이 어미품에서 젖을 빨고 있었다. 사방에 꽃 향기가 그윽하고 바람결에 옷자락이 날렸다. 살기는 다 사라지고 사람과 맹수가 모두

평화로왔다. 양과는 이 며칠간 허다한 변고를 겪은 뒤 지금에서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한쪽에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여마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흉폭한 맹수가 있었지만 양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이막수는 갓난아기의 곁에 앉아 천천히 불진은 흔들어 벌레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 불진으로 무수한 인명을 헤쳐 무림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그녀가 자애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넋이 빠진 듯 아기를 쳐다보면서 얼굴에 미소가 감도는가 하면, 우수에 잠기다가 돌연 격동하더니 다시 평온해지곤 했다. 아마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만사가 감회로운 모양이었다. 양과는 그녀의 신분을 잘 몰랐다. 단지 정영과 육무쌍이 약간 얘기한 것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이처럼 악독하게 된 데에는 필경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양과는 줄곧 그녀를 미워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한참 후, 이막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양과와 눈이 마주쳤다. 다소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오늘 밤 어떡하지?]

양과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이 표범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 동굴을 찾아 하룻밤을 묵은 후, 내일 갈 곳을 정하지요.]

양과는 주위를 한바퀴 둘러본 뒤 조그마한 굴을 발견했다. 바로 부드러운 풀을 찾아 굴 속에다 크고 작은 2 개의 자리를 깔고 나서 말했다.

[이사백, 잠시만 기다려요. 먹을 것을 구해 올께요.]

그는 몸을 돌려 산 밑으로 내려갔다. 한 시간도 못 되어 3 마리의 토끼와 10 여 개의 산과일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표범의 주둥이에 묶은 끈을 풀어 주어 토끼 한 마리를 먹게 했다. 이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나머지 두 마리 산토끼를 구어 이막수와 나누어

먹고 난 뒤 말했다.

[이사백, 내가 밖에서 망을 볼 테니 편히 주무시오.]

양과는 긴 끈으로 커다란 나무 두 그루 사이를 묶더니 공중에 누웠다. 이는 본래 고묘파 무공의 심법이었다. 이막수가 보더니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제자인 홍릉파와 같이 동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늘 혼자였다. 지금 양과와 함께 밤을 보내며 그가 자신을 편하게 대해 주자, 옛날 홀로 황야를 헤매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 속으로 탄식을 금치 못했다.

신조(神鳥)의 동굴

양과는 한밤중에 홀연 서북방에서 들려오는 수리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그 소리는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는데 기운차고도 처량했으며, 기세가 매우 호탕했다. 그는 호기심이 일어 가볍게 줄에서 뛰어내려 소리를 따라갔다. 그 울음소리는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였는데 도화도에서 들었던 쌍조(雙鳥)의 소리보다도 훨씬 컸다. 그는 점점 몸을 낮추며 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이때 수리의 울음소리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다. 그는 발검을 가벼이 하여 조용히 수풀을 한번 헤쳐 보고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분명히 커다란 한 마리의 수리였다. 그 수리는 몸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람보다도 컸으며, 생긴 것은 무척 추했다. 온몸의 깃털이 군데군데 빠져서 누군가에게 뽑힌 것 같았다. 털은 불그스레한 흑색으로 몹시 지저분하며 생긴 모습은 도화도의 쌍조와 비슷했지만 추함과 빼어남은 천양지차였다. 이 추한 수리는 부리가 구부러지고 머리에는 피처럼 붉은색의 혹이 자라서 세상의 천간 가지 새 중에서 이렇게 투박하고도 웅기(雄奇)한 날짐승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수리가 큰 걸음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니, 두 다리는 이상할 정도로 굵고 때때로 두 날개를 벼는데 날개가 너무나 짧아서 과연 날 수 있을 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높이 올려다보며 활보하는 것에 그런대로 위무와 기개가 있을 뿐이었다. 수리가 한동안 소리를 지르는데 왼쪽에서 사사삭, 소리가 나더니 달빛 아래 5 색의 반점을 번뜩이며 4 마리의 속사가 일제히 추한 수리를 향해 화살처럼 날듯이 달려들었다. 추한 수리는 부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돌려 급히 사방을 쪼아 4 마리의 독사를 일일이 쪼아서 죽였다. 부리로 찍는 것의 정확함과 행동의 민첩함은 마치 무림의 일류 고수 같았다. 이 4 마리의 뱀을 연달이 쪼아서 죽이는 신기(神技)를 보고 양과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혀를 내두르며 이전까지 경시하고 비웃던 마음이 순식간에 놀라움과 탄복으로 바뀌었다. 그 추한 수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독사 1 마리를 집어삼켰다.

(이 추한 수리를 잡아다가 곽부의 쌍조와 한번 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쉽사리 지지는 않겠는걸......)

어떻게 사로잡은 것인가를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돌연 고기 냄새가 온통 코를 찌는 것이, 구렁이 같은 독물이 근처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다. 추한 수리는 고개를 들고 까욱 까욱 까욱, 세 번을 울며 적을 맞을 차비를 하는 것 같았다. 휘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맞은편 큰나무 위에 밥그릇 주둥이 굵기의 세모진 머리를 가지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매달려 추한 수리를 향해 사납게 대들었다. 추한 수리는 조금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위를 올려다보고 앞으로 나아가며 굽은 부리를 펴서 번개같이 이무기의 오른쪽 눈을 쪼았다. 그 수리는 목이 짧고 굵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할 것처럼 보였지만 번개같이 폈다가 번개같이 움츠려서, 양과의 눈빛이 비록 예리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무기의 눈을 쪼았는지 똑똑히 보지를 못했다. 이무기는 오른쪽 눈을 잃자 극심한 고통에 몸을 비틀다가 커다란 입을 벌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수리의 머리에 난 혹을 깨물었다. 양과는 전혀 뜻하지 못한 것이어서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무기는 한차례 공격이 성공하자 2 장이 넘는

길다란 몸을 돌연 나무에서 떨어뜨려 수리의 몸을 칭칭 감았다.
추한 수리는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양과는 추한
수리가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즉시 몸을 날려서
검을 뽑아 뱀의 몸을 베려는데 돌연 그 수리가 오른쪽 날개를
재빨리 펼쳐서 양과의 오른쪽 팔을 쳤다. 그 힘은 대단히 매서웠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양과의 군자검은 이미 손에서 벗어나 몇 장을
날아갔다. 양과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이에 그 수리는 부리를
뻗어 이무기의 몸을 여러 번 쪼아 댔다. 매번 내려 쪼을 때마다
이무기의 몸에서는 피가 뿜어나왔다. 양과는 생각했다.
(네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가 도와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무기가 갈수록 단단히 조여 대자 수리는 깃털을 곤두세우며 있는
힘을 다해 버텼다. 수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듯이 보이자 양과는
커다란 돌을 들어 이무기를 향해 계속 던졌다. 커다란 이무기의 몸이
약간 풀어지자 추한 수리는 목을 급히 뻗어 다시 이무기의 왼쪽 눈을
쪼았다. 이무기는 커다란 입을 벌려 사방으로 물어댔지만 두 눈이
이미 멀었으니 무엇을 물 수 있겠는가? 수리는 두 발톱으로 뱀의
머리를 움켜쥐고 뒤흔들며 흙속으로 처박고,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부리로 이무기의 머를 쪼아댔다. 이 거대한 수리는 신력(神力)을
타고난 듯했다. 이무기는 전신을 꿈틀거리고 춤추듯 버둥거리면서
머리를 시종 움직이지 못하더니 한참 지나자 마침내는 온몸이 축
늘어져서 죽었다. 추한 수리는 고개를 쳐들고 크게 세 번을 울고는
이어서 양과에게 고개를 돌리고 부드러운 소리로 낮게 부르는 듯했다.
양과는 그 우는 소리 중에 매우 부드러운 기운이 담겨 있음을 느끼고
천천히 다가가서 웃으며 말했다.
[조형(조兄), 당신의 신력은 놀랄 만하군요, 정말 감탄했읍니다.]
추한 수리는 낮게 울부짖으며 천천히 양과의 곁으로 걸어와
날개를 펴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몇 번 쳤다. 양과는 이 수리가

이토록 신통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도 손을 뻗어 수리의 등을 쓰다 듬었다. 추한 수리는 몇 번 울더니, 양과의 옷자락을 물고 몇 번 흔들다가 놓더니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양과는 필시 어떤 곡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곧장 뒤를 따라갔다. 추한 수리는 걸음이 이상할 정도로 빨랐다. 수리는 돌과 수풀 사이를 달리는 말처럼 빨리 가서 양과는 경공의 무공을 펼쳐야만 따라갈 수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절로 탄복했다. 수리는 갈수록 낮은 곳으로 가더니 한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참을 가서 한 커다란 동굴 앞에 이르렀다. 추한 수리는 동굴 앞에서 세 번 고개를 끄덕이고, 세 번을 울더니 고개를 도려 양과를 쳐다보았다. 양과는 수리가 동굴 안에다 대고 인사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동굴 안에는 필시 어떤 고인(高人)이 살고 있어서 이 큰 수리는 그가 훈련시킨 것이 분명하다. 예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군.)

양과는 동굴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 절을 한 뒤 말했다.

[제자 양과, 머리 조아려 선배님을 뵙고자 합니다. 함부로 소란을 피운 죄를 용서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도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수리는 그의 옷깃을 물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워서 정말로 무림의 기사(奇士)가 사는지 아니면 무슨 산귀신 나무귀신이 사는지 모를 정도여서 그는 몹시 무서웠지만 생사는 이미 도외시하고 있었던 터라 동굴 안으로 계속 따라 들어갔다. 이 동굴은 사실 매우 얕아서 3 장을 채 못가서 끝이 이르렀다. 동굴 안에는 돌탁자 하나와 돌의자 하나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추한 수리는 동굴 모퉁이를 향하여 몇 번을 울었다. 양과가 보니 동굴 모퉁이에는 돌더미가 높이 솟아 있어 마치 무덤 같았다. (이제 보니 이것은 어느 기인의 뼈가 묻힌 곳인 모양인데 수리가 말을 할지 못하니 답답하구나.) 고개를 들자 동굴 벽에 무슨 글자가 씌어진 것 같은데 먼지가 쌓이고 이끼가 끼어

있는데다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지피고 손을 뻗어 동굴 벽의 이끼를 제거하니 과연 글씨가 나타났는데 필획이 매우 가늘면서도 깊이 새겨져 있어, 끝이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새긴 것이 분명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강호를 종횡무진한 지 30여 년, 원수와 도적을 모두 죽이고 영웅들을 모두 물리쳤네, 천하에 더 이상 대적할 적수가 없자 할 만한 일이 없어 오직 깊은 골짜기에 은거하며 수리로 벗을 삼노라. 오호라, 평생토록 적수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으니 참으로 적막함을 달랠 길이 없구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낙관이 있었다.

<검마(劍魔) 독고구패(獨孤求敗).>

양과는 이 글을 반복하여 여러 번을 읽고는 놀랍기도 하고 탄복하기도 하며, 그 역시 그 감당할 수 없는 적막함을 이해할 수 있을 듯했다.

(이분 기사(奇士)는 세상에 적이 없어 깊은 골짜기에 은거하고 있었다니 그 무공의 깊고 정묘함이 실로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구나.)

이 사람의 호가 <검마(劍魔)>라는 것은 검을 마치 신처럼 부린다는 것이요, 이름을 <구패(求敗)>라고 한 것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한 번이라도 자기를 이길 만한 사람을 찾았지만 끝내 소원대로 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울하게 죽어간 것 같았다. 이 선배의 풍렬(風烈)을 생각하자 양과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한참 있다가 불을 붙인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동굴은 한바퀴 살폈지만 다른 자취는 찾지 못했고 돌을 쌓은 무덤 위에도 다른 표기는 없었다. 이 일대의 기인이 죽은 뒤에 신조(神조)가 돌을 물어다가 그의 시신 위에 쌓은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멍하게 있더니 이 선배 기인에 대하여 갈수록

경모(敬慕)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도 모르게 석묘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번 절을 했다. 그 신조는 양과가 석묘에 대하여 매우
공경하는 예를 차리는 것을 보고 무척 좋아하는 듯하더니 날개를
펼쳐 다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몇 번 쳤다.

(이분 독고 선배의 유언 중에 수리를 친구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수리가 비록 축생이지만 나의 섄배가 된다.
내가 조형(조兄)이라고 한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양과가 말했다.

[조형,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가야 합니다. 당신은 독고 선배의 묘지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겠습니까?]

신조가 몇 번 우는 것이 마치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그
뜻을 몰라서 신조가 석묘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무림의 각 선배들이 이제껏 독고구패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 그렇다면 그분은 적어도 6,70 년 전의 인물이다.
이 신조는 아마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아 정든 땅을 잊지
못해 나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양과는 팔을 뻗어 신조의 목을 감싸고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가
다시 곧장 동굴을 나왔다. 그는 평생을 소용녀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한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고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신조와 서로 만나고 나니 비록 하나는 사람이요 하는
명금이었지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게 동굴을 나온 뒤에도 자못 연민의
정이 일어나 차마 떠나지 못하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바로보았다. 그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신조는 줄곧 울어서 대답을
하곤 했다. 비록 서로 수십 장의 거리를 떨어져 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신조는 양과가 똑똑히 보이는 듯, 양과가 고개를
돌리는 것만 보면 울어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양과는 돌연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용솟음쳐 큰소리로 말했다.

[조형, 조형! 소제는 목숨이 길지 못하니 곽백부의 어린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가씨와 마지막으로 작별을 한 뒤에 다시 이곳에 와서 독고대협의 곁에 이 뼈를 묻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오.]

하는 말은 마치고 양과는 몸을 굽혀 읍은 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그는 곽정의 어린 딸의 안위가 걱정되어 군자검을 다시 찾은 뒤에 급히 동굴로 돌아왔다. 마악 동굴 입구에 이르자 이막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 이곳에는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혼이 있어 이리저리 배회하며 쉴 새 없이 흐느끼는데 정말로 지겹구나, 지겨워!]

[어디에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양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고 먼 곳에서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는 깜짝 놀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사백, 아기를 좀 돌봐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지요.]

흐느끼는 소리가 점차 가까와지면서 누군가가 울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참하구나, 비참해! 아내는 남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 둘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싸우고만 있으니......]

양과가 고개를 들어 살피니 별빛 아래 머리를 풀어 헤친 한 대한(大漢)이 얼굴은 가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쉬지 않고 빙글빙글 달리고 있었는데, 옷은 다 떨어지고 얼굴은 똑똑히 보이지가 않았다. 이막수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쳇, 원래 미친 사람이었구나. 빨리 그를 쫓아 버려라. 그가 소란를 피워서 아기가 깨겠다.]

그러나 그 대한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들은 줄곧 서로를
헤치려고만 하니 이 늙은이가 더 이상 살아서 뭘 해?]

한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한편으로는 슬프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양과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혹시 그가 아닐까?) 양과는 천천히 동굴은 나와서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무노선배가 아니십니까?]

그자가 황량한 교외에서 밤중에 우는 것은 심중의 비통함을 억제하지 못해서였다. 이곳에 설마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는 즉시 곡성을 멈추고 사납게 호통쳤다.

[너는 누구냐? 이곳에 귀신처럼 숨어서 뭘 하는 게냐?]

양과는 두 손을 감싸 쥐며 말했다.

[소인은 양과이옵니다. 선배께서는 성이 무(武)요, 존함은
삼(三)자 통(通)자가 아니신지요?]

이 사람은 바로 무씨 형제의 부친인 무삼통이었다. 그는 가흥부에서 이막수의 은침에 부상을 당하고 기절을 했다가 언뜻 정신이 들어서 아내 무삼랑이 땅에 엎드려 그의 왼쪽 다리에 난 상처에서 독혈을 빠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삼랑, 은침에는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는 독이 묻어 있는데
어찌하여 빠는 거요?]]

그리고는 서둘러 그녀를 밀쳐 냈다. 무삼랑은 땅에 독혈을 한 입 토해 내고는 웃으며 말했다.

[검은 피가 이제 붉은 색으로 돌아왔으니 별 탈은 없을 거예요.]

무삼통은 그녀의 두 빰이 온통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삼랑, 당신......, 당신은......?]

무삼랑은 남편을 위하여 독을 치료한 뒤 자기는 이제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저는 결혼을 한 뒤에 줄곧 우울하게 지냈지요. 하지만 애당초 잘못된 일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겠지요. 다만, 이 두 아이를 잘 키워서, 장성한 뒤에도 늘 화목하게 지내도록 보살피시기를......]

무삼랑은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손을 내저으며 죽었다. 무삼통은 너무도 가슴이 아픈 나머지 풍병이 다시 발작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 위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머릿속을 텅텅 비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혼자 떠나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미친 채로 강호를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세월이 흐르자 풍병도 서서히 나아 갔다. 사수(泗水)의 어은(漁隱)이 대승관(大勝關)의 영웅대회에 참석한 뒤에 산으로 돌아와 몇몇 무림의 벗들과 동행하여 다니다가 한담을 나누는 중에 무삼통을 닮은 인물은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어은은 그 말을 듣고 사제 무삼통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와 마주친 것이었다. 무삼통은 어은으로부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미 장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즉시 양양으로 그들을 찾으러 떠났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침 금륜법왕이 양양에서 크게 소란을 피워 곽정이 부상을 입고, 황용은 막 아기를 낳은 것이었다. 그는 주자류와 곽부를 만나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내가 죽을 때의 유언이 생각나 그 상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급히 성을 나서서 한 부서진 묘당을 지날갈 때에 묘 안에서 무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바로 무돈유와 무수문이 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두 아들과 서로 헤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들이 오른손으로 검을 사용하면서 왼손으로는 각기 일양지(一陽指)의 지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즉시 앞으로 나서서 멈추독록 호통을 쳤다. 무씨 형제는 다시 부친을 만나게 되자 너무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만 곽부 얘기만 나왔다 하면 형제는 서로
양보하려고 하질 않았다. 무삼통운 화가 나서 욕을 하며 꾸짖기도
하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면서 두 사람에게 곽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했지만 끝내 설복할 수 없었다. 무씨 형제는
부친의 면전에서는 감히 서로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몇
걸음 비켜 서기만 하면 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약속을 하여 한밤중에 이 외딴 산중에 와서 승패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무삼통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듣고
슬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두 사람의 약속 장소로 먼저 가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운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감하여 저도 모르게 황야에서 소리내어 슬프게
울부짖었던 것이다. 마침 그렇게 심정이 한창 격해 있는데 돌연
한 소년이 동굴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자 무삼통은 웬지 모르게
적의가 생겨 호통을 치게 된 것이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해서 나의 이름을 아느냐?]

[무노백(武老佰)], 소질 양과는 이전에 돈유.수문 두 형과 도화도
곽대협의 부(府)에 기거하면서부터 노백의 위명에 대하여 줄곧
대단히 앙모하고 있었읍니다.]

무삼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아, 그렇군. 돈유와 수문이
여기서 무예를 겨루는데 네가 증인으로 온 것이로구나! 흥, 너는
이미 그들과 친분이 있다면 어째서 그만두라고 말리지 않는단
말이냐? 도리어 물결을 쳐서 물을 튕기면서 소란을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친구란 말이냐?]

뒤에 가서는 목소리와 안색이 사나와지며 가슴 가득한 분노의
불길을 온통 양과의 몸에 퍼붓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앞으로
다가서서 거대한 손을 들어 친구의 도리를 어긴 어린 놈을 혼내
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그의 수염이 길게 자라고 위세가

늠름한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무노백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두 걸음쯤 물러서서 웃음을 띄고 말했다.

[소질은 두 분 무형께서 무예를 겨루려고 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읍니다. 노백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무삼통이 호통을 쳤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느냐? 네가 만약 미리 알지 않았다면 뭣 하러 이곳에 왔느냐? 세상은 넓고도 넓은데 왜 이런 외딴산, 깊은 골짜기에 왔단 말이냐?]

양과는 이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와 이런 외딴 곳에서 만났으니 그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서 양과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난감했다. 무삼통은 그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준수한 소년만 보면 증오심이 일어났다. 그는 퍼뜩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이 조그만 녀석이 반드시 나의 자식들을 안다고 할 수도 없다. 이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무슨 다른 술수를 부리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지.)

화가 치민 나머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장을 들어 양과의 어깨르　내리쳤다. 양과가 몸을 피했고, 무삼통의 우장이 허공을 휘젓자 양과는 곧장 왼팔을 구부려 팔꿈치로 공격을 해 왔다. 양과는 그의 출초가 공력이 심후함을 보고 얕잡아볼 수 없어서 몸을 기울이며 걸음을 옮겨 다시 일초를 펴했다. 무삼통이 외쳤다.

[훌륭하군, 경공은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검을 사용해 보아라!]

바로 이때 동굴 속에서 아기가 깨어 몇 번 울었다. 양과는 생각했다.

(그는 아내를 죽인 이막수에게 철천지 원한이 있으니 한번 얼굴만 마주치면 생사를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상수(上手)를 사용하여 절초(絶招)를
서로를 죽이려고 들 것이니 그러면 아기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무노백, 소질은 후배가 되는데 어찌 감히 당신과 다툴 수가
있겠읍니까? 당신이 끝내 제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고 없읍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당신께 삼초를 공격하도록 하겠읍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즉시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삼통은 대로하여 호통을 쳤다.

[어린 녀석이 건방지기 짝이 없구나. 내가 그래도 인정을 남겨
두어 아직 살수를 쓰지 않았더니 감히 나를 우습게 본단
말이냐?]

하며 오른손을 식지를 재빨리 내뻗었다. 이것은 바로
일양지(一陽指)였다. 그는 수십 년을 각고 수련하여 공력이
심후(深厚)했다. 양과는 그의 식지가 홀연 움직이는 것을 보니
달려드는 기세는 비록 완만했지만 자기의 상반신 정면에 있는
대혈(大穴)이 모두 그의 손가락 하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가
누르려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의 혈도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홉
군데의 대혈이 모두 손가락에 찍힐 위험에 처하자 양과는 즉시
중지를 뻗어 그의 식지를 튕겨 냈다. 이는 바로 황약사가 전수해 준
탄지신통(彈指神通)의 무공이었다. <탄지신통>과 <일양지>는 수십
년 동안 나란히 그 명성을 드날려 원래는 각기 그 상대를 이길 만한
틈이 있었다. 그러나 양과는 공력이 얕고 배운 시기도 잠시인데다가
배운 뒤에 온 심혈을 기울여 고된 수련 거치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무삼통이 수십 년 동안 온심혈을 기울여 수련한 것에 미칠 것인가?
두 손가락이 서로 접촉하자 양과는 오른쪽 팔이 떨리며 온몸에 열이
나서 대여섯 걸음 물러나서 가까스로 말뚝을 잡고서야 넘어지는

것을 면했다. 무삼통은 <아니?>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말했다.

[과연 너는 정말로 도화도에서 살았었구나.]

그의 어린 나이에 자기의 평생의 절기를 막아내는 것을 보고 무삼통은 그 재주를 아끼는 심정이 생겨 말했다.

[다시 두번째 공격이다. 막지 못하겠다면 피해서 내장이 상하지 않도록 해라. 나는 너를 해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고 나서 몇 걸음 나서더니 다시 손가락을 펴 공격했다. 이번에는 양과의 배를 공격했다. 이 일지(指)가 공략하는 요혈은 더욱 넓어서 배에 있는 충맥의 10 대혈인 유문(幽門).통곡(通谷)에서 그 아래로 중주(中注).사만(四滿)을 거쳐, 횡골(橫骨).회음(會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곳이 이 일지의 위세 아래 놓여 있었다. 양과는 공세가 더욱 빠른 것을 보고 다시 탄지신통으로 맞선다면 손가락이 부러질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내장까지 상할 것 같아서 즉시 서둘러 금심암통(琴心暗通)의 초수를 펴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군자검을 뽑아서 배의 앞 2 촌(寸) 되는 곳을 보호했다. 무삼통은 손가락이 칼날에 닿으려고 하자 급히 거두어들이고 다시 제 3 지(指)를 내었다. 이 일지는 번개같이 빠르게 곧장 양과의 미심(眉心)을 찌르고 들어가서 무삼통은 양과가 절대로 검을 되돌려 방어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양과는 상대방의 손가락 공격이 더욱 빨라져 절대로 이것을 풀기가 어렁좇遲 알고 위급한 나머지 구음진경 중의 무공을 사용하여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재빨리 몸을 굽혀서 무삼통의 허리 아래로 달려들었다. 이 일초는 비록 매우 신속했지만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이 않았고 아직 연륜이 부족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무삼통이 <아이쿠!> 하는 소리도 채 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손이 자기의 왼쪽 어깨를 가벼이 치는가 했더니 이어서 양과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들렸다.

[무노백, 당신의 제 3 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서서 참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후훗! 참으로 영웅은 소년에게서 나오는구나.

......늙은이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도다.)

양과는 급히 칼집에 검을 도로 꽂고서 몸을 굽혀 말했다.

[소질은 이 일초를 피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읍니다. 만약 진정으로 무예를 겨루었다면 소질은 이미 졌을 것입니다.]

무삼통은 마음이 약간 편해졌다. 그는 감탄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다. 네가 방금 그대로 나의 등을 검으로 한번 내리쳤다면 이 늙은 목숨은 이미 붙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너의 초수는 정말로 기발한 것이다. 나의 이런 조잡한 솜씨로는 총명하고 영리한 여자아이들하고도 제대로 싸워 이기지 못하겠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홀연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가왔다. 양과는 무삼통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 무성한 수풀 뒤로 숨었다. 발소리가 점차 가까와져서 보니 그들은 과연 무돈유.무수문 형제였다. 무수문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말했다.

[형님, 이곳이 지세가 텅 비고 넓으니 여기가 좋겠소.]

무돈유가 말했다.

[좋다!]

그는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을 뽑았다. 무수문은 검을 뽑지 않고 말했다.

[형님, 오늘의 싸움에서 제가 만약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를 죽이지 않으면 더 이상 형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친의 원수를 갚고 늙은 아버님을 봉양하며 부매(芙妹)를 돌보는 이 세 가지 큰 일은 형님께서 혼자 하셔야겠죠.]

무삼통은 여기까지 듣고는 마음이 시려 두 방울의 눈물을

떨어뜨렸다. 무돈유가 말했다.

[피차 심정을 잘 알 텐데 무슨 여러 말이 필요하단 말이냐? 네가 만약 나를 이겨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는 말을 마치고 나서 검을 들고 자세를 취했다. 무수문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고 몇 걸음 나서서 말했다.

[형님, 저희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노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형과 아우가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이제껏 다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 지경에 이르렀소. 형님은 형제간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는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너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간에 평생토록 결코 이 이야기를 누설하지 않아서 아버님과 부매를 곤란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삼통은 두 형제가 하는 말에서 우애가 돈독함을 느끼고 큰 위안을 얻고는 당장 뛰어나가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중단하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다. 그때 돌연 두 형제가 동시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제 덤벼라!]

둘은 동시에 뒤로 뛰었다. 무수문은 손을 뻗어서 장검을 빼어 들고 사사삭, 연속하여 세 차례를 찔렀다. 별빛 아래 하얀 칼날은 나는 듯하고 신속하기 그지없었다. 무돈유는 일일이 막아내며 제 3 초를 막아 되돌리면서 이어서 두 차례를 반격했다. 매 일초가 모두 무수문의 요해처를 찔렀다. 무삼통은 가슴이 온통 펄떡펄떡 뛰는데 무수문은 재빨리 몸을 날려 가볍게 피하는 것이었다. 황량한 골짜기에는 2 개의 검이 부딪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두 형제는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워, 출수(出手)가 털끝만큼도 양보가 없어서 무삼통만 마음을 줄이며 당황하게 만들었다. 둘은 모두 그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자식이고 어릴 때부터 절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었는데 둘의 검초는 하나하나가 모두
무시무시하여, 가령 원수를 만났다고 해도 이렇지는 않을 것도여서
계속 싸우다가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다칠 것 같았다. 지금 그가
만약 나타나 그만두라고 호통을 친다면 두 사람은 분명히 곧 손을
멈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싸우지 않는다면 내일도 여전히 서로
목숨을 걸고 다툴 것이니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두 아들의 곁에
붙어 다니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양과는 어렸을 때 무씨 형제와
틈이 있었던 터라 그 후에 다시 만나서도 서로가 여전히 뭔가
껄끄러운 점이 있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도량도 그다지 넓지
못해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자못 고소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무삼통이 상심하여 흐느끼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목숨이 길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착한 마음이
일었났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유익한
일은 한번도 한 적이 없으니 죽은 이후에 아가씨는 실로 마음
아파하겠지만, 이 밖에 나를 생각할 사람은 정영.육무쌍.공손녹악
등의 몇몇 홍안의 소녀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을 한번
하여 이 노백께 종신토록 나의 좋은 점을 기억하시도록 해 볼까?)
마음이 이미 결정되자 입술을 무삼통의 귓가에 갖다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무노백, 소질에게 두 아드님이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삼통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눈에는 감격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러나 반신 반의
하면서 실제로 그가 무슨 묘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양과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만, 두 아드님께 득죄를 하더라도 노백께서는 과히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삼통은 감격하여 그의 두 손을 꼬옥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젊었을 때 정과 사랑의 아름다운 맛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아내를 취하는 것도 부모의 명을 따라서 애정도 없이 혼인했다가 그 후에 정이 싹트며 서로 얽혀서 차마 부인이 자신을 버리고 목숨을 구해 준 깊은 은혜에 감동하여 하원군(何沅君)에 대한 치정도 이미 점차로 엷어져 갔다. 늙어서는 자식을 더욱 돈독히 사랑하여 오직 두 아들만 평안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기꺼이 할 것 같았다. 너무도 절박한 순간에 돌연 양과의 이 몇 마디 말을 듣자 정말로 고난에서 구해 주는 보살을 만난 것만 같았다. 양과는 그의 안색을 보고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만약 이 세상에 살아 계셨다면 그 역시 분명히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 텐데......!)

양과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절대로 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계책은 소용이 없읍니다.]

이때 무씨 형제의 싸움은 매우 격렬해졌다. 그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월녀검법(越女劍法)이었다.   이것은 당년 강남칠괴(江南七怪) 중의 한소영(韓小瑩)이 이 맥(脈)을 전수한 것으로,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함께 수천 차례는 연습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목숨을 걸고 서로 다투는 판이라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수 없어서 평소에 대련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다. 무수문은 정확하고 재빠르게, 가볍고도 민첩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뛰면서 쉬지 않고 틈을 찾아서 공격했다. 무돈유는 자세를 엄중하게 지키며 어쩌다 한번 검을 찌르는데 초식은 매섭고 경력(경力)은 웅대했다. 양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곽백부의 무공은 당대의 으뜸인데 그가 제자에게 전수한 것은 별

것이 아니구나. 무씨 형제의 자질이 저렇듯 평범하다니......
이제보니 곽백부 무공의 5분의 1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것
같구나.)
양과는 돌연 소리 내어 크게 웃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무씨
형제는 나무나 놀라 각자 떨어져 뒤로 뛰었다. 검을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틀림없는 양과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양형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무수문이 하하, 웃으며 말했다.
[밤중에 심심하길래 검법을 수련중이지.]
양과는 생각했다.
(보잘것없는 무예를 가지고 되는 대로 거짓말을 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미는군.)
[검법을 연마하면서 목숨도 돌보지 않다니
.....흐흐......애쓰는군, 애써!]
무돈유가 노하여 말했다.
[어서 사라져라. 우리 형제의 일은 양형이 상관할 필요가
없으니......]
양과는 냉소하며 말했다.
[만약 정말로 검법을 연마하느라 그렇게 열심이었다면 나도 물론
상관하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들이 초술을 낼 때에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부매(芙妹)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누가 상관한단 말이오?]
무씨 형제는 <우리 부매>라는 말을 듣지 마음이 흔들려 저도
모르게 장검을 부르르 떨었다. 무수문이 사납게 말했다.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냐?]
[부매는 분명히 곽백부.곽백모께서 친히 낳으신 딸이죠? 혼인의

대사는 마땅히 부모의 명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곽백부께서 이미 부매를 내게 배필로 주려고 하신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째서 마음대로 여기서 검으로 싸움을 벌이면서, 아직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처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요? 당신 형제는 나 양과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요?]

이 말은 너무나 날카로와서 무씨 형제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들도 곽정이 줄곧 양과를 불러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다만 황용과 곽부가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갑자기 양과의 입에서 자기들 심중의 말이 나오자 형제는 서로 한번 쳐다볼 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무수문이 기지가 있어서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흥, 아직 출가하지 않은 처라구? 말을 마음대로 하시는군! 그래 이 혼사에 매파라도 있었는가? 누가 양형을 초대한 적이라도 있었는가? 그렇다고 어디 문서에 적어 놓은 것이라도 있어?]

송대에는 예법을 가장 중시하여 부모의 명과 매파의 말이 없으면 혼인의 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무씨 형제는 본디 두 사람이 승패를 결정한 뒤에 패한 사람은 자결을 하고 이긴 사람은 곽부에게 구혼을 하기로 했다. 그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자연히 허락을 할 것이요, 그 뒤에 다시 곽정 부부에게 간절히 청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혀 뜻하지 않았던 양과가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었다. 무수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부께서는 부매를 양형에게 짝하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비추기는 부추셨소. 그러나 사모께서는 두리어 우리 형제 중의 하나와 짝하게 하려는 뜻이 있으시오. 이제 보니 우리 세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여서 어느 누구도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 이후 부매가 종신토록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실로 섣불리 말하기가 매우 어렵소.]

양과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무수문은 양과가 계속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노하여 말했다.

[뭘 그리 웃는 거냐? 내 말이 잘못 되었단 말이냐?]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틀렸지, 틀렸어. 곽백부는 원래부터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셨고 곽백모도 전보다 더 나를 좋아하시는데 당신들 두 형제가 어찌 나와 비교가 될 수 있겠읍니까?]

무수문이 말했다.

[헝, 네가 멋대로 지껄이는 말을 어느 누가 믿는단 말이냐?]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내가 왜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곽백모도 은밀하게 이미 내게 허락하셨다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토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의 장인 장모를 구출하려고 한단 말이오! 이는 모두 나와 곽부의 연분을 생각해서라오. 한번 말해 보라구요, 사모께서 친히 당신들에게 다답하신 적이 있는지를?]

두 형제는 어디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생각해 보니 사모가 아직까지 확실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 비슷한 뜻보차도 비춘 적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이 녀석의 말이 진실이란 말인가? 두 사람은 보디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갑자기 강적이 하나 나타나자 두 형제가 함께 적개심이 일어나 저도 모르게 서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의지하게 되었다. 양과는 일찌기 곽부와 그들 두 형제가 하는 말을 엿들은 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들 두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질투가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웃으며 말했다.

[부매가 일찌기 내게 말한 적이 있지요. 두 분 오빠들이 그녀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녀는 거절할 수가 없으니 단지 둘을 모두 좋아한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이오. 하하, 세상에 어떤 훌륭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좋아한담? 우리 곽부는 단정하고

정숙하니 결코 그럴 리가 없지요. 내가 모두 말해 주지요. 둘을 모두 좋아한 다는 것은 바로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구요.]

양과는 즉시 그날 저녁 곽부의 말투를 흉내내어 어여쁘고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오빠, 오빠는 오빠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할수록 나의 심중에 얼마나 많은 곤란함이 있는 줄을 몰라?......큰오빠, 오빠는 줄곧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거야?]

무씨 형제는 발끈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몇 마디 말은 곽부가 그들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한 말로, 당시에는 전혀 주위에 제삼자가 없었으니 만약 그녀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면 양과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은 마음이 칼로 도려 내는 듯 아파 오며 곽부가 끝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과는 두 사람의 안색을 보고 자기의 계략이 이미 맞아떨어졌음을 알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거듭 말하자면 ,부매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나의 처이니 이후에 나는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어서 백발이 되도록 함께 늙으며 서로가 공경하고 자손이 영원토록......]

여기까지 말하는데 홀연 뒤쪽 깊숙한 곳에서 장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소용녀의 목소리 같았다. 양과는 말을 멈추고 불렀다.

[아가씨!]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양과는 동굴 속에서 이막수가 낸 소리인 줄을 알고 그녀는 결코 무씨 부자와 상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 형제는 멋대로 애정을 품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군요. 우리 장인 장모의 얼굴을 보아서 이 일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겠읍니다. 당신들은 이제 양양으로 돌아가서 우리 장인 장모가 성을 지키는 것을 도우시지요! 그것만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오.]

양과는 하는 말마다 곽정 부부를 <장인.장모>라고 불렀다. 무씨 형제는 풀이 죽어서 손을 뻗어 서로 악수를 했다. 무수문이 참담하게 말했다.

[좋아. 양대형, 곽사매와의 만......, 만수무강을 비오. 우리 형제는 멀리 이 세상 끝으로 갈 것이니 이 세상에 이제 우리 두 형제는 없는 것으로 아오!]

하는 말을 남긴 뒤, 두 사람은 일제히 몸을 돌렸다. 양과는 은근히 기뻤다. 그들 두 사람은 이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한 필시 곽부를 깊이 원망할 것이지만 서로의 우애는 깊어질 것이니 결국을 무삼통의 소원대로 된 것이다. 무삼통은 수풀 뒤에 숨어 있다가 양과가 말 한마디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시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손을 잡고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문아, 유야, 우리 함께 가자.]

두 형제는 부친 부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동시에 외쳤다.

[아버지!]

무삼통은 양과에게 깊이깊이 읍을 하고 말했다.

[양형제, 당신의 은혜와 후의는 이 늙은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오.]

양과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며 무삼통이 이런 말을 어떻게 두 형제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른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무수문이 벌써 의심을 품고 말했다.

[형님, 이놈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돈유는 말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기민함은 결코 아우에게 뒤지지 않아 부친을 한번 쳐다보고 아우에게 고개를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삼통은 일이 다 망쳐지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나는 양형제에게 너희들을 권유하도록 한 적이 없다.]

무씨 형제는 본래 약간 의심한 것에 불과했는데 부친이 얼버무리려는 이 몇 마디 말을 듣고, 양과가 평소에 곽부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것과 그는 소용녀와 정의가 매우 두터운 것을 생각하고는, 양과가 조금 전에 한 말이 대부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느꼈다. 무수문이 말했다.

[형님, 우리가 함께 양양으로 돌아가서 부매(芙妹)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하는 게 어때요?] 무돈유가 말했다.

[좋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무수문이 말했다.

[아버님, 같이 양양에 가시죠. 사부님과 사모님은 아버님과 옛 친분이 있으시니 가서 만나 보시지요.]

[나......, 나는......]

무삼통은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부친의 권위를 내세워 다시 두 아들을 꾸짖자니 그들이 면전에서는 예예, 하고 대답을 해도 돌아서면 다시 너 죽고 나 살자 하며 목숨을 내걸고 다툴까 봐 걱정이 되었다. 양과는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무형, <부매(芙妹)>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죠? 지금 이후로 이 두 글자는 입에 올리지도 말 뿐더러 마음속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수문은 노하여 말했다.

[아아, 천하에 이토록 멋대로 구는 자가 있다니? <부매>라는 두 글자는 내가 이미 부아를 7,8 년 동안 부른 호칭이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부를 것이다. 부매, 부매, 나의 부매......]

돌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무수문은 왼쪽 뺨을 양과에게 호되게 얻어맞았다. 무수문은 두 걸음 뒤로 뛰어 장검을 비껴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양가놈아! 우린 오랫동안 대결을 하지 않았었지?]

무삼통이 말했다.

[문아, 그게 무슨 소란이냐?]

양과가 고개를 돌리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무노백,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돕는 겁니까?]

보통 이치를 따지자면 무삼통을 자연히 아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무삼통은 양과가 이번에 나선 것이 분명히 그들 형제가 서로 죽이고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양과가 말했다.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은 편안하게 여기에 앉아 계십시요. 저는 그들의 목숨을 해치지도 않을 테고 그들도 저를 다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그저 앉아서 보고만 계십시오.]

그는 양과의 나이가 자기보다도 훨씬 적었지만 이 말을 하자 저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서 부근의 바위 위에 앉았다.

양과는 군자검을 빼어 들고 차가운 빛을 휘날리며 차악,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좌장을 날리자 소나무의 위쪽이 잘려 나갔다. 잘린 부분은 평평하고 매끄러웠다. 무씨 형제는 그의 보검이 이토록 예리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서로 돌아보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양과는 검을 도로 칼집에 꽂고 웃으며 말했다.

[이 검을 어떻게 두 분께 사용하겠읍니까?]

양과는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곁가지와 잎을 떼어 내어 석 자 길이 정도의 목봉을 만들었다.

[내가 장모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말해도 당신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소. 이렇게 하죠. 나는 이 목봉을

사용하고 당신 둘은 검을 사용하여 함께 공격해요. 당신들 주사숙이 전수한 일양지를 사용해도 좋소. 나는 오직 장모님께서 전수하신 무공만을 사용하죠. 내가 만약 잘못하여 다른 분파의 무공을 일초라도 사용하면 내가 진 것으로 하겠소.]

선(善)한 일에 선한 결과

두 형제는 본래 그의 무공을 두려워했다. 당일 그가 두 번이나 금륜법왕과 악전고투하는 것을 보니 초수가 괴이하여 제대로 알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말끝마다 <장인.장모>라고 하며 마치 곽부가 이미 정말로 그에게 시집을 간 것처럼 이야기하니 어찌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는 오만하게도 혼자서 둘을 대적하며 목봉으로 검을 대적한다고 하고 있으며, 게다가 황용이 전수한 무예만을 사용한다고 했다. 두 형제는 자기들이 이미 세 가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면서도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 면목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무돈유는 이렇게 해서는 이겨도 떳떳하지 못한 일이어서 고개를 흔들며 막 말을 하려고 했다. 그때 무수문이 이미 나서서 말했다.

[좋다, 네가 이토록 자고자대(自高自大)하니 우리 형제도 네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만약 네가 잘못하여 전진파나 고묘파의 무공을 일초라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이자의 무공이 비록 강하지만 그것들은 전진파와 고묘파에서 배운 상승의 무공에 불과하며, 도화도에 있을 때에는 우리 형제에게 맞아서 도망친 처지이니 싸워서 굳이 이기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함으로써 그에게 단단히 약속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양과가 말했다.

[우리가 이 순간 무예를 겨루는 것은 지나간 옛 원한 때문도 아니요, 오늘의 새로운 원한 때문도 아니며, 오직 부매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요. 만약 내가 진다면 그녀를 쳐다보거나 그녀와 한 마디만 나눈다 해도 나는 개돼지만도 못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진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오?]

일이 이쯤 되었으니 무수문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형제가 져도 역시 영원히 다시는 부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양과는 무돈유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돈유는 노하여 말했다.

[우리 형제는 한마음 한뜻인데 어찌 다른 말을 하겠는가?]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들이 오늘 지고도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개돼지만도 못한 염치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소?]
[그렇다. 너도 마찬가지다. 자, 덤벼라!]

하고 말하며 무수문이 장검을 들어 양과의 다리를 찔렀다. 무돈유도 동시에 검을 내어 양과의 좌측을 막아서 일초만에 좌우협공의 형

세가 되었다.

양과는 앞으로 펄쩍 뛰며 외쳤다.

[형제가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도 자른다고 하더니, 당신들 형제가 연합하여 공격하니 과연 무시무시하군요.]

무돈유가 다시 검을 위로 들자 양과는 목봉을 들고 동으로 서로 피하기만 할 뿐 반격을 하지 않았다.

[<처자는 의복과 같으며(妻子如衣服),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兄弟如手足),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기울 수 있지만(衣服破尙可縫), 수족은 잘리면 다시 이을 수가 없네(手足斷不可縫)!>......이 시를 들어 본적이 있소?]

무수문이 호통을 쳤다.

[뭘 그렇게 지껄이는 거냐?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전수해 주신 무공을 어째서 펼치지 않는 거냐?]

무돈유는 한마디 반응도 없이 오직 검에 힘을 다할 뿐이었다. 양과가 말했다.

[좋아요, 조심하시오. 우리 장모께서 친히 전수하신 정묘한 무공이 이제 바로 나갈 테니!]

하고 말하며 목봉을 위로 올렸다 아래로 휘감으며 타구봉법 중에서 <반(絆)자의 구결을 사용하고 왼손의 손가락을 뻗어서 무돈유의 혈도를 허초로 찔렀다. 무돈유가 재빨리 뒤로 피하는데 무수문이 <아

얏!>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미 목봉의 <반>자 구결에 당한 것이었다.
무돈유는 동생이 당한 것을 보고 장검을 급히 찌르며 양과를 공격했다. 양과가 말했다.

[좋습니다. 형제는 수족과 같으니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견뎌야지요.]

양과는 목봉을 휘둘러 순식간에 이미 그의 뒤로 돌아가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옆구리를 쳤다. 그의 이 목봉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공격하는 곳을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타구봉법의 무쌍한 변화여서 귀신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돈유는 이 공격이 비록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히 1초를 진 것이어서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다. 무수문이 몸을 솟구치며 말했다.

[이것은 타구봉법이지만 이걸 언제 사모님께서 은밀히 전해 주셨겠느냐? 분명히 사모님께서 노장로에게 전수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었는데 몇 초를 훔쳐 배운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이냐?]

양과는 목봉을 뻗어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를 휘감았다. 이번에는 그를 앞으로 곧장 고꾸라지도록 했다. 무돈유가 장검을 가로세워 동생을 보호했다.
양과는 무수문이 몸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다가 웃으며 말했다.

[자, 함께 보지 않았소? 어째서 나는 할 줄 아는데 당신은 못 하는거요? 나의 장모께서 노장로에게 말해 준 것은 단지 구결뿐이었고 초수는 내게 비밀리에 전수해 주었다오. 우리 부매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할 줄 안단 말이오? 하하하!]

무수문은 그가 일찌기 우연한 만남으로 홍칠공이 구양봉과 겨룰때에 초수를 그에게 말해 준 것을 알 리가 없었지 때문에 그의 이 말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는 구결만을 한 번 듣고 봉을 사용할 줄 알고 자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는가? 그래도 그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각자 품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봉법은 개방의 방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구결을 들었지만 사모님의 명도 없이 어떻게 훔쳐 배울 수가 있었겠느냐? 오직 비천한 소인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게지. 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고 있군.]

양과는 크게 웃으며 목봉을 휘둘러 팍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등을 한 번씩 때렸다. 무씨 형제는 서둘러 뒤로 내달으며 얼굴이 온통 붉게 상기되었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이미 증거가 없으니 내가 비록 타구봉법을 사용하여 이겨도 당신들은 여전히 굴복하려고 들지 않을 거요. 좋소, 내가 우리 장모께서 비밀리에 전수해 주신 또 다른 무공을 사용하여 당신들에게 똑똑히 한 수 가르치겠소.]

그는 형을 바라보고 다시 동생을 바라보고 말했다.

[우리 장모의 무공은 누가 전수해 준 것이죠?]

무수문이 노하여 말했다.

[또다시 뻔뻔스럽게 장모니 뭐니 하고 지껄인다면 우리는 너와 말을 하지 않겠다.]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시오? 좋소, 그럼 다시 묻겠는데 당신의 사모께서 홍노방주를 사부로 모시기 전에 누구한테서 무공을 전수받았죠?]

무수문이 말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바로 도화도 황도주의 딸이니 황도주가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

[맞소. 당신들은 도화도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 황도주의 절기가 무슨 무공인지 알고 있겠죠?]

[황도주는 박대정심(博大精深)하고 문무의 재략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특별한 절기가 있다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빼어나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오만, 검으로 따지자면 황도주가 사용하는 것은 무슨 검법 [그런 것을 왜 묻고 자

빠졌냐? 황도주의 옥소검법(玉簫劍法)은 무림의 독보적인 것으로 그 명성이 천하에 떨치고 있으니, 강호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당신들은 황도주를 만난 적이 있소?]

[황도주는 구름처럼 천하를 주유하며 신룡(神龍)이 꼬리를 드러내지 않듯 하시니, 사부나 사모께서도 그분을 찾지 못하시거늘 우리 같은 작은 무리들이 무슨 인연으로 그분을 뵐 수 있었단 말이냐?]

[그럼 그분의 옥소검법을 당신들은 본 적이 있소?]

무수문이 냉소하며 말했다.

[어느 해인가 황도주의 생일에 사모께서 연회를 베풀어 축하를 드렸는 연회가 끝난 뒤에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두 형제와 부매는 직접 보았지. 그때 너는 이미 전진교에 다른 사부를 모시러 간 뒤지.]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나중에 나의 장모......그래, 나중에 당신의 사모께서 비밀리에 옥소검법을 내게 전수해 주셨소.]

무씨 형제는 서로 한번 쳐다보고 모두 양과의 말을 믿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당년에 양과가 황용을 사부로 모시긴 했지만 사모께서는 단지 그에게 책 읽는 것만을 가르쳤을 뿐 무공을 결코 전수해 주지 않았었다. 그로 인하여 도화도에서 서로 싸울 때도 그는 자기 형제의 적수가 되지 못했었다. 마지막에 무수문을 때려서 부상을 입혔는데 가(柯)할아버지께서 그것은 바로 서독 구양봉의 합마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옥소검법은 복잡하고 오묘하여 곽부는 비록 사모의 외동딸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전수를 받지 못했다. 양과가 종남산에서 돌아온 뒤에 매번 사모와 만날 때마다 홀연 몇 번 얼굴을 대하고 헤어졌으니 사모께서 그에게 검법을 전수해 주실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여가가 없었을 것이었다.
양과는 목봉을 가벼이 흔들며 외쳤다.

[보시오, 이것은 소사승룡(蕭史乘龍)이오!]

봉을 검으로 삼아 재빨리 뻗자 팍,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무돈유의 오른쪽 가슴에 이미 격출되었다. 목봉이 만약 날카로운 검이었다면 이 일격에 그는 이미 목숨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무수문이 재빨리 알아차리고 장검을 질풍같이 내어 양과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공격했지만 한발 늦고야 말았다. 양과가 목봉을 되돌려 홀연 그의 오른쪽 판을 찌른 것이다. 이 일초는 무수문보다 늦게 뻗었지만 먼저 이르러서 무수문의 검이 상대방의 몸에 닿기도 전에 팔뚝이 먼저 봉끝에 찔려 검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는 서둘러 검을 거두며 초술을 바꾸고 팔을 구부려 검을 돌리면서 왼발로 걷어찼다. 그때 양과의 목봉은 이미 무돈유의 어깨를 찌르고 있어서 몸이 목봉을 따라 움직이게 되지 무수문의 이 공격은 일부러 피하지 않아도 피하게 되었다. 무수문이 허공을 차고 무돈유는 정세가 긴박하여 재빨리 장검을 휘둘러 자세를 지키며 목봉이 몸을 찌르지 못하도록 했다.

수초 사이에 무씨 형제는 이미 손과 발은 허둥지둥 움직이며 죽을 힘을 다해 방어하는 데에도 정신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 검을 휘둘러 그의 목봉을 자를 겨를이 있겠는가?

[산외청음(山外淸音), 금성옥진(金聲玉振), 봉곡장명(鳳曲長鳴),
향격루대(響隔樓대), 도가중류(棹歌中流)......!]

양과는 입으로 초수를 외치며 목봉을 찔러 물결처럼 계속해서 공세를 취했다. 제 1초를 두 형제가 풀기도 전에 제 2초 제 3초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는 동쪽으로 한번 찌르고 서쪽으로 일초를 날리며, 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항하게 만들어 반 걸음도 서로 떨어지지 못하게 했다. 무씨 형제가 당시 황용이 이 검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런 준아(俊雅)하고 화려한 초수는 단지 검무를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처럼 묘한 초수가 끝없이 계속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가 외치는 초수를 들으니
당일 황용이 분명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검이 제약을 당하지 극도로 궁지에 몰려 심중은 더욱 어쩔 줄을 몰랐고, 양

과의 이 옥소검법은 분명히 왕용이 친히 전해 준 것이라고 깊이 믿게 되었다. 양과가 황약사와 일찌기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가 직접 옥소검법과 탄지신통의 두 절기를 가르쳐 주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양과는 두 사람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다소 일었지만 이 일을 끝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만약 두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두 형제가 이후에 다시 그녀 때문에 악전고투를 벌여 둘 중의 하나가 죽고 나서야 그만 둘 것이었다. 약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미 칼로 병을 고치기로 했으면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양과는 즉시 검법을 재촉하여 단 일초도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싸우면 싸울수록 놀랐다. 봉영(棒影)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기들 온몸의 요해처가 모두 그의 봉끝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직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며 전력을 다해 방어하는 수밖에 없었다.

두 형제가 배운 월녀검도 본래는 일문의 극히 무시무시한 검법이었다. 다만 두 사람이 아직 깊은 수련에 이르지 못했고 곽정도 또한 말주변이 보잘것없어서 검법 중의 오묘한 곳을 제대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하여 그들 형제는 만약 일반적인 강호의 호수(好手)들과 기량을 겨룬다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양과의 목봉 아래에서는 허점이 수없이 드러나 도저히 당해 내지를 못한 것이다. 양과의 옥소검법도 본래는 제대로 다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무공이 두 사람에 비하여 훨씬 높고 두 형제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데다가 화까지 나서 모든 동작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양과는 살수를 펴지 않고 내력을 천천히 봉으로 전했다. 무씨 형제는 한참을 싸우지 상대방의 손에 있는 이 나뭇가지에 한 줄기 강한 흡인력이 있어서 2 개의 검을 비스듬히 끌어당기고 있음을 느꼈다

. 분명히 상대방을 향하여 검을 찔렀는데 검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 왼쪽이 아니면 너무 오른쪽이었다. 목봉이 당기는 힘은 갈수록 강해져서 나중에는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꼴이 되었다. 무돈유가 양과를 향하여 찌른 일초는 왕왕 동생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무수문이 양과를 향하여 검을 내리치는 것도 형이 힘을 다하여서야 비로소 풀 수 있게 만들고는 했다.

양과는 길게 한번 웃음을 날리고는 말했다.

[옥소검법의 정묘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니 조심하시길......]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목봉과 형의 장검이 교차했다. 그러나 부딪친 곳은 검의 옆부분이어서 목봉을 털끝만큼도 손상이 가지 않았다. 무돈유는 순간 한 줄기 거센 접착력으로 장검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급히 서둘러 힘을 써서 되돌리려고 했다. 양과의 목봉이 이 기세로 무수문의 장검까지 달라붙게 하여 이어서 아래로 내리누르자 2개의 검끝이 일제히 땅으로 향했다. 무씨 형제가 힘을 펼쳐 검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약간 풀리면서 양과가 왼쪽발로 성큼 다가서서 두 자루의 장검을 밟았다. 양과는 봉끝으로 무씨 형제의 목을 각각 가볍게 누르며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항복하겠소?]

이 목봉이 만약 날카로운 칼이었다면 두 사람의 목은 이미 잘려 나갔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목봉이라고 해도 그가 손에 경력을 조금만 세게 주면 두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무씨 형제는 사색이 되어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왼발을 들고 뒤로 세 걸음을 뛰었다. 두 형제의 낭패스런 표정을 보자 어렸을 때 그들에게 얻어맞고 굴욕을 당한 생각이 났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되자 얼굴에 저도 모르게 득의양양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씨 형제는 이 순간 털끝만큼도 의심 없이 양과가 과연 황용에게 절기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곽부를 몹시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난다면 영원토록 다시는 그녀와 만날 수 없을 것이니 그것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방금 결부를 할 때에는 줄곧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받아서 손과 발을 놀려 막아내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부가 전수해 준 무예는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했고, 새로 연마한 일양지도 전혀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무수문이 돌연 외쳤다.

[형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산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차라리 목숨을 걸고 다투지요!]

두 사람은 검을 치켜들고 다시 공격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요해처는 방어하지 않고 일초 일초마다 모두 공세였다.

이렇게 일단 초수가 변하지 과연 위력이 대단했다. 두 사람은 오직 공격만 할 뿐 수비를 하지 않아 양과의 목봉에 목숨을 잃는 것도 무릅쓰고 그와 함께 차라리 죽으리라고 덤벼들었다. 양과의 목봉이 두 사람의 요해처를 향해도 두 사람은 전연 상관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검을 사용하고 왼손으로 일양지의 수법을 펼쳐서 각자 평생의 절학으로 적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좋지요. 이렇게 서로 싸워야 재미가 있지요!]

양과는 목봉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두 사람의 검 사이로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다. 무 씨 형제는 갈수록 사납게 공격을 했지만 시종 그를 찌르지 못했다.

무삼통은 옆에서 세 사람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때는 양과

가 승리를 거두어 곽부에 대한 두 아들의 마음이 식기를 바랐다. 그러나 두 아들이 연

는 것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들 두 사람이 양과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심정이 일어나 두 가지 심정이 뒤엉켜 계속 가슴이 쿵쿵 뛰었다.

갑자기 양과가 한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을 펴 각각 두 사람의 검을 튕기자 쨍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자루의 장검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양과는 몸을 솟구쳐 두 검을 각기 손에 쥐고 웃으며 말했다.

[이 탄지신통의 무공도 우리 장모님께서 전수해 주신 거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자 무씨 형제는 더 이상 싸워 보았자 헛되이 치욕만 당하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양과는 두 자루의 검을 되돌려 가벼이 던져 준 뒤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많은 죄를 지었읍니다.]

무수문은 장검을 받아 들고 참담하게 말했다.

[그래, 나는 영원히 다시는 부매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마치고는 장검을 가로 세워 목을 베려고 했다. 무돈유도 동생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어서 동시에 검을 비껴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 양과는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날려 다시 손가락을 펴 두 자루의 검을 튕겼다. 두 자루의 장검이 밖으로 날아 칼날이 서로

부딪치자 땡강,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검이 동시에 부러져 나갔다.

바로 이때 무삼통도 급히 앞으로 뛰어와서 단숨에 두 사람의 목덜미를 나꿔채며 사납게 호통쳤다.

[너희 두 사람이 한 여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하니 그러고도 진정 사내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

무수문은 고개를 들고 참담하게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한 여자 때문에......상심하시지 않았읍니까? 저는......]

아직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별빛 아래 부친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심중이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했다. 서로 싸운 것이 노부의 심정을 너무나 상하게 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무수문은 우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삼통은 손을 풀고 그를 품속으로 끌어들이며 왼손으로는 무돈유를 안아서 부자간이 같이들 얽혔다. 무돈유는 자기는 곽부를 일편단심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그녀가 몰래 양과와 좋게 지냈고, 사모까지도 자기 형제를 속이고 평생의 절기를 그녀가 심중으로 지목한 사윗감에게 전해 주었다고 생각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오직 부자.형제의 정만이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또한 부친의 품속에 파고들며 울기 시작했다.

양과는 천성이 아무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성격이었다. 이번의 일이 비록 의도는 선한 것에 있었지만 도리어 무씨 형제를 천태만상으로 희롱한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보자, 몹시 득의양양하여 비록 자신의 수명이 길지 못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는 해 놓았다고 생각했다. 무삼

통이 말했다.

[못난 녀석들 같으니...... 대장부가 처가 없는 것을 뭘 그리 근심하느냐? 곽가라는 그 여자가 너희들에게 이미 진심이 없는데 뭘 그렇게 그녀에게 신경을 쓰느냐? 우리 부자가 당장 해야 할 큰 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무수문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머님의 크나큰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무삼통이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부자는 하늘 끝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그 적련마두 이막수를 찾아내야 한다.]

양과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빨리 이 세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가야겠다. 이 말을 이사백이 들으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다.)
그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중인데 동굴 속에서 이막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늘 끝 바다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막수께서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

하고 말하며 이막수가 동굴에서 나왔다. 그녀는 왼손에는 어린아기를 안고 오른손에는 불진(拂塵)을 쥐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쳐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씨 부자는 이 마두가 이 순간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도 못했었다. 무삼통이 한마디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 무돈유와 무수문은 장검이 이미 부려져서 각기 반 동강이 난 검을 들고 앞으로 나서서 좌우 협격(挾擊)을 했다. 양과가 소리쳤다.

[네 분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한마디만 들어 보시오.]

무삼통은 눈동자가 벌겋게 충혈되어 외쳤다.

[양형제, 우선 이 마두부터 죽이고 다시 이야기하지.]

하고 말하면서 좌장과 오른손 손가락으로 세 번이나 살수를 날렸다. 무씨 형제는 비록 검을 부러졌지만 접근하여 공격을 하니, 반 동강이 난 검이 마치 비수와 마찬가지여서 그 위력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양과는 그들에게 철천지 원한이 있어서 결코 자기의 한마디 말에 그들이 손을 멈추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직 잘못하여 아기를 다칠까 봐 두려워 외쳤다.

[이사백, 아기는 제가 안겠읍니다.]

무삼통을 깜짝 놀라 두 걸음 물러서서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그녀를 사백이라고 부르느냐?]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얘, 사질! 너는 이 미치광이의 후로를 공격해라. 아기는 내가 안고 있겠다.]

그녀는 무삼통의 3초를 받고 그의 공력이 크게 진보되어 당년에 가흥부에서 겨룰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무씨

형제도 보통이 아니어서 세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대드니 자못 쉽게 대적할 수 없음을 느끼고, 일부러 양과는 <사질>이라고 친근하게 불러 세 사람의 마음을 교란시키려 한 것이었다. 무삼통을 과연 그녀의 계략에 빠져 외쳤다.

[유야, 문아! 너희들은 저 양가를 막아라. 나 혼자서 이 마두와 겨루겠다.]

양과는 손을 늘어뜨리고 물러서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돕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절대로 아기를 해쳐서는 않 돼요.]

무삼통은 그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어 장력을 재촉하여 움직이며 착착 앞으로 몰아붙였다. 이막수는 불진을 춤추듯 휘둘러 방어하며 말했다.

[두 분 소무공자(小武公子)는 방금 하는 일을 보니 역시 정이 많은 종자들 같구나. 저 정도 없고 사악한 남자와는 다른 것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니 어서 빨리 돌아가거라!]

무수문이 노하여 말했다.

[못된 년 같으니! 너처럼 사악하고 악독한 계집이 뭘 가지고 정이 많으니 적으니 떠든단 말이냐?]

하고 나서 곧장 몸을 솟구쳐 사나운 초수를 연발했다. 이막수가 노

하여 말했다.

　[건방진 어린 자식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모르는구나!]

그녀는 불진을 움직여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며 공격했다. 무씨 형제의 부러진 검과 그녀의 불진이 한차례 부딪치자 극심하게 가슴이 떨리는 듯하더니 부러진 검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무삼통이 고함을 치며 일장을 펴냈지만 이막수는 불진을 돌려 방어했다. 이렇게 하여 무씨 형제의 포위가 풀렸다.
　양과는 천천히 이막수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초수 중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즉시 달려들어 그녀의 품속에 있는 아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무씨 부자가 너무 요란하게 소리를 치며 싸움을 벌여 이막수가 불진으로 전신을 보호하게 만들어 털끝만큼의 허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무씨 부자를 보니 공격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 초수 중에서 조금도 아기를 피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곽정 부부를 대할 것인가?
　그는 큰소리로 외쳤다.

　[이사백, 아기를 내게 주시오!]

하며 양과는 앞으로 달려들어 장풍을 휘둘러 불진을 몰아내면서 아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때 이막수는 네 사람의 사이에 끼어 있어, 전후좌우가 모두 적이어서 그와 아기를 놓고 다툴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이 순간 그에게 아기를 빼앗긴다면 그리 좋은 일이 아닐 성싶어서 사납게 외쳤다.

　[네가 감히 아기를 채가려 하느냐? 내가 팔에 한번 힘만 주면 아

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양과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감히 더 이상 대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여 이막수가 정신이 약간 산만해지자 무삼통이 좌장을 사납게 치면서 손바닥 안으로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오른손 식지로 그녀의 허리를 찔렀다. 이막수는 즉시 반신이 마비되어 한번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더니, 이 기세를 타고 발을 날려 무돈유의 수중에 있는 부러진 검을 차 버리고 불진을 사납게 휘둘러 무수문에게 내리쳤다. 무삼통은 급히 무수문의 등을 나꿔채어 뒤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이 추혼탈명(追魂奪命)의 초수를 피했다. 이막수는 상처가 가볍지 않아 계속하여 불진을 휘두르며 길을 열어 굴 안으로 들어갔다.

무삼통은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못된 년이 나의 손가락에 일격을 당했으니 오늘은 목숨을 보전하기가 힘들 것이다.]

무씨 형제가 부러진 검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삼통이 말했다.

[잠깐, 적의 독침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지키면서 차선책을 생각해 보자.]

말도 채 끝나기 전에 홀연 동굴 속에서 일성 커다란 포효소리가 들리더니 표범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자 무삼통 부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놀라는 순가 은빛이 번쩍이더니 표범의 배 부분에서 몇 개의 은침이 발사되었다. 이것은 더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무삼통의 무공

은 매우 깊어서 변고에 재빠르게 응하여 몸을 솟구쳐 은침을 발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무씨 형제는 나란히 <아양!> 소리를 질러 무삼통은 깜짝 놀랐다. 그때 이막수는 표범의 배에서 몸을 돌려 표범의 등에 올라탔다. 불진은 목 뒤의 옷 속에 꽂고, 왼손에는 아기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표범의 목을 잡고 그녀는 한바탕 웃고 있었다. 표범은 아래로 급히 뛰어내려 이미 산골짜기로 뛰어 들어갔다.

이것은 양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표범이 멀리 뛰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쫓아가며 외쳤다.

[이사백......!]

무삼통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땅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하여 손을 뻗어 양과를 껴안고는 말했다.

[오늘은 너와 사생결단을 내야겠다.]

양과는 전혀 방비가 없다가 그에게 잡히자 급히 말했다.

[어서 손을 놓으십시오! 나는 아기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무삼통이 말했다.

[그래, 그래, 그래. 우리 함께 여기서 깨끗이 죽어 버리자구.]

양과는 급히 소금나수로 그의 손가락을 풀려고 했다. 무삼통은 황급한 나머지 다시 실성기가 재발하였지만 무공은 조금도 줄지 않아 왼손으로는 그의 허리를 꽉 움켜쥐고, 오른손은 갈고리처럼 구

소금나수로 맞섰다.

양과는 이막수가 표범을 타고 사라져 이미 종적도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쫓아 갈 수도 없게 되자 탄식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잡아서 어쩌겠다는 거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더 급하다구요.]

무삼통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 이 독침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과 함께 그의 허리를 풀어 주었다.

양과가 엎드려 무씨 형제를 살펴보았더니, 2 개의 은침이 하나는 무돈유의 왼쪽 어깨에 맞고 하나는 무수문의 오른쪽 다리에 맞아 잠깐 사이에 독성이 퍼져서 두 사람은 이미 호흡이 낮게 가라앉고 혼미상태에 빠져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양과는 무돈유의 옷을 한 조각 찢어서 손수건처럼 만들어 침의 끝은 감싸서 2 개의 은침을 각각 뽑아 냈다. 무삼통은 마음이 급하여 물었다.

[해약을 갖고 있느냐? 네게 해약이 있냔 말이다!]

양과는 무씨 형제가 심하게 중독이 되어 해약을 구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무삼통은 부자의 정이 너무나 깊어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다. 돌연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독을 빨아 내고 죽은 일이 생각나자 그는 무수문의 몸에 달려들어 입술을 내밀고 그의 다리의 상처를 빨려고 했다. 양과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안 돼요!]

곧장 손가락을 뻗어 그의 등에 있는 대추혈(大椎穴)을 눌렀다. 무삼통은 전혀 방비가 없었던 터라 즉시 나자빠져 꼼짝도 못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양과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닷새가 지나면 내 몸의 극심한 정화지독이 다시 발작할 것이니 이 세상에서 닷새를 더 사나 덜 사나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무씨 형제는 인품은 평범하지만 이분 무노백께서는 성정이 지극히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셨으니.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닷새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 부자가 다시 화목하게 뭉쳐 살게 하자. 그래서 노인의 마음이나 편하게 해 드리자.)

그리하여 양과는 입술을 내밀어 무수문의 다리에 있는 독질(毒質)을 빨라 내어 독수를 몇 입 토해 낸 뒤 다시 무돈유의 독을 빨아 주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무삼통은 크게 감격했지만 혈도가 눌리어 그와 함께 독액을 빨아 줄 방법이 없었다. 양과는 무씨 형제의 상처를 한참 빨아 내자 입맛이 쓴 맛에서 점차 짠 맛으로 변하더니 머리가 갈수록 어지러워졌다. 그는 자기가 아미 극심하게 중독되었음을 알고 내친 김해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몇 모음을 빨아 독즙을 토해 냈다. 눈앞이 갑자기 새까맣게 변하며, 그는 곧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이후로 양과는 오랜 시간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보냈다. 눈앞에 어지러이 수많은 사람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 분명하게 보려고 하자, 보면 볼수록 더욱 희미해졌다. 그제서야 눈을 뜨니 무삼통이 희색이 만면한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깨어났구나, 깨어났어!]

그는 돌연 땅에 무릎을 꿇고 10여 차례나 머리를 땅에 부딪치며 말했다.

[양형제, 다......., 당신은 나......, 나의 두 아들을 구해 주고 이 늙은이의 목숨까지 구해주었소.]

하며 몸을 일으켜 다시 어떤 사람 앞으로 가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숙! 정말 고맙습니다, 사숙!]

양과가 그 사람을 바라보니, 얼굴이 칠흑같이 검은데다가 코는 높이 솟았고 눈은 깊이 패인 게, 언뜻 니마성과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머리카락은 짧고 구불구불하며 눈처럼 흰색이어서 나이는 많이 들어 보였다. 양과는 무삼통이 오직 일등대사의 제자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가 일찌기 천축국 사람인 사숙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일어나 앉으려고 했으나 전혀 임을 쓸 수 없어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니, 자기는 침상 위에 누워 있었고, 그곳은 바로 양양에서 자기가 묵던 바로 그 방안이었다. 그제서야 양과는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소용녀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렀다.

[아가씨, 아가씨!]

한 사람이 침상 곁으로 걸어와 손을 뻗어 가벼이 그의 이마를 쓰

다듬으며 말했다.

[과아야, 편히 쉬거라. 아가씨는 일이 있어서 성 밖으로 나갔다.]
그는 바로 곽정이었다. 양과는 그의 상처가 이미 좋아진 것을 보고 크게 안심이 되었지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곽백부가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키려면 칠일 낮 칠일 밤의 공을 들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기절한 채 그렇게 많은 날을 보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몸의 정화의 독은 왜 다시 발작하지 않은 것일까?)
깜짝 놀란 나머지 양과는 머리가 어지러워져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침상 앞에서는 붉은 촛불이 켜 있었다. 무삼통은 여전히 침상 머리맡에 앉아서 눈동자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양과는 담담하게 한번 웃고는 말했다.

[무노백, 나는 괜찮으니 신경쓰실 것 없어요. 두 분 무형제께서는 모두 괜찮으세요?]

무삼통은 뜨거운 눈물이 눈에 가득한 채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평생토록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감동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양양으로 돌아왔습니까?]

무삼통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말했다.

[우리 주사제가 당신의 사부 용아가씨의 부탁을 받고 피땀을 흘리는 한혈보마(汗血寶馬)를 당신에게 주려고 황곡으로 가다가 우리 네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성으로 데리고 돌아온 것이라오.]

양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말했다.

[우리 사부가 어떻게 내가 황곡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녀는 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주사숙에게 부탁을 했는지요?]

무삼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성으로 돌아온 뒤에도 역시 용아가씨를 만나지 못했읍니다. 주사제께서도 그녀가 나이도 어린데 무공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면서, 내가 이번에 알현하지 못함이 애석하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아, 소년 영웅들이 이토록 훌륭하기 그지없으니...... 나와 주사제는 나이를 헛먹었다는 말도 서로 나누었지요.]

양과는 그가 소용녀를 지나칠 정도로 칭찬하고, 말투도 진심임을 보고 몹시 기뻤다. 나이를 가지고 따지자면 무삼통은 소용녀의 아버지뻘이 되고도 남을 텐데 그의 말 중에 <알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그 제자로 인하여 그 사부를 존경하는 것이었다. 양과는 빙그레 웃고는 다시 말했다.

[소질의 상처는......]

이 말만 했을 뿐인데 무삼통이 나서서 말했다.

[양형제, 무림 중에 어떤 사람이 위험과 곤란을 만나면 서로 도와 주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당신은 자신을 버리고 남을 구했소. 구한 사람들도 이전에 당신에게 크나큰 죄를 지은 나의 두 아들을 구해 주셨으니, 이런 대인대의(大仁大義)의 일은 저희 사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읍니다......]

양과는 계속 고개를 흔들며 그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도록 했다. 무삼통은 그의 제지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만약 제가 은공(恩公)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다시 한번 저를 노백(老伯)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저 무삼통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양과는 성격이 호방해서 줄곧 자잘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는 심중으로 이미 소용녀를 처로 생각하여 예속(禮俗)을 지키지 않았는데, 호칭 같은 일에 있어서야 즐거이 따르지 않을 것도 없어서 흔쾌하게 말했다.

[좋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무대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하지만 그러면 두 분 아드님을 부르기가 좀 불편한데......]

[호칭이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그들의 조그만 목숨은 당신이 구해 준 것인데 당신이 소나 말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일이지요.]

[무대형, 그렇게 지나치게 감사할 것 없읍니다. 나는 정화의 극심한 독에 중독되어 오래 살 수가 없는 몸이어서 두 분 아드님을 위하여 독을 빨아 주었을 따름입니다. 조금도 괘념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삼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양형제, 그건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신상의 독이 정말로 치료하기 어렵고 분명히 구제할 만한 약이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범인(凡人)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더 살게 되기를 원해 아무리 잠깐의 목숨이라도 결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결코 장생불사하는 사람이 없고 무공이 하늘에 통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죽기 마련이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나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양과는 웃으며 물었다.

[저희가 양양에 돌아온 지 며칠이나 지났읍니다?]
[오늘까지 벌써 일곱 날째입니다.]

양과는 얼굴에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치대로 따지자면 나는 벌써 독이 발작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세상에 살아 있죠?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무삼통이 기뻐하며 말했다.

[저의 사숙은 천축국의 신승(神僧)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독을 제거하는 데에는 가히 천하 제일이라고 말 만하지요. 지난번에 저의 사부께서 곽부인이 보내신 독약을 잘못 먹었을 때도 바로 그 분이 치료해 주셨읍니다. 제가 가서 그분을 모셔 오지요.]

하고 말한 뒤, 무삼통은 총총 방을 나갔다. 양과는 기뻤다.
(내가 혼절해 있을 때 그 천축의 신승께서 내게 무슨 영단 묘약을

복용시켜 마침내 정화의 극심한 독이 제거되었는지도 모르지. 아, 아가씨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녀가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철렁하며 돌연 커다란 쇠몽둥이에 한 대 거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물려왔다. 양과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구천척이 준 반 조각의 단약을 먹은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당해 내기 힘든 큰 고통은 처음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반 조각 단약의 약 기운이 다 떨어지고 몸의 독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 같아 즉시 가슴을 단단히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순식간에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양과가 고통으로 한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홀연 문 밖에서 누군가가 염불하는 소리고 들렸다.

[나무아미타불!]

한 천축승이 두 손을 합장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무삼통이 뒤를 따라 들어오다가 양과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양형제, 어떻게 된 거요?]

고개를 들어 천축승에게 말했다.

[사숙님, 그분의 독이 발작했읍니다. 어서 해약을 복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축승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가가서 양과의 맥을 짚었다. 무삼통이 말했다.

[그렇다!]

그리고는 서둘러 사제 주자류를 데리러 갔다. 주자류가 범문대전(梵文內典)에 정통하여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천축승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주자류가 와서 통역을 해 주었다.

양과가 잠시 정신을 집중하자 통증이 가라앉아, 중독된 이유를 천축승에게 들려주었다. 천축승은 정화가 생긴 모양을 자세히 물어보더니 대단히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이 정화는 상고시대의 괴이한 식물로, 일찌기 멸종되었읍니다.
불전에도 이런 말이 있읍니다. 당시 정화가 무수한 사람을 헤쳐서 문수사리보살께서 대지혜(大智慧)의 힘으로 조화를 부리셔서, 세상에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찌 중토에 아직도 이 식물이 남아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읍니까? 노승은 이제껏 이 꽃을 본 적이 없으니 실로 그 독성을 어떻게 풀어 기색이 감돌았다. 무삼통은 주자류가 천축승의 말을 통역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서 계속 외쳤다.

[사숙,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사숙!]

천축승은 두 손을 합장하고 말했다.

[아미타불!]

그는 눈을 감고 눈썹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여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방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감돌아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자 천축승이 눈을 뜨고 말했다.

[양거사가 저의 두 사질손(師姪孫)을 위하여 독을 빨아 주었는데

빙백은침에 묻은 독의 독성에 의하면 몇 모금만 빨아도 당장 목숨이 끊어져야 하는데 양거사는 지금에 이르끼까지도 건재하고, 정화의 독도 기간이 되어 발작은 일으켰지만 역시 아직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혹시 독이 독을 공격하여 두가지 극심한 독이 상극(相剋)이 되어 양거사가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닐는지요?]

주자류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통역했다. 양과도 이 말에 일리고 있음을 느꼈다. 천축승이 다시 말했다.

[속담에, 선은 선의 보답이 있다고 하였읍니다. 양거사는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였으니 참으로 이보다 더 큰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 독은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무삼통은 주자류가 통역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날뛰며 외쳤다.

[어서 사숙께 구제해 달라고 청해 주십시오.]

천축승이 말했다.

[소승이 절정곡을 한번 가 봐야겠읍니다.]

양과 등 세 사람은 모두 흠칫 놀랐다. 여기서 절정곡까지는 거리가 가깝지 않으니 한번 갔다 오는데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천축승이 말했다.

[노승이 직접 정화를 살펴보고 그 독성을 실험해 봐야말 해약을

조제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읍니다. 노승이 돌아오기 전까지

양거사는 동 " 부상을 당했을 때 양과의 계략 덕택에 해

약을 구할 수가 있어서 심중으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을 늘 지니고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숙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우리 둘이 해약을 빼앗아 와도 좋고, 사숙께서 해약을 조제하셔도 좋고, 어쨌든 해약을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사형과 사제는 말을 하면서 아주 신이 나 있는데, 천축승은 멍하니 양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근심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끈질긴 진실

양과는 천축승의 엷은 푸른색 눈동자에서 이상한 빛이 서려 있고, 입가에 고통스럽고 난감한 표정이 이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몸에 흐르는 극악한 독이 그의 독을 잘 치료하는 성수(聖手)로도 어쩔 수 없음을 눈치채고 담담하게 웃었다.

[대사(大師)께서 할 말이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 정화의 독은 일반적인 독물과 전혀 다릅니다. 독이 정과 연결되어 마음을 관통하고 있지요. 내가 보건대 거사(居士)의 정이 매우 뿌리 깊어, 이 독물과 밀접하게 묶여 있어서 쉽게 풀려 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절정곡의 단약을 구한다고 해도 쉽사리 해독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거사께서 단호하게 그녀와의 정을 끊는다면 이 독은 약이 없어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오.

우리들이 절정곡에 가서 각자의 힘을 다한다 해도 거사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겁니다.]

양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가씨에 대한 깊은 정을 끊는다면 세상에 살아 있은들 무엇하리! 차라리 독을 퍼지게 해 깨끗이 죽어 버리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고마움을 표했다.

[대사의 가르침은 매우 고맙습니다.]

그는 원래 무삼통 등이 절정곡에 가서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그들이 결코 말을 듣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양형제, 안심하고 요양하면서 다른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오. 우리들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급히 돌아와 당신의 독을 제거해 유쾌하게 당신과 곽소저의 결혼 축하 술을 마시게 해 주겠소.]

양과는 놀랐으나 이 일에 관한 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는 단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충 대답했다. 세 명이 인사를 하고 나가지 양과는 문을 닫고는 다시 눈을 감고 누웠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미 동이 텄다. 양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매우 배가 고팠는데, 침대머리에 마침 먹을 것이 담긴 작은 접시가 있음을 보고는 손을 뻗어서 몇 개의 과자를 집어들었다. 2 개를 먹었을때 돌연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상에는 1 촌 정도 남은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양과는 엷은 주홍색의 옷을 입고, 예쁜 얼굴에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녀는 바로 곽부였다. 양과는 멍청하게 그녀를 쳐다

보았다.

[곽소저였군. 별 일 없었어?]

곽부는 <흥>소리를 내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탁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눈을 치켜뜨면서 화가 난 듯 그를 쳐다보았다. 얼마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그녀가 이렇게 쳐다보자 불안해졌다.

[곽백부께서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전하라고 했니?]
[아니!]

양과는 계속해서 두 번이나 그녀에게 무시를 당했다. 예전 같으면 일찌감치 몸을 돌려서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이 이상함을 보고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다.

[곽백모는 산후에 몸이 좀 어떠신지, 벌써 건강을 회복하셨겠지?]

곽부는 마치 찬서리가 내린 듯한 얼굴로 냉랭하게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시든 말든 네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서 소용녀를 제외하고 양과는 누구에게도 멸시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녀에게서 이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받자 자신도 모르게 오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너의 부친이 곽대협이고, 모친이 황방주라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냐?)

양과는 곧 <흥!>하며 코방귀를 뀌었다.

[<흥>이라니?]

양과는 모르는 체하면서 다시 한번 <흥!>하는 소리를 냈다. 곽부가 크게 소리 질렀다.

[내가 너에게 <흥>이라고 무슨 말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양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침내 이 계집애가 흥분했구나. 내가 겨우 <흥>하는 소리를 두 번 냈을 뿐인데 이처럼 흥분하다니......)

[내 몸이 편하지 않아서 <흥>소리를 두 번 냈을 뿐이야.]

곽부는 화를 내었다.

[생각과 다르게 허튼소리를 지껄이는구나. 너는 정말로 비열한 소인배다.]

양과는 그녀의 이러한 욕설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마 내가 무씨 형제를 속인 것을 그녀가 모두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가 비록 화를 내고 있었지만 용모의 사랑스러움을 보고는 동정의 마음이 생겨났다. 그의 천성은 원래부터 약간의 풍류기가 있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내가 무씨 형제에게 만 말을 나무라고 있는 거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지? 자기 입으로 직접 자백했으니 한번 내

게 말해 보시지!]

[나는 그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길래 그들이 사이가 좋아지고 그들 아버지의 걱정을 면하게 해 주려고 했다. 그 말을 무노백(武老伯)이 네게 말했구나. 그렇지?]

[무노백은 나를 보더니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너를 한없이 칭찬하더군. 나......, 나......, 나는 여자로서 깨끗하고 고결한 체통이 있는데 어찌 네가 그처럼 함부로 지껄이고 다닐 수 있니?]

이렇게 말하고는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양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한 채 속으로 매우 후회했다. 그날 저녁, 잠시 혀를 잘못 놀려서 무씨 형제에게 허풍을 떨었을 뿐인데 이것이 곽부에게 모욕을 주고, 이처럼 화를 불러일으켜 쉽게 수습하지 못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곽부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화   울음을 터뜨렸다.

[무노백이 말씀하시길, 무씨 형제들이 너에게 핍박을 받아서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못한다고 하시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양과는 속으로 한탄하였다.

(무삼통 이 사람은 정말 사리를 분간할 줄 모르는구나. 그 말을 하필이면 그녀에게 말하다니?)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서 양과는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허튼소리를 했다. 하지만 아무런 악의가 없었으니 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곽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엊저녁의 그 말은 또 뭐지?]

양과는 잠시 당황했다.
[엊저녁의 무슨 말?]
[무노백이 말씀하시길 네가 완쾌된 후에 네가......, 나하고 결혼을 한다고 대답했다면서?]

(아, 정말 난감하구나! 엊저녁의 그 말도 그녀에게 말한 모양이구나.)

[그때 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무노백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듣지 못했어.]

곽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소리를 쳤다.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 너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려 생각하며 너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다는 등의 얘기 말이다!]

양과는 그녀의 물음에 얼굴을 붉히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곽소저에 대한 농담은 단지 사람들에게 경박 무뢰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뿐이다. 원래 나는 군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그러나 곽백모가 속으로 나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려고 했다는 거짓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로군. 곽백모께서 알게 된다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닌데......)

[곽소저, 이것은 모두 내가 경솔한 탓이니 나를 욕하고 그냥 넘어

가고 백부와 백모가 모르시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군.]

곽부는 냉소를 지었다.
[네가 이처럼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해서 우리 어머니를 욕되게 한단 말이냐!]

양과가 급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백모님에 대해서 결코 불경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그때 무씨 형제의 의욕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말이 분별없이....]

곽부는 어려서부터 무씨 형제와 함께 자란 죽마고우로, 그들 형제에 대해서 남다른 정을 갖고 있었다. 양과가 그들 두 사람을 속여 자기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끊어서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안 곽부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이 일은 너하고 다시 천천히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내 동생은? 아기를 안고서 어디 갔다 왔지?]
[그래, 빨리 곽백부를 모셔 오면 내가 말씀드리지.]
[우리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러 성을 나가셨어. 이......, 이 염치도 모르는 소인배야! 내 동생을 데려다 해약을 바꾸려고 생각했다며? 좋아, 너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내 동생의 목숨은 그럴 수가 없다.]

양과는 계속해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했으나, 그녀가 갓난아기의 일을 꺼내자 큰소리로 당당하게 소리쳤다.

[나는 오직 너의 동생을 되찾아서 백부와 백모님의 손에 안겨 드리

려 했을 뿐, 결코 그 아이로써 해약을 구하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동생은? 아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막수가 끼어들어서 되찾아 오지 못했다. 그 점은 매우 부끄럽다. 그러나 내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면 즉시 다시 가서 찾아올 작정이다.]

[그 이막수는 너의 사백(師伯)이 아니냐? 너희들은 원래, 함께 산속의 동굴에 숨어 있지 않았느냐?]
[그건 그렇다. 그녀가 비록 나의 사백이지만, 그녀는 본래 우리 사부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흥,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러면 어째서 그녀가 너의 말을 듣고는 내 동생을 안고 가서 네게 해약을 구해 주려 했겠는가?]

양과는 펄쩍 뛰며 화를 냈다.

[곽소저!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지 말라. 나 양과가 비록 사람됨이 부족하거늘 어찌 그 같은 생각을 했겠느냐?]
[어찌 그 같은 생각을 했겠느냐고? 너의 사부가 직접 말한 것인데 그래도 거짓말이란 말이냐?]
[내 사부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
곽부는 몸을 일으켜서 손을 내밀어 그의 코를 가리켰는데,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했다.

[너의 사부가 직접 주백백(朱伯伯)과 말하기를, 너와 이막수가 함께 황곡(荒谷)에 있다면서 주백백에게 우리 아버지의 한혈보마를 빌려서 너에게 보내 주어 네가 내 동생을 안고서 절정곡에 갈 수 있게하자고......]
양과는 놀란 나머지 중간에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렇다. 우리 사부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내가 너의 동생을 먼저 데리고 가 그 절정단을 구해서 먹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의 변통이었지 결코 네 동생을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

곽부가 말을 막았다.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내 동생을 네가 눈도 깜짝 하지 않고서 사람을 죽이는 악마에게 넘겨 주었으면서도 어찌 내 동생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늑대처럼 사악한 마음을 가지 나쁜 놈아! 어려서부터 홀몸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너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대했느냐? 만약 도화도에서 너를 길러주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네가 있겠느냐? 은혜를 원수로 보답하려 외적과 한패가 되어 우리 부모님의 몸이 좋지 않은 때를 이용해 내 동생을 빼앗아 가다니......]

그녀의 욕은 점점 흉악해져 양과가 한마디로 변명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중독이 된 후에 몸이 약해진데다가 다시 화가 치밀자 돌연 침대에 쓰러져서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가 지난 후, 그는 간신히 깨어났다.곽부는 냉랭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천만 뜻밖에도 너에게 한줄기 수치심이 남아 있어서 그와 같은 너의 행위가 천하의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긴 하구나!]

그녀의 얼굴은 얼음같이 차가왔으며 말투는 칼날같이 날카로왔다.

양과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어찌 네 동생을 안고서 절정곡에 가지 않았겠느냐?]
[몸에 독이 번져서 갈 수가 없게 되자, 너의 사백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냐? 후후,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지. 내가 너의 사백이 주백백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혈보마를 숨겨서 너와 사부, 두 명의 간악한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래, 그래.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려므나.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내 사부는? 그녀는 어디로 갔지?]

곽부는 얼굴을 붉혔다.

[그 사부에 그 제자라 하더니...... 너의 사부도 좋은 사람이 아니지.]

양과는 몹시 화가 나서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았다.

[네가 나를 욕하고 비웃어도 너의 부모님을 보아서 너하고의 논쟁은 그만 하겠다. 그러나 네가 어찌 감히 우리 사부를 모욕하려 하느냐?]
[피! 너의 사부가 뭔데? 누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는지 궁금하군.]

양과는 생각했다.
(아가씨는 깨끗하고 우아해서 조금도 인간의 더러운 때가 묻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양과는 피식 웃었다.

[아마도 너 자신이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 사부의 좋은

말을 왜곡해서 들었을 것이다.]

곽부는 원래 소용녀의 말을 그에게 전해 주려 하지 않았지만 이때 그가 이런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속에 있던 말을 끄집어 냈다.

[그녀가 말하는데 <곽소저, 과아는 순진하고 착하며, 일생을 고독하게 지냈으니 당신이 그를 잘 보살펴 줘요.> 또 <당신들은 원래 천생...... 천생연분의 한쌍입니다! 그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해 주세요. 나는 조금도 그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에게 보검 한 자루를 주었는데 무슨 숙녀검이라 하면서 너의 군자검과 바로......, 바로 한쌍이라 하였다. 이것이 무슨 허튼소리란 말이냐?]

그녀는 부끄럽고 화가 나서 정이 흘러넘치고 처량하게 단념하는 소용녀의 말을 양과에게 전할 때, 그때와 사뭇 어투가 달랐다.
양과는 이 말을 듣고 마치 망치에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소용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잠시 후, 곽부의 말을 모두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 속에는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사부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 숙녀검을 그럼 어디 있느냐? 네가 내놓지 못하는 걸 보니 사람을 속인 것이 틀림없다!]

곽부는 차갑게 웃으며 손목을 뒤로 돌려서 등뒤에서 장검 한 자루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절정곡에서 얻은 숙녀검이었다.
양과는 크게 실망하여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누가 너하고 한쌍이 되라고 하였느냐? 이 칼은 분명히 내 사부의것이다. 너는 그녀의 것을 훔쳤다. 그녀의 것을 훔친 게 틀림없다.]

곽부는 원래 천성이 교만하여 부모까지 그녀의 응석을 받아 주고, 무씨 형제도 그녀의 뜻에 순종하고 받들어 어디에서도 방금 양과에게서처럼 도둑년이라는 뜻의 말은 듣지 못했었다. 그녀가 소용녀의 이 말을 그에게 전해 준 것은 단지 양과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부득불 억울한 심정을 말한 것일 뿐, 어찌 이 같은 끔찍한 대답을 들을 줄 알았겠는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 보면 마치 곽부가 계책을 꾸며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시집가려 하나, 그는 자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손으로 칼자루를 쥐고는 칼을 뽑아서 그를 베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사부에 대해서 이처럼 존경심을 품고 있으니 내가 한 가지 사건을 더 들려준다면 아마 화가 나서 미치고 환장하겠지.)

이때 그녀는 매우 화가 치밀어, 하려는 말이 어떠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지도 않은 채 반 척 정도 뽑았던 숙녀검을 칼집에 다시 넣고는 웃으면서 의자에 앉았다.

[네 사부는 얼굴도 예쁘고 무공도 높아서 과연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미인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

[그게 뭔데?]

[애석하게도 행동이 정숙하지 못하여 전진교의 도사를을 사모하고 몰래 내통한 점이다.]

[우리 사부와 전진교는 원수지간인데 어찌 그들과 몰래 내통한단 말이냐?]

곽부는 양과를 비웃었다.

[<몰래 내통했다>라는 말은 내가 좋게 표현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여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양과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우리 사부는 구슬같이 순수하고 깨끗한데 네가 다시 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면 너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겠다.]

곽부는 양미간을 찡그렸다.

[그래, 그녀가 한 짓을 말하지 않겠다. 구슬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여자가 어떻게 도사란 놈과 그런 짓을......]

양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냐?]
[내가 직접 귀로 들었으니 설마 사실이 아닐 까닭이 없다. 전진교의 도사 두 명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마침 성 중에서 소란을 일으켜 부모님의 몸이 편안하시지 못해 만나 보지 못하고 내가 가서 그들을 접대......]
[그곳이 어디냐?]

곽부는 그가 화가 나서 이마에 푸른 핏줄이 드러나고 두 눈이 붉어지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두 명의 도사 가운데 한 명은 조지경이고, 또 한 명은 윤지평이라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곽부는 담담하게 웃었다.

[나는 하인에게 분부해서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고는 다시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봄 한 명의 개방 제자가 내게 와서 두분의 도사가 방에서 칼을 들고 싸운다고 알려주었다.]

양과는 <흥>소리를 내면서 속으로, 그들 두 사람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아 방안에서 칼을 뽑아 싸우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곽부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천천히 창 밖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지. 그때 두 사람은 이미 칼을 거둔 뒤 말다툼만 하고 있었다. 윤 뭐라는 도가가 너의 사부와 어떻구 저떻다고 성이 조씨인 도사가 말하자, 윤가 성을 가진 도사는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제발 큰소리도 떠들지 좀 말라고......]

양과는 급히 몸에 덮고 있던 이불을 박차고 침대가에 앉았다.
[어떻구 저떻구 한 이야기가 뭐였지?]

곽부는 얼굴을 붉히며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좋은 일이 아니겠어? 너의 귀중한 사부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 가운데 경멸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다시 화를 내자 양과는 정신이 혼란해졌다. 양과는 혼란을 무릅쓰고 곽부의 얼굴에 일장을

가했다. 그는 격분하여 그녀를 힘껏 쳤다. 곽부의 눈앞에 별빛이 번쩍 하더니 이내 한쪽 뺨이 즉시 붉게 부어올랐다. 만약 양과가 병후로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이 일장은 그녀의 이빨까지 부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곽부가 일생 중 어디에서 이 같은 수모를 당했겠는가? 그녀는 화가 나서 되는 대로 허리춤의 숙녀검을 뽑아서는 양과의 목을 찌르려 했다.

양과는 그녀에게 일장을 가한 뒤 생각했다.

(나는 곽백부와 백모의 귀여운 딸에게 죄를 범했다. 그녀는 양양성의 공주(公主)로, 곽백부 내외가 나를 꾸짖지 않더라도 내 어찌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으랴!)

양과는 다리를 뻗어서 신발을 신고, 곽부의 칼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오른손을 내뻗어 그녀의 숙녀검을 빼았았다.

곽부는 계속해서 두 동작을 패하지 더욱 약이 올라서 침대 옆에 다른 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양과의 머리를 내리쳤다. 양과는 싸늘한 빛이 번쩍이자 숙녀검을 들어서 얼른 몸을 막았으나 7일 동안이나 몽롱한 상태에 빠질 후라 아무 힘이 없었다. 숙녀검을 가슴에까지 들어올렸으나 팔에 기운이 빠지면서 올라가지 않았다. 쨍, 하는 소리에 두 칼이 맞부딪치면서 숙녀검이 땅에 떨어졌다.

곽부는 양과의 공격에 분격하고 있었다.

(너는 내 동생의 생명을 해친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결코 나를 탓하지 못하실 것이다.)

양과는 땅에 엎드려 다시 저항할 기운도 없이 오른팔을 들어서 가슴을 막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전혀 삶에 연연해 하는 기색이 없었다. 곽부는 이를 악물고 손에 힘을 주어서 칼을 내리쳤다.

그날 소용녀는 한혈보마를 타고서 양과와 금륜법왕을 뒤 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 홍마(紅馬)는 한번 치달아서 10여 리를 갔다.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오며 찾았지만 양과 등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양과를 본 지가 15분이 지나자 그가 더욱 걱정되어서 양양의 주위 3,40여 리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찾았다. 홍마는 비록 빨랐으나 황곡이 너무 외딴 곳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달려서야 겨우 멀리서 무삼통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를 쫓아가자 얼마 안 되어 무씨 형제가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양과의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양과가 강적을 만났다면 몰래 그를 도와 주려고 홍마를 나무에 매어 놓고 천천히 바위에 몸을 숨기고는 양과가 적을 상대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몰래 싸우는 모습을 보니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돌연 양과가 큰소리로 자기가 곽부와 이미 혼약을 해 곽부를 <아직 출가하지 않은 나의 아내>라든지, 곽정 부부를 <장인.장모>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소용녀는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서 정신이 혼란해졌다. 곽정과 황용이 이미 자기를 사위로 생각하고는 몰래 그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었다는 양과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가 무씨 형제에게 화를 내면서 그들이 다시는 곽부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는 다짐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용녀에게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을 주어 잠시만에 우주 만물이 모두 변해 버린 것만 같았다. 만약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양과의 언행이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을 보고는, 의심이 생겨서 일이 끝날 때를 기다려 그에게 물어서 그 진실을 밝히려 했겠으나, 소용녀의 마음은 맑고 깨끗한 수정처럼 조금도 속세의 먼지에 때묻지 않아서 인간들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양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고 허튼소리를 했어도 그녀에 대해서는 반 마디의 농담도 하지 않아, 그녀는 양과의 말이라면 지금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무씨 형제가 그의 적이 되

지 못함을 보고는 슬프고 가련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양과는 이 탄식을 듣고서 큰소리로 <아가씨!>하며 불렀으나, 소용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는 멀리 도망가 버린 것이다. 양과는 그 소리를 이막수가 나타나 소리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소용녀는 한혈보마를 이끌고는 혼자서 황야를 질주하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스물이 넘었지만 그 동안 계속해서 고묘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식견은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과아가 이미 곽소저와 약혼을 했다니 이제 다시는 나하고 결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생각하니, 곽대협 부부가 그래서 그와 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구나. 과아는 내가 이 일로 상심할까 무서워서 나에게 말하지 못했었구나. 아, 그는 정말 내게 늘 잘 대해 주었었지.)

그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

(그가 곽대협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는 것을 나는 그 당시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곽소저 때문이었구나. 이런 점들로 보아 곽소저에 대하 그의 정은 매우 두터움에 틀림없다. 내가 만약 보마를 끌고 가 그에게 주었다면 그가 다시 나를 생각하여 뒤에 있을 곽소저와의 혼사에 무슨 변고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나 혼자서 고묘로 돌아가 버리자. 이 골치 아픈 세상은 나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시킬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소용녀는 마음을 결정했다. 비록 마음이 칼로 찢는 듯 아팠으나 양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라 생각하고는 밤을 지새워 양양을 향해서 말을 달려 황곡에 있는 양과에게 홍마를 보내 주도록 주자류에게 부탁했다.

이때 양양성에 내습했던 자객은 비록 멀리 물러났지만 곽정과 황용은 아직 평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이 산만했다. 주자류

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당시 노유각과 합심해서 성의 방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이 혼란한 때에 소용녀가 홍마를 끌고 온 것이다. 소용녀는 그가 양과에게 가서 양과가 재빨리 절정곡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 태어난 곽정의 아기를 데리고 해독을 하는 영단(靈丹)을 바꾸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자류는 이 기기묘묘한 소리를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마디 계속해 물으려 했으나 소용녀는 정신이 어지러워져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빨리 가야지, 잠시만 늦어도 양과는 커다란 위험에 빠진다고 말할 뿐이었다.

소용녀는 곽부가 주자류 옆에 마침 서 있었는데도 아무런 상대를 하지 않았다.

(네 동생으로 하여금 절정곡에 가서 며칠을 머무르게 해도 결코 큰 위험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약혼자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것이니 당연히 너도 힘을 써야 한다.)

소용녀는 양과의 이름을 떠올리자 자기도 모르게 슬픔에 빠져서 눈물이 흘러내려 말을 끝까지 확실하게 맺지 못하고는 즉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져 처량하게 통곡했다.

주자류는 이전의 사정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다 영문도 모르는 소용녀의 이 몇 마디의 말을 다시 들었으니 어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잠시만 늦어도 양과의 생명은 중대한 위험에 빠진다>는 말을 듣고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황곡에 한번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문을 나서자 한혈보마는 이미 보이지 않아서 옆에 있던 병사에게 물어 보니 이미 곽부가 끌고 갔다는 것이었다. 곽부를 찾아으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양과의 안위(安危)가 걱정되어 즉시 다른 말을 타고 몇 명의 개방 제자를 데리고 소용녀가 가르쳐 준 지름길을 따라서 황곡에 이르렀다. 그때에는 양과와 무씨 부자가 모두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무삼통은 막 기

를 움직여서 혈을 보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잠시만 늦어도 양과의 생명은 중대한 위험에 빠진다>는 소용녀의 말이 과연 조금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주자류는 급히 그들을 구해서는 양양으로 돌아오다가 마침 사숙(師叔)인 천축승이 대리로부터 오던 중에 만나서 즉시 약을 구해 치료하였던 것이다.

소용녀는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상심이 되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옷소매가 다 젖자 그녀는 손을 내밀어 허리춤의 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려 하다가 손가락에 숙녀검이 잡히는 것을 느꼈다.

(이 칼을 곽소저에게 주어서 그들이 한쌍을 이루도록 하게 한다면 그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양과를 매우 좋아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눈물 자국도 지우지 않고서 곧바로 곽부를 찾아갔다.

이때 이미 오야(午夜)를 지났기 때문에 곽부는 벌써 잠이 들어 있었다. 소용녀는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곽부를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원래 한쌍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었다. 소용녀는 숙녀검을 곽부에게 주고는 고개를 돌려서 나오려 했다. 곽부는 그 연유를 모르고 계속해서 물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겠는데요.]

소용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처량한 얼굴로 나갔다. 곽부는 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리쳤다.

[용소저, 돌아오세요!]

그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 버렸다.

소용녀는 고개를 숙이고 화원으로 들어가 꽃숲에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옛날 종남산에서 양과와 함께 꽃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서 옥녀심경을 연습하던 광경을 떠올리며 이제 다시는 그 때처럼 스승과 제

립 수 없음을 알고는 더욱 비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침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돌연 왼쪽에 있는 방에서 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소용녀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없겠느냐?]

소용녀는 이 말에 매우 놀랐다.

(누가 하루 종일 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인가?)

즉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다른 또 한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한 짓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앞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목이 많아, 만약 네가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우리 전진교의 명성은 어찌 되겠느냐?]

[하하, 네가 아직도 우리 전진교의 명성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냐? 그날 저녁 종남산의 꽃숲에서 그처럼 재미를......, 하하하!]

이렇게 말한 뒤, 그는 계속 웃을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소용녀는 더욱 겁을 먹고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설마 그날 저녁 나와 양과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들 두 명의 도사가 보았단 말인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하니, 그들이 윤지평과 조지경임을 안 소용녀는 천천히 그 방의 창문으로 가서는 몸을 쪼그리고 앉아서 엿들었다. 이때 그들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매우 작았으나 소용녀가 그들과 매우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다.
윤지평이 화를 참지 못하고 지껄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사형, 너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거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네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모두 응하겠다. 나는 단지 네가 이 일을 다시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너의 말씨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내가 너의 면전에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나도 모르겠다. 너도 참을 수 없으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윤지평의 목소리가 돌연 커졌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있다! 너는 나를 질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신선(神仙)이 되는 순간도 질투할 작정이냐?]

이 두 마디의 말은 매우 이상했다. 조지경은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마치 비웃는 듯했으니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윤지평이 다시 말했다.

[그래, 그날 저녁 꽃숲에서 그녀가 서독(西毒) 구양봉에게 혈도를 눌려서 움직이지 못해 나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소원을 풀 수가 있었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부인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너도 알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너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러나 이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말씨는 마지막에 이르러 매우 부드러워져 마치 꿈속에서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다.

소용녀는 이런 말을 듣고서 마치 갔은 늪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은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설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과아가 아니고 저놈이라니? 아니야, 아니야, 결코 그럴 리가 없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날 밤, 가는 반드시 양과였어.)

조지경이 다시 얘기를 꺼내는데 그 목소리가 매우 냉랭하고 준엄했다.

[그래, 네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구? 네가 나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속의 기쁨을 참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그 일을 꺼내서 너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어째서 너는 그 일에 관해 듣기를 그토록 두려워하지?]

갑자기 벽에서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윤지평이 머리를 벽이 부딪쳐 내 소리였다.

[네가 말해도 좋다. 모두 말해 버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도 좋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 아니야. 조

사형!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하겠으니 제발 다시 그 일은 거론하지 말아 줘!]

소용녀는 하루 저녁 사이에 연달아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두 건의 큰 일을 당한 셈이었다. 멍청하게 창 밖에 서서 비록 윤과 조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뜻을 곧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조지경의 비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처럼 도를 닦는 사람이 한번 마음이 흔들려서 곤란에 빠진다면 어찌 할 도리가 없게 된다. 내가 계속해서 그 소용녀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네가 그녀의 이름이 귀에 못이 박혀 귀찮아하고, 또 증오하게 해서 너의 수련을 도와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윤지평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천선(天仙)의 화신인데 내가 어찌 그녀를 싫어하고 증오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돌연 목소리를 높였다.

[흥,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너의 비열한 마음을 설마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너는 원래 나를 시기하고, 또 양과를 미워해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 스승과 제자로 하여금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려는 거지?]

소용녀는 <양과>란 말을 듣고는 가슴이 뛰어서 중얼거렸다.

[아아! ......양과, 양과!]

이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애틋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윤.조 두 사람이 양과의 이야기를 계속 하기를 바랐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곤 했다.

조지경이 언성을 높여 원망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 조그만 놈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 어찌 마음의 한을 풀 수가 있겠는가. 흥흥, 단지......]

[단지 그놈의 무공이 대단해서 너와 내가 그놈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분할 따름이지.]

[꼭 그렇지는 않지. 그놈은 정통이 아닌 사이비 무공을 하니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 전진파의 현문무공이 천하무술의 정통인데 어찌 그놈을 무서워하겠는가? 윤사제는 잘 보아라. 나는 결코 그놈을 편안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놈의 양팔을 끊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때 너의 소용녀로 하여금 옆에서 이 광경을 보게 한다면......하하하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소용녀는 몸을 떨었다. 만약 평소 같았으면 그녀는 진작 창을 깨고 들어가 한칼에 그들 둘의 목을 날렸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극심한 실망감에 전신이 피곤하여 힘이 빠져 사지를 움직이기가 곤란한 지경이었다. 다시 윤지평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너의 소원이라 하겠구나. 우리의 현문 정종도 그놈의 사이비 무술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조지경은 몹시 화를 냈다.

[개자식, 전진교의 이단자! 너와 소용녀가 밀통을 하고 그들의 무공까지 한없이 칭찬하다니!]

윤지평은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너는 나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욕하느냐? 사람이란 마음과 행동이 흉악해지면 안 된다.]

조지경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미 손아귀에 쥐고는 그가 만약 중양궁에서 이 사실을 퍼뜨리기만 하면 전임 장교(掌敎) 마사백과, 현임 장교인 구사백이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는 것을 믿고는 줄곧 그에게 온갖 모욕을 주고 있었다. 과연 윤지평은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조지경은 그가 결국에는 불손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를 제압해 잘 순종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큰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는 즉시 한걸음을 내디뎌 손을 뒤집어서 그에게 일장을 가했다.
윤지평은 뜻밖의 공격을 받자 급히 고개를 숙였으나 팍, 하는 소리에 이 일장은 그의 뒷목을 강하게 내리쳐 몸이 흔들거리면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 장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가며 찔렀다. 조지경은 몸을 비스듬히 피하며 비웃었다.

[좋다. 네가 간도 크게 감히 나와 상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역시 칼을 뽑아 들고 반격을 가했다. 윤지평이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히고 말했다.

[너는 날이면 날마다 나를 괴롭히니, 좌우지간 내가 죽는 한이 있

더라도 오늘은 너를 처치하고야 말겠다.]

하는 말과 함께 재빨리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구처기의 수제자로, 무공은 조지경과 비슷했다. 두 사람이 배운 무공의 동작은 완전히 같아서 한 동작에 쉽게 고하(高下)를 가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 그는 마음이 울적하고 단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며, 조지경도 커다란 묘략을 꾸미고 있었지만 결코 그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고 2,30여 동작이 지나가자 방구석으로 몰려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그들 두 사람이 방안에서 쨍쨍, 하며 칼싸움을 벌이자 개방의 제자가 일찌기 곽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급히 옷을 걸치고는 달려와서 소용녀가 창 아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불렀다.

[용소저!]

소용녀는 멍청하게 정신이 빠져서 곽부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곽부는 호기심이 생겨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소용녀처럼 창 밖에 서서는 조지경이 윤지평의 칼을 부지런히 막으면서 입으로 깨끗하지 못한 조소와 농담을 지껄이는 것을 들었다. 그 모든 말은 소용녀에 관한 것이었다.

곽부는 방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듣기 거북한 곳에 이르자 창 밖에 서 있는 것이 겸연쩍어져서 몸을 돌려 가려고 했다. 그러나 소용녀가 여전히 멍청하게 마치 두 사람의 더러운 욕지거리를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가요?]

소용녀는 망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겠지만, 아마......,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곽부는 돌연 경멸의 마음이 생겨서 코방귀를 뀌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윤과 조, 두 도사는 격투를 벌이면서도 이미 방 밖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쨍, 하며 두 칼이 맞부딪치고 즉시 떨어지자 함께 물었다.

[누구시오?]

소용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예요!]

윤지평은 온몸을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누구십니까?]
[소용녀예요!]

이 대답이 들리자 윤지평은 멍청해졌고, 조지경조차 온몸이 얼음물 속에 들어간 것 같았다. 조지경은 일전에 대승관 영웅연에서 그녀의 일장에 앞가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이후, 오랫동안 보양을 하고 나서야 겨우 치료되었다. 그래서 그녀라면 매우 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소용녀가 이곳 양양성에 있다가 자기의 이런 말을 모두 다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놀라 얼이 빠졌다.

(어찌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윤지평은 마음이 이상해지며 결코 도망칠 궁리는 커녕 오히려 손을 뻗어서 창문을 열었다. 창 밖의 꽃밭 앞에 처량하게 서 있는 흰옷의 아름다운 소녀가 보였는데, 그녀는 바로 자기가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당대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소용녀였다!

윤지평은 멍청하게 중얼거렸다.

[당신이군요!]

[그렇소, 바로 나요. 당신들이 방금 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입니까?]

윤지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장검을 돌려서 창 밖으로 내밀었다. 소용녀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났다. 가슴속의 처량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은 극도에 달했다. 천 명을 죽여다 만 명을 죽여도 자기는 이미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없어 이제는 영원히 예전과 같이 양과를 깊이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는 비록 손을 내밀어 칼은 받지 않았지만 그들 두 사람을 망연하게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조지경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그녀가 정신이 나가 미쳐 버릴까 두려워 이 틈에 도망치려 했다. 손을 내밀어 윤지평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자, 빨리 가자. 그녀가 너를 죽일 거야!]

조지경은 힘을 다해서 윤지평을 끌고는 재빨리 문을 나섰다. 윤지평은 이미 넋이 빠져서 온몸에 아무런 힘이 없어 황망히 그에게 끌려갔다. 조지경은 경공을 펼쳐서 급히 호흡을 일으켰다. 윤지평은 처음에 그에게 끌려서 얼마를 간 후 자신의 경공도 펼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스승에 의탁해서 무예를 배운 것은 곽정보다 빨라서 이 한 번의 발력(發力)으로 순식간에 그들은 동성(東城) 성문 옆에 이르게 되었다.

성문 옆에는 10 여 명의 개방 제자들이 2 개 대열의 관병을 따라서 순시하고 있었다. 개방의 제자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는 윤과 조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전진의 고사(高士)이며 곽정의 사형임을 알고 있었다. 조지경이 급한 일로 성을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마침 이때 성 밖에 적군이 다가와 공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즉시 성문을 열도록 명령했다. 성문이 겨우 한 사람의 몸이 빠져나갈 정도로 열리자 두 사람은 재빨리 성 밖으로 나갔다. 개방의 제자를 거느리던 우두머리가 찬사를 보냈다.

[뛰어난 경신 무공이다!]

성문을 닫으려 하자 돌연 눈앞에 흰 빛이 번쩍 하면서 누군가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매우 겁을 먹고 물었다.

[누구냐?]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가 성 밖을 급히 내다보았지만 이때 여명이 밝아 와서 60 장 밖은 어렴풋한 게 똑똑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돌아와서 물었으나 옆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눈을 굴리면서 지껄였다.

(귀신인가?)

생각해 보니, 며칠간 계속 고생을 해서 눈앞에 허깨비가 보인 것 같았다.

윤과 조, 두 사람은 감히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내리 수십여 리를 치달려서야 겨우 걸음을 늦추었다. 조지경은 이마에 가득한 땀방울을 옷소매로 닦았다.

[큰일날 뻔했어!]

고개를 돌려서 온 길을 한번 살펴본 조지경은 저절로 두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거의 땅에 쓰러질 뻔했다. 그때 그들의 뒤쪽 10 여장 밖에 흰 옷의 소녀가 버티고 서서는 멍청하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흰 옷의 소녀는 바로 소용녀였다. 조지경은 크게 놀라 <아!>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와서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윤지평의 팔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그는 단숨에 10 여 장을 치달아서 고개를 돌려 다시 쳐다보았으나 소용녀가 여전히 3,4 장 정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조지경은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달렸다. 그는 매번 뒤를 돌아볼 때마다 놀라서는 두 다리의 힘이 점점 빠졌다.

[윤사제, 그녀가 그때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었는데, 아마도 그녀에게 다른 악독한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악독한 계획이라니?]

[내가 추측하건대 그녀는 우리들을 사로잡아서는 천하 영웅의 면전에서 너의 추행을 고발해서 우리의 전진교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갈 것 같다.]

윤지평은 속으로 매우 당황했다. 그는 이때 이미 자기의 생과 사를 초월해서 만약 소용녀가 검을 들고서 죽이려 한다면 결코 반항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구처기 문하에서 배워서 스승의 은혜가 심중한 터였다. 천하의 전진파가 만약 자기로 인해 망신을 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자, 저절로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즉시 다리에 힘을 주어 조지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내달렸다.

두 사람은 길도 없는 황야만을 골라서 달렸는데 가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도려서 쳐다보았는데, 소용녀는 항상 수장 밖에 서 있었다. 고묘파의 경공은 천하에 둘도 없는 것으로서 소용녀가 그들을 쫓는 일은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처럼 큰 일을 만나서 실로 어찌해야 좋을 지 몰라 단지 그들의 뒤를 따르며 그들 두 사람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할 따름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몹시 당황해 정신 없었는데다 소용녀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녀의 계획이 생각하면 할수록 악독해진다고 여겨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당황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달렸으며 다시 정오부터 오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네다섯 시간을 급히 달려왔다. 그들 두 사람의 내력이 비록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숨을 헐떡이며 걸음걸이가 혼란해져도 이전보다 속도가 떨어질 뿐 결코 멈추지는 않았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서 두 사람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다. 다시 얼마를 달리자 두 사람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이때 눈앞에 작은 시내가 보이자 저절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사로잡혀도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은 시냇가에 엎드려서 입을 크게 벌리고는 미친 듯이 시냇물을 마셨다. 소용녀는 천천히 시냇물의 위쪽에 다가와서 두 손으로 몇 번 물을 떠서 마셨다. 흐르는 맑은 물에 자기의 모습이 바치자

구름 같은 머리와 꽃 같은 얼굴은 마치 능파(凌波) 선자(仙子)의 모습과 똑같았다. 소용녀의 가슴이 동요되며 다시 극도로 마음이 아파왔다. 그녀는 시냇가에 있는 한송이 이름 모를 꽃을 꺽어서는 머리에 꽂고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넋이 빠졌다.

윤과 조, 두 사람은 한편으로 물을 마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얼이 빠져서 이미 눈앞의 일을 잊은 듯 보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천천히 일어나서 발소리가 나지 않게 소용녀의 등뒤를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뛰면서 몇번이나 뒤를 돌아다보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시냇물만을 쳐다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걸음을 빨리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자 이윽고 큰 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지평이 우연히 뒤를 한번 돌아다보자 소용녀가 다시 그들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윤지평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틀렸어, 틀렸단 말이야! 조사형, 우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녀가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모두 그녀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고 말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조지경은 크게 화를 냈다.

[네가 죽으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왔겠어?]

그는 그의 팔을 잡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윤지평은 이미 낙심해서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았다. 조지경은 두렵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서 돌연 윤지평의 따귀를 갈겼다.

[왜 때려?]

소용녀는 그들이 돌연 싸움을 벌이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왕 기(王旗)

바로 이때 앞쪽에서 두 마리의 말이 달려왔다. 말 위에는 군령을 전달하는 몽고의 전령이 타고 있었다. 조지경은 무슨 생각이 난 듯 조용히 속삭였다.

[말을 빼앗자! 우리들이 거짓으로 싸움을 벌여서 소용녀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야!]

하며 그는 즉시 팔을 휘둘러 공격을 가했다. 윤지평도 손을 들어 막으며 일장의 반격을 가하자 조지경은 몇 걸음 물러나며 점점 한길 가운데로 나갔다. 두 사람의 몽고병은 그들에 의해 길이 막히자 말을 멈추었다. 그들은 돌연 말에 뛰어올라 각각 몽고의 전령을 아래로 끌어내려 땅에 내던지고는 말머리를 돌려서 북쪽으로 급히 말을 몰았다.

두 필의 말은 모두 뛰어난 천리마로 매우 빨리 달렸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소용녀가 쫓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북쪽으로 10여 리를 달리자 세 갈래 길이 이르렀다. 조지경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니 아무래도 길을 바꾸어서 동쪽으로 가자.]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들은 동쪽으로 난 길로 들어섰다.

저녁 무렵, 그들은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쌀 한톨도 먹지 못하고 달렸기 때문에 허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즉시 주점을 찾아갔다. 그들은 일하는 아이에게 쇠고기국과 세 근의 과자를 주문했다. 조지경은 자리에 앉은 후 오늘의 위기를 생각하지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그러나 소용녀가 계속해서 뒤를 쫓아오면서 왜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윤지평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음식이 나오자 그들은 젓가락을 들고 급히 먹었다. 돌연 주점 밖에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 두 마리 말은 누구 것이냐? 어째서 이곳에 있지?]

그들의 말투 속에는 몽고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조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가 7,8 명의 병졸을 거느린 몽고 군관이 자기들이 타고 온 말을 가리키며 묻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점에서 일하던 사람은 손을 모으고 연신 목을 조아리며 겁에 질려 있었다.

[나으리 대인!]

조지경은 소용녀에게 하루 종인 쫓겨서 화가 났지만 이것을 풀 곳이 없었는데 마침 그들이 시비를 걸어 오자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 말은 내 것이다! 무슨 일이냐?]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 말은 본래 내 것이다! 왜 간섭을 하고 야단이냐?]

이때 양양 이북은 전체가 몽고의 수중에 들어가서 대송의 백성들은 도륙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누가 감히 이처럼 몽고군에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으랴! 몽고의 군관은 조지경의 체구가 거대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의심이 생겼다.

[사 온 것일까, 아니면 훔친 것일까?]
[무슨 사 오고 훔친 것이냐? 도사가 도관(道觀)에서 기른 것이지]

몽고 군관이 손을 휘저었다.

[잡아라!]

7,8 명의 병졸들이 칼을 들고 조지경을 포위했다. 조지경도 칼자루에 손을 댔다.

[무슨 이유로 사람을 잡느냐?]

군관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말을 훔친 도둑놈! 감히 배짱도 좋게 대군영의 군마를 훔치다니. ..... 어서 자백해라!]

하고 말하며 엉덩이의 말 털을 헤치자 2 자의 몽고 글자로 된 낙인이 나타났다. 원래 몽고 군마는 모두 낙인을 찍어서 그 소속을 확실히 표시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 볼 수가 있었다. 조지경은 몽고군이 달려들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변명을 했다.

[이 말이 어째서 몽고의 군마냐? 우리 도관의 말에도 낙인이 자주 찍히는데 어찌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냐?]

군관은 몹시 화가 났다. 남하한 이래 이처럼 완강하게 대항하는 놈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어 조지경의 앞가슴을 잡으려 했다. 조지경은 왼손으로 막으면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서 등뒤로 꺾고는, 그의 몸을 들어 공중에서 몇 번을 돌린 뒤 밖으로 집어던졌다. 군관의 몸은 공중을 날아서 마침 자기(磁器)가게에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더니 1개의 자기를 얹어 놓은 선반이 넘어지며 위에 놓여 있던 접시 사발들이 무수히 깨졌다. 군관의 온몸은 자기 조각에 찔려서 피에 물든 채 자기의 파편 밑에 깔려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병졸들이 급히 그를 일으키면서 다시는 말을 훔친 도적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조지경은 하하, 웃으면서 자리로 돌아와서 젓가락을 들고는 다시 음식을 먹었다. 이처럼 한바탕 난리를 피우자 마을의 모든 가게는 문을 닫고, 주점에 있던 손님들도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몽고의 잔인함을 아는지라 한인이 이처럼 몽고의 군사를 구타한 것에 큰 보복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조지경이 몇 젓가락을 먹자, 돌연 주점의 주인이 다가와서 땅에 엎드려 계속해 머리를 조아렸다. 조지경은 그가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함을 알고는 웃으면서 일어났다.

[우리는 이미 배부르게 먹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곧 갈 것이다.]

주인은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계속해 머리를 조아렸다. 윤지평이 끼어들었다.

[그는 우리라 가면 몽고병이 와서 우리의 행방을 물을까 두려워하

고 있는 거야!]

그는 원래 사물에 정통하고 일을 잘했으나 소용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는 잠시 총명함이 흐려졌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데는 항상 조지경보다 뛰어났다. 이 때문에 마옥은 그에게 장교의 자리를 물려주려 생각하고 있었다. 이 때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 빨리 가서 좋은 안주와 술을 준비해라. 도사는 원래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수습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인은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켜 빨리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분부했다.
그 군관의 상처는 가볍지 않아서 이윽고 발버둥치며 말 위에 올랐다. 조지경이 말했다.

[윤사제, 오늘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참패를 당한 거야.]

윤지평은 코방귀를 뀌며 그 몽고 군관이 병졸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주점 안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좋은 안주와 술을 분분히 날라 1장 가득히 쌓았다.
그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계속 음식을 먹었다. 윤지평이 돌연 몸을 일으켜서 손을 내밀어 옆에서 시중을 들던 하인을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주인은 겁을 먹고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이 죽일 놈이 잘못을 했으니 도사님께서는 화를 가라앉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지평의 왼쪽 다리가 날아가서 그를 가볍게 땅에 넘어뜨렸다. 조지경은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윤사제......너......]

윤지평이 옆에 있던 상을 내동댕이치자 그릇이 땅에 뒹굴었다. 이어서 하인 2명을 때리고 내친 김에 혈도까지 눌렀다.

[몽고병이 다시 와서 너희들이 주점에서 이처럼 다툰 것을 보고는 결코 너희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사람들은 그의 뜻을 알고는 모두들 그의 총명을 칭찬했다. 주점 사람들은 싸움을 시작해 서로를 치고받아 옷이 찢어지고 눈이 멍들었다. 얼마 지나자 돌연 길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리면서 몇 마리의 말이 달려왔다. 사람들은 짝을 이루어서 분분히 땅에 쓰러져 크고 작게 소리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구 다리야!]
[도사님, 살려 주세요!]

말발굽 소리는 과연 주점 앞에 이르러 멈추더니 4명의 몽고 군관이 들어왔다. 뒤에는 키가 크고 마른 라마승이 있고, 검고 키가 작은 호인(胡人)이 있었다. 그 호인은 두 다리가 없어서 두 손에 각각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몽고 군관은 주점 안이 난장판인 것을 보고는 눈썹을 찡그렸다.

[빨리 술과 음식을 가져와라. 어르신께서 빨리 잡수시고 길을 떠나야 한다.]

주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원래 이들 군관은 아까와 다른 패거리들이구나. 방금 도사 에게 당하고 돌아간 군관이 부하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야 옳단 말인가!)

잠시 머뭇거리자 몇 명의 군관이 채찍을 휘둘러 팔을 내리쳤다. 주인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하인을 시켜서 얼른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이 라마승은 금륜법왕이었고, 검고 키가 작은 호인은 바로 니마성이었다. 그들 두 사람은 그날 빙백은침을 밟고 산의 동굴 밖에서 서로 엉켜서 싸우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천만 다행으로 마침 절벽 아래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법왕은 매우 위험한 순간에 왼손을 뻗어서 나무를 움켜잡았다. 니마성은 이때 이미 정신이 가물가물했으나 여전히 법왕의 몸을 잡고는 놓지 않았다. 법왕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왼손을 놓치자 두 사람은 절벽 아래 풀숲으로 떨어져서 비탈을 데구르르 10여 장 굴러서 깊은 계곡의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의 사지와 얼굴은 비탈을 구를 때 모래, 돌, 가시에 긁혀서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법왕은 오른손을 돌려 소금나수(小擒拿手)를 펼쳐서 니마성의 팔을 내리쳤다.

[너 도대체 놓을 작정이냐 안 놓을 작정이냐?]

니마성은 몽롱한데다가 저항할 힘이 없어 그의 한 방에 왼팔이 풀렸다. 그러나 오른손은 여전히 그의 등을 잡고 있었다.

[너의 두 다리가 독에 찔렸는데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소란이냐?]

이 몇 마디에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니마성이 급히 고

개를 숙여 보니 자기의 두 다리가 이미 부어 올라 있었다. 만약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는 이를 악물고 허리에 박혀 있던 철사(鐵蛇)를 뽑아 자기의 두 종아리를 단칼에 베어 내자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법왕은 그가 이처럼 단호하게 다리를 자르자 매우 감복했다. 이미 그의 두 다리가 잘려 나갔으나 더 이상의 걱정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두 무릎 근처의 곡천혈(曲泉穴)과 넓적다리의 오리혈(五里穴)을 눌러서 우선 피를 멈추게 하고 다시 금창약(金創藥)을 상처에 바르고 그의 옷을 찢어서 절단된 다리를 감쌌다.

천축의 무사는 대부분 수정판(睡釘板).좌도산(坐刀山) 등의 고통을 참는 기술을 연마했는데 니마성은 그 중에서도 고수인지라 피가 멈추자 곧 일어나 앉았다.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 주셨군요. 우리는 더 이상 원수처럼 지내지 맙시다!]

법왕은 쓴 웃음 웃었다.

(너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몸에 있는 독은 이미 제거가 되었다. 나의 처지는 너만도 못하다.)

그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운공을 해 발끝에 있는 독기를 천천히 밀어내려 했다. 몇 시간 만에 검은 물이 약간 흘러 나왔는데, 이미 피곤해져서 가슴이 뛰고 숨을 헐떡였다.

두 사람은 황곡에서 며칠간 요양을 했다. 법왕은 상승의 내공으로 독을 몸 밖으로 밀어냈으며, 니마성의 상처에서도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2개의 나뭇가지를 꺾어서는 지팡이로 삼아가며 황곡을 빠져나왔다. 이윽고 몇 명의 몽고 군관과 만나게 되어 함께 쿠빌라이의 대영(大營)으로 가다가 이곳에서 조지경과 윤지평을 만난 것이었다.

윤지평과 조지경은 법왕을 보고서 다들 안색이 변했다. 그들은 대승관 영웅대회에서 그들의 뛰어난 무공을 본 적이 있었다. 또한 법왕의 제자인 달이파와 곽도는 그때 종남산 중양궁을 습격해 전진교의 제자들도 감히 쉽게 대적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났다. 이때 이 같은 상황에서 그를 만나자 윤지평과 조지경은 속으로 겁에 질렸다. 그들은 모르는 체하고는 길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날 영웅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중원의 호걸 등 1천여 명 이상이라, 윤과 조는 법왕을 알고 있었지만 법왕은 그들을 알지 못했다. 법왕은 비록 주점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물건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때가 때인지라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양양에 와서 크게 패하고 돌아가는 길로서, 쿠빌라이를 알현하게 될 때의 면목 없음을 면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에 골똘하느라 2명의 도사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때 주점 밖에서 돌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한 무리의 몽고 군관과 병졸들이 들어왔다. 윤과 조를 보자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잡으려 했다. 윤지평은 법왕의 자리가 문 근처임을 보고는 만약 밖으로 도망간다면 그의 곁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방해할까 겁을 먹고 속삭였다.

[뒷문으로 달아나자!]

손을 내밀어 탁자를 밀자 사발 그릇과 접시가 땅에 쏟아졌고, 그들은 몸을 날려서 후문으로 향했다.

윤지평은 후당에 이르러 고개를 돌려 안을 보니, 법왕이 술잔을 잡고 눈을 내리깔고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주점 안의 소란을 거의 모르는 체하는 것을 보고서 매우 기뻤다.

(그가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눈앞에 그림자가 번쩍 했다. 그 서역의 난장이가 뛰어올라
왼손을 계속해서 흔들며 지팡이를 들고 윤과 조의 어깨를 내리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윤지평과 조지경은 처음 보는 사람이 이처럼 빠
르고 매섭게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어깨를 낮추어 피했다
. 니마성의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자 <앗!>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들
두 도사의 동작도 결코 느린 것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왼쪽 지
팡이는 땅에 버티고 있고 오른쪽 지팡이를 들고서 밖으로부터 않으
로 치며 두 사람의 길을 막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제히 검을 뽑아
들고 좌우를 나누어 찔러서 그를 물러서게 해 길을 빼앗고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니마성의 무공이 비록 윤지평과 조지경보다 고수였지만 두 다리를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원기가 회복되지 않았었다. 한 손으로 지
팡이를 휘두르며 두 도사와 대적하고, 다른 한 지팡이는 반드시 땅
에 대고 몸을 의지해야 했으므로 몇 동작이 지나자 견딜 수가 없
었다. 법왕은 천천히 앞으로 나가서, 조지경의 칼끝이 니마성의 앞
가슴을 찌르려 하자 니마성이 지팡이로 대항할 때 윤지평의 장검이
그의 오른팔을 찌르려 하는 것을 보았다. 이 검의 동작은 매우 무서
워서 니마성도 지팡이를 버리고 물러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법왕은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마침 니마성의 몸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는 손을 내밀어 그의 궁둥이를 받쳐들고 그를 안았다. 이때 그의 지
팡이가 조지경의 장검과 맞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법왕의 내력이
지팡이를 타고 조지경에게 전달되었다. 조지경의 오른팔이 심하게
흔들리고 앞가슴에 열이 나며 결국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니마성의 내력은 부족하였지만 동작은 매우 민첩해서 조지경이 칼
을 놓치자 즉시 지팡이를 돌려서 윤지평의 장검과 달라붙어 상대했
다. 법왕이 니마성의 팔을 누르자 윤지평은 조지경의 경우처럼 되지
않으려고 즉시 운력으로 반격해으나 어찌 내력이 강하고도 부드럽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랴! 쨍, 하고 장검이 부러지며 손에는 단지

반 토막의 칼이 남게 되었다. 법왕은 가볍게 니마성을 내려놓고는 두 손을 나누어 윤과 조의 어깨에 얹어 놓았다.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함께 싸우셨읍니까? 이 같은 신수(身手)는 이미 제일류의 검사(劍士)이니, 청하건대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어떨는지요?]

그는 결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두 손을 이처럼 어깨에 걸치고 있어서 두 도사는 피할 수가 없었다. 이를 데 없이 무거운 천 근이나 되는 힘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아 단지 내력으로 대항할 뿐 감히 대답할 수도 없었다. 입을 열었다가는 내식이 느슨해져 어깨에서 허리까지의 뼈가 부러질까 두려워할 뿐이었다.

이때 주점에 들어온 몽고 병사들이 이미 사방을 포위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천호(天戶)로서, 법왕이 몽고 호국법사이며, 4 왕자(四王子) 쿠빌라이가 그를 극진히 아끼고 있음을 알고는 즉시 예를 올렸다.

[국사님, 이 두 도사가 군마를 훔치고 몽고의 군관을 때렸는데 죄송스럽게도 몽고의 국사께서 직접......]

그는 말을 다 마치지도 않고서 윤지평을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윤지평 도사가 아니십니까?]

윤지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법왕은 그의 어깨에 걸쳐 놓았던 손을 느슨하게 해 누르는 힘을 조금 약화시켰다.

(이 두 도사는 겨우 40 여 세 정도인데 내공이 이처럼 정순해 쉽게

상대해서는 안 되겠는걸!)

그 몽고의 천호가 웃으면서 말했다.

[윤도사께서 어찌 나를 몰라 보시는지요? 19 년 전 함께 화라자막(花라子막) 사막에서 양고기를 누워서 먹었던 살다(薩多)를 모르신단말입니까?]

윤지평은 자세하게 그를 뜯어 보았다.

[아, 맞다, 맞아! 당신이 수염을 길러서 내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사방팔방으로 수만 리 말을 몰아서 머리와 수염이 이미 반백이 되었읍니다만, 도사께서는 모습이 예전과 큰 차이가 없군요. 과연 징기스칸의 말씀대로, 도를 닦는 도사님들은 모두가 신선입니다.]

법왕은 쳐다보며 말을 하였다.

[국사님, 이 도사분은 일찌기 징기스칸의 요청으로 서역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우리 편입니다.]

법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어깨에 걸쳤던 두 손을 떼었다.

그때 당시 징기스칸은 무병장수의 비결을 묻고자 구처기를 서장에 초청해서 만났다. 구처기는 만 리 서쪽을 여행할 때 19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갔었다. 윤지평도 그의 수제자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징기스칸은 2 백의 군마를 파견해서 구처기의 일행을 호위했다. 이때 살다는 병졸로 그 중에 끼여 있어서 윤지평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사방을 20 여 년 간 돌아다니며 큰 공을 세워서 천호의 자리

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여기서 그를 만나자 매우 기뻐서 그는 즉시 음식과 술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자리도 잡지 않고 윤지평에게 인사를 올렸다. 말을 훔치고 몽고의 군관을 때린 일은 웃음 속에 사라졌다. 살다는 구처기와 나머지 18 제자의 안부를 묻고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법왕도 이미 구처기의 명성을 듣고 그가 전진파의 최고 고수임을 알고 있었다. 윤과 조의 무공이 결코 약하지 않음을 보고 전진파의 검술 내공이 대단함을 느꼈다. 자기는 다행히도 한번에 기선을 제압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2,30 여 동작에서도 쉽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문간에서 그림자가 번쩍이며 흰 옷의 소녀가 들어왔다. 법왕, 니마성, 그리고 윤과 조는 모두 속으로 놀랐는데 그녀는 바로 소용녀였다. 이 가운데 니마성만이 그녀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어서 큰 소리를 질렀다.

[절정곡의 새색시, 안녕하십니까!]

소용녀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주점 한모퉁이의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 모두를 모른 체하고는 하인에게 한 그릇의 소면을 시켰다.

윤과 조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안절부절못했다. 법왕은 양과가 뒤를 따라올까 두려워했다. 그는 평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양과와 소용녀가 쌍칼을 휘두르는 옥녀소심검법만은 두려워했다. 세 사람은 각각 아무 말도 없이 음식을 먹었다. 윤과 조는 이미 배가 불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의심을 할까 해서 계속 음식을 입에 쳐넣었다. 살다는 매우 기뻐서 물었다.

[윤도장(尹道長), 우리의 사대왕을 만나 뵌 적이 있읍니까?]

윤지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쿠빌라이 왕자께서는 타뢰 사대야(四大爺)의 네번째 왕자로 영특하고 어질어 군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있지요. 소장은 지금 정세를 보고하러 가는 중인데 두 도사께서도 만약 별 일이 없으시면 것이 어떠십니까?]

윤지평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경은 마음이 동하여 법왕에게 물었다.

[대사께서도 사왕자님을 뵈러 가시는지요?]
[그렇소! 사왕자는 당대의 호걸이시니 두 분께서도 한번 인사를 드리지요.]
[네. 우리들은 대사와 살다 장군을 따라서 가겠읍니다.]

하며 손을 탁자 아래도 뻗어서 윤지평의 다리를 치고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살다는 매우 기뻐했다.

[네, 좋습니다!]

윤지평의 기지와 재주는 조지경을 훨씬 앞섰으나 소용녀를 한번 보자 곧 정신을 못 찢하면서 소용녀의 추격으
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들은 총총 음식을 먹고는 주점 밖으로 나가서 말을 타고 갔다. 법왕은 양과가 나타나지 않자 마음을 놓았다.
(전진교는 중원 무림 가운데 정통이니 만약 몽고의 도움을 받으면 실지로 대단한 무공이 된다. 내일 왕자님을 뵙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때 하늘은 어느덧 어두워져 사람들은 더욱 힘차게 달렸다. 돌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 돌아보자 소용녀가 당나귀를 타고 여유 있게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법왕은 몹시 놀랐다.

(그녀 혼자서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어찌 이처럼 대담하게 따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가? 양과란 놈을 몰래 숨겨 놓은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밤 늦도록 달려서 어느 숲에 이르렀다. 살다는 군사들에게 말을 쉬게 하고 각자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게끔 명령했다. 소용녀도 당나위에서 내려 사람들과 10여 장 떨어진 나무 밑에 앉았다. 그녀의 행동이 이상스러지면 법왕은 더욱 신중해져, 감히 경솔하게 상대하지 않았다. 조지경은 니마성이 소용녀와 손짓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법왕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고 감히 그녀를 자주 보지 못했다. 반 시간 정도 쉬고 나서 사람들은 다시 말을 타고 숲을 빠져나갔다. 말발굽 소리는 여전히 은은히 들려서 소용녀가 계속 그들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드넓은 평원에 이르러 사방을 살펴본 법왕은 사람의 그림자가 없자 악독한 마음을 품었다.

(나는 평생 무적이었는데 중원에 온 이후 계속해서 이 계집애와 양과란 놈의 쌍칼에 패했다. 오늘 그녀가 계속해 따라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이유가 아닐 것이니 먼저 공격을 해 그녀를 죽여 버려야겠다. 구원병이 온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니, 그녀가 죽으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을 세우려 하는데 돌연 눈앞에 땡그랑 땡그랑, 하는 낙타의 방울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큰 먼지가 일어나며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법왕은 몹시 후회하였다.

(그녀의 후원병이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다면 내가 일찌기 손을 썼을 것인데.)

돌연 살다의 <앗!>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법왕은 앞에서 다가오는 것이 4마리의 낙타인 것을 알았다. 오른쪽 첫번째 낙타의 등에 큰 깃발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쿠빌라이의 군기였다. 멀리서 보니 낙타의 등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살다가 외쳤다.

[왕자님께서 오신다!]

살다는 앞으로 말을 몰아서 낙타와 반 리 정도 떨어진 곳까지 질주해서는 안장에서 몸을 굴려 길 옆에 공손하게 내려섰다. 법왕은 생각했다.

(왕자께서 이곳에 오신 이상 이 계집아이를 죽이기가 곤란하게 됐구나!)

그는 지위를 중시하는지라 만약 법왕이 손을 써서 혼자인 계집애를 죽이는 것을 쿠빌라이가 본다면 필시 그를 무시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즉시 천천히 달려 접근해 보니 4마리 낙타의 한가운데 공중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흰 머리 흰 눈썹에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바로 주백통이었다.

그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좋아요! 대화상, 니마성, 우리 또 여기서 만나게 되었군. 아! 아름다운 아가씨도 오셨군.]

법왕은 마음속으로 기괴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속임수에 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공중에 걸터앉을 수 있단 말인가?)

상대방이 가까이 접근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4마리 낙타들 사이에 몇 가닥의 새끼줄로 망을 엮어 놓았는데, 주백통은 바로 그 망 위에 앉아 있었다.

주백통은 줄곧 중양궁에는 가지 않았던 까닭에 마옥.구처기 등의 사람들과는 극히 내왕이 없어서 윤지평과 조지경과는 서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일찌기 독왕독래(獨往獨來)하며 인간 세상을 노니는 사숙조(師叔祖)가 있으나 오랫동안 그 소식이 없으니 아마도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말을 사부에게서 들었던지라,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도 그가 바로 주백통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진한 안개가 널리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윤지평은 비록 목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시종 그의 얼굴을 볼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법왕은 양 미간을 찌푸리며 이 사람의 무공이 기묘해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물었다.

[왕자님께서는 뒤쪽에 계시오?]

주백통은 뒤쪽을 가리키면서 웃었다.

[삼사십 리 밖 그의 장막에 있을 거요. 대화상, 내가 당신께 충고하겠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소.]

[왜 그렇지요?]

[그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읍니다. 당신이 지금 갔다가는 당신의 중대가리가 잘려 버릴까 두렵소.]

법왕이 벌컥 화를 냈다.

[무슨 허튼소리를! 왕자께서 왜 화를 내신단 말입니까?]

주백통은 낙타의 등에 세워져 있는 왕기를 가리키면서 웃었다.

[왕자의 왕기를 내가 훔쳐 왔으니 그가 어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으리오?]

법왕은 얼이 빠진 모습으로 말했다.

[당신이 왕기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훔쳤단 말입니까?]
[당신, 곽정을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는 나와 의형제이지요. 우리 형제는 십여 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난 지금 그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가 지금 양양성에서 몽고인과 싸우고 있기에 내가 몽고 왕기를 훔쳐서 그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이오.]
법왕은 크게 놀라며 생각했다.
(이거 정말 일을 망쳐 놓았구나. 양양성도 쳐부수지 못하고 왕기마저 적에게 빼앗겼으니 정말 면목이 없구나. 깃발을 다시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주백통이 크게 고함을 치니 4마리의 낙타의 16개의 발굽이 맹렬히 땅을 차며 바람처럼 서쪽으로 질주해서는 원을 그리며 돌았다. 왕기가 바람 속에서 펼쳐지며 요란하게 펄럭이는 소리를 냈다. 주백통은 몸을 곧바로 세우고 손 안에 4개의 고삐를 쥐고는 평야를 질주하려는데, 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이 완연히 대장군의 위풍 같아 보였다.

그가 득의만만한 모습으로 가까이까지 달려와서는 <그만!>하고 외치자, 4마리의 낙타는 즉시 멈추어 섰다. 그의 손 힘이 세어서, 4마리의 낙타가 꼼짝없이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대화상, 내 낙타들이 어떻습니까?]

법왕은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매우 훌륭하오, 감탄했읍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왕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주백통이 왼손을 흔들며 웃었다.

[대화상, 아가씨! 이 노완동은 갑니다!]

윤지평과 조지경은 <노완동>이라는 한마디 말을 듣자 입을 벌려 외쳤다.

[사숙조?]

그들은 나란히 말에서 내려섰다. 윤지평이 말했다.

[당신은 전진파의 주노선배가 아니십니까?]
주백통은 두 눈을 두르륵 굴렸다.

[흥, 어째서? 어린 도사놈들이군. 그렇담 어서 인사를 올려야지.]

윤과 조 두 사람은 인사를 올리려다가 그가 이렇게 괴상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얼떨떨해지며 엉뚱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나 아닌지 걱정했다.

[너희들은 어느 도사의 문하냐?]

윤지평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조지경은 옥양자 왕도장의 문하이며, 저 윤지평은 장춘자 구도장의 문하이옵니다.]

[흥, 전진교의 어린 도사들은 갈수록 예전만 못하구나. ......보건대 너희들은 인재가 못돼!]

하며 돌연 두 발을 올려 차니, 두 짝의 신발이 각각 두 사람의 발쪽으로 나뉘어 날아갔다.

윤지평은 신발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 힘이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지라 얼굴에 명중한다 해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여전히 몸을 구부려 예를 갖추었다. 조지경은 손을 뻗쳐 신발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 신반들이 두 사람 앞 3척 거리 되는 데까지 이르러서 갑자기 되돌아가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조지경의 손은 허공을 쥐고 말았다. 바라보니 왼쪽 신발은 오른쪽을 향하고, 오른쪽 신발은 왼쪽을 향해 원을 그리더니 공중에서 교차하여 주백통의 몸 앞으로 되돌아갔다. 주백통은 두 발을 뻗어서 신발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비록 장난이었지만 극히 심오한 내력이 만약 없으면 절대로 2개의 신발을 이렇게 차 올릴 수 없는 것이었다. 금륜법왕과 니마성은 일찌기 쿠빌라이의 군영에서 그가 두 갈래진 창을 사람을 향해서 내던진 뒤 중간에서 떨어지게 하는 재주를 보았었다. 지금 이렇게 신발을 날렸다가 되돌아오게 하는 재주를 보았었다. 지금 이렇게 신발을 날렸다가 되돌아오게 하는 무공은 그것과 이치가 같으나 다만 발끝에 약간의 되돌아오게 하는 힘을 더하는지라 별로 경이롭게 보이지 않았다. 조지경은 손을 뻗어 허공을 잡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무공 수준이면 극히 무서운 암기가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손으로 백이면 백 모두 잡아 낼 수 있는데 어찌 천천히 날아오는 누더기 신발 하나 잡지 못할 줄 알았겠는가! 즉시 의심을

풀고 윤지평을 따라 예를 올렸다.

[제자 조지경 삼가 사숙조께서 인사 드립니다.]

주백통은 크게 웃었다.

[구처기와 왕처일은 안목이 좁아서 겨우 그릇 하나도 되지 못할 제자들을 거두었단 말이냐? 그만두어라, 그만둬! 누가 너희들에게 절을 하라고 했더냐?]

한 뒤, <앞으로!>하고 크게 고함치자 4 마리의 낙타는 귀를 바짝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달리기 시작했다.

법왕은 재빨리 몸을 날려 낙타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어라!]

두 손을 각각 낙타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4 마리의 낙타는 막 앞으로 질주하려는 판에 그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니 오히려 두 걸음 물러나고 말았다. 주백통이 대로하여 고함쳤다.

[대화상, 설마 나하고 싸우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노완동은 십여 년 간 적수를 만나지 못해서 주먹이 근질거렸는데...... 좋아요, 우리 한번 겨루어 볼까요!]

그는 평생 무예를 좋아해 근년에는 연습하면 할수록 무공이 강해졌으니 상대를 찾기가 매우 힘든 터였다. 그는 법왕의 무예가 괜찮아 자신과 겨룰 만하다고 생각하며 곧 공격하려 했다. 법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내 평생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싸울 수 없읍니다. 당신께서 공격만 하십시오. 난 결코 반격하지 않겠읍니다.]

[어찌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가?]

[당신은 내가 군영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몰래 왕기를 훔쳤으니 이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이오? 당신은 나와는 적수가 못 됨을 알고는 내가 자리를 뜨는 것을 엿보다 몰래 가서 손을 소. 하하 주백통, 당신은 너무 염치가 없어요.]

[좋소. 내가 당신의 적수가 될지 안 될지는 싸워 보면 알게 되겠지요.]

법왕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읍니까? 당신이 강요해도 나는 싸우지 않겠읍니다. 내 주먹은 기개가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맞으면 주먹에서 냄새가 나지요. 삼년 육개월 간이나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듣자듣자 하니까 뭐라고?]

[왕기를 나에게 되돌려 주시오. 내가 군영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오늘밤에 다시 와서 훔쳐 보시오. 빼앗건 훔치건 간에 어쨌든 손에 넣기만 하면 난 당신이 위대한 영웅 호걸이라고 믿겠소.]

주백통은 남이 자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해내려고 하는 성미인지라 즉시 왕기를 뽑아서 그에게 내던지며 소리쳤다.

[받으시오, 오늘밤 내가 훔칠 것이니까.]

법왕은 손을 뻗어 깃대를 손에 쥐고서야 비로소 그가 내던지는 힘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는 급히 내경(內勁)을 운행했으나 두 걸음 물러서며 나무를 잡고서야 멈추어 설 수 있었다.

4마리의 낙타는 본래 앞으로 나가려고 힘을 쓰다가 법왕의 장력에 눌려 멈추어 서 있었는데 이때 그의 장력이 느슨해지자 갑자기 동시에 펄쩍 뛰어 2장 정도 오르며 앞으로 급히 달려나갔다. 사람들은 주백통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4마리의 낙타는 뛰면 뛸수록 멀어져서 점점 4개의 조그만 점으로 변하고 말았다.

법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왕기를 살다에게 건네 주었다.

[가자!]

법왕은 속으로 이 노완동의 행동이 신출귀몰해 예측하기도 힘드니, 도대체 어떤 계략을 써야 그를 이길 수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말 위에서 정신을 집중해 골똘히 생각했지만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연히 머리를 돌려 보니 조지경과 윤지평이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이 보였다. 소용녀를 바라보고는 감히 오랫동안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에 크게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이 계집애가 이 두 도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

곧 시험삼아 물었다.

[윤도형, 당신과 용소저는 원래 아시는 사이요?]

윤지평은 돌연 안색이 변했다.

[예!]

법왕은 필경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 믿고는 계속 물었다.

[당신들이 그녀에게 죄를 지었는데 재수없게도 그녀가 당신들을 찾아왔지요, 그렇죠? 이 아가씨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오. 당신들이 그녀와 상대하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을 것이오.]

그는 윤지평과 소용녀 사이의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나 다만 두 도사의 안색에 놀란 기색이 있음을 보고 계속 물어 보았던 것이다. 조지경은 이 기회를 틈타서 말했다.

[그녀는 대사께도 죄를 지었소이다. 그날 영웅대회에서 대사께서는 그녀의 제자인 양과에게 패했으니 이 원수를 안 갚을 수 없지요.]

법왕은 <흥!> 하며 코웃음을 쳤다.

[당신도 알고 있었소?]

[이 일은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니 무림 호걸이라면 그 누군들 듣지 못했겠소!]

(이 도사가 실로 간특하구나. 내 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였더니 그는 오히려 나를 자극시켜 내 손을 빌어 자신들의 곤경을 벗어나려 하는구나. 이 두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 그들에게 솔직히 설명하면 일이 도리어 쉬워지겠군.)

[이 용소저가 당신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데 당신들이 적수가 되지 못하니까 나더러 보호해 달라는 것 아니오?]

윤지평이 화를 냈다.

[이 윤지평이 죽으면 죽었지 어찌 다른 사람에게 몸을 감싸 주도록 의지한단 말씀이오? 더군다나 대사께서 반드시 그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소?]

법왕은 그가 위엄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알고는 놀라서 당황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
일시에 두 사람의 마음속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법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와 양과의 쌍검이 합쳐지는 데에서 바로 그 무서운 위력이 생기는 것이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홀몸으로 동떨어져 있으니 내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지요.]

조지경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군요. 강호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승관 영웅대회에서 금륜법왕이 소용녀의 제자에게 졌다고 합디다.]
[이 늙은 중은 수십 년간 수양을 했으니 당신이 말로써 나를 자극시켜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소.]

그는 조지경의 말투를 듣고는 그가 정말로 자신과 소용녀의 싸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백통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그는 본래 소용녀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때 이미 주백통과 깃발을 훔치는 문제에 대해 약속을 하였는지라 윤과 조, 두 사람의 힘이 크게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만약 소용녀를 죽이면 두 도사를 협박할 수 없게

되는지라, 그는 즉시 여유 있는 태도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이 늙은 중은 한걸음 먼저 가겠소이다.두 분께서는 용소저의 일을 마무리짓고 왕자의 대영으로 찾아와 주시오.]

하며 고삐를 당겨 급히 앞으로 나아갔다.

조지경은 만약 그가 가 버리면 소용녀가 앞으로 쫓아와 자신과 사제에게 어떤 고형(苦刑)과 해악을 가할지 몰라 매우 급한 심정이 되었다. 그때 종남산에서 옥봉침에 온몸이 쏘였던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졌다. 보아하니 이 서장 승려의 무공이 매우 높을 뿐더러 지혜와 계략이 자신이 미치지 못할 정도임을 알고는 그가 자신을 지나쳐서 앞으로 나아가자 즉시 말을 몰아 쫓아가며 외쳤다.

[대사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저는 길에 익숙하지 못하니 번거롭겠지만 길을 일러 주시면 그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법왕은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아마 이 조씨놈이 용소저에게 죄를 지어 이렇게 겁내는 모양이군. 저 윤가놈은 관련이 없는 모양이지.)

[좋지요, 언젠가는 이 늙은 중도 당신을 번거롭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지경이 서둘러 말했다.

[대사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든간에 소인은 그 명에 따르겠읍니다]

법왕과 그는 말을 나란히 하고 가면서, 법왕이 묻는 전진교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윤지평은 흐리멍텅하게 뒤에서 따라오면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았다.

[원래 마도장께서는 연로하여 조용히 물러나서는 교무에는 간섭하지 않으시며, 현임 장교인 구도장 또한 연세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구사백께서도 이미 칠십여 세가 되셨지요.]

[그렇다면 구도장께서 장교의 직책을 물러나시게 되면 마땅히 존사이신 왕도장께서 이어받으시겠군.]

이 한마디가 조지경의 심사를 건드리게 되자 그는 안색을 약간 바꾸었다.

[사부님께서도 이미 연로하셨읍니다. 전진육자(全眞六子)는 근년에 생명지학(生命之學)을 연마하고 계시니 장교(掌教)와 같이 속된 일은 아마도 저 윤사제에게 넘겨질 것 같습니다.]

법왕은 그의 얼굴에 약간 성난 모습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낮게 속삭였다.

[내가 보건대 윤도형 무공이 비록 강하기는 하지만 아직 도형에게는 미치지 못하며 그 세심한 재능에 있어서는 도형에게 한참 못미칩니다. 장교의 대임은 마땅히 도형께서 이어야 옳을 것 같소]

이 몇 마디 말은 조지경이 심중에 이미 7,8년간이나 품고 있었던

것이나 여태껏 입에 올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법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자신도 모르게 원한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었다. 전진육자는 윤지평으로 하여금 삼대 제자의 우두머리라는 직책을 맡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그가 장교의 대임을 계승하도록 확실하게 정해 놓은 것이었다. 처음에 조지경은 마음속으로 불복하고 몰래 시기할 따름이었으나 자신이 윤지평의 약점을 알게 되자 오랫동안 품어 왔던 뜻을 펴서 어떻게 그의 직위를 빼앗을까하고 궁리하게 되었다. 윤지평이 소용녀를 욕보인 것은 실로 전진교의 대계율을 범한 것이니, 만약 사존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러나 조지경은 자신의 성질이 거칠고 조급하여 평소 전진육자가 그를 좋아하지 않으며 사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설혹 윤지평이 못된 짓을 저질러 그 명예가 손상된다고 해도 이 장교의 직위는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여태껏 인내해 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법왕은 그의 얼굴빛을 보고는 제대로 그 심사를 맞추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그를 도와 장교를 차지하게 되면 그는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 줄 것이다. 전진교의 세력이 방대하니 그 신도들이 구름처럼 많아서, 만약 그 교의 도움을 얻을 수만 있으면 왕자님의 남쪽 정벌에 크게 유리하니, 이는 실로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다만 이 일이 곽정을 죽이는 일보다 더 큰공이 되지 못할까 두렵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몰래 계획을 세우느라 조지경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정오경에 일행은 쿠빌라이의 대영에 도착했다. 법왕은 고개를 돌려 소용녀가 당나귀를 타고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밖에 있으니, 이 두 도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사람들이 왕자의 장막 속으로 들어섰을 때, 쿠빌라이는 깃발을 잃어버린 일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왕기는 3군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전쟁을 할 때 천군만마는 모두가 이 왕기를 따라서 전진과 후퇴를 하니, 군에서는 실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도둑을 맞았으니 이는 큰 패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법왕이 왕기를 가져온 것을 보고는 몹시 기뻐하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쿠빌라이는 그의 조상인 징기스칸을 닮아서 그 재능과 계략이 뛰어난지라 법왕이 윤과 조를 전진교의 훌륭한 도사라고 소개하자 즉시 맞아들이면서 인재를 아끼는 태도를 보였다. 왕기를 잃어버린 것과 되찾은 일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주연을 베풀어 두 사람을 환영하도록 지시했다. 윤지평은 심신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소용녀를 생각했다. 그러나 조지경은 명예와 직위를 매우 중요시하는지라, 이 몽고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고는 기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쿠빌라이는 법왕 일행이 곽정을 살해하지 못한 일은 입에 담지도 않고 다만, 니마성이 임무에 충실하다가 두 다리를 불구로 만든 일을 추켜세우면서 그를 주연의 상석에 앉히고는 연이어 그와 술잔을 들었다. 니마성은 그의 대접에 크게 감격해 하며 만약 그가 다시 어떤 일이건 시키기만 하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쿠빌라이에게 감복했다.

주연이 끝난 후에 법왕은 윤과 조를 데리고 옆의 장막으로 가서 쉬었다. 윤지평은 심신이 피곤하여 곧 잠에 빠져 들어갔다.

[조형, 좌우에 아무 일도 없으니 우리 같이 나가 봅시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장막을 나섰다.

조지경은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소용녀가 앉아 있고, 당나

위가 나무에 매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법왕은 못 본 체하면서 다시 전진교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다.

북송의 도교는 본래 정을(正乙) 일파만으로, 산서(山西)의 용호산(龍虎山) 장천사(張川師)가 통솔했다. 금나라가 중국에 침입하자 송나라 왕실은 남하했고, 하북(河北)의 도교는 새로 3파가 생겨났으니 바로 전진.대도(大道).태을(太乙)의 3교로서 그 중에 전진이 가장 융성했다. 그 교의 도사들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였다. 이때 북방은 이민족의 손에 떨어져 백성들의 고통은 실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조정의 회복은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고, 백성들은 왕왕 전진교를 구원의 신으로 간주하곤 했다. 당시 대하 이북 지역에서는 전진교와 개방의 세력이 어떤 때는 관(官)의 세력을 능가했다. 조지경은 법왕이 자신을 아주 친밀하게 대해 주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전진의 세력 분패라든지 여러 중진의 소재지를 묻는 대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아무도 없는 곳까지 이르렀다. 법왕이 한숨을 쉬었다.

[조도장, 귀교가 금일의 규모를 갖춘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오. 이 늙은 중이 무례한 말이지만 한마디 해야겠소. 마.구.왕.유 등 여러 도장들의 견식이 너무나 좁은 것 같소. 어떻게 장교의 대임을 윤도형에게 넘겨 준단 말이오?]

조지경은 요 며칠간 줄곧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윤지평이 장교의 직위를 계승한 후에 전진육자가 세상을 뜨게 되면 그를 협박해 장교의 자리를 자신에게 넘기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질이 조급해,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막연하기만 한 게,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몇 년 후가 될지 몰라 답답했다. 법왕의 말을 듣게 되자

한숨을 내쉬면서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저 용소저의 일은 사소한 것이니 내가 결말을 낼 수 있소이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장교의 대직위는 무능한 사람의 수중에 넘겨 줄 수 없으니 그것이 급선무요.]

조지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사께서 만약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소도(小道)는 평생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법왕은 두 눈썹을 치켜올리며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자는 한번 말을 하면 후회해서는 안 되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좋소. 내 당신을 반 년 내에 전진교의 장교가 되게 해 드리지.]

조지경은 크게 기뻐했으나 그 일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다.

[믿지 못하겠소?]

[아니, 믿습니다. 대사의 묘법이 신통하니 반드시 좋은 계책이 있을 것이오.]

[귀교와 나와는 평소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본래는 누가 장교가 되든지 마찬가지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이 늙은 중은 도장과 오랜 사이처럼 느껴져서 저절로 도와 주고 싶구료.]

조지경은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진교 안에서 당신의 강한 후원자를

얻는 일이오.귀교의 아랫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것은 바로 오는 도중에서 우연히 만난 주사숙조입니다]
[좋아요. 만약 그가 전력으로 당신을 도와 주면 윤도장은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하오.]

조지경은 매우 기뻐했다.

[맞습니다. 마사백과 구사백, 그리고 나의 사부께서도 모두 그를
사숙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의 비중은 매우 크지요. 그렇지만
대사께서 어떤 묘책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능히 나를 돕게 할지
모르겠군요.]
[오늘 내가 그와 내기를 해서 그 사람더러 다시 와서 왕기를 훔치
도록 했지요. 당신 생각엔 그가 다시 올 것 같소, 안 올 것 같소?]
[당연히 오겠지요.]
[이 왕기는 오늘 저녁 깃대에 매달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몰래 감출 것이오. 몽고의 대영에는 장막이 수만 개나 되니, 주
백통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찾아내
지는 못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내기는 무공으로써 이기는 게 아닌데......)

[당신이 이번 내기가 무공으로써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오.]
조지경은 멍하니 그를 바라다보면서 그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법왕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내가 그 왕기를 감춘 장소를 당신에게 알려줄 테니, 당신은 몰래 가서 주백통에게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왕기를 찾아내게 하면 이 어찌 묘책이 아니겠소?]

조지경은 크게 기뻐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렇게 하면 능히 주사숙조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고쳐 생각했다.

[그렇지만 대사께서 내기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피끓는 사나이들이 친구를 맺었으면 전심으로 사람 노릇을 해야지, 일신의 승부와 영욕을 어찌 구할 수 있겠소?]

조지경은 말할 수 없이 감격했다.

[대사의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법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우선 전진교 가운데 주백통의 후원을 얻게 되면 내가 다시 당신을 도와서 계획을 꾸미겠으니 그때에 가서는 장교의 자리를 거절하면 안 되오.]

하고 말하며 법왕은 왼쪽을 가리켰다.
[우리 저쪽 산 위에 가서 찾아봅시다.]

군영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몇 개의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순식간에 그 산 앞에 이르렀다.

[우리 동굴을 찾아서 그 안에다 왕기를 감추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2 개의 벌거숭이 산에는 동굴이 없어서 두 사람은 연달아 2 개의 산꼭대기를 지나 세번째 산에 이르렀다. 이 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동굴도 연달아 있었다.

[이 산이 가장 좋겠군.]

바라보니, 두 그루의 느릅나무 사이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그 동굴의 입구는 잘 가려져 있어 한번 보고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곳을 잘 기억해 두시오. 잠시 후 내가 동굴 속에다 왕기를 숨길 테니, 저녁이 주백통이 도착하면 당신은 곧 그를 이끌고 이리로 오시오.]

조지경은 공손히 대답하며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느릅나무를 자세히 몇 번 쳐다보고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끔 기억에 새겼다. 두사람은 군영으로 돌아오면서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지경은 가만 있지를 못하고 윤지평에게 말을 건넸다. 윤지평은 얼빠진 눈을 하고는 간혹 몇 마디 대꾸를 하였는데 물어 본 말과는 전혀 상관 없는 대답이었다. 하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군영에서 초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조지경은 몰래 군영을 빠져나갔다. 모래 언덕 옆에 앉아서 기마 호위병들이 순시하

면서 삼엄하게 방비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형세라면 군영 내로 침입해 온다 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들 텐데, 주사숙조께서는 버젓이 자유로이 내왕하며 왕기를 훔쳐 냈으니 그 높은 재능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구나)

머리 위를 쳐다보니 짙은 남색의 하늘이 마치 몽고인들의 장막처럼 망망한 평야를 덮고 있고, 뭇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중에서 북두칠성은 더욱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법왕이 말한 대로 세 달 후에 내가 장교를 맡게 되면 그때는 나의 명성이 온세상에 퍼져서 천하의 삼천 개 도관과 팔만 명의 제자들이 모두 나의 호령을 듣게 될 테니, 그 어린 양과놈의 생명을 뺏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눈을 가다듬어 먼 곳을 보니 소용녀가 여전히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 용소저가 저렇게 예쁘니 윤지평이 그녀에게 이렇게 빠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그러나 영웅 호걸로 큰 소임을 맡고자 하는 자가 어찌 계집에게 미혹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득의만만해 하는 순간에 돌연 시꺼먼 그림자가 질풍같이 달려와 군영의 장막 사이를 번쩍이며 돌연 왕기를 매다는 깃대 아래에 이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바로 헐렁한 옷을 입고 흰 머리를 날리는 주백통이었다.

거미줄 속에서

주백통이 고개를 들어 보니 장대 끝에는 깃발이 없었다. 그는 금륜법왕이 틀림없이 사방에 고수들을 매복시켜 놓았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긴장시켰다. 왕기가 올려지지 않았으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백통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수천 수만의 장막들이 첩첩이 붙어 있는데 어디서 왕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조지경이 앞으로 나서서 부르려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지금 그에게 알려준다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찾다 찾다 못 찾아 낭패해 있을 때 왕기의 소재를 알려주는 것이 환심을 사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조지경은 장막 뒤로 몸을 숨기고 주백통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주백통은 몸을 날려 장대에 오르고 있었다. 한손을 장대에 지탱하며 몇 척을 올라갔다. 이윽고 두 손을 번갈아 지탱해 가며 눈 깜짝할 사이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조지경은 탄복을 금치 못했다.

(주사숙조는 아직 백 살은 안 됐지만 구십 세가 넘은 몸이다. 아무리 수도하는 몸이라지만 근골이 쇠약해지고 행동이 느려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저분의 몸놀림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렵하다. 정말 대단하시 분이다.)

주백통은 장대 끝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깃발들이 수천 개나 나부끼고 있었지만 왕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러 댔다.

[금륜법왕, 왕기를 어디다 숨겨 놓았느냐?]

고함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 왼편의 산 속에서 은은히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법왕은 이 일을 쿠빌라이에게 보고하여 전군에게 알렸다. 그래서 군졸들은 그의 고함소리를 듣고도 묵묵히 있었다. 주백통이 또 소리쳤다.

[법왕, 대답을 안 하면 욕을 한 테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주백통이 욕을 해 대기 시작했다.

[개자식 같은 말라깽이 중놈아! 네놈이 무슨 영웅 호걸이냐?]

돌연 동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노완동, 왕기가 여기 있다. 재주가 있으면 가져가라.]

주백통이 급히 내려와 달려가며 물었다.

[어디냐?]

그 사람은 한번 소리를 지른 후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주백통은 무수히 많은 장막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이번에는 멀리 서쪽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왕기가 여기 있다!]

주백통이 바람같이 달려갔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주백통이 반쯤 달려갔을 때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더니 끝내는 끊어져 버려 그 소리가 어느 장막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주백통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법왕놈아, 나와 숨바꼭질하자는 게냐? 몽고병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아야 상판을 보일 작정이냐?]

조지경이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불을 지른다면 좋지 않겠는데......)
급히 달려나와 속삭였다.

[주사숙조,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음, 바로 너로구나! 왜 안 된다는 게지?]
[그들은 당신이 불을 지르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안에는 폭약이 가득 차 있어 일단 불이 붙으면 꽈꽝, 하고 터져 뼈도 못추리게 될 것입니다.]

주백통이 펄쩍 뛰며 욕을 해 댔다. 조지경은 그가 자기의 말을 믿자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는 그들의 간계를 알고 사숙조께서 눈치채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여기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 고맙구나. 만약 너가 말해 주지 않았다면 이 노완동이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조지경이 소곤거렸다.

[제자는 모험을 무릅쓰고 왕기가 있는 곳을 알아냈읍니다. 사숙조께서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만약 내가 찾지 못한다면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왕기를 훔치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신나는 유희였다. 조지경의 안내로 성공을 한다면 이미 재미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이런 도박에는 정정당당해야지,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조지경은 난국에 부딪치자 초조해졌다.

(그의 별호인 노완동(老頑童)답게 기질이 과연 남들과 다르구나. 그를 유인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사숙조,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왕기를 훔치러 가야겠어요. 누가 먼저 성공하나 봅시다.]

말하면서 경공을 펼쳐 왼쪽편 산 속으로 내달았다. 몇 장을 달리다 뒤돌아보니 주백통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세번째 산어귀로 들어서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두 그루의 느릅나무 중간에 있는 동굴 안에 숨겨 놓는다고 했는데, 느릅나무가 어디 있지?]

일부러 이리저리 들러보며 법왕이 말한 동굴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갑자기 주백통의 환호성이 들렸다.

[내가 먼저 찾았다!]

얼른 느릅나무 사이로 들어갔다. 조지경이 웃음 띄며 생각했다.

(그가 왕기를 훔친다면 내가 알려준 공이 상당한 것이다. 게다가 불을 지르지 못하게 했으니 그는 정말로 생명을 건져 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왕이 짜냈던 계획보다 훨씬 얻는 게 많게 되는 셈이다.)

조지경은 득의양양하여 동굴 쪽으로 갔다. 돌연 주백통의 참담한 비명소리에 이어 고함소리가 들렸다.

[독사, 독사다!]

조지경이 깜짝 놀라 동굴 입구에 들여놓은 오른발을 얼른 빼면서

물었다.

[사숙조! 독사라뇨?]
[독사는 아니고......]

주백통의 목소리가 상당히 약해졌다. 조지경은 의외라는 듯 얼른 땅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붙여 동굴 안을 비춰 보았다. 주백통이 땅바닥에 누워 왼손으로 깃발을 잡고 있었는데 무슨 괴물을 막기라도 하는 양 계속 흔들어 대고 있었다. 조지경이 급히 물었다.

[사숙조, 왜 그래요?]
[독충에게......, 독충에게......, 물렸어......]

주백통은 왼손을 점점 떨구며 힘없이 깃발을 흔들었다.
조지경이 보아하니 그가 동굴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했다. 그의 무공이라면 급소를 맞았다 해도 얼마간은 버티어 낼 텐데 어떤 독충이길래 이리도 지독할까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주백통이 손에 쥐고 있는 깃발은 왕기가 아닌 단지 일반적인 군기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법왕은 내가 주사숙을 동굴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동굴 안의 독충으로 그를 처치하려고 했구나.)
이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급해졌다. 주백통의 사활이나 주백통의 상세, 또 어떤 독충인가 따위는 알 바가 아니었다. 조지경은 횃불을 던져 버리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횃불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연 중간에서 멈추었다. 누군가가 받아 쥔 것이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존장(尊長)께서도 그냥 못 본 체합니까?]

목소리가 또렷한 것이 옥구슬 같았다. 흰 옷이 펄럭이며 소용녀가 나타났다. 횃불에 비춰진 그녀의 얼굴이 화사하게 빛났으나 아무런 감정도 나타나 있지는 않았다. 조지경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며 혀가 굳어 버렸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뒤에 바짝 다가온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실 소용녀는 멀리서 조지경의 일거 일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가 주백통을 유인해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용녀도 그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주백통은 알고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고, 조지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소용녀는 바로 횃불을 들어 주백통의 몸을 비춰 보았다. 그의 얼굴에 녹색 기운이 약간 감돌았다. 그녀는 품에서 금사 장갑은 꺼내서 끼고 그의 팔을 들어 살펴보았다. 술잔 크기만한 거미 3 마리가 주백통의 왼쪽 손가락 3 개를 나란히 물고 있었다.

거미의 모양은 매우 괴이했다. 전신에 붉고 선명하게 쳐진 푸른 줄무늬가 섬뜩했다. 독충의 색깔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독성은 더욱 지독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들어 독충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오른손을 휘둘러 옥봉침 3 개를 격출하여 거미 3 마리를 죽여 버렸다.

이 거미는 채설주(彩雪蛛)라 불리는 것으로, 원산지는 티벳의 설산(雪山) 꼭대기이며 천하삼절독(天下三絶毒)의 하나였다. 금륜법왕은 독을 사용하는 중원의 명가와 겨루기 위해 그것을 갖고 왔었다. 양양성에서 곽정을 공격할 때는 독을 사용하리라 생각지 않아서 채설주를 휴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막수의 빙백은침에 맞아 병영에 돌아온 후, 화가 치밀어 채설주를 숨겨 놓은 금합을 꺼내 몸에 지니고 다녔었다. 다시 이막수를 만나게 되면 티벳의 독극물 맛을 보여줄 심산이었다.

일이 공교롭게도 주백통과 내기를 하게 되었고, 또 장교를 꿈꾸는 조지경을 만나게 되어 동굴 속에다 깃발을 감추고 깃발 안에 3마리의 독거미를 숨겨 놓은 것이었다. 이 독거미는 피를 지닌 동물만 보면 즉시 달려들어 피를 흠뻑 빨아먹지 않고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독종이었다. 또한 독성이 지독해 치료할 약이 없었다. 법왕 자신도 치료할 수가 없어 좀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소용녀의 옥봉침 끝에는 극독이 묻어 있었다. 독성이 비록 채설주처럼 극독스럽지는 않았지만 지독한 것이었다. 주백통의 몸에 침이 박히자 채설주의 몸에도 자연스럽게 항독소(抗毒素)가 생겨났다. 독거미가 여러 극독충(劇毒蟲)들을 잡아먹는 것은 이러한 항독체액이 있기 때문이었다. 독거미의 항독 체액이 입으로 분출되어 주백통의 혈관 속으로 주입되었다. 몇 번 뿜어 내더니 독거미는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해독할 수 없는 극독이 풀려질 수 있게 되었다.

소용녀는 거미 3마리가 털을 꼿꼿이 세우고 죽어 나자빠진 것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다. 주백통은 시체처럼 뻣뻣해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백통에 대해 실은 감격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양과를 절정곡으로 유인하지 않았다면 그때 자신은 공손지와 결혼을 하였을 것이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전신에 식은 땀이 흐르며 간담이 서늘해졌다. 뜻하지 않게 그가 여기서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아파 왔다. 그순간 주백통의 왼손이 몇 차례 움직이며 신음 소리를 냈다.

[뭐가 나를 물었길래 이......., 이처럼 지독하지?]

그는 몸을 약간 일으키더니 다시 넘어졌다.

소용녀는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고 기뻤다. 횃불을 들어 주위에 거미가 또 있는 살피더니 안심을 하며 말했다.

[죽지 않았군요?]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반은 죽었었지...... 하하하......!]

그는 크게 소리내어 웃고 싶었지만 손발이 뒤틀려 웃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동굴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음성이 강맹스럽게 귓전에 울렸다. 이어 말소리가 들렸다.

[노완동! 왕기를 훔쳤느냐? 오늘의 도박은 네가 이겼느냐, 아니면 내가 이겼느냐?]

말투가 바로 금륜법왕이었다. 소용녀는 왼손으로 횃불을 분질러 즉시 꺼 버렸다. 그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주백통이 살며시 말했다.

[이번 내기는 이 노완동이 졌다. 생명까지도 네게 뺏기는 것이 아깝구나. 이 말라깽이 중놈아! 무슨 독거미길래 이토록 지독하단 말이냐?]

노완동의 말투는 힘이 없었다. 그러나 법왕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그것을 삼켜 버릴 수는 없었다. 법왕은 깜짝 놀랐다.
(독거미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까지 할 정도의 내공이니 과연 내가 미치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다행히 내 계책에 당하여 강적 한 명을 처치하게 되었구나. 그가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얼마 넘기지 못할 것이다.)
주백통이 또 말했다.

[조지경 소도사, 네놈이 나를 속였다.너는 어찌하여 저들 편에 서
게 된 것이냐? 어서 구처기에게 죽여 달라고 하는 게 좋겠구나.]

조지경은 동굴 밖에서 서 있다가 법왕의 몸 뒤로 숨었다. 그는 모골이 송연해져 생각했다.
(이 일을 어찌 구사백에게 말한단 말인가?)
법왕이 웃으며 말했다.

[이 조도사는 참 좋은 사람이지. 우리들의 왕이 칸이 되면 그를
전진교의 장교진인으로 봉할 작정이다.]

(이 조도사는 주백통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어 이후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지.)
주백통은 대로하여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그의 체내의 독성은 이미 거의 사라졌지만 채설주의 극독은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명을 죽일 수 있었다. 주백통은 진기가 빠지며 또 기절해 버렸다. 소용녀가 말했다.

[금륜법왕, 당신은 정당하게 겨루지 않고 이런 독충으로 사람을
해치면서 어찌 일파의 종주라 할 수 있어요? 어서 그 사람을
구해 주어요!]

법왕은 주백통이 기절하는 것을 보고 그가 독이 퍼져 죽은 줄로 알고 득의 양양했다. 속으로, 이 조그만 계집애가 어찌 자신을 당해낼까 싶었다. 그는 조지경이 일전에 그녀에게 패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고는 그녀를 직접 붙잡아 위풍을 세우려고 했다. 곧바로 동굴로 달려가 좌장을 들고 오른손을 뻗어 소용녀를 잡으며 말했다.

[해독약이다. 가져가 봐라!]

소용녀가 오른손을 휘두르자 땡그랑, 소리를 내며 금방울이 그의 기문혈(期門穴)을 향해 날아갔다. 법왕이 생각했다.
(오늘 내가 그녀를 붙잡지 못한다면 조도사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지.)
금방울을 잽싸게 피하며 품안에서 쌍륜을 꺼내 막아냈다. 땡, 하는 소리가 고막을 쳤다. 소용녀의 일점이 부드럽게 휘돌아 갑자기 등뒤의 대추혈(大椎穴)을 찍었다. 법왕은 펄쩍 뛰어오르며 칭찬했다.

[이러한 무공이면 계집애 중에선 보기 힘들지!]

두 사람은 순식간에 10여초를 겨루었다. 법왕이 만약 공력을 다 사용한다면 소용녀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 동굴에 들어갔다가 발밑의 빙백은침에 찔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었다. 소용녀의 무공은 이막수와 같은 종류지만 초식의 오묘함은 이막수의 위에 있었다. 게다가 동굴 안에는 독거미가 있어 만약 물리게 되며 즉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초조했지만 강공을 마구 떨치지는 못했다. 어둠 속에서 쌍륜과 금방울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무슨 악기를 치는 것 같았다.
조지경은 멀찌막이 서서 두 사람의 병기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쾅쾅 뛰었다. 생각해 보면 주사숙조를 비록 자신이 가해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존역장(弑尊逆長)의 일은 무림의 어느 문파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법왕이 소용녀를 처치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소용녀가 이겨 도망을 쳐서 소문이 퍼져 나가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는 칼자루를 잡고서 한발 한발 물러났다. 몸이 계속 떨려 왔다. 쌍륜과 금

방울의 소리가 점점 세게 들려오자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땀이 흥건히 나 도포자락을 적셨다.

법왕의 무공은 소용녀보다 뛰어났지만 쌍륜이 짧고 끈은 길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승리하기가 힘들었다. 순식간에 6,70 초를 겨루었지만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했다. 소용녀는 주백통이 땅에 누워 반은 죽은 듯이 꼼짝도 안 하자 구하기 위해 손을 쓰고 싶었지만 손을 쓸 틈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싸우는 일은 법왕보다 소용녀가 익숙해 유리한 점이 있었다. 법왕이 쌍륜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휘두르자 오른편에 틈이 생겼다. 소용녀는 즉시 금령연삭(金鈴軟索)을 회전시켜 오른쪽 옆구리를 찍으며 동시에 왼손으로 10 여 개의 옥봉침을 상중하 세 방향으로 격출했다.

거리도 가까왔으며 또한 옥봉침이 격출될 때는 무성무취(無聲無臭)여서 법왕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1 척 가까이 날아왔다. 얼른 몸을 위로 솟구치자 옥봉침은 그의 발밑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는 공중에서 은.연 쌍륜을 휘둘러 금령연삭과 함께 말아 공중으로 내던졌다. 위잉, 소리와 딸랑, 소리가 10 여 장 공중에서 들려왔다. 별 빛 아래 한 무리의 은빛과 회색빛이 긴 끈과 어우러져 위로 올라갔다.

소용녀는 그가 땅에 내려서기 전에 또 옥봉침을 발사했다. 법왕의 몸은 공중에 있는 상태라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해도 피하기가 어려웠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태가 매우 급박했다.

그러나 법왕은 뛰어오르면서 상대가 이어서 공격하리라 예상했다. 두 손으로 앞가슴의 동정을 잡아당겼다. 찌익, 하고 장포 자락이 둘로 찢어졌다. 마침 옥봉침이 이때 발사되어 그가 찢어진 옷을 흔들자 수십 개의 침들이 옷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껄껄 웃으며 땅에 내려서 옷을 버리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쌍륜을 받아냈다.

그는 땅에 내려서자 바로 동굴 입구로 달려가며 말했다.

[용소저, 아직도 항복 안 할 테냐?]

그는 소용녀가 동굴 안에 무슨 함정을 파 놓았을까 두려워 감히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소용녀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이미 병기를 잃어버리고 옥봉침도 거의 다 사용해 겨우 한 번 던질 정도만 남았다. 그녀는 동굴 입구 옆에 가만히 숨어 있었다.

법왕은 잠시 기다려도 아무런 동정이 없자 쌍륜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찢긴 옷을 들었다. 돌연 쌍륜을 휘익, 동굴 안으로 뿌리며 몸을 날려 두 발을 쌍륜 위에 실었다. 그는 땅에 꽂아 놓았을지도 모르는 독침에 방비하며 찢긴 옷을 휘둘러 자신의 몸을 보호했다. 그의 찢긴 옷에는 수십 개의 옥봉침이 꽂혀 있어 이미 상당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낭아봉(狼牙捧)이 있다 하던데...... 용소저, 나의 낭아포(狼牙布)의 매서운 맛을 보여 줄 테다.]

말을 마치더니 돌연 손에 힘을 가해 반 토막 난 장포 자락으로 소용녀를 덮쳤다. 그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있어서 낭아포는 물론 진짜 낭아봉이라 해도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

법왕은 뜻밖의 사태에 급히 물러났다.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소용녀의 금침이 격출되었다. 법왕은 땅에 누워 있는 주백통을 얼른 잡아 일으켜 세워 몸 앞을 막았다.이어 도채칠성보(倒채七星步)일초를 사용해 황급히 굴 밖으로 나갔다. 그는 너무 놀라 손에 식은 땀이 흥건한 채 굴 밖 멀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그 20여 개의 옥봉침은 이미 주백통의 몸에 박혔다. 그는 죽어서도 시신에 고통을 받는구나 생각하며 소용녀는 탄식했다. 뜻밖에도 주백통의 말소리가 들렸다.

[아이구 따가와라. 뭐가 또 물지?]

소용녀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주백통, 아직 안 죽었군요?]

그녀는 예절을 알지 못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름을 불러 댔다. 주백통이 말했다.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또 살아났어. 도대체 죽는 건지 살아나는 건지 모르겠어.]
[죽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 못된 법왕놈을 당해 낼 수가 없어요.]

소용녀는 말하면서 흡철석(吸鐵石)을 꺼내어 그의 몸에 박힌 옥봉침을 하나하나 뽑아 냈다. 주백통이 욕을 해 댔다.

[그놈의 법왕은 정말 도리도 모르는 녀석이군. 내가 죽어서 아직 귀신도 안 되었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침으로 나를 괴롭히다니.]

소용녀가 침을 뽑아 내는 동안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욕을 했다.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주백통, 이 침들은 내가 발사한 것이에요.]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을 간략히 말해 주고 나서 또 물었다.

[이 옥봉침에는 벌의 독이 있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요?]
[아주 편해. 몇 개 더 놓아 줘!]

소용녀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품에서 조그마한 옥병을 꺼내며 말했다.

[이 옥봉꿀이 금침의 독을 풀어 줄 거예요. 한 방울만 먹으면 돼요.]
[아냐, 아냐! 이 침이 몸에 꽂히자 몸이 아주 편해졌어. 아마 그 독거미와 상극이 아닐까 싶군!]

소용녀는 노완동이 또 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한사코 먹으려 하지 않자 억지로 권할 수도 없었다. 소용녀는 다만 이 노인네의 내공이 워낙 심후해 독거미조차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옥봉침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했다.사실 꿀벌의 침독은 비록 독성이 대단했지만 또한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관절염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소용녀와 주백통은 모두 의학에 밝지 못하여 옥봉침이 이독제독(以毒制毒)으로 채설주의 독성을 적지않게 풀어 줄 것을 몰랐다.
법왕은 동굴 밖에서 주백통이 기운을 차려 평시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가 기운을 더 차리기 전에 살수를 펴 그를 처치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법왕은 이번에는 소용녀에게서 뺏은 금령연삭을 휘두르며 말했다.

[용소저, 당신의 병기를 좀 빌려 쓰겠소이다.]

하며 힘껏 흔들어 동굴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무공이 워낙 뛰어나 어떤 병기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비록 소용녀의 금령연삭이 괴이하기 했어도 채찍이라 생각하고 사용해 보니 그 위력이 대

단했다. 또한 멀찍이 떨어져서 공격하니 상대방의 금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소용녀도 동심이 일어 그가 떨구었던 은.연 쌍륜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땡, 하고 소리를 냈다. 소용녀가 말했다.

[좋다. 우리 서로 병기를 한번 바꿔 겨루어 볼까!]

오른손을 곧장 뻗는 순간 팔뚝이 시려 와 끝까지 뻗을 수 없었다. 이 연륜은 크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상당해 소용녀에게는 무리였다. 그녀는 즉시 쌍륜을 회수해 그것으로 가슴을 보호했다.

법왕은 이때다 싶어 얼른 팔을 뻗어 쌍륜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왼손의 은륜을 내던졌다. 그녀가 은륜을 던진 것은 단지 허초일 뿐, 동시에 10 여 개의 옥봉침을 발사했다. 이 옥봉침들은 모두 주백통의 몸에서 뽑아 낸 것으로서 이미 독성이 거의 없어져 맞아도 별반 해가 없는 것이었다. 법왕은 이미 방비하고 있었는 듯 은륜을 받지 않고 즉시 옆으로 물러나리, 옥봉침은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주백통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좋다, 계속 침을 발사해 맞춰라. 잠시 후, 내가 원기를 회복하면 그놈을 잡아 볼기를 쳐야겠다.]

[네? 내 옥봉침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사용해 버렸는데요.]

주백통이 당황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것 참 큰일인데!]

이들 두 사람은 모두 특별한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 금륜법왕은 지모가 뛰어났지만 주백통과 소용녀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 세상에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폭로하는 자가 어디 있으랴 싶었

다.

(옥봉침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분명히 나를 유인하려는 꿍꿍이속이 있음에 틀림없다.)

소용녀가 솔직하게 말한 것이 오히려 법왕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게 한 셈이 되었다. 게다가 그는 일전에 동굴 안에서 양과의 꾀에 넘어간 적이 있었다. 또한 니마성이 두 발을 자르게 된 참상을 생각해 내자 상당히 신중해졌다.

조금씩 날이 밝아졌다. 주백통은 단정히 앉아 상승 내공으로 체내의 여독을 몰아내려 했다. 그러나 채설주의 독성은 워낙 지독해 그가 운기를 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며 온몸에 통증이 엄습해 왔다. 운기를 하지 않으면 이내 괜찮아졌다. 계속 세 차례 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는 낭패한 듯이 탄식했다.

[아, 노완동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구나!]

법왕은 밖에서 훔쳐보았지만 주백통이 이처럼 괴로와하는 줄을 모르고 생각에 잠겼다.

(이크, 저 노완동이 내공을 운기시키는구나!)

품에서 채설주가 가득 든 금합을 얼른 꺼냈다. 뚜껑을 열자 10여 마리의 채설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아침 햇살에 홍록색 반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왕은 금합 옆에서 코뿔소의 뿔로 만든 젓가락 하나를 들어 거미 한 마리를 묻힌 뒤 가볍게 흔들어 거미줄 위에 얹고는 동굴 입구 왼쪽에 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독거미들을 동굴 입구 사방에 붙여 놓았다. 독거미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가 몹시 고팠다. 즉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한 시간도 못 되어 동굴 입구에는 이미 10여 개의 거미줄망이 꽉 들어찼다.

독거미가 망을 치는 동안 소용녀와 주백통은 재미있다는 듯이 보기만 할 뿐 막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직경이 1장쯤 되는 동굴 입

구가 거미줄에 막혀 홍록색의 거미가 거미줄 위를 이리저리 기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소용녀가 말했다.

[옥봉침을 다 썼으니 어쩌지요. 침 하나에 하나씩 처치하면 대수롭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주백통은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거미줄을 헝클려고 했다. 그 순간 커다란 나비 한 마리가 동굴로 들어오다 거미줄에 걸렸다. 곤충들이 거미줄에 걸리면 한동안 발버둥을 치게 마련이었다. 힘이 센 놈들은 거미줄을 찢고 도망치기도 하나 이 나비는 몸체가 커다란 놈이었는데도 거미줄에 닿자마자 기절해 버려 꼼짝도 못 했다. 소용녀가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움직이지 말아요. 거미줄에도 독이 있어요.]

주백통이 깜짝 놀라 얼른 나뭇가지를 내던졌다. 원래 법왕이 독거미로 동굴을 봉쇄한 것은 이러한 거미줄로 그들 두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미줄을 치우려고 하다가 거미줄에 닿기를 바라서였다. 일단 몸에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극독이 바로 인체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주백통은 독거미가 나비를 먹는 것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단정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내공이 금방 회복되기 어려우니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겠구나.)

소용녀도 생각했다.

(이 교착된 난국이 언제나 끝이 날까? 노완동의 독성은 과연 다 없어졌을까?)

[독을 없애기 위해 하룻밤이면 되겠어요?]

[하루 낮 하루 밤이 아니라 백 일이라도 소용없어.]

[그럼 어쩌지요?]
[저 도둑놈이 밥을 보내 준다면야 이 동굴 안에서 몇 년을 지낸다 해도 안 될 것도 없지.]
[그는 결코 밥을 안 보내 줄 거예요.]

소용녀는 한숨을 내쉬며 또 말했다.

[만약 양과가 여기 있다면 이 동굴 안에서 일생을 지내도 괜찮을 텐데.]

주백통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어디가 양과만 못하냐? 그가 나보다도 강하더냐? 내가 함께 있으면 뭐가 안 된단 말이냐?]

그의 이 말은 워낙 분수가 없다고 여겨 소용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양과는 전진검법을 할 줄 알아요. 나와 그의 쌍검이 합해지면 저 화상을 능히 처치할 수 있어요.]
[흥, 전진검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 못할 줄 아느냐? 양과가 나보다 뛰어나단 말이냐?]
[그 쌍검합벽은 옥녀소심검법이라고 부르지요. 마음속으로 서로 사랑해 두 마음이 상통해야 적을 제압할 수가 있답니다.]

주백통은 남녀의 사랑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뛰어 얼른 손을 흔들며 말했다.
[됐다, 됐어. 이 동굴 안에서 몇 년을 산다 해서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 나는 도화도의 동굴 안에서 홀로 십여 년이나 살았었지. 친구가 없어 외롭기 그지없었는데 지금은 너와 함께 있으니 말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그때와는 크게 다르지.]

그는 동굴 안에서 머무를 계책을 생각했다. 소용녀가 물었다.

[혼자서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나와 싸우면서 지냈지.]

주백통은 득의양양해 분심이용(分心二用), 좌우호박지술(左右互搏之術)에 대해 간략히 얘기했다. 소용녀는 가슴이 뛰었다. (만약 이 술법을 익힌다면 왼손에 전진검법을, 오른손으로 옥녀검법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쌍검합벽이 되면 바로 옥녀소심검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 무공을 익히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군.)

[이 무공은 배우기 힘든 것인가요?]
[어렵다면 상당히 어렵고 쉽다면 또 매우 쉬운 것이지.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해도 못 배우지만 어떤 이는 단 며칠이면 익힐 수 있어. 너 혹시 곽정.황용 두 애들을 아느냐?]

소용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백통이 말했다.

[그들 중 누가 더 총명하더냐?]

소용녀가 말했다.

[곽부인이 총명하지요. 양과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당세에 그녀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을 아무도 없대요.곽대협은 그냥 평범하구요]
[평범한 정도도 못 된다. 바로 말해 바보 멍청이지. 네가 보기에 내가 총명한 것 같으냐, 바보 같으냐?]
[내가 보기엔 당신은 나이도 적지 않은데 멍청한데다가 행동거지가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주백통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래 네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아. 이 좌우호박지술은 내가 생각해 낸 것으로 전에 곽정에게 가르쳐 주었지. 그는 단 며칠만에 배워 익혔어. 그런데 그가 그의 계집에게도 전수해 주었지. 넌 황용 그 계집애가 총명하다고 하지만, 이 무공을 끝내 배우지 못했단다. 나 또한 곽정녀석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서 후에 이 노완동이 친히 그녀를 가르쳤지. 그녀는 제 1과인 <왼손으로 네모,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다>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배우면 곧 할 줄 아는데 어떤 이는 평생을 배워도 할 줄 몰라.총명할수록 해낼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설마 바보가 무공을 익힌다고 총명한 사람을 능가할라고요? 난 믿을 수 없어요.]

주백통이 히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너의 용모와 지혜는 황용과 우열의 차이가 없고, 무공 또한 그녀와 별 차이가 안 난다. 네가 믿지 못한다니, 그럼 왼쪽 식지로 땅에다 네모를 그리고, 동시에 오른손 식지로 원을 그려 보아라.]

소용녀는 말을 따라 두 식지를 뻗어 땅 위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

나 네모를 그린다는 것이 원 같았고, 원은 오히려 네모 같았다. 주백통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때? 네 자신도 알아 보지 못하겠지?]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정신 통일을 한 뒤, 마음을 텅 비게 하여 양손의 손가락을 뻗어 왼손으로 네모를, 오른손으로 원을 그렸다. 한쪽에는 완전한 정사각형이 그려졌고, 한쪽에는 동그란 원이 그려졌다. 주백통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네가......, 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겨우 말했다.

[너 전에 배운 적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뭐 어려워요?]

주백통은 흰 머리칼이 가득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말했다.

[그럼 어떻게 그렸지?]
[나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뻗어서 그렸어요.]

그러면서 즉시 왼손으로 <노완동> 세 자를 쓰고 오른손으로 <소용녀> 세 자를 썼다. 양손으로 동시에 글을 썼는데도 자체(字體)가 아주 가지런하여 같은 손으로 쓴 것 같았다. 주백통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는 분명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기에 이처럼 쉽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백통은 그녀에게 어떻게 좌공우수(左攻右守), 또한 우격좌거(右擊左拒)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며, 그가 도화도에서 깨달아 터득한, 천하의 어느것에도 견줄 바 없는 기공을 모두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사실 이 좌우호박지술의 관건은 완전한 분심이용(分心二用)에 있었다. 무릇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여 한 가지 일이 완성되기 전에 두번째 일이 떠오르게 된다. 삼국시대의 조자건(曹子建)이 칠보를 걸으며 시를 짓고, 오대(五代) 유운(劉隕)이란 자는 전술에 있어서 한 걸음에 백계(百計)를 생각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 이 좌우호박지술의 무공을 배우려 한다면 그를 제압하는 여러 잡념 때문에 도저히 배울 수가 없을 일이었다. 소용녀는 어려서부터 칠정육욕(七情六欲)을 배제하는 찰근기(紮根基)의 무공을 익혀 8,9 세 때에 이미 마음을 명경지수와 같이 수련했다. 후에 비록 어리석게도 양과를 그리워하여 이 무공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담한 상태에서도 옛날의 무공을 8,9 할 정도는 회복해 내고 있었다.

그녀가 배운 고묘파 내공 또한 당시 임조영이 실연을 당한 뒤 창안한 것으로서 그녀의 지금 심정과 대동소이한 점이 있어 일시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주백통이 한번 일깨워 주자 그녀는 바로 깨달았다. 주백통.곽정.소용녀는 모두 순박하고 마음에 때가 끼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황용.양과.주자류 같은 사람은 무엇을 말해 주어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었다.

주백통은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으나 말과 몸짓은 또렷또렷했다. 소용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어떻게 오른손으로는 옥녀검법을 왼손으로는 전진검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

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 확연해지는 것이 있었다.

[이제 전부 이해했어요.]

그녀는 양손으로 몇 초를 시전해 보았다. 정말 뜻대로 움직여 주었다. 주백통은 입을 딱 벌리고 다물 줄을 몰랐다.

[이럴 수가!]

법왕과 조지경은 동굴 밖을 지키며 두 사람이 소곤거리며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웃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끊길 듯 말 듯 중간중간 몇 마디만 들어서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고개를 들어 보더니 두 사람이 심각하게 엿보고 있는 것을 알고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나갑시다!]

주백통이 멈칫하며 물었다.

[어디로?]
[나가서 도둑놈을 잡아 해독약을 얻어야지요.]
주백통은 그의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를 이길 자신이 있느냐?]

여기까지 말했을 때 돌연 웅웅, 소리가 들리더니 꿀벌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계속 요동을 쳤다. 먼저번의 한 마리 큰 호랑나비는 거미줄에 걸리자마자 기절해 버렸는데, 이 꿀벌은 몸은 비록 작

지만 채설주의 독성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으며 마침내 거미줄에 구멍을 냈다. 모양이 흉폭한 한 마리 독거미가 옆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달려들어 덤비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 꿀벌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냅다 달려들어 물었다.

소용녀는 고묘 안에서 옥봉을 키웠기에 끝내는 꿀벌들과 친구가 되었다. 벌을 부리는 소용녀의 기술은 놀라웠다. 또한 벌들을 친구처럼 여겨 꿀벌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자 마음이 편치 못했다.

(독거미의 모양이 비록 흉폭하게 생겼으나 나의 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품속에서 옥병을 꺼내 오른손으로 꽉 잡고서 병마개를 열었다. 조용히 장력을 운행하여 열기를 장심으로 모아 병에 전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기가 짙은 꿀 냄새가 거미줄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갔다. 주백통이 이상해 하며 물었다.

[뭐하는 짓이냐!]

[이건 아주 재미있는 놀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백통이 좋아하며 물었다.

[그것 좋지! 그런데 무슨 놀이지?]

소용녀는 미소만 지을 뿔 대답은 하지 않고 장력을 재촉해 운용했다.

이때 산골짜기에는 들꽃들이 만발하여 사방에 꿀을 채집하는 들벌들이 무척 많았다. 이 달콤한 냄새를 맡자 즉시 각처에서 날아들기 시작했다. 들벌은 쉬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동굴로 날아들다 거미줄에 걸리지 곧 몸부림을 쳤다. 어떤 놈은 독거미에게 물려 죽었으며, 어떤 놈은 오히려 독거미의 몸에 침을 쏘았다. 채설주의 독이

비록 천하의 맹독이라 했지만 꿀벌의 독을 많이 맞게 되자 점점 굳어서 죽었다.

주백통은 보기만 해도 뛸 듯이 기쁘고 신났다. 동굴 밖의 금륜법왕과 조지경은 오히려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채설주는 아직 우세하여 단지 3 마리만 죽었을 뿐이었으나 들벌은 40 여 마리가 죽었다. 그러나 들벌들은 점점 더 늘어나 처음에는 단시 삼삼오오 어지럽게 날아왔으나 나중에는 무리를 지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동굴 입구에 쳐진 거미줄은 다 찢어져 없어졌으며 10 여 마리의 독거미도 무수히 침에 쏘여 죽어 갔다.

조지경은 꿀벌에게 당한 고통이 생각나 슬그머니 숲속으로 들어가 멀찌막이 피했다. 법왕은 채설주를 얻기가 힘든 것을 애석해 했다. 이 기기묘묘한 인해전술은 들벌들이 무리를 이루는 습성을 가지고 함께 독거미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인 줄만 알았다. 금륜법왕은 그 들벌들이 소용녀가 불러 모은 것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 한꺼번에 둘을 처치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소용녀는 새끼손가락의 손톱을 옥병에 집어넣고 약간의 꿀을 묻혀서 법왕에게 튀겼다. 왼손 식지로 그의 왼쪽 오른쪽 한곳을 가리키며 소리를 냅다 질렀다. 수천 마리 들벌들이 몸을 돌려 동굴을 빠져나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법왕은 기겁을 하며 황급히 몸을 날렸다. 그의 경공은 대단해서 들벌들이 빨리 난다고 했지만 그의 신법은 더욱 빨라 순식간에 10 여장 밖으로 피해 버렸다. 그는 한 줄기 시커먼 연기처럼 달리면 달릴수록 멀어졌다. 들벌들은 추격하지 못하고 곧 제각기 흩어져 버렸다.

소용녀는 줄곧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아깝다, 아까와!]

주백통이 말했다.

[뭐가 그리 아까우냐?]
[그가 도망갔으니 해독약을 얻지 못하잖아요.]

원래 그녀는 들벌들을 좌우로 나누어 법왕을 포위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들벌들은 오합지졸이어서, 여기저기서 달려들자 그녀가 고묘 안에서 훈련시켰던 옥봉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백통은 이미 진심으로 감복해 마지않았다. 이 놀이는 그가 평생 보고 놀았던 그 어떠한 유희보다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뼉을 치며 칭찬을 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해독하지 않은 몸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다.
소용녀는 동굴 입구의 거미줄이 모두 제거된 것을 보고 동굴을 빠져나가 손짓하며 말했다.

[나오세요!]

주백통이 따라나가려 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풀썩 주저앉았다.

[안 되겠어! 힘을 쓰지 못하겠어.]

몸을 부르르 떨며 딱딱 소리를 내면서 이빨를 부딪쳤다. 넘어지는 통에 채설주의 여독이 발작하여 마치 몸이 얼음에 채인 듯 추위를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입술과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흰 수염이 계속 흔들렸다. 소용녀가 놀라 물었다.

[주백통, 어떻게 된 거예요?]

주백통은 쉴새없이 몸을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어서 빨리, 침을......, 침을 놓아줘!]
[침에는 독이 있어요.]
[빠......, 빨리. 독이......, 독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용녀는 조금 전의 들벌과 독거미의 싸움을 생각했다.
(벌의 독이 바로 독거미의 독을 제압하지 않았던가?)
땅에서 옥봉침 1 개를 주워서 시험적으로 그의 팔뚝에 한번 찔러 보았다. 주백통이 외쳤다.

[그래! 또 찔러!]

소용녀가 몇 번 더 찔러 대자 그는 계속 좋다고 외쳐 댔다. 침의 독성이 이미 없어진 듯하여 다른 걸로 바꾸었다. 모두 10 여 개의 침으로 찔러 대자 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주백통은 편하게 숨을 내쉬고 웃으며 말했다.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 기묘한 문파가 되겠군.]

시험삼아 운기를 하자 체내의 여독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끼고 얼른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용소저, 아직 침의 독이 부족해요. 게다가 신선하지도 않고...]

소용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들벌들을 다시 불러 찌르게 하지요.]
[아이구 고마와라. 어서 불러 봐요!]

소용녀는 옥병을 열어 한 무리의 들벌들을 불러들여 일일이 주백통의 몸을 쏘게 했다. 노완동은 웃으면서 전신을 드러내 놓아 들벌들이 쏘기 편하게 해 주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운기를 하여 벌의 독을 단전으로 흡입하여 진기를 전신 대혈에 고루 흐르게 했다. 밥 한 공기 먹을 시간이 지나자 온몸은 들벌들이 찌른 작은 구멍으로 뒤덮였다. 거미의 독이 거의 다 해독되자 다시 찌르면 찌를수록 통증이 느껴져 큰소리로 소리쳤다.

[됐어, 됐어! 더 찌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판이야!]

그는 의복을 주워 입었다. 소용녀는 미소를 지으며 들벌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그녀는 금령연삭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주우며 말했다.

[나는 종남산으로 가려는데 당신은 안 갑니까?]

주백통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급히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 너 혼자 가!]
[아. 그렇군요! 양양성에 가서 곽대협을 도와야지요.]

그녀는 곽대협이란 석 자를 들먹이자 곧 곽부, 이어서 양과에까지 생각이 미쳐 침울하게 말했다.

[주백통, 만약 양과를 만나더라도 나를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마세

요.]

그는 입 속으로 혼자 중얼거려서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얼굴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듯했다.

잠시 있다가 주백통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뭐라고 말했지?]

[아무것도 아네요. 자, 갑시다!]

그녀는 주백통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소용녀가 몸을 돌려 산허리를 돌아갔을 때, 돌연 주백통의 대성일갈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꿀벌을 지휘하는 것 같았다. 소용녀는 이상하여 살금살금 되돌아와 한 나무 뒤에 숨어서 관망하니 주백통이 손에 옥병을 들고 손짓 발짓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가 품속을 뒤져 보니 과연 옥병이 없어졌다. 옥병에 날개가 달려 날아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훔쳐 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의 고함소리에 단지 몇 마리의 들벌들이 꿀 냄새를 맡고 달려왔다. 들벌들은 그의 지휘를 전혀 아랑곳 않고 옥병 주위를 윙윙 소리 내며 빙빙 돌 따름이었다.

소용녀가 참지 못하고 푸후후, 웃으며 나무 뒤에서 나왔다.

[내가 가르쳐 주지요!]

주백통은 장난이 들통나자 장물을 얼른 주인에게 돌려주고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백발을 한번 쓰다듬었다. 그는 별안간 몇 장 밖으로 물러나 급히 산을 내려가 나는 듯이 도망쳤다.

소용녀는 깔깔대며 웃었다. 속으로 이 노인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녀가 몇 번 웃자 텅 빈 산에서 전해 오는 것은 메아리뿐으로 처량할 정도로 적막했다. 그녀의 두 볼에 돌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저녁나절 금륜법왕과 한바탕 격돌하고 주백통과 함께 또 한나절을 보냈는데 지금 적도 친구도 다 가 버려 온세상에 자기 혼자만이 쓸쓸히 남아 있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껏 윤지평과 조지경을 따라가며 생각하길, 이 두 사람은 사악하기 그지없어 비록 몸을 반 토막 낸다 하더라도 마음의 한이 풀리지 않으리라고 느꼈다. 그녀가 단지 일초만 펼쳐도 두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죽인들 무엇하랴 싶었다. 그녀는 느릅나무 밑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녀는 산을 내려와 산 밑에서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에 올라탔다.

큰길을 향해 한참을 가는데 돌연 앞쪽에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깃발이 빽빽이 나부끼며 말발굽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한떼의 군마들이 남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몽고군이 또 양양성을 공격하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소용녀는 잠시 주저했다.

[저 천군만마의 무리 속에서 어떻게 그 두 도사놈을 찾아낸단 말인가?]

갑자기 세 마리의 말이 산등성이 옆에서 스쳐 지나는 것이 보였다. 말 위에 탄 사람들은 황색 도포를 입은 것이, 바로 세 명의 도사들이었다. 소용녀가 생각했다.

[어째서 한 명이 늘었을까?]

자세히 바라보니, 끝의 한 명은 윤지평이고, 조지경과 다른 젊은 도사가 앞에 나란히 가고 있었다. 소용녀는 말고삐를 잡고 얼른 뒤 따라갔다.

윤지평과 조지경이 말발굽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소용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얼굴색이 확 변했다. 그 젊은 도사가 물었다.

[조사형, 저 여자가 누군데 그래요?]

조지경이 말했다.

[저 여자는 우리 전진교의 대적이야.]

그 도인은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적련선자 이막수인가요?]

[아니야, 그녀의 사매이지.]

그 젊은 도사의 이름은 기지성으로, 구처기의 제자였다. 그는 단지 이막수가 일찌기 여러 차례 사백과 사부, 사숙들과 다투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전진교의 문하생들 중 그녀에게 당한 자가 적지 않아 이막수의 사매라면 자연 그녀도 좋은 여자는 아니라고 여겼다.

조지경은 채찍을 들어 말잔등을 세차게 몰아쳐 급히 내달았다. 윤지평.기지성 두 사람도 급히 말을 몰아 순식간에 소용녀를 멀찍이 뒤로 따돌렸다. 그러나 소용녀가 탄 당나귀는 끈기는 뛰어났으나 빨리 달리지는 못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달릴 뿐이었다. 세 필의 말은 4,5 리를 달려가자 숨이 차 점점 느리게 갔다. 당나귀가 점점 가까이 따라왔다. 조지경이 채찍을 내리치며 말을 몰았으나 말은 힘

이 빠져 단지 수십 장을 내달리다가 곧 속도를 떨어뜨렸다. 기지성이 말했다.

[조사형, 나와 당신이 적을 막아내어 윤사형이 피신하도록 합시다]

조지경은 얼굴이 파래지며 말했다.

[말하기는 쉽지만, 넌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윤사형은 장교의 중임을 맡은 신분이니 우린 어쨌든 그를 편히 보호해야 합니다.]
원래 그는 사부 구처기의 명령으로, 윤지평에게 장교의 자리를 받으려 중양궁으로 오라고 알려주러 왔던 것이다.
조지경이 코방귀를 뀌며 생각했다.
(하늘 높고 땅 넓은 줄 모르는구나. 너의 얕은 실력으로 그녀를 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지성은 그의 안색이 좋지 않자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말 고삐를 잡아 윤지평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살며시 말했다.

[윤사형, 당신은 천금 같은 몸이니 소홀히 하면 안 되오. 먼저 앞서 가시오.]

윤지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사형부터 가게 하시오!]

기지성은 그가 이렇게 나오자 무척 감동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어쩐지 사부가 그에게 장교를 맡기려고 하더니......, 이러한 기개는 제삼대 제자 중에서는 따를 자가 없을 거야.)

그는 윤지평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윤지평은 소용녀가 죽이려 한다며 순순히 목을 내놓아 주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조지경은 두 사람이 느긋한 것을 보자 혼자 도망치기도 어려웠다. 소용녀를 보니 아직 손을 쓸 뜻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순간순간 뒤를 바라보았으나 마음속은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네 사람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북쪽으로 갔다. 이때 몽고 대군이 남하하는 소리는 이미 점점 멀어져 우연히 바람을 따라 부웅, 호각 소리가 간간이 실려 왔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곧 사라졌다. 백성들은 모두 피신하여 대로변에는 열 집 중 아홉은 텅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닭이나 개조차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당시 윤지평과 조지경은 은밀한 곳으로 달아났기에 조그마한 주막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큰 길을 따라가는지라 제대로 온전한 집조차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밤이 되자 윤지평 등 세 사람은 창이 다 떨어져 나간 부서진 집에서 여장을 풀었다. 조지경과 기지성은 틈틈이 밖을 훔쳐 보았다. 소용녀는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 사이에 끈을 매달아 끈 위에 가로누웠다. 기지성은 그녀의 이 같은 무공을 보자 무척 놀랐다. 이날 밤 조지경은 별안간 일어났다 누웠다 하며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단지 소용녀가 약간 방심하는 틈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네 사람은 또 행진했다. 조지경은 잠도 제대로 못잔데다 상당히 놀란 상태인지라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기지성과 윤지평은 7,8 장 뒤떨어져 나란히 나아갔다. 기지성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윤사형, 당신과 조사형의 무공은 매년 대교, 소교에서 봐서 잘 알고 있어요. 두 분은 모두 장기가 있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음속의 배포로 말한다면 같다고 볼 수 없지요]

윤지평은 고소(苦笑)를 금치 못하며 물었다.

[사부와 각 사백 사숙들의 이번 폐관(閉關)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오?]

[사부가 말하길 빠르면 삼 개월, 늦으면 일 년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급히 윤사형께서 장교를 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윤지평이 정신나간 듯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 노인네들의 무공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또 무엇을 수련하려는지 모르겠군.]

기지성이 나직이 말했다.

[듣기로는 다섯 분 진인들이 연구하려는 것은 바로 고묘파 무공을 파해(破解)할 무공이라던데요!]

윤지평은 아! 소리를 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소용녀를 쳐다보았다.

몽고의 칙서(勅書)

윤지평 일행은 계속 북서쪽으로 나아갔다. 소용녀는 여전히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 섬서성(陝西省)으로 들어설 때 기지성이 윤지평에게 말했다.

[윤사형, 우리 중양궁으로 갑시다. 설마 용소저가 혼잣몸으로 감히 따라오겠어요?]

윤지평은 음, 하고 대꾸는 했지만 실제로 그녀의 의중을 알 수는 없었다. 그는 길을 가면서도 줄곧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다섯 진인들에게 내 악행을 폭로하려는 것일까? 마음속의

독기를 드러내 전진교를 쑥밭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혹시 그녀는 단지 옛집인 고묘로 가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설마......, 설마 내게 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얼굴이 귀밑까지 붉어져 부끄러웠다. 이는 헛된 망상으로, 불로장생약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 막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생사영욕의 문제는 이미 도외시되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져 오히려 담담해졌다.

며칠 지난 뒤, 그들은 종남산 아래에 도달했다. 기지성은 신호용 화살을 꺼내 힘껏 당겼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 황포 도사가 급히 산에서 내려와 윤지평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청화진인 오셨습니까, 모두들 한참 기다렸습니다.]

윤지평의 도명은 청화(淸和)로서 그가 친히 가르친 제자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다. 이 4명의 도사들을 모두 전진교의 3대제자로서 그와 줄곧 사형사제하는 입장이었고, 그 중 한 명은 그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다. 4명이 모두 갑자기 말투가 바뀌자 윤지평은 화가 나서 급히 말에서 뛰어 내려 말했다.

[네 분 사형들이 이처럼 부르신다면 소제 감당키 힘듭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마옥의 제자가 말했다.

[다섯 사숙께서 법지(法旨)하시길, 청화진인이 오는 즉시 장교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대례를 치르는 것은 구사숙께서 폐관을 끝낸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윤지평이 말했다.

[사부와 네 분 사백 사숙께서는 벌써 폐관했읍니까?]
[벌써 이십여 일이나 됐읍니다.]

말하는 사이 산 위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16 명의 도사들이 피리를 불고 경쇠를 두드리며 길 양편에 늘어서서 영접했다. 다른 16 명의 도사들은 목검 및 철바리때 등 법기(法器)를 들고 서 있었다. 윤지평이 오는 것을 보더니 일제히 몸을 숙여 예를 취하고는 전후에서 옹호해 산 위로 올라갔다. 단지 조지경만이 혼자 뒤로 처졌다. 조지경은 화도 나며 또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오히려 득의양양해졌다.
(장교의 자리가 내게로 떨어졌을 때 너희들 얼굴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녁나절이 되자 행렬은 이미 중양궁 밖까지 이어졌다. 궁중의 500 여 명의 도사들은 대전에서 문 밖 10 여 장에까지 늘어섰다. 범종이 울리고 북소리가 퍼지자 수백 명 도사들이 일제히 몸을 굽혔다. 이처럼 웅장한 광경을 보게 되자 윤지평은 원래 담이 작은 터라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졌다. 16 명의 대제자의 좌우 옹위 아래 먼저 삼청전(三淸殿)에 가 원시천존(元始天尊).태상도군(太上道君). 태상노군(太上老君) 삼청(三淸)에게 절을 하고 나서 다시 후전에 가서 창교조사인 왕중양의 초상화에 절을 했다. 또 전진칠자가 회의하던 제 3 전(第三殿)에 가서 7 개의 빈 의자에다 절을 하고 나서 정전(正殿)인 삼청전으로 돌아왔다.
구처기의 제 2 대 제자인 이지상이 장교진인 법지를 읽어 윤지평이 장교를 맡게 됨을 공포했다. 윤지평은 훈화를 하며 감회가 깊음을 느꼈다. 슬쩍 옆을 보니 조지경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마

치 웃는 듯 마는 듯한 조롱의 빛이 감돌고 있음을 보자 가슴이 몹시 뛰었다.

윤지평이 훈화를 끝내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밖에서 한 명이 들어와 낭랑하게 외쳤다.

[장교진인께 알립니다. 손님이 오셨읍니다.]

윤지평은 순간 아차 했다. 소용녀가 이처럼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으나 사태가 올 데까지 왔으니 도망갈 수도 없었다. 염치불구하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청하여라!]

그 도사는 되돌아가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모두들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겼다. 윤지평은 더욱 이상해 했다. 들어온 두 사람 중 한 명은 몽고 군관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쿠빌라이 진영에서 만났던 소상자였다.

그 몽고 귀관이 낭랑하게 말하였다.

[대한 폐하의 성지를 전진교의 장교에게 봉하노라.]

말하면서 대전 위에 서서 누런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전진교 장교에게 내리노라. ......신선의 도를 지닌 대종사 현문 장교, 인의를 넓게 펼친 대진인, ...]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니 아무도 꿇어앉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큰소리로 외쳤다.

[전진교 장교는 성지를 받으라.]

[본교의 장교인 구진인께서 폐관에 들어 지금 소인이 장교를 대행하고 있읍니다. 몽고 대한의 칙서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내가 감히 받을 수 없읍니다.]

몽고 군관이 웃으며 말했다.

[대한 폐하께서 말씀하시길, 구진인은 징기스칸께서도 존경했다 하오. 허나 나이가 많이 들어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를 모르오. 이 칙서는 반드시 구진인에게 주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오. 누가 전진교 장교인지 어서 칙서를 받으라.]

윤지평이 말했다.

[이 몸은 무덕무능하여 정말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 귀관이 웃으며 말했다.

[겸손할 필요 없소. 어서 뜻을 받으라.]
[은총이 너무 갑작스레 내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대인께서 후전에서 잠시 차를 드시며 기다리시는 게 어떠할지요. 여러 사형들과 의논해 보겠읍니다.]

귀관은 매우 불쾌한 얼굴로 성지를 말아 들며 말했다.

[됐소! 무슨 상의할 게 있다는 거요?]

귀빈을 대접하는 4 명의 도사는 즉시 귀관과 소상자를 후전으로 모시고 갔다.

윤지평은 16 명의 대제자들을 별원으로 불러 말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여 본인이 감히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여러 사형들의 고견을 밝혀 주십시오.]

조지경이 먼저 말했다.

[몽고 대한이 이처럼 나온다면 당연히 칙서를 받아야지요. 이는 본교의 세력이 강성하여 몽고의 대한도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소!]

라고 말하며 매우 득의양양해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지상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안 돼, 안 되오! 몽고군은 우리 국토를 침략해 백성들을 해쳤는데 우리가 어찌 그의 칙서를 받을 수 있겠소?]

조지경이 말했다.

[구사백도 전에 징기스칸이 조서를 받고 멀리 서역까지 갔었소. 윤장교와 이 사형 모두 수행하였었지.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 왜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오?]

[그때 몽고는 대금과 적이 되어 우리 송나라와 결맹을 맺어 우리 국토를 침략하지 않았었소. 그때와 지금을 어찌 같이 거론할 수 있겠소?]

[종남산은 몽고 구역이 되었고 우리의 도관도 몽고 경내에 있는데 만약 칙서를 거부한다면 전진교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조사형의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조지경이 음성을 높이며 말했다.

[뭐가 안 맞단 말이오? 이사형께서 지적해 보구료.]
[지적은 무슨 지적입니까. 그렇다면 조사형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진교를 창시하신 중양진인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당신과 나의 사부이신 전진칠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조지경이 당황해 말했다.

[조사 어른과 사부님들은 도를 넓히고 법을 지키신 고인들이시지]

이지상이 말했다.

[그들은 모두 우뚝 솟은 대장부로서 애국우민하여 각 개인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금나와 혈전을 벌였읍니다.]

조지경이 말했다.

[그렇지. 중양진인과 전진칠자의 명성은 강호를 진동시켰지. 무림에서 존경치 않는 자가 누가 있겠소?]

이지상이 말했다.

[웃 세대의 진인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들 당당히 적과 맞섰고, 백

성들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했었소. 전진교에 정말 위기가 닥쳤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오? 설사 목이 잘릴지언정 뜻을 굽힐 수는 없소.]

이 몇 마디는 매우 늠름하여 윤지평과 10 명의 대제자들을 격동시켰다. 조지경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이사형 혼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무리란 말이오? 조사 어른이 창업한 이래 본교는 오늘날 같은 규모를 이루기 위해 조사 어른과 전진칠자들이 얼마나 심혈을 쏟았는지 아오?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잘못 행동해 전진교가 망하게 되면 지하에 계신 어른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소? 다섯 진인들이 폐관을 끝내고 나올 때 또 어떻게 맞이하려고 그러는거요?]

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몇몇 도사들이 찬성을 했다. 조지경이 또 말했다.

[금나라는 우리와 원수국이고 몽고는 금나라를 멸하였으니 얼마나 시원한 일이오? 조사 어른께서 의거에 실패하여 활사인묘에서 은거하며 나오지 않았는데, 그 노인네가 금나라 망했다는 것을 알면 하늘에서나마 얼마나 좋아실꼬......]

구처기의 다른 제자인 왕지탄이 말했다.

[몽고인이 금을 멸한 후, 우리 송나라와 우호조약을 맺었다면 형제지국으로 하여 자연 우리는 상국의 예로 대했을 것이오. 그러나 오늘날 몽고군이 대거 남하하여 양양성을 공격하니 송나라 강

산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소이다. 당신이나 나 모두 송나라 자손으로서 어찌 적국의 칙서를 받을 수 있겠소?]

고개를 돌려 윤지평에게 말했다.

[장교 사형! 만약 칙서를 받는다면 당신은 간신이 되는 것이며 본교에 천고의 죄인이 될 것이오. 나 왕지탄은 설령 죽어 지하에 묻힌다 해도 당신과 상관치 않을 것이오.]

그의 표정은 엄격했으며 어투가 격렬해졌다. 조지경이 돌연 벌떡 일어나 탁자를 탁 치며 말했다.

[왕사제, 싸우자는 것이냐? 장교진인에게 감히 이처럼 무례해도 된단 말이냐?]

왕지탄이 격렬한 어투로 말했다.

[우리는 단지 이치에 맞게 얘기하는 것뿐이오. 만약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 어찌 두려워하겠소?]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기세등등하게 노려보며 금방 검이라도 뽑아 덤빌 판이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도사가 연신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여러 사제들, 말로 해요, 말로!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왕지탄이 말했다.

[사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 도사가 말했다.

[말하자면......아아......, 출가한 사람은 자비로워야 백성을 구할 수 있고, 하늘의 덕을 이어받아야......, 아아......, 만약 우리가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아들인다면 몽고병들이 애꿎은 백성을 살육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당시 구사숙도 이 때문에 많은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겠소?]

몇 명 도인이 찬성했다.

[맞아요, 맞아!]

체격이 작지만 민첩하게 생긴 한 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늘의 사정은 옛날과는 달라요. 소제가 사부를 따라서 서역에 가는 도중 몽고병들의 잔인무도한 학살 광경을 친히 보았읍니다. 우리가 만약 칙서를 받아들여 몽고에 항복한다면 이는 그들의 학살을 도와 주는 것이죠. 설령 몇 명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몽고병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몇천 몇만의 백성이 이 때문에 죽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도사의 이름은 송덕방으로, 구처기를 따라 서역에 갔던 19 제자 중의 한 명이었다. 조지경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징기스칸을 보았겠지만, 어떻습니까? 난 이번에 몽고의 네째 왕자인 쿠빌라이를 만나 보았읍니다. 그분은 도량이 넓고 신하들을 예로 대하는데 어찌 잔인무도하게 나오겠읍니까?]

왕지탄이 소리쳤다.

[그랬구나.원래 당신은 쿠빌라이의 명령을 받고 정탐을 했었구나!]

조지경이 대로하여 말했다.

[뭐라고?]
[누구든 몽고인을 돕는 말을 하는 자는 바로 간신인 것이다.]

조지경이 갑자기 펄쩍 뛰며 휙, 하고 일장을 왕지탄에게 날렸다. 옆에서 쌍장이 튀어나오며 그의 일장을 막아냈다. 바로 구처기의 다른 2 명의 제자였다. 그 중 한 명은 바로 기지성이었다. 조지경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좋다! 구사백 문하의 제자가 많으니 수자로 밀어붙이는구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윤지평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여러 사형들은 잠시 편히 앉아서 제 말을 좀 들어 보시지요.]

전진교 장교의 권위는 대단하여 모두들 즉시 자리에 앉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조지경이 말했다.

[그래, 우리들은 장교진인의 분부를 듣자. 그가 칙서를 받겠다면 받는 것이, 안 받겠다면 안 받는 것이다. 대한이 봉한 것은 그이지 내가 아닌데 뭣하러 다툰단 말이냐!]

그는 자신이 윤지평의 치부를 알고 있어 그가 결코 자기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여겼다. 이지상, 왕지탄 등은 윤지평의 성품을 충직하고 의롭다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 그의 한마디에 따라 결정하면 분명 자질구레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들 윤지평을 바라보며 그의 결단을 기다렸다. 윤지평이 천천히 말했다.

[소제는 덕이 없고 무능한데 장교의 중임을 맡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첫날 이처럼 큰 일을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읍니다.]

말을 하며 머리를 들어 정신나간 듯 멍하니 있었다. 16 명의 대제자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주시했다. 도원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한참 지나자 윤지평이 천천히 말했다.

[본교는 중양조사가 창건한 이래 마진인.구진인.유진인에 이르러 크게 번창하였읍니다. 소제가 장교를 이어받아 어찌 감히 왕.마.유.구, 네 진인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어길 수 있겠읍니까? 여러 사형들, 지금 몽고 대군은 남하하여 양양성을 공격하고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죄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있읍니다. 만약 이 네 분 선배 장교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들은 이 칙서를 받았겠읍니까? 안 받았겠읍니까?]

여러 도사들은 이 말을 듣고 묵묵히 네 분 진인들의 평소의 행동을 생각해 보았다. 왕중양은 죽은 지 오래 되어 제 3 대 제자들 모두 보지 못했고, 마옥은 겸손 온화하며 일처리를 깨끗이 했으며, 유처현은 심사가 매우 깊어 여러 제자들은 그의 마음을 쉬게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구처기는 성품이 불과 같았으며 충의심이 높았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그에게 미치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소리

쳤다.

[구장교는 분명히 받지 않을 것이다!]

조지경이 크게 소리쳤다.

[지금 장교는 당신이지 결코 구사백이 아니잖소?]

윤지평이 말했다.

[소제. 재능과 학식이 미천하여 감히 사부의 가르침을 어기지 못하겠읍니다. 게다가 저의 죄가 무거워 죽어도 남음이 있읍니다.]

여기까지 말하고는 머리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러 도사들은 그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지 못했다. 조지경은 제외하고는 모두들 겸손해 하는 말이라고 여겼다. 단지 <죄가 무거워 죽어도 남음이 있다>고 한 말은 좀 이상하게 느꼈으나, 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조지경이 흥, 하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 당신은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

윤지평이 처량하게 말하였다.

[소제의 하찮은 목숨은 조금도 애석해 할 것이 없소. 그러나 우리 교의 명예는 조금도 손상시킬 수가 없소.]

그의 어조가 점차 격앙되면서 말했다.

[지금 호걸 지사들은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소. 전진파는 무학 정종이라는 별호가 있는데 만약 몽고에 항복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영웅들을 다시 본단 말입니까?]

여러 도사들이 열렬히 갈채를 보냈다. 이지상, 송덕방, 왕지탄, 기지성 등이 큰소리로 말했다.

[장교 사형의 말에 일리가 있읍니다.]

조지경은 도포자락을 한번 털고서 화가 난 듯이 도원을 걸어 나갔다. 문 옆에서 머리를 돌려 비웃으며 말했다.

[장교 사형, 그대의 말은 그럴싸하군. 흥! 이 일의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도 그대로 잘 알고 있을걸......]

하고 말하면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모두들 의견이 분분하더니 결국 윤지평의 결단이 현명하다고 찬동했다. 조지경을 따르는 4,5 명의 도사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느끼고 슬며시 나가 버렸다.

윤지평은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단방으로 돌아갔다. 조지경이 이 수모를 당한 뒤, 반드시 자신의 추행을 폭로할 것이라고 여겼다. 칙서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할 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수개월 동안 두려워 벌벌 떨며 온갖 고생을 하였는데 이제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 윤지평은 단방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차갑게 한번 웃더니 장검을 뽑아서 자신의 목을 향해 찔렀다.

돌연 서가 뒤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며 손을 나꿔챘다. 윤지평은 전혀 방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그에게 장검을 빼앗겼다. 놀

라 돌아다보니 바로 조지경이었다.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너는 우리 교의 명성을 더럽히고 죽음으로 사태를 벗어나려 드는구나. 용소저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녀가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려 다오.]

윤지평이 말했다.

[좋다! 그럼 내가 나가 그녀 앞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사죄하겠다]

조지경이 말했다.

[네가 목을 벤다 해도 이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섯 진인들이 폐관을 마치고 나오면 반드시 물어 볼 것이다. 전진교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너는 천고의 죄인이다.]

윤지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중얼거렸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방금 그는 여러 도사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했었다. 그런데 조지경과 단 둘이 만나자 전혀 버틸 힘이 없어졌다. 조지경이 말했다.

[좋다. 네가 한 가지 일만 해 준다면 용소저에 관한 일은 내가 힘껏 막아 주겠다. 본교와 너의 명성도 모두 무사히 보전하게 되어 조금도 후환이 없을 것이다.]

윤지평이 말했다.

[나보고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으라는 것이냐?]

조지경이 말했다.

[아니, 아니다! 결코 너보고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냐? 빨리 말해라. 내 따라 하겠다.]

한 시간쯤 지난 후, 대전 위의 종과 북이 일제히 울려 궁안의 무리들이 소집됐다. 이지상은 구처기 문하의 제자들에게 도포 안에 몰래 병기를 간직하라고 분부했다. 윤지평이 칙서 받기를 거부하여 조지경 일파가 혹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까 봐 두려워서였다. 대전 위에는 새까맣게 도인들로 가득 찼다. 모두의 얼굴빛이 긴장되어 있었다.
윤지평이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후전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그는 가운데에 서서 말했다.

[여러 도형들, 이 몸은 구장교의 명을 받들어 장교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어...]

이 말은 너무나도 뜻밖인지라 도사들 중 10여 명이 와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윤지평이 계속 말했다.

[장교라는 중임을 나는 이미 짊어질 수가 없으니,지금 나는 옥양자 수하의 대제자인 조지경에게 장교를 이어받기를 명하는 바이오.]

이 말이 떨어지자 순간 대전 위가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 정적은 일순간뿐이었다. 곧 이지상, 왕지탄, 송덕방 등이 다투어 큰소리로 반대했다.

[구진인은 윤사형에게 장교를 이어받으라고 했는데 어찌 그에게 이러한 중임을 넘길 수 있겠소?]

[장교 사형은 몸이 건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오?]

[중간에 분명 중대한 모함이 있다. 장교 사형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 4 대 제자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 분분해 대전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다. 이지상이 눈을 부릅뜨고 조지경을 노려보았다. 조지경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여러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는 것 같았다.

[이 일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까닭은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교는 지금 큰 재난이 눈앞에 닥쳤읍니다. 저는 또한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 지금 후회가 막심해, 죽음으로 죄를 씻어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자 안색이 매우 처참해졌다. 그는 잠시 후 또 말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아도 조지경 사형은 재능과 학식이 뛰어나 능히 분교를 이끌어 이 난국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형제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힘껏 조사형을 도와 본교를 빛내 주십시오.]

이지상이 분격하여 말했다.

[어느 누군들 허물이 없겠소? 장교 사형에게 정말 큰 잘못이 있다면 다섯 분 진인들이 나온 후 알려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오. 장교를 양위하는 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소.]

윤지평이 길게 탄식을 하며 말했다.

[이사제, 당신과 나는 여러 해 같이 지내 정이 뼛속까지 스며 있소. 오늘의 일에 이 못난 형의 부득이한 고충을 양해해 주어 일을 어렵게 하지 말아 주시게.]

이지상은 윤지평의 행동이 의문투성이였으나 안색에는 말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의 말 속에도 매우 간청하는 뜻이 있어 그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계책을 생각해 보았다. 왕지탄이 낭랑히 말했다.

[장교 사형이 정말 겸손하다면 다섯 진인들이 나온 후에 알리면 되는 것이며, 그리 해야 대사를 그르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윤지평이 풀이 죽어 말했다.

[일이 급박하여 그럴 수가 없소이다.]

왕지탄이 말하였다.

[좋다! 이렇게 된 이상 그럼, 우리들 사형제 중에서 덕망과 재능

을 고루 갖추고 조사형보다 뛰어난 자를 골라 봅시다. 이지상 사형은 도력이 매우 깊고, 송덕방 사형은 일처리를 능숙하게 하고 있소. 어째서 반드시 불복하는 조사형에게 건네 주어야만 된단 말이오?]

조지경은 성격이 난폭했지만 한참 동안 말 없이 참고 있다가, 이때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용감하게 행동하는 왕지탄 사형이 있지 않은가?]

왕지탄이 버럭 화를 냈다.

[나는 재주가 없어 여러 사형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오. 그러나 조사형과 비교한다면 내가 육간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

조지경이 비웃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등 태도가 몹시 거만했다. 왕지탄이 큰소리로 외쳤다.

[나의 무공 검술은 조사형의 적수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난 적어도 간신 노릇은 하지 않소.]

조지경의 안색이 검푸르게 변하여 소리쳤다.

[너 이놈, 말을 똑바로 해라. 누가 간신 노릇을 한단 말이냐?]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윤지평이 말했다.

[두 분은 다투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보시오.]

두 사람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나 여전히 상대를 노려보았다. 윤지평이 말했다.

[본교의 규칙에, 장교의 자리는 웃대의 장교가 지적하여 임명하였지, 절대로 본교의 도사들의 추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난 지금 조지경은 다음 대 장교로 임명하였으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소이다. 조사형, 당신으로 앞으로 나와서 가르침을 받으시오.]

조지경이 득의양양해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몸을 굽혀 예를 갖추었다.

왕지탄과 송덕방이 말을 하려는데 이지상이 두 사람의 도포 자락을 잡아 끌며 눈짓을 보냈다. 두 사람은 평소 그의 행동이 온당하다고 여기고 있어, 필히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더 이상 쟁론을 벌이지 않았다. 이지상이 나직이 속삭였다.

[윤사형은 분명 조지경의 협박을 받아 힘없이 항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히 조지경의 음모를 밝혀 내어 알려야 됩니다. 지금 윤사형이 그처럼 말해 버렸으니 우리가 다시 말을 꺼낸다면 우리들만 손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머리를 끄덕이며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장교 수여 행사

에 참가했다.

전진교 사람들은 하루 사이에 두 사람이 장교를 이어받게 되자 불평하기도 하고 괴이하게 여기기도 했다.

장교 수여 행사가 끝나자 조지경은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제자에게 옆을 지키고 서 있으라 명령하고서 말했다.

[몽고 대한 폐하의 천사(天使)를 모셔오너라.]

이 천사라는 말이 나오자 왕지탄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려고 했다. 이지상이 급히 눈짓을 해 막았다. 얼마 지나지 않자 4 명의 접대 도인들이 그 몽고 고관과 소상자를 데리고 대전으로 들어왔다. 조지경이 황급히 대전 앞에 나가 맞이하면서 말했다.

[어서 드십시오!]

그 몽고 고관은 오랫동안 기다려 심히 불쾌해 있었는데다 윤지평이 마중하지 않는 것을 보자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접대를 맡았던 한 도사가 그의 심중을 눈치채고 말했다.

[본교 장교의 지위는 이 시각부터 이 조진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 된 것이군요. 축하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포권의 예를 취했다. 소상자는 그의 몸에서 두어 걸음 뒤에 서 있었다. 얼굴빛이 음침하여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조지경은 몸을 돌려 고관을 안으로 이끌며 말했다.

[대인의 성지를 알려주시죠.]

그 고관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원래 너 같은 사람이 장교를 맡아야 일이 되는 것이다. 먼저번 그 도인은 맥이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성질만 나게 만들었지.)

그는 성지를 꺼내 두 손으로 펼쳤다. 조지경은 땅에 꿇어앉아 고관이 읽는 것을 들었다.

[전진교 장교에게 칙서를 보내노라......]

이지상, 왕지탄 등은 조지경이 공공연하게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는 것을 보자 서로 눈짓을 했다. 곧바로 쉬쉭, 소리를 내며 도포에 감추었던 장검을 번개같이 꺼내 들었다. 왕지탄, 송덕방이 잽싸게 뛰어올라가 손목을 흔들었다. 두 자루의 장검 끝이 이미 조지경의 등 뒤에 닿았다. 이지상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교는 충의로 창교된 것이다. 절대로 몽고에 투항할 수 없다. 조지경은 조상을 배신하고 종파를 멸시하였고, 하늘과 사람의 뜻을 버렸으니 더 이상 장교를 맡을 수 없다.]

다른 4 명의 대제자들이 각기 장검을 겨누어 고관과 소상자를 포위했다.

이 사건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조지경은 비록 이지상 등이 마음속으로 불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장교의 권위가 지대한지라 함부로 대항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했다. 자기가 이 자리를 맡으면 본교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 명령을 내리면 다섯 사람의 진인들도 경솔히 반대할 수가 없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그 때문에 상대가 감히 장교에게 대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그의 등뒤의 급소는 이미 양검이 제압되었다. 놀랍기도 하고 화도 치밀었지만 조금도 두렵지가 않아 큰소리로 외쳤다.

[간덩이가 부은 놈들! 감히 하극상을 범하려 드느냐?]

왕지탄이 말했다.

[간신! 꼼짝 말아! 움직이면 몸에 커다란 구멍 두 개를 뚫어 놓을 테다.]

조지경의 무공은 원래 이들보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엎드려 있을 때 워낙 뜻밖에 제압당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사전에 10여 명의 심복들에게 도포자락 속에 병기를 숨겨 호위하도록 배치했다. 그러나 이지상, 왕지탄 등은 모두 구처기의 친전(親傳) 제자들로 평소부터 교 안에서 위세가 당당했었다. 게다가 갑작스레 일제히 손을 써서 조지경의 심복들은 모두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몇몇 병기를 꺼내려 했던 자들은 팔을 뻗는 순간 모두 혈도가 찍혀 버렸다. 손노파에게 얼굴을 다친 장지광, 시랑곡에서 육무쌍과 겨루었던 신지범, 조지경의 제자 녹청독 등 모두가 그 안에 속했다. 이지상이 몽고 고관에게 말했다.

[몽고와 대송은 이미 적국이 되었소. 우리는 대송의 자손들로서 어찌 몽고의 칙서를 받을 수 있겠소이까? 두 분은 돌아갑시오. 훗날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두 분은 피해 가십시오.]

이 말은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대전 위의 여러 도인들이 즉시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 고관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일의 호불호를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을 하여 전진교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으니 아깝도다, 아까와......!]

이지상이 말했다.

[우리 산하가 모두 파산되었는데, 우리 일개 문파가 어찌 무사하길 바라겠는가? 귀하가 어서 떠나지 않아 만약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한다 해도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없소이다.]

소상자가 갑자기 차갑게 말을 끊고 들어왔다.

[어떻게 무례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 줘 봐라!]

소상자는 팔을 쭉 뻗어 왕지탄과 송덕방 수중의 장검을 빼앗아 버렸다. 조지경이 즉시 몸을 날려 두 팔로 백운출곡(白雲出谷)의 초식을 전개해 등을 보호하여 고관의 몸 옆으로 섰다. 소상자는 왼손의 장검을 그에게 건네 주고 오른손의 검으로 쉭, 하고 이지상을 찔러 갔다. 이지상이 검을 들어 급히 막는 순간, 팔이 은근히 아파 와 내공을 끌어올려 막았다. 쨍그랑, 하고 쌍검이 함께 부러졌다.
소상자의 이런한 검초는 쾌속하기 그지없었다. 소상자는 이어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쌍장을 격출해 주위에 서 있던 4명의 전진대제자의 장검을 일제히 떨구어 버렸다. 그는 잇달은 3초로 전진교 일곱 고수를 물리쳤다. 대전 아래의 수백 명의 도사들은 아연실색했다. 보잘것없이 보이던 깡마른 사람의 무공이 이처럼 고강할 줄은 몰랐다.
조지경은 평소 왕지탄, 송덕방 등의 무공을 깔보고 있었는데, 만인이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에게 제압당해 땅에 꿇어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으니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다 검이 손에 들어오자 바로 왕지탄을 향해 찔러 갔다. 이 일초는 대강동거(大江東去)로, 전진검법에서도 가장 악독한 초식이었다.

검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쉬익, 하며 왕지탄의 아랫배를 찔러 갔다.

왕지탄은 뒤로 급히 물러났다. 조지경은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앗으려 했다. 팔을 앞으로 내뻗자 검끝은 2척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섰다. 왕지탄이 도저히 피하기 힘들어 보여 전각 아래서는 모두들 숨소리를 죽였다. 돌연 비스듬히 곁에서 도포자락이 휘날리며 이러는 순간 왕지탄은 뒤로 물러섰다. 도포자락이 찢긴 사람은 바로 윤지평이었다. 조지경이 화가 치밀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네가......, 감히!]

윤지평이 말했다.

[조사형, 당신은 몽고의 칙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 놓고 내가 장교를 양위해 주자 순식간에 그렇게 번복을 해도 되는 것이냐?]

[조금 아까 네가 내게 묻기를 <내가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길래 나가 <아니다. 난 절대로 네가 몽고 대한의 칙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더냐? 칙서를 받는 것은 나지 네가 아니자 않느냐? 대 말이 틀렸느냐?]

윤지평이 중얼거렸다.

[그랬었구나. 이 교활한 놈!]

이때 이지상은 제자의 수중으로부터 장검을 건네 받고 크게 외쳤다.

[전진교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윤진인을 장교로 받듭시다. 여러분

, 저 간신 조가놈을 붙잡아 장교 진인의 처리에 맡깁시다.]

하고 말하면서 검을 치켜들어 조지경과 격돌했다. 왕지탄, 송덕방 등 다른 다섯 명의 대제자들은 천강북두진법을 펼쳐 소상자를 에워쌌다. 소상자의 무공이 비록 대단했지만 일단 진법이 펼쳐지자 급히 품에서 철봉을 꺼내 들었다. 진법의 변화가 무쌍해 일곱 명의 전진 도사들이 좌우에서 찔러 들어오며 허실이 분명치 않아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 고관은 일찌감치 대전 구석에 물러나 있었다. 보아하니 사태가 심상치 않자 품에서 호각을 꺼내 들어 부웅, 하고 불기 시작했다. 2명의 도사가 달려들어 호각을 빼앗고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어 호각 소리는 벌써 흘러나온 뒤였다.

윤지평은 그가 원군을 부른 것을 알고 자신도 모르게 큰일이다 싶어 소리쳤다.

[기지성 사제! 이 몽고 고관을 잘 보고 있으시오. 우도현사형, 왕지근사형들은 세 분 사형과 함께 뒷산 옥허동으로 가 손사형의 방비를 도와 외적이 다섯 진인들의 수련을 교란치 못하게 하시오. 진지익사제는 여섯 명을 데리고 앞산을 지키시오. 방지기사제는 여섯 명을 데리고 왼쪽 산을 지키고, 유도령사제는 여섯 명을 데리고 오른쪽 산을 지키시오.]

전후좌우를 지키는 자는 모두 구처기 문하로서 그와 동문 사제들이었다. 옥허동을 지키는 우도현은 유처현 문하이고, 왕지근은 학대통의 문하였다. 유처현과 학대통은 모두 옥허동 안에서 수련하고 있었다. 우도현, 왕지근 두 사람의 무공은 모두 뛰어났고 사람됨이 정직했다. 윤지평이 순식간에 질서정연하게 각처의 요지에 사람을 배치했다. 또한 서로 상호 호응하여 구원하도록 해 놓았다. 일대 군마

가 쳐들어온다 해도 단숨에 진격해 들어오기는 힘들었다. 여러 제자들은 전광석화 같은 지휘와 명령이 위엄 있어 감히 어기는 자가 없이 일일이 따라 했다.

갑자기 문 밖에서 고함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며 병기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난무했다. 모두들 당황해 하는 순간, 담장이 와르르 무너지며 수십 명이 뛰어들어왔다. 동편은 윤극서가 이끌고, 서쪽편은 니마성, 정면에는 마광좌가 우두머리였다.

원래 쿠빌라이는 양양성을 맹공하여 달이 지나도 함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군중(軍中)에 질병이 나돌자 최후로 공격을 했으나 소용이 없어 바로 퇴각했었다. 전에 소용녀가 보았던 몽고군의 남하는 최후의 양양성 공격이었다. 쿠빌라이는 대군을 퇴각하기 전에 이미 중원 호걸들을 포섭하기 시작해 뒷날을 도모했다. 몽고 대한이 전진교를 접수하라고 칙서를 내린 것도 실은 쿠빌라이의 계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전진교의 충의와 정절을 알고 있어 쉽사리 굴복하리라 여기지 않았다. 하여 금륜법왕으로 하여금 무림 고수들을 이끌고 종남산 주위에 매복시켜 놓아 만약 전진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할 생각이었다.

종남산의 수비는 본래 주도면밀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장교가 두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중양궁 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였고, 밖은 수비하던 도사들도 예식에 참석키 위해 모두 철수해 돌아와 있었다. 이 때문에 윤극서, 니마성 등이 중양궁 궁벽 가까이 올 때까지도 전진교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때 적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윤지평이 파견시켰던 사람들도 모두 대전을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진교 무리가 비록 많다고 해도, 첫째 모두 병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둘째 포위된 상태로 몽땅 모여 있어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패색은 분명했으며, 처리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몽고 고관은 기지성에게 붙잡혀 있다가 이때 목청을 높여 외쳐댔

다.

[전진교 여러분, 모두 무기를 버리고 조진인의 처리에 따르시오.]

윤지평이 말했다.

[조지경은 조사를 배반하고 외적에게 투항하는 중죄를 범하였으니 이미 본교의 장교가 아니다.]

그는 비록 정세가 매우 불리했으나 뜻을 꺽지 않고 무리들을 지휘해 적에 대항했다. 그러나 모두들 맨손들이라 순식간에 10여 명이 죽어 땅에 나동그라졌다. 이어서 윤지평, 이지상 등이 하나하나 실수를 하거나 병기를 빼앗기고 또는 혈도가 찍혔다. 나머지 도사들도 윤극서가 이끄는 무사들에게 한구석으로 몰려 반항할 수가 없었다.
그 몽고 고관은 신분이 꽤나 높은지 윤극서, 니마성 등이 모두 그의 명령에 따랐다. 그는 승리를 확인하고 조지경에게 말했다.

[조진인,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전진교 무리들이 반역 항명한 사실을 내가 덮어 주어 상소하지 않겠소.]

조지경은 연신 고맙다고 몸을 굽실거렸다.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지 소상자에게 급히 물었다.

[선배에게 도움을 청할 중요한 일이 있소이다. 전진교의 다섯 진인들이 뒷산에서 수련중인데 그들이 만약 소식을 듣고 달려오면]

소상자가 음침하게 말했다.

[달려올 테면 오라지. 내가 대신 막아 줄 것이다.]

조지경은 심히 불만스러웠으나 감히 말을 못 하고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다섯 진인을 깔보지 마시오. 그들이 정말 여기 나타나면 당신도 혼이 날 것이오. 그러나 만약 다섯 진인이 몽고 무사를 격퇴시킨다면 나 생명을 보전키 힘들겠구나.)

그 고관이 말했다.

[조진인, 우선 대한의 칙서를 받고 난 후 반역도들을 처리하시오]

조지경이 <예!> 하고 대답하며 꿇어앉아 성지를 들었다.

윤지평, 이지상 등은 모두 수족이 묶인 채 그 고관이 성지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 조지경이 연신 절을 하며 만세를 부르자 모두 속이 들끓었다. 송덕방이 이지상의 곁에 앉아 있다가 나직이 말했다.

[이사형, 내 손의 끈을 좀 풀어 주시오. 내가 진인들께 알려줘야 겠소.]

이지상은 그와 등을 맞대고 내공을 운기하여 손가락에 근력을 가해 그의 손목을 묶은 쇠가죽 끈을 풀어 버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절대로 천천히 보고해야 돼요. 다섯 진인들께서 놀라 진기를 흐트러지게 해선 안 되오.]

송덕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낭독이 끝나자 조지경이 일어섰다. 그 고관과 소상자 등이 그에게 축하를 해 주었다.

송덕방은 모두들 조지경을 에워싸고 있는 틈을 타서 갑자기 뛰어 올라 삼청 신상(神像) 뒤로 내달았다. 니마성이 소리쳤다.

[서라!]

송덕방은 뒤도 안 보고 급히 내달았다. 니마성은 두 발이 짤려 나가서 쫓지 못하고, 왼손을 휘둘러 뱀 모양의 작을 표창을 내던졌다. 푹, 하고 송덕방의 왼쪽 다리에 표창이 적중되었다. 니마성이 외쳤다.

[쓰러져라!]

송덕방은 몸이 휘청 했으나 넘어지지 않고 통증을 참고 내달렸다. 중양궁 내의 방들은 첩첩이 있어 그가 몇 번 귀퉁이를 돌아 버리자 그를 쫓던 몇 명의 몽고 무사들은 그의 종적을 놓치고 말았다.

송덕방은 구석진 곳으로 가 표창을 뽑아 버리고 상처를 싸맨 뒤 단방에서 장검을 하나 꺼내 들고 뒷산으로 급히 내달았다. 그가 소나무 숲을 돌자 멀리 옥허동의 문이 보였다. 순간 속으로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수십 명의 몽고 무사들이 바위 덩어리를 옮겨다 옥허동 문 앞을 막아 버리고 있었다. 여위고 키가 큰 서장승 1 명이 지휘하고 있었고, 옆에는 2 명이 지휘하고 있었다. 송덕방은 그 2 명이 전에 중양궁을 공격했던 달이파와 곽도임을 알아 보았다. 그 비쩍 마른 서장승은 용모가 괴이했으며, 신분이 이 2 명보다 높은 것처럼 보였다. 옥허동 문은 이미 반 이상이나 막혀졌다. 다섯 진인들의 생명은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부께서 베푼 은혜는 태산 같다. 오늘 사장(師長)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목숨을 아까와해 구하지 않는다면 천지간에 무슨 낯으로 목숨을 부지한단 말인가.)

그는 곧장 달려들어 보았자 사부를 곤경에서 구하기는 커녕 헛되이 목숨만 잃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본교 전체가 커다란 난에 처해 있는데 혼자 안전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검을 힘껏 쥐고 소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질풍같이 서장승의 뒤를 찔러 들어갔다. 그는 이 일초가 다행히도 적중된다면 적들의 세력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서장승은 바로 금륜법왕이었다. 그는 이미 조지경으로부터 전진교의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옥허동을 일단 봉쇄해 버려 전진오자를 제압만 해 놓는다면 나머지 제 3,4 대 제자들은 항거할 수 없게 된다고 여겼다.

송덕방의 검끝이 그의 등뒤에 1 척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금빛이 번쩍 하더니 땅,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서장승의 수중에 있던 괴상한 병기가 스치며 그의 검과 부딪쳤다. 송덕방의 손아귀에 극통이 오며 장검이 달아나 버렸다. 순간 진기가 크게 진동되어 욱, 하고 시뻘건 선혈을 토해 내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다.

금륜법왕도 대전에서의 고함소리를 들었었다. 그러나 윤극서, 소상자 등 고수가 앞장서고 있으니 전진교의 제 3,4 대 제자들이 무슨 괴이한 짓을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별반 개의치 않았다. 단지 바위를 운반하는 무사들을 재촉해 빨리 옥허동을 막아 버려 전진오자들이 뛰쳐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대전 위에서는 송덕방이 달아나자 정세가 또 바뀌었다. 그 고관이 조지경에게 말했다.

[조진인, 귀교에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의 수자가 정말 적지 않구나. 당신의 장교 지위가 좀 불안스럽게 보이는군.]

조지경도 여러 도사들이 불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상자가 일단 가 버리면 모두 일시에 반격을 할 것이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정세가 되었다. 그가 큰소리로 외쳤다.

[본교의 규율에 의하면 반역한 무리들에게 어떠한 벌을 주느냐?]

모두들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너야말로 반역도이다!)
조지경이 또 한번 묻더니 녹청독을 바라보았다. 녹청독이 대답했다.

[삼청 신상 앞에서 자결하는 것입니다.]
조지경이 말했다.

[맞다! 윤지평, 네 죄를 알겠느냐? 승복 못 하겠느냐?]
[승복 못 하겠다.]
[좋다. 그를 끌고와라!]

녹청독이 윤지평을 앞으로 밀어 삼청 신상 앞에 세웠다. 조지경이 또 이지상, 왕지탄 등에게 물었다. 모두들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잡힌 도사 중 단지 3 명만이 무서워 용서를 빌었다. 조지경은 바로 그들을 풀어 주라고 명했다. 나머지 24 명은 모두들 굽히지 않았다. 왕지탄 등 성질이 불 같은 사람은 계속 욕 해 댔다. 조지경이 말했다.

[너희들이 이처럼 완강히 버틴다면 본 장교가 설사 덕망이 높다해

도 이미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것이다. 녹청독, 조사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라!]

녹청독이 <예!>하고 대답하며 장검을 들어 왼쪽 끝에 서 있던 우도현을 내리쳤다.

우도현은 사람됨이 건실하고 착하여 전교에서는 그와 친교를 맺은 자가 많았다. 녹청독이 그를 처치해 버리자 모두들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기 시작했다. 송덕방과 금륜법왕이 뒷산에서 들은 고함소리는 바로 이 고함소리였다. 윤극서가 손을 흔들자 수십 명의 몽고 무사가 병기를 들고 여러 도사들 앞을 가로막았다.

녹청독을 고함소리를 듣자 다소 두려움을 느꼈다. 조지경이 말했다.

[어서 해치워라, 뭘 꾸물대는 것이냐?]

녹청독이 예, 하고 대답하며 검을 내리쳐 또 2명을 베었다. 윤지평은 왼쪽으로 네번째에 서 있었다. 녹청독이 장검을 들어 막 그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한 여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멈추시오!]

녹청독이 고개를 돌려 보니, 문 입구에 백의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바로 소용녀였다. 그녀가 말했다.

[비키시오!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소!]

아홉 고수(高手)와 백의(白衣) 소녀

소용녀는 전진교의 여러 도사들이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몽고 무사가 대거 습격하는 것을 보았으나, 일체의 시시비비가 그녀에게 뜬구름과 같아서 전혀 의중에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녹청독이 검을 들어 윤지평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본 이상 어찌 그냥 둘 수 있으랴!

조지경은 소용녀가 돌연 이 순간에 대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쫓겨다니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 고수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제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왔으니 참으로 하늘이 보살펴 주는구나.)

조지경이 외쳤다.

[이 나이어린 요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서 사로잡아라.]

몽고 무사들은 그의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지경의 친속 제자 2명이 사부의 호령을 듣고 앞으로 돌려들어 각기 그녀의 왼쪽과 오른쪽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가락이 소용녀의 옷깃에 채 닿기도 전에 눈앞이 갑자기 한광이 번쩍이며 팔뚝에 극심한 통증은 느끼고 급히 뒤로 물러났다. 허리에 찼던 2자루의 장검은 이미 소용녀에게 뽑히고 난 뒤였다. 이 눈 깜짝 할 순간에 두 사람은 각자 팔에 칼을 맞아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 소용녀의 이 손놀림은 너무도 빨라서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검을 뽑아서 초술을 냈는지 똑똑히 보지도 못했다. 도사들이 이미 부상을 입고 피하자 모두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녹청독이 소리쳤다.

[모두들 한꺼번에 덤벼라! 이따위 요녀가 뭐가 두렵느냐? 우리는 여럿이 아니냐!]

그는 소용녀의 무공이 제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한 어린 계집에 불과하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들면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앞장서서 검을 뽑아 들고 소용녀를 향해 찔러 들어갔다. 소용녀가 검끝을 흔들자 녹청독은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검에 찔려 몹시 울부짖으며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를 했다. 소용녀의 이 동작은 더욱 빨라서 소상자. 윤극서 등의 고수조차도 서로 돌아보며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절정곡에서 일찌기 그녀가 공손지와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검법은 정묘했지만 지금처럼 귀신 같은 경지는 아니었다.

소용녀는 주백통에게서 분심이용(分心二用).좌우호박(左右互搏)의 기술을 전수받고 무공이 갑자기 배로 증가되었다. 그녀와 양과가 쌍검합벽(雙劍合璧)으로 그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할 때도 천하에 이미 적수가 별로 많지 않았던 터인데, 지금 그녀는 혼자서 동시에 2개의 검을 사용하니 그 위력이 더욱 강했다. 두 사람의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한다 해도 한 사람의 내심이 번개같이 움직이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녀가 지금 사용하는 검술은, 경력은 비록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손놀림은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빨랐다.

그녀는 먼 길을 윤지평.조지경 두 사람을 쫓아오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마음이 어지러웠었다. 그러다가 마침 전진 도사들이 먼저 난을 일으키자 그녀는 이 틈을 타서 공격을 한 것인데, 검에 일단 피가 묻자 가슴에 가득했던 비분함이 금방이라도 모두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하얀 옷이 나부낄 때마다 찬 빛이 번뜩이며 쌍검이 두 줄기의 은사(銀蛇)처럼 대전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맴돌았다. 쨍그렁, 아얏! 어이쿠!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며 순식간에 전진 도사들의 수중에 있던 장검이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팔에 검을 맞았다. 그녀가 사용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일초의 호완옥촉(皓腕玉促)이었다. 뭇 도사들은 단지 그녀의 검광이

눈앞을 잠시 스쳐가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도 팔뚝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만약 그녀가 이 일격으로 팔을 맞추지 않고 가슴의 요해처를 찔렀더라면 도사들은 이미 하나하나 시체로 쓰러졌을 것이었다. 도사들은 부상을 당한 뒤, 일제히 크게 놀라 도망치고, 삼청신상앞에는 윤지평 등 포박당한 도사들만이 꼼짝못하고 남아 있게 되었다.

소용녀는 좌우호박의 기술을 배운 이후 광야에서 몇 번 수련한 것 이외에는 아직 다른 사람과 대결을 한 적이 없었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시험을 해 보았는데, 자기도 이와 같은 위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였다가 도사들을 물리치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조지경은 정세가 불리함을 보고 황망히 도포에서 검을 빼어 들고 몸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다. 소용녀는 심중으로 그를 너무도 미워하고 있었다. 소용녀의 몸이 홀연 나는 듯 흔들리더니 쌍검이 이미 그의 전면과 뒤의 퇴로를 모두 차단해 버렸다. 조지경이 검을 휘두르며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땡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윤극서가 말했다.

[너는 안 돼, 물러서라!]

그는 이미 금룡편을 휘두르며 소용녀의 장검을 막고 있었다. 소용녀는 연달아 10 여 명은 해치웠는데, 지금에 와서야 비로서 그녀의 일검을 받아넘긴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소용녀가 말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원수를 찾아서 온 것이다. 다른 사람과는 무관한 것이니 어서 물러서라.]

윤극서는 방금 바람을 좇고 번개를 잡는 것처럼 빠른 그녀의 검술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지만 자기도 일류 고수라고 자부하는 터라 상

대방의 단 한마디에 손을 풀고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어서 웃으며 말했다.

[전진교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게 못된 사람도 있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죽어 마땅하지요. 하지만 어떤 죽일 놈의 못된 도사가 아가씨한테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소.]

소용녀는 <흥>하고 코방귀를 뀌며 그의 말을 묵살했다. 윤극서는 먼저 그녀와 어느 정도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만약 대결할때 불리하여 물러선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그녀가 서로 아는 사이라 자신을 겁장이라고 비웃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히히 웃으며 말했다.

[용아가씨,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그 동안 귀체 건강하신지요?]

소용녀는 다신 <흥>하고 코방귀를 뀌며 눈길을 윤지평.조지경 두 사람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들이 기회를 틈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윤극서가 말했다.

[이런 못된 도사들과 다투면 괜히 아가씨의 귀한 손만 다치십니다 아가씨가 가르쳐만 주신다면 미약한 힘으로나마 하나하나 아가씨를 위하여 처리해 드리지요.]

[좋다! 우선 나를 위하여 저자를 죽여라.]

하고 말하며 조지경을 가리켰다. 윤극서는 생각했다.

(이자는 이미 몽고 대한의 칙봉을 받은 신분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이분 조진인은 사람됨이 참 좋으신 분인데 아가씨가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아가씨에게 사과하라고 제가 말하지요!]

소용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왼손의 검을 재빨리 뻗어 번개같이 윤극서를 향해 찔렀다. 윤극서가 급히 채찍을 들어 막았지만 <아!>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뒤에 서 있던 조지경이 이미 눈썹 부근을 검에 맞았다. 소상자 등의 고수들도 이 일검을 어떻게 찔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이 일초는 오른손의 검을 뻗어 윤극서의 몸을 돌아서 그의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찌른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윤극서는 깜짝 놀랐다. 이 일검이 비록 자기의 몸을 찌른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조지경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으니 체면이 말씀이 아니게 되었다.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나 빨라 그녀의 쌍검이 오고가는 움직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니 이렇게 대척한다면 반드시 패할 게 뻔했다. 여기까지 미치자 은근히 겁이 나서 금룡편을 거두어들이며 외쳤다.

[용아가씨, 이제 그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용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적의도 호의도 없던 터라 살짝 움직여 왼쪽으로 두 걸음 비켜섰다. 윤극서도 함께 몸을 돌리며 여전히 조지경은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흥>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보니 조지경의 왼쪽 어깨 옷자락이 이미 검끝에 찢겨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다. 소용녀가 이 일검을 어떻게 하여 그에게 찔렀는지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 묘책을 알 수가 없었다. 검법의 정묘함과 신속함이 신묘한 경지에 이르러 오고가는 것이 종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이에 두고도 적을 해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지경이 연속 두 번이나 검에 찔리자, 윤극서는 그의 무공이 평

하여 그를 의지하여 호신부(護身符)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위급한 김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소상자의 곁으로 뛰었다. 소용녀는 눈치채지 못했다는 듯 몸을 돌려 왼손의 검은 윤극서를 향해 찌르고, 오른손의 검은 니마성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니마성은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아 버티며 오른손의 철사로 막으려 하는데, 조지경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이어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팔에 또 검을 맞은 것이다. 이 일초는 더욱 기묘하여 소용녀는 분명히 그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양대 고수를 공격하는 사이에 틈을 노려 그를 다치게 한 것이었다. 소상자는 <흥>하고 코방귀를 뀌며 말했다.

[용아가씨의 검법이 과연 절묘하니 나도 한 수 배워야겠군.]

왼손을 휘둘러 옆으로 장풍을 밀어내니 조지경은 한 줄기 거센 힘이 어깨에 부딪치는 것을 느껴 그대로 서 있지 못하고 몇 장을 물러섰다. 다행히 그의 내공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어서 몸에 비록 세 군데나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소상자는 장력을 아직 거두지 않을 채 곡상봉을 동시에 내리쳤다. 마광좌는 양과나 소용녀와 줄곧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마음이 매우 착잡해 큰소리로 외쳤다.

[창피하다, 정말 창피해! 세 명의 무림 대종사가 한 어린 아가씨를 포위하여 공격하다니......]

소상자 등은 이 말을 듣자 모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들은 평생을 무슨 인의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만무례했지만, 신분이나 체며 따위는 극히 중시하여 평소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혼자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리디어린 아가씨와 다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한 사람의 힘만 믿다가는 그녀의 이 귀신 같은 검초를 당해 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광좌의 조롱을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뚱뚱보야! 우리가 같이 와서 함께 일을 하며 너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돕고 있구나. 나중에 한번 쓴 맛을 보게 해 주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눈앞에 검광이 흔들리며 소용녀가 이미 공격을 해 왔다. 세 사람은 여전히 그녀의 검세를 똑똑히 볼 수 없어 일제히 뒤로 1장 남짓 물러나서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무기를 휘두르며 전신의 요해처를 보호했다.

몽고 무사들을 윤지평.이지상.왕지탄등을 이끌고 뒤로 물러나 대전 벽에 기대어 섰다. 눈앞에서 고수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 실로 보통 일이 아니어서, 누구의 무기에게든 다치기라도 한다면 죽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소상자.니마성.윤극서는 모두 그녀가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를 바랐다. 그녀의 초수 중에서 약간의 틈이라도 찾아내어 승리를 취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다. 세 사람은 모두 한결같은 생각으로 각기 평생의 절기를 펼쳐서 온몸을 보호하며 적을 이겨 낼 방도를 곰곰이 생각했다. 이 3대 고수가 일제히 손을 놀리면서 함께 수비의 형세를 취하는 광경은 평생에 두 번 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적수가 이토록 강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만약 먼저 나서서 공격한다면 영예를 구하려다 십중팔구 치욕을 당할 게 뻔했지 때문이었다.

대전에는 소용녀가 쌍검을 땅에 대고 중앙에 서 있었고, 소상자 등 세 사람은 각기 세 방향으로 나뉘어 서 있었는데 모두의 앞에는 한결같이 차가운 빛이 이리저리 어른거렸다. 윤극서의 금편은 춤을 추며 노란빛을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고, 니마성의 철사는 한 줄기 검은 그림자를 이끌며 나아가고 물러서고 있었으며, 소상자의 곡상

봉은 장막을 친 듯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소용녀는 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생각했다.

(나는 너희들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너희들과 싸울 겨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조지경이 살금살금 신상 위로 피하려는 것을 보고 소매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니마성과 소상자가 좌우에서 철사와 곡상봉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자 공격을 불충분했지만 수비에는 여유가 있을 정도였다. 소용녀는 전혀 틈이 없음을 보고 쌍검을 내치지 않다가 조지경이 대전 뒤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검을 짚고 두 걸음을 쫓아갔다. 니마성과 소상자의 무기가 쉭, 바람소리만 낼 뿐 대들지는 않았다. 소용녀가 말했다.

[도대체 길을 비켜 줄 거냐, 안 비켜 줄거냐?]

소상자는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아니었으니 그녀가 굳이 살수를 쓰지 않았다. 이 전진교 장교가 내게 뭐 잘해 준 게 있다고 괴롭게도 이런 강적을 상대해야 하는 거지?)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니마성이 도리어 소리쳤다.

[우리는 절대로 비키지 않겠다. 요녀 같으니라고...... 왜 함부로 날뛰는 거냐!]

소상자. 윤극서는 동시에 그를 쳐다보고 웃었다.

(우리가 설사 비키지 않는다고 해도 무엇 때문에 악언을 내뱉는단 말이냐? 너 혼자의 힘으로 그녀를 당해 낼 수 있단 말이냐? 정말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군.)

하지만 그와 협력하여 적을 방어하는 처지라서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사실 니마성이 두 다리를 잃게 된 것은 양과와 이막수에게 당한것이어서, 그는 양과와 소용녀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에 가득한 원한과 독기를 그녀에게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그녀와 사활을 다투려고 하고 있었다.

소용녀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윤지평.조지경 두 도사를 주살하려면 눈앞에 있는 세 고수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차갑게 말했다.

[길을 비키지 않겠다면 내가 득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이 말과 함께 검광이 번뜩이며 돌연 한 가닥 소리가 들리더니 유유하게 끊이지를 않았다.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소용녀는 이미 1장 남짓 뒤로 물러나 대전의 중심으로 돌아와 섰다. 소상자와 니마성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원래 이 긴 소리는 바로 40여 차례의 극히 짧은 공력이 연속으로 이어져 난 소리였다. 이 짧은 순간에 소용녀의 쌍검을 이미 찌르고 베는 40여 초의 동작을 했는데 니마성 무기에 부딪쳐 나는 소리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기가 한번 부딪쳐 길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녀의 공격이 이토록 빠르자 소상자 등 세 사람은 더욱 놀랍고 두려웠다. 그녀의 검초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두 사람이 병기를 물방울 하나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춤추듯 휘둘러 전혀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검을 내찌르는 것을 보고 나서 무기를 들어 막았더라면 몸에 이미 검을 맞았을 것이었다. 소용녀는 급히 공격을 하지 않고 역시 이들 두 사람이 이토록 철저하게 수비를 하는 것에 탄복하여 미소를 한차례 날리고는 바람에 나부끼듯 가볍게 뒤로 약간 물러섰다. 시선은 여전히 소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쌍검이 다시 번개같이 앞으로 찔러 오는데 딩딩딩딩, 12번의 급박한 소리가 울렸다. 비파(琵派)의 고수라고 해도 이렇게 빠르게 줄을 튕

기지는 못할 것이었다. 윤극서는 금편은 쉴 새 없이 움직여 마침내 12번의 공격도 모두 막아냈다.

두 차례의 공격과 수비가 지나가자 네 사람은 심중으로 무언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용녀는 안타깝게도 내력이 강하지 못하여 검초의 힘으로는 상대방의 무기를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 세사람과 힘이 엇비슷했다면 세 사람은 이미 막지도 못했을 것이다. 소용녀는 검을 들고 대전 중앙으로 돌아와서 적을 적을 무찌를 계책을 생각했지만 세 사람의 손에 든 무기는 춤출수록 더욱 급해지니 조금이라도 허점을 찾을 만한 곳이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토록 무기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이면 내력의 소모가 매우 클것이나 분명히 오래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시간을 오래 끌면 반드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지경이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다시 찾으면 되지.)

그리하여 쌍검을 가벼이 흔들며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내칠 듯 말 듯하면서 세 사람이 조금도 긴장을 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상자 등의 내력은 모두가 극히 심후하여 이렇게 무기를 춤추듯 휘둘러도 당장은 기력이 줄어들지 않았다. 소용녀는 전혀 틈이 없는 것을 보고, 우아하고 단정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급한 성격이 아니었다. 길에서 윤지평과 조지경은 한 달 이상 쫓아다니면서도 시종 손을 쓰지 않았던 그녀이다. 지금은 아무리 기다려도 한나절이면 될 것이니 방해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20년은 고묘에서 정적을 지키면서 이미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인내심을 기른 것이었다.

니마성은 그녀가 검을 짚고 한가하게 방약무인한 태도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우선은 화를 가라앉힐 수 없어 호랑이가 포효하듯 맹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철사를 휘둘러 그녀를 향해 질풍같이 공격했다. 그가 일단 손을 써서 공격을 하자 몸에 허점이 노출되고 소용녀의 장검이 움직였다. 니마성은 급히 지팡이를 짚고 뛰어 되돌아왔다.

그러나 어깨에 가벼운 통증을 느껴 한번 내려다보니 왼쪽 어깨의 옷이 칼에 찢겨 조그만 구멍이 뚫리고 선혈이 흐르기 시작했다. 만약 소용녀가 그의 철사 공격을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 왼쪽 어깨는 이 순간에 이미 몸에 붙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니마성은 나서서 공격을 했지만 효과도 없고 도리어 부상을 당하자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감히 더 이상 나서지를 못했다. 세 사람은 각기 세 방향으로 서서 춤추듯 무기를 휘두르는데 소용녀는 중앙에 서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윤극서는 황사만리편법(黃沙萬里鞭法)을 네 차례 반복하여 사용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소리쳤다.

[니형, 소형. 우리 함께 반 걸음만 앞으로 나아갑시다.]

니마성과 소상자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는 서역의 큰 장사꾼으로 견식이 넓고 총명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말대로 반 걸음 나섰다. 윤극서도 동시에 반 걸음을 내디디며 외쳤다.

[방비를 철저히 하고 걸음을 천천히 옮겨야 하오. 자, 다시 반 걸음 앞으로 나갑시다.]

두 사람은 그의 말 대로 앞으로 나섰다. 세 사람은 털끝만큼의 실수도 없이 다시 앞으로 반 걸음 나아갔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알아챘다. 세 사람이 소용녀를 포위한 원이 점점 축소되면서 결국은 그녀는 가운데로 몰아붙였다. 세 사람은 비록 감히 손을 내밀어 공격을 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무기를 춤추듯 휘두르며 3개의 철벽처럼 하여 중간으로 몰아붙이자 세 곳의 수세(守勢)가 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공세가 되어 실로 그 사나움은 당해 낼 수가 없을 정도였다. 뭇 사람들 중, 몽고 무사와 조지경 일파의 도사들은 심중으

로 은근히 기뻐하고, 그 나머지 도사들은 모두가 소용녀를 위하여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소용녀는 세 사람이 갈수록 다가오고 무기와 초수 중에는 여전히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것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몰려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즉시 쌍검으로 계속하여 찔러 댔다. 그러나 띵띵, 하는 소리만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완만하게 들리면서 매 일초가 모두 상대방의 무기에 부딪칠 뿐이었다. 소용녀가 연달아 수십 초를 공격했지만 모두가 튕겨 돌아오자, 세 사람은 다시 각자 반 걸음 전진했다. 소용녀는 점점 당황하여 좌측으로 물러날 때 발이 엇갈리면서 약간 비틀거렸다. 이렇게 한번 검법에 허점이 드러났지만 소상자 등은 방어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 공격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미 크나큰 위험을 당했을 것이었다. 원래 대전의 바닥에는 수십 자루의 장검이 버려져 있었다. 모두가 전진계 도사들이 사용하던 무기들이었다. 소용녀는 왼발로 바닥에 있던 장검의 손잡이를 밟아서 똑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홀연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손으로 쌍검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분심이용지술을 배웠으니 두 손으로 동시에 4 자루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다. 4 자루 검의 위력을 아직 시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적을 혼란시켜서 곤궁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다.)

그녀는 즉시 왼손의 장검을 오른손으로 옮겨 쥐고 몸을 굽혀 다시 2 자루의 검을 집어들어 좌우에 각기 쌍검을 쥐고 4 자루의 검을 동시에 휘둘렀다. 소상자등은 너무도 놀라 생각했다.

(이 아가씨의 초수는 갈수록 기이해지는구나. 4 자루의 검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 들어 보지도 못한 일이다.)

그러나 세 사람은 전혀 주의력의 동요 없이 만가지 변화에도 응하겠다는 듯이 그녀가 무슨 괴초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오직 수비만 하며 점차 앞으로 전진했다.

소용녀는 4 자루의 검을 나란히 사용하여 비록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는 했지만 위력은 도리어 쌍검만 사용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에 오직 단검만을 연마하여 왼손은 전진검법을 사용하고 오른손에 옥녀검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의무봉(天衣無縫)이었는데, 지금은 한손에 모두 쌍검을 사용하자 매우 불편해 초술을 낼 때모 이미 득수응심(得手應心)의 묘가 없었다.

소상자 등은 수초 사이에 그녀의 검이 돌연 약간 느려지며 이전처럼 변화가 없음을 눈치챘다. 니마성은 입에서 구구, 소리를 내며 철사를 휘둘러 진격하려고 했다. 윤극서가 외쳤다.

[안 돼, 이것은 속임수요.]

니마성은 그가 일깨워 주자 깜쪽 놀라 뛰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과연 눈치가 빨랐다. 원래 이 여자는 이토록 교활한데 자기가 만약 한 번이라도 공격했다면 그녀가 즉시 반격하여 합위(合圍)의 형세가 즉시 깨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이미 붙어 있지 않을 것이로 생각했던 것이다.

소용녀는 사실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윤극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듣고 생각했다.

(이 검둥이 난장이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방법을 깨우쳐 주는 구나. 내가 속인다고 했으니 정말로 그를 한번 속여 봐야되겠누나.)

돌연 오른손을 떨치자 한 자루 장검이 위로 날아 올라갔다. 오른손의 나머지 장검으로 찌르며 왼손의 장검 한 자루를 또 위로 던졌는지 모르고 있는데, 공중의 쌍검이 아직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의 수중에 있던 쌍검마저 역시 날아올랐다. 이렇게 되자 그녀의 두 손은 텅 비어 아무 무기도 없게 되었다. 윤극서가 외쳤다.

[수비를 엄하게 하시오. 절대로 나서서 공격하면 안 되오!]

그는 소용녀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없었지만, 수비만 엄밀하게 하면서 앞으로 몰아붙여도 승산이 보이는 판인데, 상대방이 비록 적수공권(赤手空拳)이지만 모험을 해서 진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용녀는 허리를 굽혀 두 손으로 계속 바닥에 있는 검을 집어서 하나하나 공중에 던지고, 동시에 공중에서 장검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그것을 함께 잡아서 다시 던졌다. 수십 자루의 장검이 여기서 올라가소 저기서 떨어지며 한광(寒光)이 번뜩여 실로 기묘한 광경을 이루었다. 고묘파의 무공은 본디 내력의 심후함을 장기로 하지 않고 수법의 신속함을 뛰어난 것으로 여겼다. 당년 소용녀가 양과에게 무공을 전수할 때에 그에게 두 손으로 81 마리의 참새를 잡게 한 적이 있다. 이 천라지망세(天羅地網勢)를 사용하면 살아 있는 참새도 잡을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수십 자루의 장검을 잡고 던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수중에는 매 순간마다 언제나 무기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소상자등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며 이 아가씨가 요술이나 재주를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용녀가 갑자기 좌장을 치켜들어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검의 손잡이를 밀자 그 검은 옆으로 날아서 윤극서를 향해 질풍같이 찔러 들어갔다. 검끝이 춤추듯 휘두르는 그의 금룡편의 빛이 장막에 부딪치자 더 할 나위 없이 빠르게 튕겨 돌아와 니마성에게 날아갔다. 니마성이 철사를 급히 휘두르자 검은 한번 부딪치더니 다시 소용녀에게로 돌아왔다. 이때 공중에서 다시 2 자루의 장검이 떨어져 내리자 소용녀는 두 손으로 각각 튕겨 내어 3 자루의 검이 나뉘어 세 사람을 공격하게 했다.

잠깐 사이에 수십 자루의 장검을 더 이상 위로 날아오르지 않고 3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빛의 장막 사이를 어지러이 왔다갔다 했다.
어떤 장검은 비스듬히 날아가서 니마성의 철사의 커다란 칼날에 부
딪쳐 두 동강이 났다. 소용녀는 손에 금사(金絲)로 만든 장갑을 끼
고 검을 쳐내어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천라지망세를 익히 수련하여 방사(房舍)와 전당(殿堂)사이를 나가고
물러나며 뛰고 피하는 무공이 천하 제일이었다. 소용녀는 원래 눈
이 밝고 손이 빠르며, 한없이 맑은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심중에는
아무런 잡념도 없이 이 격전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누가 죽고 사
는지 하는 것들은 전연 생각하지도 않았다. 때로는 되는 대로 칼자
루를 잡고 몇 차례 찌르다가 다시 적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처음에
그녀가 쌍검을 손에 쥐고 있을 때도 소상자 등은 이미 막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십 자루의 장검이 어지러이 날며 찌르고 또한
그녀가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공격하니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 하물며 장검이 각자의 무기에 부딪쳐 오고갈 때 방향과 힘을 전연
제어할 방법이 없었으니 그 장검에 부상을 당하든가 죽든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 달려 있었다.

　소용녀가 공중을 향해 검을 던진 것은 본래 적의 눈을 어지럽히려
고 한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정세가 변해 뜻하지 않게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무기가 날고 춤추는 소리 가운데 은은히 윤극서와
니마성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상자는 곡상
봉을 비록 빠르게 휘둘렀지만 황급한 표정이 역력하여 <소상(瀟湘)>
이라는 그의 이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돌연 윤극서가 오른팔을 아래로 늘어뜨리며 크게 소리쳤다.

　[아차!]

　3 자루의 장검이 날아가 마침 그의 연편과 함께 얽힌 것이다. 그는
비록 수비를 엄밀하게 했지만 이 3 자루의 검은 모두가 소상자와 니

마성의 무기에 부딪쳐 튕겨나온 것으로, 마침 그의 채찍이 얽힌 것이었다. 윤극서는 있는 힘을 다해 3자루의 검을 털어 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연편을 들지 못했을 때에 소용녀가 장검을 찔러 윤극서는 팔에 극심한 통증은 느끼며 연편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철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금룡연편이 땅에 떨어졌다. 소용녀는 좌장은 연속하여 휘둘러 7,8자루의 장검을 날려 세 사람을 찌르게 하고 이어서 두 손을 각기 장검을 한 자루씩 쥐고 몸을 날려 윤극서의 앞으로 뛰었다. 윤극서가 팔에 부상을 당하고 무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 철벽 같은 포위망은 금방 깨어져 버렸다. 그녀의 쌍검이 두 줄기 번개처럼 빛을 날리더니 급히 뒤로 뛰었다. 소용녀의 경공은 세 사람보다 높아서 곧장 대전 뒤로 달려가 급히 조지경을 추격했다.

소상자 등은 일시에 무기를 거두지 못하고 수십 자루의 장검이 일일이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손을 멈추었다. 윤극서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가득 찼다.

[소제가 무능하여 그녀를 도망가게 했군요!]

그들 세 사람은 본래 서로가 낮추지를 않아서 줄곧 상대방은 제압할 방법만을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방금 이 혼자서 달아날 정도의 악투를 고 나자, 세 사람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서로간의 적의가 적지않게 감소되었다. 소상자와 니마성이 나란히 말했다.

[이것은 그래도 윤사형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홀연 산 위에서 은은하게 떵떠엉, 무기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상자 등은 대전에서 일전을 벌이고 본래 간담이 서늘해 있었다. 그러나 무기가 부딪치는 이 소리 중에 법왕의 5개 바퀴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소용녀가 이미 법왕과 다투고 있음이 분명했다. 세 사람은 생각했다.

(법왕같이 강력한 고수가 나서고 있으니 우리가 옆에서 협공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취할 것이다.)

윤극서가 금룡연편을 들고 외쳤다.

[함께 따라갑시다!]

하며 먼저 나서서 소리를 따라 쫓아갔다. 소상자는 곡상봉을 들고 니마성과 함께 몽고 무사들을 이끌고 뒤따랐다. 이들이 지금 심중에 두고 있는 적은 오직 소용녀 한 사람뿐이었으며, 전진 도사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윤지평.이지상등은 몽고 무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자 즉시 서로 결박을 풀곤 분분히 장검을 들고는 벌떼같이 뒤쫓기 시작했다.

소상자등이 중양궁 뒤의 옥허동 앞에 이르자 바퀴 그림자가 이리저리 날고 검기(劍氣)가 종횡무진했다. 금륜법왕은 우뢰처럼 소리를 지르고 소용녀는 눈보다 흰 옷을 입고서 두 사람이 1장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맞서고 있었다. 금.은.동.철.연의 5개의 바퀴가 이리저리 돌며 춤추듯 날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진동시켰다. 법왕의 바퀴는 몇 차례의 격전을 거치면서 두 번이나 잃었지만 잃은 뒤에 즉시 보충하여 크기와 중량을 잃은 것과 다름없이 만들었다. 원래 바퀴에 주조했던 화문(花紋).진언(眞言)만이 없을 뿐이었다. 5개를 다시 갖추게 되자 법왕은 득의양양하게 응수했다.

윤지평과 이지상은 옥허동의 동굴 입구가 이미 커다란 돌에 막힌 것을 보고 다섯 분 사장(師長)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초조한 마음으로 일제히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달이파는 금저(金杵)를 들

고, 곽도는 강선(鋼扇)을 휘둘러 겨우 수초 만에 도사들을 물리쳤다
. 왕지탄이 크게 소리쳤다

[사부님, 사부님! 별 일 없으신지요?]

그는 마음이 초조하여 말소리 중에 곡성까지 섞여 나왔다. 이지상이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다섯 분의 사장의 현공(玄功)으로 그리 쉽사리 동굴에 갇힐 리가 없다. 필시 그분들은 연공을 하는 긴급한 순간이라 서로 떨어져 외적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 왕사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그분들이 동굴 안에서 듣는다면 도리어 심사가 흐트러질 뿐이다)

[왕사제, 소리 지르지 마라. 다섯 분 사장께서 놀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왕지탄은 즉시 그 의미를 깨닫고 땅에 쓰러진 송덕방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것을 보고 즉시 응급 조치를 했다.
소상자 등은 법왕이 소용녀와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가 비록 수비를 주로 하고 공격은 적었지만 두셋 중의 일초는 반격을 하고, 오륜의 위력은 무섭기 짝이 없어 소용녀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세 사람이 오직 수비만 하고 공격은 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법왕의 무공이 뛰어나긴 뛰어났다. 세 사람은 한편으로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일었다.
(이 화상이 몽고 제일국사에 봉해진 것은 과연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세 사람은 본래 법왕과 함께 협공하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사심이 일어나 그가 성공하는 것을 도와 주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금륜법왕이 출초는 비록 사나왔지만 심중으로는 도

리어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용녀는 두 손의 검초가 같이 않아 정묘절륜한 조화를 이루어 왼손의 검이 앞을 공격하면 오른손의 검은 동시에 뒤를 엄습하여 그가 물러나지도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쌍검의 매 일초와 검초가 모두 여러 군데를 공격하여 그가 이곳을 돌아보면 다른 곳을 실수하게 하여, 당해 내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만약 그의 내공과 외공이 지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고, 눈이 밝고 손이 빠르며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아서 무공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다면 이 잠깐 사이에 온몸의 17,8 곳에 검을 맞았을 것이다. 사실 2 개의 검을 사용하는 소용녀의 검법이 출초는 비록 빨랐지만 위력은 양과와 함께 공격하는 것만 못했다. 진정한 무공만으로 따지자면 법왕과 벌써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소상자 등도 그녀보다는 강할 것이었다. 다만 그녀의 모든 출초가 별이 달리듯 번개가 번쩍이듯 빨라서 사람들이 이제껏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겁부터 먹게 만들었던 것이다. 법왕은 더우기 이 옥녀소심검법에 고초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검법을 보면 오직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몸을 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소용녀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선성탈인(先聲奪人)의 무공이었다.

5,60 초를 겨루자 법왕은 곳곳에 위험이 드러나 금륜을 회수하여 몸을 보호한 뒤, 감히 적을 공격하지 못했다. 다시 수초가 지나자 은륜도 거둬들였다. 이어서 오륜을 모두 거두어 수비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는 자세로 변하여 바로 조금 전의 소상자 등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5 개의 바퀴는 무게와 크기, 색깔과 모양이 각각 달라서 어떤 것은 뾰족하고 날카로왔고, 어떤 것은 각이 져서 5 개의 빛의 동그라미를 만들며 그의 몸 둘레를 이리저리 감쌌다.

[차앗!]

홀연 소용녀가 어여쁜 목소리로 질타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법왕이 낮게 소리 지르고 띵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몸을 날려 오가며 손놀림이 갈수록 빨라져서 소상자 같은 고수도 두 사람이 소리 지르며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지 똑똑히 알아 볼 수가 없었다. 금륜법왕이 만약 바퀴의 사나운 힘으로 그녀와 맞서 공격했다면 소용녀는 제대로 당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어서 결국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소용녀와 빠르기를 다투니 갈수록 불리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별안간 니마성의 얼굴에 미세한 통증이 왔다. 극히 가느다란 암기에 맞은 것 같았다. 깜짝 놀라서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바닥에는 약간의 선혈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다시 한 방울의 선혈이 윤극서의 몸으로 튀는 것을 보고 격투하는 두 사람 중의 하나가 이미 부상을 당했음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용녀의 하얀 옷에 군데군데 10여 방울의 선혈이 얼룩졌다. 그것은 마치 하얀 비단 위에 복숭아꽃을 그려 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왔다. 니마성은 기뻐셔 소리쳤다.

[소요녀(小妖女)가 부상을 당했다!]

이어서 검광이 두 차례 번뜩이더니 법왕이 한차례 낮게 신음했다. 소상자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다! 바로 대화상이 부상을 당했다!]

니마성이 생각을 잘못 했던 것이다. 선혈은, 법왕이 상처를 입은 뒤 소용녀의 몸에 튄 것이었다. 만약에 법왕이 그녀의 손에 죽는다면 더 이상 그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외쳤다.

[윤형, 소형, 일제히 공격합시다!]

니마성이 몸에 철사를 휘두르며 천천히 소용녀의 뒤에서 달려들었다. 소상자와 윤극서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느끼고 즉시 좌우로 나누어 가까이 조여들었다.

법왕은 몸에 세 군데 검을 맞았지만 모두가 경상이었다. 위험천만의 순간에 옆으로 응원군이 생기자 그런 대로 마음이 놓였다. 소상자 등이 손을 내뻗어 공격은 하지 않고 각자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며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천천히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시간이 오래 가면 소용녀가 반드시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옥허동 앞은 푸른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명의 무림 괴객이 한 백의의 소녀를 포위하여 한바탕 악투를 벌이고 있었다. 몽고 무사와 전진 도사들은 눈이 현란하고 가슴이 뛰어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평생에 어디서 다시 이런 격렬한 싸움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펑펑,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모래와 돌이 춤추듯 날고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며 옥허동 앞의 10 여 개의 큰 돌이 한쪽으로 무너지며, 다섯 명의 도인이 동굴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바로 구처기.유처현 등의 전진오자였다.

[사부님!]

윤지평, 이지상 등이 너무나 기뻐서 일제히 소리치며 달려갔다. 달이파와 곽도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렇게 동굴을 부수는 형세를 보니 마치 화약에 불을 붙여 돌을 폭파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각기 무기를 들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구처기 등 다섯 사람은 옆으로 일단 길을 비켜 서서 돌연 10 개의 손바닥을 나란히 내어 두 사람의 등을 나꿔채서 1 장 밖으로 던져 버렸다.

달이파와 곽도의 무공은 학대통과 백중지세이고, 구처기.왕처일의 정묘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결코 단 1 초에 던져질 정도는 아니었

다. 원래 전진오자는 옥허동 안에서 정련하면서 옥녀심경을 물리칠 방법을 강구했다. 다섯 명은 있는 생각을 다 짜내어 밤낮으로 고민했다. 소용녀와 양과가 보여 준 무공은 매 일초, 일식이 모두 교묘하게도 전진파 무공과 상극을 이루어 아무리 초술을 생각해 내려 해도 어렵기 짝이 없었다. 나중에 구처기가 천강북두의 진법에서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아 말했다.

[우리가 초술의 변화는 단연코 미치지 못하오. 그러나 다섯 사람이 힘을 합하여 경력으로 초수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는 있지요]

이리하여 다섯 사람은 힘을 합해 적을 공격할 법문을 정련하여 매 일초가 나갈 때마다 모두 다섯 사람의 경력을 한곳으로 집중하게 했다. 그들은 제 3,4 대 제자 중에는 결코 뛰어난 인물이 없어서 오직 사람이 많은 것만을 믿고 힘을 합해 스스로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마침내 칠성취회(七星聚會)의 일초를 창조해 냈다. 이 일초는 말하자면 천강북두진법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으로, 비록 칠성취회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일곱 사람이 힘을 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6 명, 5 명에서 4 명, 3 명까지도 모두 힘을 합해 펼칠 수 있는 것이었다.

굼륜법왕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동굴을 에워쌌을 때는 바로 요긴한 부분을 수련하고 있던 중이어서 절대로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대적이 와서 공격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다섯 명이 각자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서 전혀 틈이 없을 정도로 수련하고 나서야 동굴을 부수고 나온 것이다. 아쉬운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이 일초를 서너 번 이상 심후하게 연공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도 달이파와 곽도가 당해 내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것이었다.

구처기 등이 몸을 돌리니 법왕 등의 네 사람이 소용녀를 포위하고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다섯 사람은 잠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저도 모르게 참담한 표정을 짓고 똑같이 생각했다.

(끝장이다, 끝장이야. 원래 고묘파의 무용이 이토록 정묘하니 그녀를 이기는 것은 종신토록 바라지 못하겠구나.)

그들이 동굴에서 생각하고 연마한 것은 모두가 이전에 보았던 소용녀와 양과의 무공에 의거한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검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어서, 격파니 방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엄두도 못 낼 정도였다.

법왕 등 4대 고수의 무공은 모두 전진오자의 위에 있으니 지금 전진교에서는 이 중의 하나만도 당해 내기가 어려울 판이었다. 구처기 등은 생각했다.

(만약 선사께서 살아 계신다면 자연히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주사숙께서도 하나씩 상대하면 이기실 테지만 만약 동시에 네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십중팔구는 당해 내지 못하실 것이다.)

다섯 노도는 고개를 늘어뜨리고는 의기소침하고 참담하고 부끄러운 것이 그야말로 세대 차이를 절로 느꼈다. 선사의 공업을 계승하지 못해 대적이 눈앞에 들이닥쳤는데도 전진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한 초 한 초가 갈수록 흉험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위기가 다가오자 다섯 사람을 볼수록 놀라 제자에게 이 변고가 어떻게 하여 생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소용녀 등 다섯 사람이 싸우는 정세가 이미 달라졌다. 소용녀는 일초 일초를 공격하고 법왕 등은 시종 방어만 하고 반격은 적게 하면서 점차 포위망을 좁혀 갔다. 소용녀는 갈수록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자 여러 번이나 포위망을 벗어나려 했지만 상대방이 매우 엄밀하게 방어를 하여 매 일초가 모두 부딪쳐 되돌아왔다. 그녀는 금륜법왕이 알고 있었다. 게다가 수중의 쌍검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른 무기도 없었다.

그녀는 대전에서 녹청독을 다치게 한 뒤, 이제껏 거의 한 시간을

싸워서 기력이 점차 떨어진데다가 강적은 갈수록 가까이 조여들었다. 구처기 등의 다섯 사람이 또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이 다섯 노도도 쉬운 적수가 아니었다. 사방에 온통 적이요 자기는 혼자뿐이니 오늘에야말로 중양궁에서 죽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된 이상 죽는 것이 뭐가 아깝겠느냐? 다만......, 다만, 죽기 전에 과아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곽소저와 잘 지내겠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찌 이토록 괴로운 운명의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랴? 아니야, 아니야! 과아는 그럴 리가 없어. 그가 곽소저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결코 나를 잊을 리는 없어. 아아, 그를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그녀는 양양성을 떠나 북상할 때에 다시는 결코 양과와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생사가 걸린 순간에 이르자 갈수록 그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양과를 한번 생각하자 본래의 분심이용이 돌연 변하여 심유전주(心有專注)로 되어, 두 손의 검초가 서로 같게 되자 더 이상 옥녀소심검법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왕은 그녀의 검법이 돌연 변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녀가 고의로 약점을 보여 적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몇 초를 교환하자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즉시 반 걸음 나서서 왼손의 은륜으로 몸을 보호하고 오른손의 금륜을 그녀의 검에 부딪치도록 던졌다.

땡, 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리더니 소용녀의 왼손의 장검이 손에서 빠져 날아가 공중에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조각으로 부러졌다. 법왕의 이 공격은 원래 시험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성공을 거두자 실로 뜻밖이라 즉시 오른손의 금륜을 던졌다. 소용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마음을 진정하여 가다듬고 사사삭, 3 검을 반격했지만 지금은 단검에만 의지하고 있으니 법왕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소상자 등은 공격이 쉬워진 것을 알아채고 즉시 3 개의 무기로

일제히 공격했다.

소용녀는 담담하게 한번 웃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힘을 다하여 다투고 싶지가 않았다. 3장 밖에 있는 푸른 소나무 옆에 매괴가 한 무더기 자라 있는데, 꽃이 어여쁘게 피어 있어 금방이라도 꽃물이 뚝뚝 떨어질 듯했다. 그것을 본 소용녀는 돌연 당년에 양과와 함께 꽃더미에서 옥녀심경은 연마하던 광경을 떠올리고는 생각했다.

(이미 양과를 만나지 못할 바에야 죽기 전에 마음속으로라도 그를 생각하자.)

그녀의 안색이 부드럽고 온화해지며 즉시 깊은 명상에 잠겼다.

법왕 등은 사방에서 함께 포위하여 원래는 한꺼번에 그녀를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홀연 그녀의 표정이 적과 맞서기를 잊은 듯 괴이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또 무슨 사법(邪法)을 펴려고 하는지 몰라 4개의 무기를 공중에 치켜들고 내려치질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철사가 제일 먼저 내리쳐왔다.

돌연 옆에서 휘익, 바람소리가 일며 누군가 검을 들고 찔렀다. 니마성이 급히 철사를 되돌려 막아서는데 허공을 치고 말았다. 사람의 그림자만 흔들리는가 했더니 윤지평이 소용녀의 앞으로 나서서 온에 들었던 장검의 칼자루를 그녀에게 건네 주는 것이었다. 소용녀는 이 순간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어서 일찌감치 죽을 힘을 다해 싸우던 일은 전혀 잊고 있었는데 왼손 손바닥에 칼자루가 닿는 것을 느끼자 저도 모르게 꽉 움켜잡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윤지평이 5대 고수가 싸우는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은 제 발로 죽으려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도 모르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법왕은 그와 알고 있는 처지라 그의 목숨을 해치고 싶지 않아 즉시 왼팔로 그의 어깨를 쳐서 그를 밀어내고 오른손으로 바퀴를 휘둘러 소용녀를 향해 던졌다. 윤지평은 그녀가 무엇 때문에 돌연 전의를 상실했는지 몰라 답답했는데, 바퀴가 날아가 그녀를 죽이려는 것

을 보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들며 외쳤다.

[용아가씨, 조심하시오!]

자기의 등으로 법왕의 금륜을 받아 냈다.

법왕의 금륜은 한번 날면 그 위력이 돌을 깨고 산을 가를 정도이니 윤지평이 어떻게 당해 내겠는가? 그는 즉시 앞으로 고꾸라졌다. 소용녀는 그가 건네 준 검을 받은 뒤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윤지평의 몸이 엎어지면서 마침 검끝에 부딪쳐서 칼날이 가슴을 뚫고 들어갔다. 소용녀는 흠칫 놀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보니 그가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등에는 금륜을 맞고, 가슴은 검에 찔려 치명적인 중상임을 보고, 소용녀는 가슴에 가득했던 증오의 마음이 순식간에 연민의 정으로 바뀌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뭣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자초하는 거요?]

윤지평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돌연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칠 듯 기뻐하며 말했다.

[용아가씨, 나는 사실......, 사실 당신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읍니다. 당......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겠읍니까?]

소용녀는 다시 한번 놀라 양양의 곽부(郭府)에서 그와 조지경이 한 말을 생각하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과아는 내게 그토록 깊은 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결코 변심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었지. 하지만 그가 홀연 곽소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도 조금도 애석해 하지 않은 것

은 분명히 내가 이놈에게 더러운 욕을 당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심사가 단순하여 비록 줄곧 윤.조 두 도사를 따라다니면서도 이 일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순간 윤지평의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을 깨달은 듯 심중의 연민이 즉시 증오로 바뀌고 분노도 이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오른손의 장검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비분함이 가슴에 가득했지만 평생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이 검이 그의 가슴에 닿자 차마 더 이상 찌르지를 못했다.

구처기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랑하는 제자가 비명에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했지만 워낙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소용녀의 제일검은 법왕 때문에 찔렀다고 하지만 이번의 검은 그녀가 의도하여 찌르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에 얽힌 우여곡절을 알 리가 없었다. 최근 반년 동안 밤낮으로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소용녀의 초술을 막아내는가 하는 것뿐이었으며, 최근 한달 동안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이미 소용녀가 본교의 대적임을 인정하고, 또한 윤지평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녀를 구하려고 했으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여, 그녀가 검을 들어 다시 찌르는 것을 보고는 즉시 몸을 날려 앞으로 가서 검을 왼손의 다섯 손가락으로 그녀의 팔목을 뿌리치고 우장을 그녀의 면문을 향해 곧장 내리쳤다. 구치기의 무공은 전진칠자 중에서 제일이었으며 지금은 정세가 위급한 김에 펴낸 초술이어서 장력은 웅혼하기 짝이 없었다.

소용녀는 오른손을 그에게 맞자 장검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 즉시 검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그녀는 장검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손을 뻗어 다사 검을 움켜쥔 다음 구처기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바로 이때 윤지평이 크게 소리 지르며 땅에 쓰러져 입에서는 선혈이 뿜어나왔다. 소용녀가 왼손의 검으로 동시에 구처기의 배를 찔러서 쌍

검합벽으로 공격하자 위력이 크게 증가되어 구처기는 무공이 비록 정심(精深)했지만 단 3초 사이에 이미 손발이 어지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왕처일은 정세가 좋지 않자 나서서 응원하며 법왕 등 4명을 한 옆으로 몰아붙였다.

금륜법왕 등은 소용녀와 전진오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모두 이상함을 느꼈지만 생각해 보니 이 일은 크게 유리한 것이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각자 눈짓을 해 몇 걸음 물러서서 소용녀와 전진오자의 승패가 난 뒤, 그때 다시 나서서 뒷일을 수습하기로 했다.

고수가 무술을 쓸 때에는 매 일초에 생사가 머리카락 하나에 달려 있는 것나 마찬가지여서 어느 누구도 감히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구처기 등은 비록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 풀기가 어려움을 알았지만 이미 손을 썼으니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전진오자는 적수공권으로 소용녀의 신묘무방(神妙無方)한 검초를 만나자 한달 이상을 허비하여 만들었던 칠성취회의 일초는 펼쳐 볼 기회조차 없게 되었다. 잠깐 사이에 학대통과 유처현이 몸에 검을 맞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형제의 안위를 생각하여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이어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손불이가 또 어깨에 검을 맞았다.

전진 제자들은 사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지상이 외쳤다.

[어서 무기를 드려라!]

이때 오자의 장풍이 획획, 날고 있어 제자들은 가까이 접근할 방법이 없자, 장검을 한 자루 한 자루 던지는 수밖에 없었다. 소용녀는 검을 휘두르며 던져 오는 장검을 모두 튕겨서 날려 보냈다. 오자는 끝내 한 자루의 무기도 잡지 못했다. 홀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소용녀의 왼쪽 검이 날아온 장검에 달라붙었다가 갑자기 뒤로 뿌리치자 왕처일은 방어할 틈도 없이 왼쪽 눈언저리에 이 검을 맞았다. 전진오자 중에 4 명이 이미 부상을 입었으니 승부는 이미 판가름이 난 것이었다.

금륜법왕이 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각 도형들은 잠시 물러나시요, 이 소용녀는 노승이 요리하겠으니다!]

하고 말하며 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상자.니마성.윤극서 세사람도 함께 무기를 휘두르며 나서서 협격하니, 마침내 9 명의 대고수가 소용녀를 포위하여 공격하는 국면이 되었다.

법왕 등이 끼어들자 전진오자는 즉시 소용녀의 쌍검의 위험해서 벗어났다. 다섯 사람이 한차례 소리를 지르더니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혹은 우장을 내고 혹은 좌장을 내며 5 개의 큰 힘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칠성취회의 초술을 폈다. 그때는 비록 오성취회였지만 위력은 무시무시하여 소용녀가 몸을 기울여 급히 물러나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래벌판에 먼지가 흩날리며 이 일초가 니마성을 때려 구르게 했다.

원래 그는 두 다리가 이미 잘려서 지팡이의 힘에 의지하고 있어서 하반부가 불안정하여 이 일초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위급한 중에 정면의 힘을 피했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부상은 당하지 않아서 즉시 뛰어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철사를 들어 유처현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옥허동 앞은 고함소리가 사방에 일어나며 난장판이 되었다.

소용녀는 니마성과 전진오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소매를 흩뿌리며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다. 금륜법왕이 나서서 길을 막아서며 외쳤다.

[니형, 소용녀를 상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니마성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법왕의 외침은 들은 척도 않고 철사를 휘두르며 초수를 오직 전진 도인들에게만 퍼부었다. 소용녀의 쌍검이 법왕을 향해 몇 초를 찌르자 법왕은 공세가 너무나 빨라서 막을 수가 없어 몇 걸음 물러섰다.

돌연 소용녀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두 뺨에는 전혀 혈색이 없어졌다. 챙그렁, 소리를 내며 수중의 쌍검을 땅에 떨어뜨린 소용녀는 멍하게 청송 옆의 매괴화를 바라보며 외쳤다.

[과아야, 정말로 너란 말이냐?]

바로 이때 법왕의 금륜이 얼굴을 향해 날아오고, 전진오자의 칠성취회의 초술이 뒤에서 공격해 왔다. 이 일초는 본래 니마성을 막으려고 펴 낸 것인데 그 천축의 난장이는 이 초의 쓴 맛을 본 터라 강하게 맞서지 못하고 몸을 왼쪽으로 재빨리 피해, 이 일초의 경력이 모두 소용녀의 등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녀는 마귀에 홀린 듯 전연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등에 장풍을 맞고 가슴에 바퀴를 맞아서 그 어여쁜 몸이 이 두 거대한 힘의 협격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건만 눈빛은 여전히 매괴화를 향하고 있었다. 이 잠깐 동안은 두 거대한 힘도 그녀를 조금도 다치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눈빛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 매괴화더미에 도대체 무슨 괴이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홀연 청송 옆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날아와 법왕과 전진오자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왼팔을 뻗어 소용녀를 안고 번개같이 몸을 날려 다시 청송 아래 매괴화더미 속으로 들어가 소용녀를 품에 껴안았다.

그 사람은 바로 양과였다.

외팔이 양과

소용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과아야, 너로구나.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

양과는 머리를 숙여 그녀의 뺨에 가까이 대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가 안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옴에 군데군데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물었다.

[많이 다쳤나요?]

소용녀는 앞뒤에서 거센 협격을 당했으나 처음에 양과를 보았을 때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오장육부가 모두 뒤집히는 것 같아 손을 뻗어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는......, 나는......]

몸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양과는 이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음이 한스러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아가씨, 내가 한걸음 늦었군요!]
[아니야, 정말 잘 왔어.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로만 알았어!]

돌연 전신이 차가와지며 영혼이 빠져나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소용녀는 양과를 안았던 두 손까지 천천히 늘어뜨리고 말했다.

[과아야, 날 좀 꼭 안아 줘!]

양과는 왼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려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다.

[날 좀, 두......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안아 줘!]

눈을 돌리니 돌연 그의 오른손 소매가 텅텅 비어 펄럭이는 것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너의 오른팔은?]

양과는 고소를 날리며 낮게 말했다.

[지금 나에게 신경쓰지 말아요. 어서 눈을 감아요.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안 돼요. 내가 운기하여 부상을 가라앉혀 줄께요.]

[아냐! 너의 오른팔은? 어째서 없는 거야? 어째서? 응?]

그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조금도 자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양과가 왜 팔이 없어졌는지 한사코 알아보려고 했다. 그녀는 양과가 실로 자기보다 백 배 천 배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전심 전력으로 그만을 생각했다.

그들이 고묘에서 함께 살면서부터 일찌기 이러했지만 그때는 그녀

가 이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고 양과도 몰랐었다. 두 사람은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부와 제자간에 응당 있는 의리라 생각했었다. 고묘 안에는 오직 그들 두 사람밖에 없으니 만약 서로 상대방을 아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누구를 아끼고 생각한단 말인가? 사실 이 한쌍의 소년 남녀는 그들이 알기 전부터 이미 서로가 깊이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엔가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비로소 상대방이 없으면 결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상대방이 자기의 목숨보다 백 배 천 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는 한쌍의 남녀는 모두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직 진정으로 깊은 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천성으로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야만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는 것이다.

소용녀에게 있어서는 양과의 한쪽 팔이 그녀 자신의 생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가벼이 그의 소매를 쓰다듬어 보았다.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었지만 과연 소매 안에는 팔이 없었다. 그녀는 홀연 자신의 극심한 고통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심중에는 사랑이 가득하여 자기의 고통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불쌍한 과아야, 잘린 지가 오래 되었어? 아직도 아파?]

양과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이젠 아프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얼굴만 본다면, 영원히 당신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팔 하나쯤 없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나는 팔 하나가 없어도 이렇게 당신을 안을 수 있잖아요?]

소용녀는 가벼이 웃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의 품에 안겨서 비록 왼팔 하나만이 자기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본래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하고 바랐었는데 이렇게 되자 정말로 무척이나 기뻤다.

금륜법왕, 소상자, 윤극서, 전진오자 제자들, 몽고 무사들, 모든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멍하니 서서 이 한쌍의 젊은 연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로 이 순간만은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과 대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방약무인(旁若無人)이라는 말이 있다. 양과와 소용녀는 9명의 대고수와 무수한 몽고 무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앞에서, 눈앞에 있는 강적들을 전혀 아무것도 없는 듯이 여겨 그야말로 방약무인이었다. 사랑이 극에 달하면 왕후도 거름 보듯 하고 천하의 부귀 영화도 우습게 보이며 심지어는 생사의 대사까지도 등한시한다. 양과와 소용녀는 이미 생사는 안중에도 없으니 아홉 고수는 고사하고 천하의 영웅이 모두 온다고 해도 또한 어떻게 하겠는가? 다만 죽으면 그만인 것이다. 마음과 뼈에 깊이 새긴 사랑에 비한다면 죽음 따위가 무슨 문제란 말인가?

금륜법왕 등은 이 두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소용녀는 몸에 중상을 입었고 양과는 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 저항할 수 없을 것이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에는 이상하게도 늠름한 기운이 있어서 그 누구도 감히 가벼이 보지 못할 굳셈과 용기가 있었다.

마침내 소용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너의 오른팔..., 팔은 어떻게 해서 잘렸느냐? 어서 내게 말을해]

양과는 얼굴에 약간 웃음을 띄고 말했다.

[팔이 잘린 거야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잘렸죠.]

소용녀는 처연하게 그를 바라보며 누구의 독수냐고 더 이상 추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불행을 당한 것이니 누구의 독수이든 마찬가지였다. 이때 가슴과 등의 상처가 다시 극심하게 아파 오기 시작하여 그녀는 자기의 목숨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지막이 말했다.

[과아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아가씨,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요? 고묘에서 나는 당신에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무슨 이을 해 주기를 원하든간에 나는 그것을 할 거라구요.]

소용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것은 정말로 오랜 된, 정말로 오래 된 옛날의 일이다!]
[내게는 영원히 마찬가지예요.]

소용녀는 처량하게 웃고는 낮게 말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나와 함께 있어 줘. 줄곧 내가 죽는 것을 지켜봐 줘. 너의 그 곽....., 곽부 아가씨에게는 가지 마!]

양과는 상심도 되고 분하기도 하여 말했다.

[아가씨, 나는 당연히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곽아가씨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나의 오른팔도 바로 그녀에게 잘렸어요]

소용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

[아니, 왜 그녀가 이런 못된 짓을? 설마......, 설마 네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

양과는 한스러운 듯 말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외에 나는 일생토록 다른 어떤 아가씨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 곽아가씨는, 흥......!]

양과의 이 오른팔은 분명히 곽부에게 잘린 것이었다.

그날, 양과와 곽부가 양양의 곽부(郭府)에서 말다툼으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곽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숙녀검을 움켜쥐고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양과는 독에 중독된 뒤에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아 사지에 힘이 없어서 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한 나머지 오른팔을 들어 얼굴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곽부는 미친 듯이 화가 나서 온힘을 다했고, 그 숙녀검도 예리하기 짝이 없어서 칼끝이 떨어지자 양과의 오른팔은 소리도 없이 눈 깜짝 할 사이에 잘려 나간 것이었다.

단 일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양과는 그야말로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하고 곽부도 깜짝 놀라 서서, 이미 어쩔 수 없는 큰 화를 저지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곽부는 양과의 팔이 잘린 곳에서 피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연 아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뛰쳐

나갔다.

양과는 한차례 정신이 어지럽다가 잠시 후 진정을 하고, 왼손을 뻗어 자기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견정혈(肩貞穴)의 혈도를 누르고 이불을 찢어서 단단히 어깨를 묶어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고 다시 금창약을 상처에 바른 뒤 생각했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어서 빨리 성을 나가야한다)

천천히 담벼락에 의지하여 몇 걸음을 옮겼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눈앞이 온통 새까매지며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다.

바로 이때 곽정이 큰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빨리. 그는 어떻게 됐어? 피는 멎었느냐?]

목소리에는 초조한 기색이 가득했다. 양과는 즉시 생각했다.

(나는 결코 다시는 곽백부를 만나서는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를 만나서는 안 된다.)

즉시 숨을 들이마시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부(府)의 문을 나가서 말 한 필을 끌고 와 뒹굴어 올라타고 달려 성문에 이르렀다. 성을 지키는 장사(將士)들은 모두 일찌기 그가 성 꼭대기에서 곽정을 구출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하여 대단히 흠모하고 있던 터라 그가 말을 달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성문을 열었다.

이때 몽고군은 이미 성에서 1백여 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 있었다. 양과는 큰길로 가지 않고 줄곧 후미진 곳으로만 말을 몰았다.

(나는 정화의 극악한 독에 중독되었는데 기일이 지나도 죽지 않으니 혹시 바로 그 천축의 신승이 말한 대로 빙백은침의 독즙을 빨 뒤에 독으로 독을 풀어 도리어 목숨을 연장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독한 독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니 머지않아 다시 발작할 것이다. 지금은 몸에 중상을 입었으니 만약 종남산으로 아가씨를 찾으러 간다면 틀림없이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설마 내 운명이 이렇

게 노상(路上)에서 객사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닐까?)

일생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고묘에서 소용녀와 함께 지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평생에 즐거웠던 일이 없었다. 지금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와 친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으며, 게다가 다시 남에게 팔이 잘려 나가 위험한 지경이 이르고야 만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등에 엎드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오직 곽정에게 발견되지 않고 몽고 대군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어디든 되는 대로 가고 있었다. 가물가물 몽롱한 의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지난 밤에 무씨 형제와 싸웠던 황곡에 이르게 되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사방에 풀이 자라 무릎까지 덮고 적막한 것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양과는 풀더미에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다. 그는 이때 이미 생사를 아랑곳하지 않아 어떤 독충이나 맹수에 대해서도 전연 방비를 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상처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니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앉으니 홀연 몸에서 한 자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2마리의 지네가 죽어 있는 것이 보였다. 붉고 검은 반점이 있어 그야말로 끔찍했다. 지네의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양과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 주위를 살펴보니 2마리의 지네 주위에 피를 많이 흘린 흔적이 있어 가만히 생각을 해 보고는 그 이유를 알았다. 원래 그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는데 피에는 극악한 독이 들어 있어서 2마리의 독충을 중독시켜 죽게 한 것이었다. 양과는 쓴 웃음을 날리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양과의 피에 섞인 독이 지네도 당해 내지 못할 정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 했군.]

격분과 슬픔과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어 그는 하늘을 보고 한참을

웃었다.
홀연 산봉우리에서 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 보니 그 신조가 머리를 들고 가슴을 내민 채 혼자 봉우리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은 흉악하고 추했지만 도리어 늠름한 위엄이 있었다. 양과는 너무나 기뻐 마치 친구를 만난 듯하여 외쳤다.

[조형! 여기서 또 만났군요!]

신조는 길게 한번 울고는 산봉우리에서 곧장 내려왔다. 신조는 몸이 매우 무겁고 날개도 짧아서 날지는 못했지만 달리는 것은 마치 준마처럼 빨라서 눈 깜짝 할 사이에 양과의 곁으로 왔다. 그가 팔이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눈동자도 돌리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양과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조형, 내가 큰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당신에게 달려왔소.]

신조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양과는 말을 끌고 뒤따랐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신조가 고개를 돌리더니 돌연 왼쪽 날개를 뻗어 말의 배를 한번 쳤다. 말은 고통이 오자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몇 걸음 물러서서 쉬지 않고 날뛰었다. 양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내가 이미 조형의 골짜기에 와서 다시 나갈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담?]

양과는 이 수리가 매우 영특하여 실로 사람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손을 풀어 말고삐를 놓아 주고 성큼성큼 신조의 뒤를 따랐

다. 그가 중상을 입은 나머지 체력이 아주 약해 얼마 가지 않아 앉아서 쉬면 신조도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이렇게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 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다시 검마 독고구패의 뼈가 묻힌 동굴에 이르게 되었다.

양과는 그 돌무덤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감개에 젖었다. 이 선배 기인은 당세를 종횡무진하며 세상에 전혀 적수가 없었으니 무공도 당연히 신묘막측할 것이었다. 그의 이런 행적으로 보아 분명히 재주를 믿고 만물을 우습게 여겨 보통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황곡에 와서 쓸쓸하게 세상을 마쳤을 것이다. 따라서 무림에는 이미 그의 명성과 사적이 전해지는 것이 없고 또한 권경검법(拳經劍法)이나 문인 제자를 남겨 그의 절세의 무공을 전수하지도 않았으니, 이 사람의 신세가 참으로 놀랍고 부럽기도 하고 애처롭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애석한 것은 신조가 비록 영리하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그의 일생에 대하여 한두 가지라도 전해 주었을 것이었다.

그가 동굴 안에서 정신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는데 신조가 벌써 밖에서 산토끼 두 마리를 물고 돌아왔다. 양과는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한차례 포식을 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상처는 점점 아물어 가고 몸도 날로 건강을 회복했다. 소용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은 여전히 아프기는 했지만 이전에 그토록 참을 수 없이 아팠던 것보다는 훨씬 덜했다. 그는 본성이 활달하여 오랫동안을 신조와 함께 황곡에서 보내자 저도 모르게 적막하여 무료해지기 시작했다.

어느날 동굴 뒤에 수목이 무성하고 산기운이 맑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천천히 산보하며 풍경을 감상하다가 1 리(里) 남짓 가서 어느 깎아지른 절벽 앞에 이르렀다. 그 깎아지른 절벽은 하나의 거대한 병풍과 같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는데, 절벽의 중간 부분인 땅에서 약 20 여 장 떨어진 곳에 3,4 장 정도 되는 커다란 장방형의 돌

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평상 같았는데 돌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올려다보니 분명히 <검총(劍塚)>이라는 두 글자가 커다랗게 씌어 있어 그는 호기심이 일었다.

(어떻게 검도 무덤이 있단 말인가? 혹시 독고선배가 애검을 자르고 이곳에 묻은 것은 아닐까?)

절벽 가까이 가 보았지만 석벽에는 초목이 자라지 않고 매끄러워 전혀 수족을 붙일 만한 곳이 없어서 당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반나절을 바라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신기했다. 그도 역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반드시 다른 묘법이 있을 것만 같았다. 만약 정말로 무공에 의하여 올라갔다면 그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정신을 집중하여 한참을 응시하니 절벽에는 몇 자 떨어진 곳마다 이끼가 한 무더기 자라고 있어 수십 무더기가 똑바로 열을 지어 올라가 있었다.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몸을 날려서 맨 아래에 있는 한 무더기의 이끼를 더듬어 검은 진흙을 긁어 내니 과연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다. 독고구패가 당년에 날카로운 무기로 파낸 것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구멍에 진흙이 쌓여 이끼가 자란 것이었다.

별로 할 일도 없어 올라가서 그 검총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팔이 하나밖에 없어 기어올라가는 일이 대단히 힘들었다.

(올라가지 못한다 해도 다른 비웃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은가?)

그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호흡을 하고서 몇 자를 뛰어 왼발로 첫번째 구멍을 밟고, 다시 뛰어 오른발로 두번째 이끼 무더기를 향해 뛰니 부드러운 진흙이 나오고 석벽에는 과연 다시 발을 들여놓을 만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처음에는 10여 장은 올라갔지만 이미 힘이 부족하여 곧장 미끄러져 내려왔다.

(발을 딛는 곳이 20여 군데 정확하게 뚫려 있으니 두번째는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

그리하여 석벽 아래에서 운공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발의 힘을 기른 다음에 단숨에 평대(平臺)로 올라갔다. 양과는 자신의 팔은 비록 잘렸지만 경공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 절로 위안이 되었다. 커다란 돌에 <검총>이라고 씌어진 2 개의 큰 글자 옆에 두 줄의 비교적 작은 글씨로 새겨진 석각이 있었다.

<검마 독고구패는 천하에 적이 없어 이곳에 검을 묻다.>

[오호라! 군웅은 속수무책인데 장검은 공연히 날카롭기만 하니 이 또한 슬프지 않으리오!]

양과는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여 이 선배는 당세를 업신여기고 독왕독래(獨往獨來)한 것이 자기의 성격과 실로 닮은 점이 많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온 천하에 적수가 없는 것에는 자기가 어떻게 미칠 수가 있으랴? 지금은 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일시에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평생토록 희망이 없는 것이다. 두 줄의 석각을 정신이 나간 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니 수 많은 돌이 쌓여 하나의 커다란 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이 무덤을 산골짜기를 등지고 광활한 공간을 굽어보고 있어서, 검마 본인이 무슨 영웅이든간에 이 검총 하나만도 뛰어난 형세를 지니고 있어, 이 사람은 문무를 두루 지니고 포부도 비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늦게 태어나서 이 선배 영웅을 만날 인연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양과는 검총의 옆에서 하늘 우러러보고 길게 휘파람을 불자 잠시 동안 사방에서 메아리가 끊이지 않아 황약사가 일찌기 말한,
<천길 봉우리에서 옷을 털고, 만 리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다>는 즐거움을 떠올리니 지금도 역시 그런 호방한 감개가 어리는 것이었다. 그는 무덤 안에 있는 이기(利器)가 도대체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감히 선배에게 죄를 범할 수가 없

어 무릎을 껴안고 앉았다. 바람을 맞아 호흡을 하니 가슴에 맑은 기가 가득 차는 것 같아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갈 것만 같았다.

갑자기 절벽 아래에서 구구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아래를 굽어 보니 그 신조가 발톱을 뻗어 깎아지른 절벽에 난 구멍을 꽉 밟고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신조는 몸체가 비록 무거웠지만 다리의 힘은 무시무시할 정도여서 잠깐 사이에 평대로 올라왔다.

신조는 잠시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양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몇 번은 부르짖는데 목소리가 매우 특이했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조형, 애석하게도 나는 공야장(公冶長)과 같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분 독고 선배의 일생에 대하여 내게 말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신조는 다시 몇 마디 낮게 울고는 강철 같은 발톱을 뻗어 검총 위에 있는 돌을 잡아 한쪽 옆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양과는 생각했다.

(독고 선배는 몸에 절세의 무공을 지니고 있었으니 무슨 검경(劍經)이나 검보(劍譜)를 남겨 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조는 두 발톱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얼마 되지 않아 무덤의 돌더미를 모두 치우자 나란히 놓여 있는 3 자루의 장검이 드러났다. 첫번째와 두번째 검의 사이에는 길다란 돌조각이 놓여 있었다. 3 자루의 검과 돌조각은 커다란 푸른 돌 위에 놓여 있었다.

양과가 오른쪽에서 제일 첫번째의 검을 드니 검 아래의 돌에는 두 줄의 조그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강함과 사나움이 무시무시하여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잘리지 않는 것이 없다. 약관(弱冠) 이전에 하삭(河朔)의 군웅과 겨룰 때 사용하도다.>

다시 그 검을 보니 길이가 약 4 자 정도 되는데 푸른 빛이 번뜩여 그야말로 이기(利器)였다. 검을 원래 있던 곳에 도로 놓아 두고 길

다란 돌조각을 드니 돌조각이 놓였던 푸른 돌 위에도 역시 조그만 글씨가 두 줄로 새겨져 있었다.

<자미연검(紫薇軟劍). 30세 이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불길하게도 의로운 무사를 실수로 헤쳐서 깊은 골짜기에 버리도다.>

양과는 생각했다.

(여기에 검이 하나 없는 것은 원래 그때 버려진 것이구나. 어떻게 해서 의로운 무사를 실수로 해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사는 영원히 아는 사람이 없겠지.)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손을 뻗어 두번째의 검을 드니 얼마들지 않아서 쩽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서 떨어져 돌에 한번 부딪치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뛰었다.

원래 그 검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으며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극히 무거워서 3자 정도 되는 검 한 자루의 중량이 7,80근 이상은 될 것 같아 전진(戰陣)에서 가장 무거운 금도(金刀) 대극(大戟)보다도 몇 배는 무거웠다. 양과는 들어올릴 때 전혀 그 생각을 못하다가 뜻밖에도 너무 무거워 지탱하질 못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시 몸을 굽혀 들어올리는데 이번에는 미리 대비를 했다. 7,80근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검의 양쪽 날을 보니 모두 무디고 검끝은 둥글둥글하여 반구같이 생긴 것을 보고 양과는 생각했다.

(이 검이 이토록 무거우니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한단 말인가? 하물며 양날과 검끝이 모두 날을 세우지 않았으니 정말로 이상하구나)

검 아래의 석각을 보니 두 줄의 작은 글씨가 보였다.

<중검(重劍)을 날이 없고[無鋒] 대교(大巧)는 불공(不工)이라, 40세 이전에 이것을 믿고 천하를 횡행하도다.>

양과는 <중검무봉, 대교불공(重劍無鋒大巧不工)의 여덟 글자를 중얼중얼 되뇌어 보니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세간의 검술을 생각하니 어느 문(門), 어나 파(派)를 막론하고 변화야 다르지만 모두가 가볍고 신속한 것을 으뜸으로 여기는데 이 중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지난날의 현인을 생각하며 그는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을 신비감에 빠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중검을 내려놓고 세번째 검을 들었다. 그는 이 검도 분명히 이전의 검처럼 무거우리라고 생각하여 검을 들 때 왼팔에 힘을 다 주었다. 그러나 손에 들자마자 너무나 가벼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 원래 이것은 목검인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몸체와 자루는 이미 모두 썩어 있었다. 검 아래의 석각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40 세 이후에는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 초목죽석(草木竹石)을 모두 검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수련을 거듭하여 점차 검이 없이 검을 이기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도다.>

그는 목검을 조심스럽게 원래 있던 곳에 놓고 호연(浩然)히 길게 탄식하고 말했다.

[선배의 신기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구나.]

푸른 석판 아래에 무슨 검보 같은 유물이 없나 하여 손을 뻗어 석판을 잡고 위로 들어올리니 석판 아래는 석벽의 단단한 바위로 별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웬지 모르게 실망을 금치 못했다.

신조는 구, 하고 한마디 울고는 고개를 숙여 중검을 물어서 양과의 손에 올려놓은 뒤 구, 하고 다시 한번 울더니 돌연 왼쪽 날개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잠깐 동안 양과는 깜짝 놀란 나머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신조의 날개는 그의 정수리에서 한 자 정도 떨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구구, 하고 두 번 울었다.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조형, 나의 무공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위에 별일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놀아 보지요.]

그러나 그 7,80근이나 나가는 중검을 어떻게 시전하여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중검을 내려놓고 첫번째의 검을 집어들었다. 신조는 돌연 두 날개를 거둬들이고 고개를 돌려 더 이상 그를 돌아 보지 않는 것이, 자못 달가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양과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중검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지만 나는 무공이 평범하고 이 절벽 위에서 당신과 대결하니 결코 조형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양과는 중검으로 바꾸어 들고 단전의 기를 움직여 왼쪽 팔에 힘을 넣어서 천천히 들어 찔렀다. 신조는 몸도 돌리지 않고 왼쪽 날개를 뒤로 쓸어 중검과 마주쳤다. 양과는 한 줄기 매섭기 짝이 없는 거대한 힘이 검으로 전해 와 자신을 기가 통하지 않게 억누르는 것을 느끼고 감히 힘을 움직여 맞섰다. 그러나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신이 몇 번 춤추듯 흔들리더니 눈앞이 온통 깜깜해지며 양과는 즉시 기절해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서서히 정신이 드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쓴 액체가 목으로 흘러 넘어가고 있음을 느껴 눈을 뜨니 신조가 짙은 자색의 둥근 물체를 입에 물고 그의 입 속으로 넣어 주고 있었다. 양과는 이 물체가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여 입을 벌려 받아 먹었다. 가볍게 깨무니 둥근 물체의 외피가 깨지면서 쓴 액체가 즉시 입안 가득히 넘쳤다.

이 액체는 냄새도 지독하고 쓴 맛도 지독하여 도저히 먹기가 힘들었다. 양과는 뱉아 내려고 했지만 차마 신조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뱃속으로 삼켰다. 잠시 지나서 약간 운기를 해 보니 호흡이 순조롭고 편안하여 몸을 일으켰다. 손을 들고 발을 뻗는 것에

전혀 불편을 느끼자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평소보다도 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치대로 따지자면 누군가에게 강력한 타격을 당해 쓰러져 기절을 했으면, 가령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해도 분명히 전신이 쓰리고 아플 것이었다. 그는 이 짙은 자색의 둥근 주머니가 부상을 치료하는 영약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몸을 굽혀 중검을 드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바로 이때 신조가 쿠, 하고 소리치더니 다시 날개를 펴서 공격했다. 양과는 감히 강하게 맞서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하여 피하자, 신조는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디며 두 날개가 나란히 다가오는데 그 위세가 몹시 사나왔다. 양과는 신조가 자기에게 결코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비록 영특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축생이며, 몸에 신력을 갖추었다지만 날개를 펴 공격할 때 힘의 경중을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날개에 휩쓸려 공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목숨이 붙어 있겠는가? 양과는 두 날개가 공격하는 것을 보고 급히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왼발은 이미 평대의 가장자리를 밟고 있었다.

신조는 털끝만큼도 봐 주지 않고 벗어진 머리를 재빠르게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고 그의 가슴을 향하여 곧장 쪼았다. 양과는 더 이상 물러설래도 물러설 수가 없어서 검을 가로로 들어 막아내자 신조의 부리가 검을 쪼았다. 양과는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중검을 놓칠 뻔했다. 신조는 이어서 오른쪽 날개를 땅에 대고 쓸면서 자기의 발을 걸려고 했다. 양과는 깜짝 놀라 몸을 솟구쳐서 신조의 머리 위를 넘어서 검을 내자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그의 날카로운 부리와 부딪쳤다. 양과는 이번에 죽을 고비에서 간신히 살아난 것이어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온 몸에 식은 땀이 흘러 외쳤다.

[조형, 나를 독고대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발이 풀어짐을 느끼며 땅에 풀썩 주저앉았다. 신조는 구구, 하고 두 번 울더니 다시 공격하지를 않았다.

양과는 무의식중에 <나를 독고대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하는 말을 하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수리는 오랜 기간 동안을 독고 선배를 따라다녀서 때리고 쪼고 뛰고 물러나는 그것의 동작은 어딘지 모르게 무학의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다. 아마도 독고 선배가 황곡에 적막하게 지내면서 무료할 때에 수리를 대결의 상대로 삼았으리라고 생각했다. 독고 선배의 살과 뼈는 이미 썩어서 절세의 무공도 유풍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심중이 기쁨으로 바뀌어 몸을 일으켜서 외쳤다

[조형, 검초가 나갑니다!]

중검을 신조의 가슴을 향해 급히 찔렀다. 신조는 왼쪽 날개를 가로로 펼쳐 막아내고 오른쪽 날개로 맹렬히 공격해 왔다.

신조는 기운이 너무나 강해 날개를 펼쳐 공격하면 질풍 같은 힘이 일어나 몇 명의 고수의 장풍이 일제히 이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양과가 들고 있던 검 또한 너무나 무거워서 평생토록 배운 전진검범. 옥녀검법이니 하는 등등의 것들은 단 일초도 펴내지 못했다. 오직 교묘하게 뛰어서 피하고, 뻣뻣한 검을 들어 찌르기만 할 뿐이었다.

싸우다 피곤하면 잠깐 주저앉아 쉬었다. 그가 주저앉으면 신조도 두 걸음 물러섰다. 이렇게 한참을 놀다가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수리가 평대를 내려와 동굴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깨니 신조가 이미 냄새나는 짙은 자색의 둥근 물체를 3개 물어다 그의 옆에 놓아 두었다. 양과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짐승의 담낭이었다. 처음에 신조를 만났을 때 그가 독사를 삼키고 또 커다란 이무기와 서로 싸운 것을 떠올리고는 이것은 분명

뱀의 쓸개일 거라고 생각했다. 독사의 쓸개에 어떤 종류의 극독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제 그것을 먹은 뒤에 정신이 상쾌해지고 기운도 크게 증가된 것을 생각하고, 1개를 한입에 먹고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조절했다. 돌연 평소에 기가 쉽게 이르지 않던 각처의 관맥과 혈도가 전혀 막힘이 없이 잘 통했다. 양과는 너무나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본래 정좌하여 내공을 닦을 때는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가장 금기로 하여서, 지나치게 슬프거나 지나치게 즐거운 지경에 이르르면 위험했다. 방금 기뻐서 소리를 질러도 몸을 도는 내식(內息)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중검을 들고 동굴을 나와 다시 신조와 검을 연마했다. 이제는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결 줄어들었다. 비록 여전히 피하는 것이 많고 막아내는 것은 적었지만 신조의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는 날개의 힘 사이사이에 어쩌다가 틈을 타서 반격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검을 연마하자 양과는 중검을 들 때도 이전처럼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치고 찌르고 휘두르고 휩쓰는 동작들도 점차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이전에 배웠던 검술은 변화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교묘한 재주가 지나치게 많았음을 느꼈다. 독고구패가 푸른 돌에 남겨 놓은 <중검무봉, 대교불공>의 여덟 글자를 생각하니, 그 안에 담긴 경지가 세상의 가장 교묘한 어떤 검초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그는 한편으로 신조와 치고 때리면서 한편으로는 검초의 오고가는 길을 집중하여 살폈다.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는 평범한 검초인데도 갈수록 방어하기가 어려웠다. 검을 들어 곧바로 찌르는 것도 경력만 강하게 주면 그 위력은 옥녀검법의 기묘한 변화의 검초보다는 훨씬 컸다. 그는 지금은 비록 왼손밖에 남지 않았지만, 매일 신조가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는 뱀 쓸개를 먹고 부지불식간에 어깨의 힘이 격증되었다.

어느날에는 밖에 나가 산보를 하다가 산골짜기에서 3마리의 커다

란 독사가 땅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배가 열린 채 뱀의 몸은 날카로운 발톱에 찢겨져 있어서 자기가 먹은 것이 과연 뱀의 쓸개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독사들은 몸 둘레에 은은하게 금빛이 감돌아 평생토록 아직 보지 못한 것이어서 그 이름을 알지는 못했다. 양과는 생각했다.
(신조가 기운이 그렇게 센 것은 필시 이런 괴이한 뱀의 쓸개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구나.)
 한 달 이상이 지나자 마침내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신조의 거대한 힘과 맞서, 검을 펼쳐 치고 찌르며 휙휙 바람소리까지 낼 수 있게 되었다. 양과는 매우 기뻐했다. 무공이 이런 단계에 이르자 마치 태산에 올라가 천하를 내려다보는듯 하는 기분이 들며, 지난날 배운 것들을 생각하니 자못 말할 거리도 못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일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 지난날의 기초가 없었더라면 결코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신조도 결국은 말을 할 수 없는 축생이어서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길이었다. 하물며 신조는 무공을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단지 타고난 신력에 독고구패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항상 그와 초수를 겨루어 나아가고 물러나며 치고 때리는 방법만을 약간 기억했을 따름이었다.
 이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하늘에 온통 검은 구름이 가득하고 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양과는 신조에게 말했다.

 [조형, 이렇게 큰 비가 오니 무예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신조는 그의 옷깃을 물어 그를 끌고 동북방으로 몇 걸음을 가다가 이어서 큰 걸음을 내디디며 뛰기 시작했다.
 (동북방에 또 무슨 기괴한 물건이 있단 말인가?)
 양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중검을 든 채 빗 속으로 따라갔다. 몇리

를 가자 은은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크게 울려 거대한 물줄기 소리임이 분명했다.

(큰 비가 와서 홍수가 터졌나 보다. 조심해야겠군!)

한 협곡을 돌아가니 산봉우리 사이에 커다란 백룡 같은 폭포가 아래로 굽이치며 떨어져 한 시내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우뢰가 치듯 거대한 소리와 함께 물살이 매우 급했다. 물 속에는 나뭇가지와 돌덩이가 섞여 소용돌이쳐 어디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쏟아져 양과의 옷과 신발이 온통 젖었다. 사방은 습기로 가득 차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는데, 홍수의 위세가 너무 거센 것을 보고 양과는 심중에 약간 두려움이 일었다.

신조는 그의 옷깃을 물고 시냇가로 가는 것이, 그에게 내려가라고 하는 것 같았다. 양과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내려가서 뭘 하는 거죠? 물살이 너무 급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텐데요.]

신조는 양과의 옷깃을 놓고 구, 하고 한번 소리 지르더니 고개를 들어 길게 울고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시내 중간에 있는 커다란 물 위에 버티고 섰다. 신조는 왼쪽 날개를 앞으로 흔들어 상류에서 물살에 부딪쳐 흘러 내려오는 바윗돌을 쳐서 돌려보내고 그 바윗돌이 다시 물살을 따라 흘러 내려오면 다시 날개를 휘둘러 쳐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대여섯 차례를 치니 그 바윗돌은 시종 그의 몸 아래로 흘러 내려가지를 못했다. 일곱번째 물살을 따라 흘러 내려올 때 신조가 힘을 더해 날개를 흔들어 치자 바윗돌은 물살에서 날아올라 오른쪽 둑에 떨어졌다. 신조는 이어서 양과의 옆으로 뛰어 돌아왔다.

양과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검마 독고구패는 예전에 매번 큰 비를 만날 때마다 이 거대한 물살에 와서 무공을 연마했다는 것을 알

았다. 그러나 자기는 이런 공력이 없어 감히 시험해 볼 엄두를 못내고 머뭇거렸다. 그때 신조가 갑자기 커다란 날개를 펼쳐 , 하는 소리와 함께 양과의 어깨를 쳤다. 양과는 전혀 뜻밖이어서 몸이 곧장 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급히 천근추(千斤墜)의 신법을 사용해 신조가 서 있던 큰 돌 위로 올라섰다. 두 발이 물 속에 들어가자 몸살이 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흔들어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웠다. 양과는 생각했다.

(독고 선배는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가 가만히 설 수 있었는데 나라고 못 하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기를 모아 있는 힘을 다해 격류와 맞섰다. 그러나 검을 뻗어 홍수에 떠내려오는 바윗돌을 쳐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향 하나가 탈 시간쯤 되어 그는 기운이 점차 다해 검을 뻗어 돌에 한번 튕긴 뒤 뛰어서 둑으로 돌아왔다. 그가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신조가 다시 날개를 휘둘러 쳤다. 이번에는 그도 방비를 하여 휩쓸려 들지는 않고 스스로 시내 중심으로 뛰어들어가며 생각했다.

(이 조형은 참으로 엄한 사부요 곧은 친구구나. 내게 연공하도록 재촉하는데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구나.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내가 정진하려는 마음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리하여 양과는 기를 하반부에 가라앉혀 단단히 버티고 섰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기를 모으고 힘을 쓰는 법문을 깨닫게 되어, 물살은 비록 갈수록 커져서 허리까지 잠겼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다시 얼마쯤 지나자 물은 가슴까지 차 오르고 입가까지 잠기자 양과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꼼짝 않고 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된다!)

다시 뛰어서 언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조는 언덕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가 공중에서 뛰어내려는 것을 보고 그의 두 발이 땅에 닿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날개를 펼쳐 때렸다. 양과는 검을 뻗어 막았지만 신조가 치는 힘에 밀려 다시 시내로 돌아가 첨벙, 하고 물에 빠졌다.

그는 두 발로 시내 바닥의 큰 돌 위에 버티고 섰다. 물은 이미 머리까지 차올라 거대한 물줄기가 입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만약 기를 입에 보내 입으로 물을 뿜어 낸다면 내식이 위로 상승하여 발이 허하게 될 판이었다. 급히 기를 중간으로 모으고 두 발로 단단히 버티고 서서 호흡을 중지하고 있다가 두 발을 박차서 공중으로 뛰어 입에서 화살처럼 물을 뿜어 내고 다시 냇물로 가라앉았다. 홍수는 머리 위로 출렁거리며 지나가도록 하고 몸은 물 가운데 있는 섬돌처럼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점차 편안해졌다.

(조형이 나를 물 속에 서 있게 했는데 만약 검으로 돌을 쳐내지 못하면 그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양과는 언제나 이기기를 좋아했다. 수리는 비록 온몸에 털이 난 축생이지만 그는 수리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 물 속으로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나 돌을 보고 검을 들어 쳐올려 상류로 되돌려보냈다. 바위는 물 속이라 상당히 가벼웠고 중검도 물의 힘을 빌어 휘두르니 평소의 무게와는 전혀 달라서 손을 놀리기가 도리어 편했다. 그는 튕기고 찌르고 휩쓸고 치면서 근력이 다할 때까지 연마하다가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는 신조가 다시 그에게 물로 들어가도록 할 것만 같았다. 지금은 발에 힘이 없어서 만약 잠깐만이라도 쉬지 않으면 홍수의 거센 물줄기에 맞서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과연 신조는 그가 언덕에 발도 못 닿게 하려는 듯, 그가 물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날개를 들어 쳤다. 양과가 외쳤다.

[조형, 나의 목숨이 없어져도 좋단 말입니까?]

물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잠깐 동안 서 있었지만 실로 지탱하기가 어려워 마침내 다시 언덕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신조가 다시 날개를 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고 주저앉고 싶지는 않아서 검을 들어 찌르며 세 번을 공격하자 마침내 신조는 그에게 몰려 한 걸음 물러섰다. 양과가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 검을 들어 찌르는데, 내찌르는 순간 칼날에서 치익치익, 소리가 울리는 것이 이제까지와는 사뭇 달랐다. 신조는 그의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감히 강하게 맞서지 못하고 재빨리 물러나 피해야만 했다.

양과는 홍수 속에서 반나절을 연공하여 경력이 이미 상당히 진전했음을 알고 저도 모르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경력이 증가하는 것은 열흘이나 보름 정도의 공으로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수중에서 반나절을 치고 찔러서 경력이 이토록 크게 진전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의아해 했다. 생각해 보니 그 괴사(怪蛇)의 쓸개는 근골을 강건하게 하는 탁월한 효험이 있어 부지불식간에 이미 내공이 크게 증가되었고, 지금은 위급한 김에 공격을 펴낸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시내 옆에 잠시 정좌하여 기운이 회복되자, 이제는 신조가 재촉하여 떠밀지 않는데도 스스로 시내에 뛰어들어 검을 연마했다. 두번째 뛰어올랐을 때는 신조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비의 기세가 점차 약해지는 것을 보고 내일 다시 오면 홍수가 일단 지나가서 수력이 반드시 약해질 것이니 아무리 피로해도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연마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즉시 다시 물 속으로 뛰

어들었다.

네번째까지 뛰어올랐을 때 언덕가에 2개의 괴사 쓸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신조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깊이 감격하여 그것을 먹고 다시 물 속으로 뛰어들어 검을 연마했다. 한밤중까지 연마하자 물살이 점차 약해졌다.

밤이 되어도 양과는 잠은 자지 않고 수중에서 순자(順刺).역격(逆擊).횡삭(橫削).도벽(倒劈) 등의 검리를 터득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로써 검을 사용한다면 정말로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부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검에 무슨 날이 필요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또한 이렇게 보통 장검보다 수십 배가 무거운 중검이 아니라면 펼쳐 낼 수 없는 검법이기도 했다. 보통의 검은 손에 쥐고 가볍게 흔들어 경력을 채 펴기도 전에 날이 이미 부러져 버릴 것이었다.

이윽고 큰 비가 막 개어 하늘이 맑게 개이고 새로 돋은 달의 은빛이 수풀과 시냇물에 젖어 들고 있었다. 양과는 홍수가 굽이쳐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며 마음으로는 그 이치를 통하고, 손으로는 그 기술을 정련하여 중검의 검법은 모두가 여기에 있으니 더 이상 연마할 필요가 없고 검마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전수할 수 있는 검술도 이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래에 내력이 날로 높아지면 사용하는 검도 날로 가벼워져서 마침내는 목검을 사용해도 중검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었다. 다만 공력이 얕은 상태에서 깊게 되는 것은 모두가 자기의 수양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의 검술은 여기서 이미 지극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는 시냇가를 이리저리 한가하게 거닐면서 밝은 달을 우러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독고 선배가 이 중검을 남겨 두지 않았더라면, 또한 만약 신조가 옆에서 깨우치게 하고 이끌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괴사의 쓸개를 먹어서 내력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더라면, 이 검술은 세상

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독고구패는 전혀 의지하는 것도 없이 스스로 이 검에 깃든 신비한 경지와 오묘한 뜻을 깨우친 것을 생각하니, 그의 총명과 제치가 실로 자기보다 백 배는 뛰어난 것 같았다.

홀로 물가에 서서 그는 선현의 풍렬(風烈)을 상상하며 탄복하기도 하고 감개에 젖기도 했다.

(아가씨가 나의 지금 이 무공을 보았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 그녀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녀도 이렇게 밝은 달을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소용녀에게 생각이 미치자 가슴에 한차례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내가 비록 검술의 지극한 이치를 깨달았지만 이 황량한 산만을 지키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정화의 독이 돌연 발작하여 내일이라도 당장 줄어 버린다면 이 정묘하기 짝이 없는 검술은 다시 영원히 사라질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갑자기 야망이 일어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한번 독고 선배와 같이 이 검술로 천하의 군웅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면 죽음도 달게 받을 것이다.]

오른팔이 잘린 곳을 돌아보고 곽부가 팔을 자른 원한을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용솟음쳤다.

(이 계집애는 부친이 당대의 대협이요, 모친이 개방의 방주라는 것을 믿고 나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어렸을 때 나가 그녀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치욕을 당했던가! 내가 거짓말로 무씨 형제를 속인 것은 사실 그녀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만약에 무씨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녀 때문에 죽는다면 그 어찌 그녀의 죄가 아니겠는가? 흥! 그러나 그녀는 내가 중병을 앓는 것을 틈타 나의 한쪽 팔을 잘랐으니 이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나는 장부가 아니다!)

그는 줄곧 은혜와 원한을 극히 중시하여 흉금이 그다지 탁 트이지를 못했다. 그날 팔이 처음 잘리고 이 황량한 골짜기에 숨어서 상처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상처가 이미 치유되고 무공은 도리어 크게 증가하자 원수를 갚고 설욕하려는 생각을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다.

즉시 마음이 결정되자 밤인데도 불구하고 동굴로 돌아와 신조에게 말했다.

[조형, 당신의 대덕대은(大德大恩)은 죽어도 보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제는 강호에서 아직도 씻지 못한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이별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와서 함께 지내겠습니다. 독고 선배의 이 중검을 소제가 잠시 빌려 갈까 합니다.]

하고 말한 뒤, 깊이깊이 읍을 하고 다시 독고구패의 돌무덤을 향해 몇 번이나 절을 하고 고개를 돌려 골짜기를 나왔다. 신조는 골짜기 입구까지 전송을 하였고,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수리가 뜨겁게 한참을 끌어안고는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 검은 너무나 무거워서 허리에 매면 허리띠가 당장에 끊어질것 같았다. 그는 산에서 칡덩굴 3 개를 끊어서 하나의 띠로 얽고 중검을 매달아 등에 지고, 경신의 무공을 펼쳐 곧바로 양양에 이르렀다.

성 밖에 이르렀을 때 날은 아직 밝지 않았지만 그 동안 고된 수련을 하고 하룻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정력이 충분하지 못한데다가, 곽백부와 곽백모는 모두가 무학의 고수여서 지금은 필시 이미 건강이 회복되었을 것이니 마주치면 분명히 한차례 악투가 있을 것 등을 생각하여 즉시 성 밖 무덤가의 풀더미에서 몇 시간을 잤다. 그리고 그는 숨을 조절하여 운공을 하고 다시 과일을 따서 한차례 포식을 하고 초경의 시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양양성 아래에 이르렀다.

양양성은 웅장하고 담이 높아서 당일에 금륜법왕.이막수 등이 성 위에서 뛰어내릴 때에도 사람으로 발 받침을 삼아서야 부상을 면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성의 담장 틈으로 발을 딛고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야 하니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양과는 무덤가에서 쉴 때에 이미 성을 올라가는 방법을 생각했었다. 곽백부의 그 상천제의 무공을 펼칠 수는 없었지만 독고 선배가 그 현애(懸崖)의 깎아지른 절벽을 올라간 방법을 사용하면 양양성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동문 옆의 후미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성 위를 순시하던 병사가 멀리 가는 것을 보고 몸을 솟구쳐 중검을 덜어 성벽을 한번 힘껏 찔렀다. 중검은 비록 끝에 날카로운 날은 없었지만 그 위세가 강하고 매서워 두터운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성벽이 툭, 소리와 함께 검에 맞아 깨져서 밥그릇 크기만한 구멍이 생겼다. 양과는 이 일검이 이토록 위력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가 심중으로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왼발로 부서진 구멍을 딛고 검을 들어 머리 윗부분을 다시 찔러 구멍을 냈다. 이번에는 훨씬 가볍게 찔러서 성 위를 지키는 병졸들을 놀라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한 걸음 한걸음 올라가서는 최후로 성 위의 몇 장 되는 거리에 이르자, 벽호유장공(壁虎遊牆功)을 펼쳐 성 위로 날아올라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겼다. 성벽 안쪽은 내려갈 수 있는 돌계단이 있어서 양과는 지키는 군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연기처럼 뛰어내려와 곧장 곽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는 뱀의 쓸개를 먹은 이후로 내력이 크게 증가되고 동시에 몸도 날래게 되어 경공 역시 옛날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러나 곽정의 무공은 실로 무서워서 강룡십팔장의 장력 하나만으로도 천하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일이었다. 게다가 황용의 타구봉법의 변화 또한 오묘하여 자기가 아는 것은 열에 예닐곱에 불과하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곽부의 문 밖에 이르자 조용히 담을 넘어갔다.

화원을 돌아서 자기가 예전에 묵었던 방의 창 밖으로 가 엿들으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벼이 문을 밀자 그 문은 미는 대로 열렸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침상과 휘장, 탁자와 의자들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는데 침상 위에 이불은 이미 걷어치운 뒤였다. 침상가에 몸을 낮추고 앉아서 자기의 그 다 자란 멀쩡한 팔 하나를 바로 이 침상에서 잃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몰려오는 비통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생김새가 빼어나고 성격도 자못 풍류를 즐겨서 비록 소용녀 한사람에게 이미 깊은 정을 주어 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많은 소녀들이 그에게 반하여 정을 주었었다. 정영.육무쌍.공손녹악 등은 그들 나름대로, 혹은 몰래 그에게 정을 기울이고 혹은 솔직하게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순간 그는 손으로 침상가를 어루만지며 자기는 이미 불구가 되었으니 만약 이들 다정했던 소녀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녀들의 눈에 자기는 가소롭고 가련한 사람이 되어 제아무리 무공이 강하더라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괴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의 일들이 조수처럼 밀려와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직 아가씨만은, 오직 아가씬 한 사람만은 내가 팔 하나뿐이 아니라 사지가 모두 잘려 가갔다고 해도, 아가씨의 나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홀연 동쪽에서 은은하게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며 고집을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들으니 바로 곽정과 황용이었다. 양과는 호기심이 일어나 두 사람이 무슨 일로 다투는지를 들어 보려고 목소리를 좇아 조용히 걸음을 옮겨 곽정 부부가 거처하는 방의 창 아래로 갔다.

황용이 큰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양아를 안고 절정곡에 가서 해독약물과

바꾸려고 했는데 당신은 하는 말마다 양과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만 하니 답답하군요. 이 아기는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채 안되어 그들의 수중에 들아갔으니 지금은 살아 있기라도 하겠느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하고는 흐느끼는 듯하더니 오열을 터뜨렸다. 곽정이 말했다.

[과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다시 말해서 그는 나를 구해 주고 당신을 구해 주었으니 우리가 양아를 그의 목숨과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오?]

왕용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원할지 몰라도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이때 방안에서 돌연 한차례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매우 크고 맑았다. 양과는 너무나 이상했다.
(그 아기를 이미 이막수의 속에서 되돌려 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또 <지금은 살아 있기라도 하겠어요?>라는 말을 했을까?)
호흡을 멈추고 창틈으로 눈을 가까이 하여 들여다보니 황용이 수중에 과연 아기 하나를 안고 있었다. 그 아기는 마침 창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어서 양과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아기는 얼굴이 네모꼴에다 귀가 크며 피부는 검으며 얼굴에는 가는 털이 가득나 있었다. 곽양은 그가 일찌기 틈에 한참 동안을 안은 적이 있어서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하얀 피부에 어여쁜 모습이며 미목이 맑고 빼어나서 이 건강하고 비대한 아기와는 전혀 달랐다. 황용은 등을 창으로 향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아기를 얼르며 말했다.

[두 아기가 다 무사해야 하니 어서 가서 이 아이의 누나를 찾아서 돌아오세요.]

양과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황용은 한꺼번에 두 아이를 낳아서 먼저 태어난 것은 여자 아이인 곽양이고, 그 뒤에 다시 남자 아이 하나를 낳은 것이다. 이 남자 아이를 낳을 때 여자 아이는 이미 소용녀가 안고 달아났던 것이다.

곽정은 방안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말했다.

[용이, 당신은 평소에는 대체(大體)를 아주 잘 파악하면서 어찌 딸아이의 일에 한번 이끌리자 이렇게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요? 지금 당장 군무가 긴박한데 내가 어찌 딸아이 하나 때문에 양양을 떠날 수가 있단 말이오?]

[내가 찾으러 간다고 할 때, 당신은 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설마 우리의 아기를 이렇게 눈을 뜨고도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건 아니겠죠?]

[당신은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단 말이오?]

황용은 노하여 말했다.

[아버지란 자는 딸을 필요없다고 하고 엄마란 자는 목숨만 아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양과는 도화도에서 그들과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일언반구도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고 귀가 벌겋게 되도록 다투며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일로 그 동안 여러 번을 다툰 것임

을 알았다. 황용은 울면서 말을 하고, 곽정은 얼굴이 굳은 채 방안
에서 이리저리 계속 서성거렸다. 얼마 후, 곽정이 말했다.

[딸아이를 찾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당신은 그 아이에게 여전히 부
아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하여 세상 모르고 버릇없이 자랄 것
이니 그런 딸아이는 없는 것만 못해!]
[부아가 뭐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여동생 때문에 마음
이 아파 약간 거칠게 굴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만약
저라고 해도 양과가 딸아이를 제게 돌려주지 않으면 저는 그의 왼
쪽 팔마저 잘라 버렸을 거예요.]

곽정이 큰소리로 호통쳤다.

[용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손을 들어 탁자 위에 무겁게 일격을 가하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루가 날리며 튼튼한 붉은 나무탁자가 즉시 반 동강이 났다.
그 아기는 원래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탁자를 내려치자 깜짝 놀라서 감히 더 이상 울지를 못했다.
바로 이때 양과는 돌연 서쪽 창대에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
는 것을 보고 몸을 낮추어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생각했다.
(원래 나 이외에 또 누군가가 창 밖에서 엿듣고 있었구나. 누구일
까?)
즉시 살금살금 그 사람의 뒤로 돌아가니 그 사람은 형세가 아리따
운 것이 바로 곽부였다. 양과는 속에서 불이 치밀어올랐다.
(좋다! 내가 바로 너를 찾고 있었지!)
돌연 몸 뒤가 어두워지며 땅에 있던 등불이 꺼지고 황용이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나가세요, 아이가 놀라 깨지 않도록 말이예요!]

양과는 곽정이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눈앞에서는 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즉시 가산(假山) 뒤로 재빨리 돌아 곽부의 방 밖으로 가서, 커다란 목련화나무로 올라가 가지와 잎 사이에 숨었다.

얼마 되지 않아 과연 곽부가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한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미 이경(二更)을 쳤읍니다. 아가씨, 어서 주무시지요!]

곽부는 흥, 하고 코방귀를 뀌고 말했다.

[내 자는 일이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테다. 너는 이제 나가라]

[예.]

그 여자가 대답했다. 머리를 땋은 여자가 문을 열고 방문을 나서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조금 지나자 곽부의 깊고 깊은 장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네가 또 무슨 한숨을 쉬느냐? 네가 나의 팔 하나를 잘랐으니 나도 너의 팔 하나를 자를 것이다. 다만 호남은 여자와 싸우지 않는 법이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려가서 너를 해치는 것은 비록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지만 이는 대장부가 취할 일이 못 되어 안타깝구나.)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 가지 계교가 떠올랐다.

(좋다, 내가 우선 소리를 크게 질러서 곽백부를 오도록 하자. 내

가 먼저 그를 패배시킨 다음 다시 그의 딸을 처치하면 남자로서도 떳떳하기 짝이 없으니 더 이상 나를 비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곽백부는 무공이 뛰어난데 내가 정말로 그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의 이 원수를 여기서 갚지 못한단 말인가?)

팔이 잘린 원한에 생각이 미치자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용솟음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 목련화나무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홀연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차분하고 형체가 단정한 것을 보니 바로 곽정이었다. 그는 딸의 방 밖에 와서 손가락을 뻗어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부야, 자느냐?]

곽부는 일어나서 말했다.

[아네요. 아버지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양과는 깜짝 놀랐다.

(곽백부가 내가 여기에 온 것을 알고 나서 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좋아! 내가 우선 너와 대결하마! 널 눕히지 못하면 네 손에 죽으면 그만이지.)

곽정이 소리를 냈다. 곽부는 문을 열고 고개를 들어 부친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등나무 가시

곽정은 방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는 탁자 옆의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얼마 후 곽정이 물었다.

[요 며칠간 너는 도대체 어디를 갔었느냐?]
[저......, 제가 양과를 다치게 하고 아버지의 꾸중이 두려워서
그 때문에......,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며칠 동안 숨어 있었느냐?]
곽부는 입술을 살며시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내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돌아왔구나.]

곽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아버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곽정은 그녀의 머리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나는 원래 화를 내지 않고 너를 위해 걱정
했었다.]
[아버지!]

곽부는 그의 품에 다시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곽정은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바라보며 한마디 말도 없이 울음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양과의 조부인 철심공과 너의 조부인 소천공은 비록 성은 달랐지
만 골육이었고, 그의 부친과 나와는 의형제라는 사실을 잊고 있진
않겠지?]

곽부는 <응!> 하는 소리를 냈다.

[양과 개가 비록 행동은 방자하지만 의협심이 강해서 세 번씩이라 나와 너의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 주었고 너도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가 비록 나이는 어려고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이미 적지 않을 공로를 세웠다는 것도 너는 잘 알고 있겠지?]

곽부는 부친의 말투가 점점 준엄해지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곽정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또 한 가지 네가 모르는 일이 있는데 오늘 네게 말해 주겠다. 과아의 부친인 양강은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는데 나는 그의 의형(義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타일러서 개과천선하도록 하지 못해 결국 가흥의 철장묘에서 참혹하게 죽게 하였다. 비록 너의 어머니의 손에 죽은 것은 아니라 해도 그는 너의 어머니로 인해서 죽었으니 우리 곽가는 그의 양가에 실로 많은 잘못......]

양과는 <가흥의 철창묘에서 참혹하게 죽게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장소를 알게 되자,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복수심이 돌연 용솟음쳤다. 다시 곽정의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원래 너를 그에게 시집보내어 이 평생의 한을 풀려고 했다. 그걸 네가 어찌 알았겠느냐?......아아!]

곽부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는 제 동생을 훔치고 허튼소리를 자주 지껄이며 저를 비방했읍니다. 우리 집안이 그의 양가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딸이 그에게 마음대로 모욕당하는 걸 설마 보고만 계시지는 않겠지요?]

곽정은 돌연 몸을 일으켰다.

[확실하게 네가 그의 팔을 베었는데 그가 어찌 너에게 모욕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가 정말로 너에게 모욕을 주려 했었다면 네 팔이 열 개라도 모두 그에 의해 잘렸을 것이다. 그 칼은 어디에 있느냐?]

곽부는 감히 계속 말을 잇지 못하고 베개 밑에서 숙녀검을 꺼냈다. 곽정은 검을 받으면서 가볍게 튕겼다. 검은 윙윙, 하는 소리를 냈다. 곽정은 위엄 있게 입을 열었다.

[부아야, 천지간에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마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 아버지는 평소 너에게 엄격하게 대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너의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이 말 가운데 끝의 몇 마디는 매우 부드러웠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좋다. 오른팔을 내밀어라. 네가 다른 사람의 팔을 베었으니 내가 너의 한 팔을 베어야겠다. 이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와 결코 사사로움에 얽매여 딸을 비호할 수 없다.]

곽부는 이번에 아버지의 엄중한 꾸중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결코 자기의 한 팔을 자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서 그만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버지이!]

곽정의 얼굴이 굳어지며 두 눈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양과는 이처럼 곽정이 의를 중하게 생각하는 줄 모르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자, 놀라서 가슴이 뛰었다.

(내가 달려들어서 막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에게 곽소저를 용서해주라고 해야 옳은가!)

이러한 생각으로 양과가 주춤거릴 때 곽정의 장검이 흔들리며 공중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아래로 재빨리 내려왔다.

돌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으로 한 사람이 뛰어 들어왔다. 신법이 이를 데 없이 빨라서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봉이 먼저 이르렀다. 이 봉은 곽정이 휘두른 장검을 가로막았는데 바로 황용이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는 획획획, 계속해 봉을 세 번 휘둘렀는데 모두가 타구봉법의 절묘한 동작이었다. 그녀의 봉법이 오묘하고 천만 뜻밖이라서 곽정은 그녀에게 밀려서 뒤로 두 걸음이나 후퇴했다.

[부아야, 빨리 도망가거라!]

곽부는 어머니의 영리함에 미치지 못해 이러한 큰일을 만나자 놀라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황용은 왼손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오른손으로 봉을 휘두르며 창문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었다.

[빨리 도화도에 돌아가서 가공공을 모셔와서 아버지께 잘못을 빌어라.]

이어서 죽봉을 타구봉법 가운데 <전>,<봉>의 구결을 사용해 곽정의 길을 막았다.

[빨리 가거라, 빨리 가! 소홍마는 문 앞에 있다.]

원래 황용은 남편의 사람됨이 정직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또한 극히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이번에 딸이 큰 소란을 피우고 며칠간 밖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오자, 그의 화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찌감치 하인을 시켜서 소홍마를 문 앞에 대기시키도록 하고 말안장에는 의복과 은량 등을 준비했었다. 만약 화가 풀어져서 곽부를 한번 꾸중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매우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녀를 먼 곳으로 보내 시일이 오래 지난 후 다시 부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 했다. 거실에서 그들 부부가 한바탕 말싸움을 벌여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채 딸의 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서 속으로 불길하다고 생각해 남편을 따라와서는 딸의 한 팔을 구한 것이었다. 그녀의 무공은 원래 남편의 무공에 못 미쳤지만 곽정이 평소 그녀를 약간 두려워한데다가 또 그녀와 품안에 어린아이가 있음을 보고는 독수를 펼쳐서 길을 빼앗을 수 없었다. 곽정이 우물쭈물하자 곽부는 이미 화원을 줄달음쳐서 문 밖에 이르렀다.

양과는 나무 위에 앉아서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만약 곽부가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올 때 그가 칼을 내리쳤다면 그녀가 어찌 도망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한 집안의 소란이 모두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어났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공격을 할 수는 없었다.

다시 황용이 계속 전진하면서 몇 동작을 펼치자 곽정은 또 두 걸음 뒤로 밀려 이미 탁자를 등지고 서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게 되었다. 황용이 돌연 소리를 질렀다.

[받으세요!]

황용은 어린아이를 남편에게 던졌다. 곽정은 당황하여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받았다. 황용은 죽봉을 밑으로 숙이고 남편의 앞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부아를 용서해 주세요!]

곽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보, 내가 어찌 부아를 깊이 사랑하지 않겠소? 그러나 그 아이가 저지른 이 일을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으리오? 우리는 나중에 무슨 낯으로 과아에게 사과할 수 있겠소? 아아, 과아는 한 팔을 잘리운 채로 아무도 돌봐 주지 않았으니 지금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나......, 나는 정말 내팔을 자를 수 없음이 원망스럽구나.]

양과는 그의 이 진심어린 말을 듣고는 저절로 가슴이 찡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계속해 사방을 찾았지만 그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만약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반드시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과아의 무공이 이미 우리만 못하지 않으니 비록 중상을 입었다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내가 부아를 뒤쫓아서 다시 데리고 온다면 이 일을 이같이 끝내지는 않을 것이오.]
[그 아이는 이미 소홍마를 타고서 성을 나섰을 텐데 어찌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아직 삼경(三更)이 지나지 않았으니 만약 여대인과 나의 명령서가 없다면 한밤에는 누구도 감히 성문을 열 수가 없소!]

황용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곽파로를 안으려 했다. 곽정은 아이를 그녀에게 넘겨 주면서 미안한 표정을 보였다.

[여보, 당신에게 미안하오. 그러나 부아가 벌을 받고 난 후 비록 불구가 되어도 그 아이가 일전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 좋은 것이 아니겠소.]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황용은 두 손으로 어린아이의 강보를 막 넘겨 받으려는 순간에 돌연 몸을 낮추어 곽정의 옆구리를 끼고는, 가전(家傳)되어 오는 난화불혈수(蘭花佛穴手)의 절묘한 솜씨를 사용해 그의 왼쪽 팔 아래의 연액혈(淵液穴)과 오른팔 아래의 경문혈(京門穴)을 동시에 눌렀다. 이 두 혈도는 모두가 팔 아래에 있어서 황용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곽정의 이때 무공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기를 남편에게 넘겨 줄 때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곽정은 이처럼 뜻밖에 아내의 공격을 당하자 곧 전신이 마비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황용은 아기를 안고서 곽정의 신발과 겉옷을 벗긴 뒤 그를 침대에 잘 눕혀 주고 베개를 뒷머리에 깔아서 남편이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서 명령서를 꺼냈다. 곽정은 두눈을 크게 뜨고 있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황용은 다시 아기를 남편의 곁에 눕혀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머리를 맞대게 했다.
그녀는 면이불을 꺼내어 두 사람에게 덮어 주었다.

[여보,오늘 잠시 죄를 짓겠읍니다.부아를 성 밖으로 데려다 주고
 난 후 다시 돌아와서 요리를 만들어 술을 대접해 사죄하겠어요]

하고 말하며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서 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곽정은 이 말을 듣고서 아내가 이미 세 아이의 어머니인데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애교와 장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두 눈을 크게 뜨고서, 그녀가 입을 다물고 한번 웃고서 표연히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 두 혈도가 눌리고 난 후, 그녀가 만약 돌아와서 풀어 주지 않고 자신이 내력으로 풀려면 적어도 반 시간은 걸려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결코 딸아이를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곽정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묘한 상황에 빠졌다.

황용은 큰딸 곽부를 몹시 사랑해서 그녀 혼자서 도화도로 간다면 그녀의 미모 때문에 도중에 많은 위험이 닥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거실로 돌아와서는 도화도의 보물인 연위갑을 보자기에 싸서는 겨드랑이에 끼고 경공을 전개해 순식간에 남문에 이르렀다.

소홍마를 타고 있는 곽부가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큰소리로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수문장은 매우 공손해서 곽소저를 결코 욕하지는 않았다. 단지 명령서가 없이 한밤에 성문을 여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할 뿐이었다.

황용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지금껏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온 이 계집애가 어려움을 만나서 아무런 기지를 발휘하지 못하자 화가 나면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여대인 명령서이니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당시 양양성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안무사 여문덕이었으나 모든 것은 곽정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곽정이 벼슬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의 허가는 여문덕의 명의로 했었다. 이 수

문장은 곽부인이 직접 오고 명령서도 틀림이 없자 급히 웃음을 띄고는 성문을 열었다. 또한 자기의 말을 끌고 왔다.

[곽부인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소장의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네, 그러면 한번 사용해 보겠읍니다.]

곽부는 모친이 나타나자 매우 기뻐했다. 모녀는 나란히 말을 타고서 성을 나가 남쪽으로 향했다.
황용은 이때 딸과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점점 멀리 가서 배웅하게 되었다. 양양성 이북 수백 리는 거의 인적이 끊어졌지만, 양양의 남쪽은 양양성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서 아직 몽고 대군에게 유린당하지 않았다. 비록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모녀는 20 여 리를 달린 후 날이 밝을 무렵 조그만 동네에 이르렀다. 가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미 문을 열었다.

[부아야,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그리고 나는 성으로 돌아가마]

곽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며 속으로 매우 후회했다. 일시의 화로 인하여 양과의 팔을 베고 오늘 혈육과 이별하여 혼자서 처량하게 도화도로 돌아가서 장님이 되어 버린 가진악 할아버지와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자 더욱 슬퍼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가 칼을 쳐들고서 내리치는 장면을 생각하자 두려움이 엄습해 감히 양양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모녀는 음식점을 찾아 들어가서 고깃국과 빵을 주문했으나, 곧 이별해야 하는 슬픔 때문에 둘 다 먹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황용은 연위갑을 딸에게 건네 주고서 그녀에게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꼭 몸에 연위갑을 입으라고 시켰다. 또 거리에서 무엇을 조심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잘 알아듣게 말했으나 짧은 시간에 말

한들 얼마나 말할 수 있겠는가? 황용은 곽부가 건성으로 대답하며 눈 속에 눈물이 가득 괴어 있는 것이, 평소 애교스럽고 활발한 모습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을 돌려 시장의 서쪽에 있는 가게에 붉고 커다란 사과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가서 몇 개 사 가지고 부아가 도중에 먹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별을 해야겠구나.)

[부아야, 그 동안 빵을 많이 먹고 있어라. 먹고 싶지 않더라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이 혼란한 때에는 앞으로 어디서 음식을 먹게 될지 전혀 모른단다. 나는 잠시 밖에 가서 뭘 좀 사 가지고 오겠다.]

하고 말하고는 몸을 일으켜 몇 개의 가게를 지나서 사과가 있는 가게에 이르렀다.

그녀는 10여 개의 크고 붉은 사과를 골라서 품속에 넣고는 돈을 꺼내어서 가게 주인에게 주려는데 돌연 등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미 이십 근과 소금 한 근을 저울질해서 이 마대에 잘 담아 주시오.]

황용은 이 여자의 목소리가 깨끗하고 매우 낭랑하게 들리자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서 쳐다보았다. 누런색의 도고가 식품 가게 앞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이 도고는 왼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오른손은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다. 아기의 강보는 푸른색의 주단에 붉고 조그마한 말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 바로 황용이 직접 만들 것이었다.

그녀는 이 강보를 한번 보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 손이 떨려서 그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돈을 떨어뜨려 광주리에 빠뜨렸다. 이 어

린아기가 만약 그녀의 딸인 곽양이 아니라면 또 누구이겠는가! 이 도고의 옆모습을 보아하니, 용모는 빼어나게 아름답고 양미간에는 사악한 기운이 있으며 허리춤에는 불진이 걸려 있으니 강호에 그 이름도 당당한 적련선자 이막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황용은 지금까지 이 마두와 만나 본 적이 없었으나 용모와 차림새로 보아 그녀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황용은 곽양을 낳은 후 소란한 가운데 어렴풋이 몇 번을 보았기 때문에 이때 참지 못하고는 자기 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눈썹이 짙고 눈이 아름다우며 코도 오뚝하여 비록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지만 이미 미인이 될 만한 자질이 충분했다. 다시 통통하게 살찐 두 볼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같이 태어난 곽파로는 비록 모유를 먹였지만 이같이 하얗고 귀엽지는 않았다. 황용은 놀랍고 또한 기뻐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막수는 돈을 주인에게 주고서 마대를 짊어지고 거리를 빠져나갔다

황용은 사태가 긴박함을 보고서 곽부를 부르지도 못했다.

(양아가 이미 그녀의 손 안에 있고 그녀의 악랄함이 비길 데 없으니 만약에 무모하게 달려들어서 뺏으려 한다면 그녀는 반드시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이막수가 거리를 빠져나가 큰길로 따라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황용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과아의 사백이나, 들리는 말로는 그들 서로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부아가 과아의 팔을 상하게 했으니 그들 고묘파와 우리 곽가는 이미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다. 만약 과아와 용아가씨가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혼자서 세 사람의 적을 상대해야 하니 승리하기가 어렵다. 일찌감치 손을 쓰는 것이 좋겠다.)

황용은 이막수가 방향을 바꾸어서 남쪽을 향해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즉시 경공을 전개해 빠른 걸음으로 나무를 돌아서 재빨리 이막수의 앞쪽으로 다가갔다. 황용은 갑자기 길에 나서며

이막수를 막았다.

이막수는 돌연 눈앞에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자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혹시 그대는 적련선자 이도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막수는 그녀가 갑자기 뛰쳐나올 때의 신법이 매우 가벼운 것을 보고는 보통 여가가 아님을 알았다. 또한 그녀의 빈 손과, 허리춤에 엷은 누런색의 죽장이 꽂혀 있음을 보고서 무언가 알았다는 듯 즉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고서 마대를 놓으면서 예를 올렸다.

[저는 오랫동안 곽부인의 명성을 앙모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평생의 소원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당시 무림 가운데 여류 고수의 명성은 황용과 이막수가 가장 높았다. 청정산인 손불이의 이름이 비록 일찍부터 알려졌지만 무공은 두 사람에게 훨씬 못 미쳤다. 소용녀는 당시 나이가 어렸지만 곽도왕자가 종남산 고묘에서 그녀에게 패하고 돌아간 이후 소용녀도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대승관의 싸움 이후 더욱 이름을 천하에 날렸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황.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동사 황약사의 귀여운 딸이며 대협 곽정의 부인이며 20여 년간 개방의 방주를 맡았으며......, 다른 한 사람은 불진, 은침, 오독신장의 3가지 뛰어난 기술로 천하에 이름을 떨쳤으니 강호에서는 그녀의 이름만 듣고도 겁에 질렸다. 이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는 서로 자세히 상대방을 살폈다. 각자는 모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그 여자는 이처럼 아름다운 여자였구나!)

속으로 두 여인은 더욱더 조심하면서 상대방이 천하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도장의 이름은 제가 오래 전부터 존경하고 있었읍니다. 도장께선 어찌 이처럼 겸손하십니까?]

[천하 제일 개방의 전임 방주이시고 무림 가운데 뛰어나신 곽부인을 제가 뒤늦게 만나서 한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추겨 주며 인사말을 나누었다.

[도장께서 안고 있는 이 어린아기는 매우 귀엽게 생겼는데 도대체 뉘집의 아기인지 모르겠군요?]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곽부인께서는 제발 비웃지 마십시오.]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읍니까?]

황용은 그녀가 이제 바른소리를 하려고 하는 줄 알았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급습을 대비했다. 속으로 여러 방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선 딸을 그녀에게서 탈취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 이막수가 말했다.

[우리 고묘파 사문은 운이 없고, 제가 덕이 없어서 사매를 잘 가르치지 못했읍니다. 이 아이는 바로 용사매의 사생아입니다.]

황용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용아가씨는 임신한 적이 없는데 어찌 사생아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아기는 확실히 내 딸인데 어찌 이 여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이막수가 결코 속이려는 마음이 없이 단지 이 아기가 정말로 양과와 소용녀의 소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

다. 이막수는 사부가 편애를 해서 고묘파의 비법인 옥녀심경을 소용녀에게만 전수해 준 데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황용이 질문을 하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녀의 명성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용아가씨는 정숙 단정하게 보여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요?]

[이 아기의 아버지요? 사매의 제자인 양과입니다.]

황용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체했지만 이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참지 못해 얼굴이 달아오르며 크게 화를 냈다.

(네가 내 딸을 용아가씨의 사생아라 말하는 것은 참는다고 해도, 그 아기의 아버지가 양과라고 말하다니...... 이 어찌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화는 얼굴을 잠시 스쳐갔을 뿐 곧 예전과 같이 평온을 되찾았다.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있읍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남의 환심을 살 만큼 귀엽습니다. 이도장, 제가 한번 안아보겠읍니다.]

황용은 품속에서 사과 1개를 꺼내서 아기의 얼굴에 들이대고는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아기를 얼렀다.

[귀여운 아기야, 너의 얼굴이 이 사과 같구나!]

이막수는 곽양을 빼앗은 이후 계속해서 깊은 산속에 은거하면서 아기를 보는 것으로 낙을 삼으며 매일 같이 표범의 젖을 짜서 아기에게 먹여 왔다. 이막수, 그녀는 평생 동안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원래 천성은 악독하지 않았다. 단지 사랑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서 결국 세상을 질시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사랑의 깊은 상처가 남아서 성질이 괴팍하게 변했고 다시 괴팍은 난폭으로 변해 갔던 것이다. 곽양은 몹시 귀여워서 마침내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시켰다. 때때로 한밤중에는 소용녀가 사용하던 옥녀심경을 가지고 와 이 아기와 바꾸려 해도 결코 곽양을 넘겨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이때 황용이 아기를 안아 보려 하는 것을 보고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아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은 것처럼 매우 기뻐서 웃음을 띄고는 아기를 건네 주었다.

황용은 두 손을 내밀어서 곽양의 강보를 받자마자 얼굴에 애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러한 따스한 어머니의 정은 아무리 숨기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이 아기를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비명에 죽었을까 걱정해 왔는데 마침내 아기를 품속에 안게 되었으니 어찌 미치도록 기쁘지 않겠는가?

이막수는 돌연 그녀의 안색이 이상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비록 어린아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서 어찌 이토록 감동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다.)

이막수는 돌연 두 팔을 내밀어 아기를 빼앗고 발을 움직여 뒤쪽으로 반 장 정도 물러났다. 그녀는 두 발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물으려 했으나 황용이 그림자처럼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막수가 어깨에 메고 있던 마대를 던지자 마대에 담겨 있던 20 근의 백미와 한근의 소금이 동시에 황용의 얼굴을 향해서 날아갔다.

황용이 몸을 날려서 피하자 백미와 소금은 모두가 땅에 어지럽게 흩뜨려졌다. 이막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뒤로 몇 걸음 물러나서 불진을 뽑아 손에 들고는 가볍게 웃었다.

[곽부인, 당신은 양과를 도와서 이 아기를 뺏으려 하시는군요.]

황용은 이막수의 공격을 피하는 순간에 이미 상대방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머리를 써서 아기를 뺏기는 어렵고 단지 힘으로 뺏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즉시 웃으며 말했다.

[저는 단지 아기가 귀여워서 한번 안아 보려 했을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곽대협 부인의 명성이 강호에 드날려서 제가 지금껏 매우 흠모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무공을 직접 보니 과연 대단하십니다. 저는 지금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녀는 곽정이 부근에 있을까 두려워서 이 말을 남기고는 몸을 돌려서 갔다.

황용은 앞으로 몸을 날려 공중에서 이미 죽봉을 뽑아 손에 들었다. 개방에서 전해 오는 타구봉은 이미 신임 방주인 노유각에게 전해주고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죽봉은 비록 타구봉같이 견고하지는 못하지만 길이와 무게는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단지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타구봉과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전>자의 구결을 펼쳐서 죽봉은 이막수의 등을 비스듬히 지나갔다.

이막수는 그녀와 자기가 아무런 원한이 없으며 오늘 처음으로 만나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등 아무런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마음대로 무기를 휘두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뒤에서 불진을 휘두르며 죽봉을 막고서 한 동작의 반격을 펼쳤다.

황용의 봉법은 이를 데 없이 신속해 순식간에 6,7 동작을 펼쳐서 이막수는 이미 상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무공은 원래 황용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더군다나 한 손에 아기를 안고 있어서 동작이 민첩하지 못했다.

황용이 몸을 움직이며 그녀를 감싸고 돌면서 분주하게 죽봉을 휘두르자 잠시만에 이막수는 불리해졌다.

다시 몇 동작을 펼쳤다. 이막수는 황용의 죽봉이 계속해서 어린 아기의 몸에서 멀리 떨어지자 그녀가 무슨 꺼리는 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매번 사람들과 싸움을 벌일 때 도리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유리했으면 좋겠구나.)

[곽부인, 왜 하필이면 저와 처음 만난 날 무공을 겨루려고 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실수를 한다면 이 귀여운 아기가 어찌 다치지 않겠습니까?]

황용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내 딸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닐까? 우선 그녀를 시험해 보아야겠다.)

[이 아기를 위해서 나는 이미 십여 동작을 펼쳤는데 당신도 다시 아기를 놓지 않으니 나도 이 아기를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봉을 들어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찌르려 하자 이막수는 불진을 휘둘러 막으려 했다. 황용의 죽봉을 불진과 만나기도 전에 이미 뛰어올라서 돌연 그녀의 왼쪽 가슴을 향했다. 이 동작은 무척 빠르고 묘했다. 죽봉의 끝이 향하는 곳은 다름아닌 바로 곽양의 조그만 몸이었다.

이 봉을 만약 찔렀다면 이막수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곽양도 즉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황용은 죽봉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죽봉의 끝은 이미 곽양의 강보에 이르렀다. 이 한 동작은 매우 위험하게 보였으나 타구봉법이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미 강약과 원근이 조정되어 한 치의 틀림도 없었다. 이막수는 어찌 이것을 알 수 있으

랴! 눈앞의 위급을 보고서는 급히 오른쪽으로 피했다. 이 순간 허점이 노출되어 팍, 하는 소리에 왼쪽 정강이 뼈에 죽봉이 맞아서 중심을 잃고 거의 쓰러질 뻔했으나 옆으로 두 다리를 벌려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불진을 휘둘러서 몸을 보호하며 고개를 돌렸다.

[곽부인, 당신의 의로운 이름을 더럽히려 하십니까? 이 작은 아기에게 독수를 펼치니 이 어찌 부끄럽지 않소?]
황용는 그녀의 분노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고는 속으로 몹시 기뻤다
(네가 힘을 다해서 내 딸을 보호할 줄이야...... 내가 봉으로 곽양을 치니 이처럼 놀라다니......)

[이도장, 이 아기의 출생이 분명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 남겨서 무엇하겠소?]

황용이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봉을 들고 재빨리 공격해서 잠시만에 몇 동작을 펼치자 곽양이 다시 위험에 빠졌다. 갓난아기는 이막수의 가슴에 안겨서 좌우로 흔들리며 자기가 불편하자 돌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황용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귀여운 아가야, 울지 마라! 엄마나 너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황용은 속으로는 아기가 가련했으나 동작은 점점더 매서워져 만약 이막수가 힘을 다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황용의 매번 동작은 모두가 곽양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했다. 이막수는 당황해 급히 몇 걸음 물러나면서 불진을 휘둘러 곽양의 몸을 보호했다.

[곽부인, 도대체 무슨 짓이오?]

황용은 웃으면서 말했다.

[현재 여류 영웅은 무림 가운데 이도장과 나를 지칭합니다. 오늘 인연이 있어서 만났으니 우열을 가립시다!]

황용이 이처럼 매섭게 봉을 휘둘러서 곽양을 공격하자 이막수는 이미 화가 치밀었다.
(네 남편이 만약 온다면 내가 그를 조금 두려워하겠지만 너 혼자라면 너도 여자인데 어찌 너를 정말로 두려워하겠는가?)

[곽부인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신다면 거절할 수야 없지요.]
[당신이 아기를 알고 있어서 내가 무공을 펼칠 수가 없으니 아기를 내려놓고 우리 진짜 무공을 펼칩시다.]

이막수는 속으로 아기를 안고는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하며, 독침을 던질 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강호에는 곽부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한데 아기에게조차 이처럼 잔인하니 헛소문이었구나.)
눈을 돌려서 사방을 살펴보자 동쪽의 몇 그루 나무 사이에 긴 풀숲이 있어서 매우 부드럽게 보였다. 그래서 곽양을 알고 가 풀 위에 가볍게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자, 한판 대결해 봅시다.]
황용은 그녀와 10 여 동작을 펼치자 그녀의 무공이 자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만약 이때 아기를 빼앗아 안고 싸운다면 자기가 몹시 불리함을 알고는 아기가 상처를 입을까 봐 우선 이막수를 처리하고 난 후 아기를 안아야 비로소 아무런 후환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 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되자 돌연 살기가 생겼다.
이막수는 평소 동작이 매섭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간파하였는데,

황용의 눈이 계속해서 아기로 향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갑자기 아기에게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 주의해야겠다.)

이막수는 곽양의 앞을 가로막으로 황용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순식간에 황용은 속으로 7,8개의 계책을 떠올렸다. 매 계획은 기회를 잡아 이막수를 죽이려는 것으로, 화가 곽양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황용은 생각했다.

(이 마두의 태도로 보아하니 우리 양아에게 매우 애정을 가지고 있어 양아가 그녀의 품에 있는 한, 설사 내가 잠시 빼앗아 가지 않아도 큰 위험은 없겠다. 만약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솔하게 덤비면 오히려 양아에게 위태롭겠다.)

황용은 생각을 바꾸어 말했다.

[이도장, 우리들의 무공이 비슷해서 잠시만에 승패를 결정짓기가 매우 힘든데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만약 맹수의 무리가 나타나서 아기를 물어갈지도 모르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소? 우리 우선 이 조그만 계집애를 처리하고 다시 마음놓고 한판 대결을 합시다]

하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조그만 돌을 집어서 중지에 끼우고 튕기자 팅, 하는 소리에 돌은 공중을 가르며 곽양에게로 급히 날아갔다.

이 절묘한 기술은 그녀의 집안에서 전해 오는 탄지신통의 무술이었다. 이막수는 일찌기 황약사의 기술을 보아서 그 위력이 대단함을 알고서 재빨리 불진을 휘둘러 막았다.

[이 조그만 아기가 도대체 당신의 무슨 일을 방해했다는 말입니까? 어찌 이 아기의 생명을 세 번이나 해치려 합니까?]

황용은 속으로 몹시 기뻤다. 사실 이 돌을 튕길 때 그 힘은 대단

해 급히 날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회력(回力)을 사용해 이막수가 만약 방해하지 않아서 돌이 곽양의 몸에 이른다고 해도 즉시 비스듬히 날아가서 결코 그녀의 몸에 상처를 주지 않게 했었다.

[당신이 이 아기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몰랐읍니다. 설마......설마 당신의......, 하하......!]

이막수도 화를 냈다.

[설마 나의 아기라고......?]

이 <아기>라는 말을 하고 이막수는 돌연 입이 굳어지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내가 무슨?]
[당신은 도고이니 당연히 아이가 없겠고,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아기가 당신의 동생이라 말하겠군요.]

이막수는 <흥>하며 코방귀를 뀌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황용은 곽양이 그녀의 동생이라 말하며, 결코 곽정과 자기가 곽양의 부모라 말하지 않아 이막수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았으나, 누가 그녀에게 양과가 이 아기의 아버지라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막수가 입을 열었다.

[곽부인께서 먼저 공격하시지요!]
[당신은 아기가 염려되어 무공을 겨룰 때도 전심을 집중할 수 없으니 설령 내가 당신은 이긴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등나무 가시를 잘라서 저 아이의 둘레를

감싸면 들짐승들이 감히 접근 못 할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신나게 한판 겨루는 게 어떨는지요?]

황용은 허리춤에서 금으로 자루를 만든 작을 패도를 뽑아 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서는 가시가 잔뜩 돋아 있는 등나무 한무더기를 베어 왔다.

이막수는 황용이 갑자기 손을 써서 아이를 해칠까 두려워서 엄밀하게 방비를 했다. 바라다보니 황용이 등나무 가시를 잡아당겨서 아이의 몸 주위에 있는 몇 그루 큰 나무에 둘러감고 있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들짐승이 아기를 해칠 수 없을 것이고, 곽양이 아직 어리니 결코 몸을 뒤척여 굴러서 가시에 찔리지도 않을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서 이막수는 생각했다.

(강호에서 말하기를, 곽부인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더니 과연 허튼소리가 아니었구나.)

이막수는 황용이 가시등나무를 이쪽저쪽으로 옮겨 가며 큰나무에 빽빽하게 돌려 감으며, 얼굴에 이상한 웃음을 띄고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은 일인 듯 여겨져서 의구심이 생겨났다.

[됐어요!]

[좋아요, 당신이 됐다고 말하니 그만두지요. 이도장,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뵌 적이 있습니다.]

[내 일찌기 양과에게 듣자 하니 당신이 몇 마디 말로써 우리 아버지를 조롱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도화도주는 제자가 많아서 다섯 명이 한 명을 상대하니 강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라고 했던가요?]

이막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아,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벌써 이 일을 생각해 냈어야 했는데,

그녀가 오늘 나에게 끝까지 귀찮게 치근덕거리는 것은 바로 이 몇 마디 말 때문이구나.)

이막수는 냉랭하게 말했다.

[그때 그들 다섯 사람과 나 한 사람이 상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일 대 일로 상대해서 누가 강호의 웃음거리가 되나 볼까요?]

이막수는 화가 치솟아 외쳤다.

[지나치게 아버지를 핑계삼지 마세요. 도화도의 무공을 내가 많이 보았지만 다만 어느 정도일 뿐 별로 대단하지는 않더군요.]

[흥! 도화도의 무공은 무공이 아니라곤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상대할 수 있을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재주가 있으면 저 아기를 안아 와 보시지요.]

이막수는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

(설마 저 여가자 벌써 아이에게 독수를 펼친 것은 아니겠지?)

급히 몸을 날려 가시등나무로 된 길로 뛰어들어가 왼쪽 모퉁이로 도기 가시등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여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귓가에 때마침 곽양의 <응애>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약간 안심이 되어 또다시 안쪽으로 향해 몇 번 모퉁이를 돌았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결국 가시등나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등나무 밖으로 되돌아 나오게 되었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세히 생각지 않고 두 발로 땅을 박차면서 또다시 안쪽으로 뛰어들었으나 발밑에 사방으로 어지럽고 변화무쌍하게 깔려 있는 가시에 찍, 소리를 내면서 도포의 한자락을 찢기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감히 다시는 경망하게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까를 확실히 알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데, 황용이 이미 가시등나무 안쪽에 서서 몸을 숙여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막수는 크게 놀라서 즉시 소리 질렀다.

[아기를 내려놓으시오!]

잠시 바라보니, 죽 늘어져서 쳐져 있는 가시등나무 사이로 몸을 눕히면 통과할 수 있을 듯하여 즉시 앞으로 뛰어서 가시등나무를 벌리고는 황용을 향해 나갔다. 그러나 이 7,8 그루의 큰 나무는 그 주위가 몇 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다볼 수는 있어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부지런히 뛰어 보았지만 왼쪽인 듯하면 오른쪽이고 오른쪽인 듯하면 왼쪽인 게, 몇 번 방향을 바꾸는 사이에 또다시 가시등나무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쳐다보니 황용이 아이를 내려놓고는 동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꺾어지곤 하면서 자유자재로 가볍게 등나무 울타리를 벗어나오고 있었다.

이막수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그날 저녁에 양과, 정영, 육무쌍 등과 대적할 때 그들이 초가집 밖에 한무더기의 흙더미를 쌓았었는데, 자신은 전혀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지금 황용이 가시등나무를 이용해서 돌러 쌓은 것은 바로 도화도의 구궁팔괘신술(九宮八卦神術)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신음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일단 적을 먼저 패퇴시키고 등나무 가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나씩 옮긴 다음에 아이를 안고 나와야겠다. 지금 만약 경망스럽게 진입했다가는 적이 진도(陣圖)의 유리함을 차지하게 되어서 내가 지게 될 것이다.)

불진을 휘두르면 몇 장은 피해 가시등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정신을 집중해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방금 있었던 일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황용은 처음에 그녀가 가시등나무 울타리 안에서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으나 갑자기 그녀가 몸을 날려 비껴나는 것을 보고 몹시 감탄했다.

(이 여마두는 맺고 끊는 결단성이 있구나. 그녀가 명성을 얻은 것은 과연 우연이 아니다. 보아하니 실로 강적임에 틀림없다.)

이때 아기는 이미 걱정을 안 해도 될 곳에 놓아 둔지라 마음속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서 죽봉을 휘둘러 안구저두(按狗低頭)의 동작을 펼쳐서 이막수의 뒷목을 향해 내리쳤다. 이막수는 불진을 말아서 죽봉을 돌려 감고는 쏴, 하는 소리를 내면서 곧바로 황용의 얼굴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두 사람은 각기 세밀하고 오묘한 동작을 펼치면서 잠시만에 몇 동작을 주고 받았다.

이막수는 공력이 심후하여 불진의 동작 변화가 무척 세밀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타구봉법도 비할 데 없이 오묘해서 간신히 수십 동작을 막아냈으니 이것은 실로 무림에서 드물게 보는 결전이었다. 이막수가 바라보니, 죽봉은 평범하게 공격해 들어오다가 몸 앞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공격 부위의 방향이 바뀌는 게, 더 이상 싸우다가는 결국 패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죽봉은 겉보기에는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 같지 않지만, 몸 주위에 있는 36 대혈 중에 그 어느 한곳이라도 맞기만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막수는 힘을 기울여 봉의 공격을 막느라 벌써 이마에 땀이 고였다. 불진을 몸 앞에서 연달아 몇 번 휘두르며 공격을 하고는 급히 발을 빼곤 했다.

[곽부인의 봉법은 과연 세밀하고 오묘하군요. 제가 정말로 감탄했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의혹이 있으니 가르쳐 주실는지요?]

[이 죽봉의 봉법은 구지신개의 절묘한 동작인데 도화도의 무공이 만일 정말로 훌륭한 것이라면 곽부인께서는 어찌해서 아버님이

전수해 준 무공을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셨나요?]

황용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여자의 말재주가 아주 무섭구나. 나의 봉법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의 장점을 버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당신은 이미 이 봉법이 구지신개가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봉법의 이름도 알겠군요?]

이막수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양미간에 노기를 띠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황용이 말했다.
[이 봉법은 타구라고 하는데, 곧 개를 보면 때린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닥쳤으니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이막수는 그녀를 자극시켜 봉을 버리고 장을 쓰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알았다. 만약 그녀와 설전(舌戰)을 벌였다가는 상대의 말솜씨가 너무나 좋아 자기가 여전히 패하게 될 것이라 여겨 불진을 허리춤에 꽂으면서 비웃었다.

[천하의 거지들은 모두 각설이타령에 익숙하다고 하더니 과연 방주께서도 수다스럽게 말씀을 잘 하시는군요. 가르침을 잘 받았읍니다!]

하는 말을 마치고는 큰 걸음으로 숲가로 가서 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았다.
그녀가 이렇게 패배를 시인하고 물러간 것은 사실 황용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으나 그녀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저의를 알 수 있었다. 황용이 실로 양아

를 버려 두지 못하고 만약 가서 아기를 안고 나오면 그녀는 반드시 다가와서 치근덕거리며 달라붙을 테니, 그렇게 되면 강약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 크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를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지 않는 한, 설령 아기를 자신의 수중에 넣는다고 해도 무사히 집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어 보였다. 황용은 즉시 왼발을 세 걸음 내딛고 오른발을 네 걸을 내디디며 비스듬히 우회해 벌써 이막수의 몸 앞까지 돌진했다. 이 몇 걸음은 보기에는 매우 가볍고 경쾌하여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으나 그 속에는 팔괘(八卦)의 변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이막수가 어느 방향으로 뛰쳐나가든간에 결코 그녀를 벗어날 수 없었다. 황용이 잇달아서 가볍게 오른손을 흔드니 죽봉은 이미 이막수의 왼쪽 팔꿈치를 겨누고 있었다.

이막수는 손바닥을 들어 가로막으며 외쳤다.

[진현풍.매초풍이 죽은 뒤로 황약사는 정말로 후계자가 없어졌군요]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 황용이 단지 북개가 전수해 준 타구봉법만을 쓰는 것을 비방하기 위해서였고, 두번째는 황약사가 제자들 주의깊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웃기 위함이었다.

황용의 가문에 전수되는 옥소검법은 이때 이미 가장 세심한 경지에까지 수련이 되었으나 지금 수중에 검이 없고 만약 봉으로 검을 대신하면 순조롭지 못하여 반드시 눈앞에 있는 이 강적을 이길 수 없는지라 즉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버님께서 아버님을 닮지 않은 몇몇 제자를 거두어들이신 것은 좋은 일이 못 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도장과 용아가씨 사자매간의 우애와 정숙함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막수는 화가 치밀어서 소매를 휘둘러 2 개의 빙백은침을 황용의

아랫배를 향해 발사했다. 그녀는 비록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으며, 그 수단이 비할 데 없이 독하고 매섭지만 몸은 옥같이 깨끗하게 지킨 처녀였던 것이다. 그녀는 소용녀의 행실이 심히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지라 황용이 자신과 사매를 나란히 끄집어내어 비교하자, 몹시 화가 치밀어 가장 음험하고 독한 암기를 사용한 것이다.

황용은 이때 그녀와 너무 접근해 있어서 몸을 피하지 못하고 급히 죽봉을 휘둘러 하나씩 튕겨 냈다. 만약 그녀의 타구봉법이 이미 최상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1개의 은침은 튕겨 낸다고 해도 두번째 것은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2개의 은침은 그녀의 얼굴로부터 2촌 되는 곳으로 비껴 날아갔는데 코에 은은하게 풍겨오는 약 냄새를 맡아 보니 정말로 위험했던 상황이었다. 황용은 수년 전에 사랑하는 수리의 한쪽 다리가 이 빙백은침에 스치고 6,7 개월 치료하고서야 비로서 완치된 것을 생각하며 몸을 떨었는데, 또다시 앞에서 쌍침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황용이 동쪽으로 급히 피하자 2개의 은침이 바람소리를 내면서 귓가를 스쳐갔다.

(이곳은 양아에게서 너무 가까우니 이 독침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날다가 만일 그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맞으면 정말 큰일이다.)

그녀는 즉시 동쪽으로 질주해 수풀 속을 빠져나왔다. 이막수는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그녀가 봉법의 묘기 이외에 그 밖의 무공은 자신에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는 그녀가 급히 숲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고함을 쳤다.

[승패를 결정짓지 않고서 어찌 도망치지요?]

황용은 몸을 되돌리고 다만 미소를 지었다.

[곽부인, 제 은침을 막아내는 데 이 죽봉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황용은 만약 자신이 죽봉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그녀가 패한다해도 결코 승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죽봉을 허리춤에 꽂으면서 말했다.

[이 도장의 오독신장이 무수한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는데 제가 몇 장(掌)을 받아 볼까요?]

이막수는 깜짝 놀랐다.
(나의 독장이 무섭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와 겨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속임수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의 장법이 아무리 신묘하다고 해도 어떻게 몸에 닿기만 하면 즉사하는 자신의 신장(神掌)에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두 손을 부딪치며 내력을 장심으로 끌어올렸다.

[도화도의 낙영신검장(落英神劍掌)의 묘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의 우장(右掌)이 가볍게 쳐들어오자, 이막수는 즉시 좌장(左掌)으로 그녀의 장심을 누르면서 우장으로는 이어서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 쌍장의 공격은 본래 신속하고 맹렬한데 여기에 덧붙여 그녀는 우장을 내밀 때 동시에 2개의 은침을 다시 황용의 배와 가슴 사이로 던졌다. 이와 같이 장에 은침을 끼워 사용하는 지독한 동작은 그녀가 사문(師門)을 벗어난 후에 스스로 고안한 것이었다. 상대방이 전심을 기울여 그녀의 독장을 방비하면서 어찌 이렇게 몸 가까이 돌연 암기를 발사하리라 예측했겠는가! 적지않은 무학의 대가들이 일찌기

이 독계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황용은 좌장을 거두어들이며 이막수의 오른손목을 받쳐 우장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 더듬으며 마치 반격할 암기를 찾는 듯한 시늉을 했다. 마침내 그녀는 오른손을 가슴에서 끄집어냈으나 이미 한 발 늦어서 은침은 그녀의 갈비뼈에서 5촌도 못 미치는 거리에 이르렀다. 아무리 나는 재주가 있다 해도 이미 피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이막수는 몹시 기뻐하며 은침이 옷을 꿰뚫고는 황용의 몸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야!]

황용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좌장을 뻗어 이막수의 가슴을 공격했다. 이번 공격은 무척 빨랐으나 이막수는 <좋다!> 하고 외치며 몸을 세워 뒤로 피하면서 쌍장을 나란히 뻗어서 황용의 가슴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녀는 황용이 2개의 은침에 명중된 후에 독성이 급속하게 발작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이 한 동작의 공격으로는 다만 황용을 자기와 멀리 떨어진 것으로 밀어젖혀서 저절로 독이 올라 죽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바라보니 황용의 윗몸이 조금 흔들리며 전혀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막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침에 맞아서 전신이 이미 마비되었구나.)

이막수의 쌍장이 막 상대방의 가슴의 옷깃에 닿자 돌연 두 장심에 무슨 뾰족한 바늘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그녀가 몹시 놀라 급히 뒤로 물러나서 손바닥을 들어서 쳐다보니 두 장심에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주위에 검을 피가 둘러싸고 있는데, 자신의 빙백은침에 찔린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놀랍고 또한 화가 났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바라다보니 황용이 가슴에서 2개의 사과를 꺼내어 하나씩 양손에 들고는 웃고 있었는데

, 각각의 사과에 은침이 1개씩 꽂혀 있었다. 이막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원래 황용은 가슴에 사과를 숨겨 놓고는 조금 전 막거나 피하지 않으면서 가슴속에 손을 넣어 사과를 움켜잡고 은침의 방향에 맞추어 독침을 거두어들이고는 다시 자신을 유인해 사과 위에 손을 뻗어 공격하게 한 것이었다.

이막수 또한 원래 극히 총명한 사람이지만 오를 이렇게 지모가 뛰어난 상대를 만나게 되니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급히 가슴에 손을 넣어 해약을 꺼내려는데 귓가에 쏴,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와 바라보니, 황용의 쌍장이 이미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막수가 왼손을 들어 가로막으며 쳐다보니 황용이 눈같이 흰 다섯 손가락을 벌려 자기의 오른쪽 팔꿈치에 있는 소해혈(小海穴)을 향해 쓸어 오는데, 그 다섯 손가락의 형태가 마치 난화(蘭花)와 같아서 그 자태가 매우 아름다왔다. 그녀는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게 있었다.

(이것이 혹시 천하에 유명한 그 난화불혈수(蘭花佛穴手)가 아닌가?)

오른손으로 미처 해약을 꺼내지도 못하고는 급히 가슴에서 손을 끄집어내어 황용의 손가락을 움켜쥐려고 내밀었다. 황용은 오른손을 오므리며 왼쪽 손가락을 뻗어 이막수의 목과 어깨 사이에 있는 결분혈(缺盆穴)을 공격했다.

이막수는 황용이 손바닥과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키면서 낙영신검장과 난화불혈수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손바닥을 사용할 때에는 정말로 꽃잎이 떨어져서 날리는 것 같았고, 손가락으로 찔러 들어올 때에는 마치 춘란(春蘭)이 늘어진 것같이 보였는데, 그 동작이 매서울 뿐더러 자세 또한 단정해서 자신도 모르게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오늘 도화도의 신기(神技)를 보건대, 확실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무예가 아니구나. 내 손바닥이 이미 중독되었는지도 모르는데다

가, 설혹 여느 때와 같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녀는 급히 몸을 빼내어 해독약을 복용하려 했으나 황용의 손놀림을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 만약 그녀의 체질이 독성에 익숙해져 매일 이 빙백은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벌써 그 무서운 독에 중독되어 잠시만에 기절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이막수라 해도 독성이 장심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심장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황용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동작이 점차 연약해지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이 마두는 그 동안 무수히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오늘 자기의 독침에 의해서 죽으니, 내가 무씨 형제를 대신해서 부모의 원수를 갚게 되는구나.)

황용은 앞으로 몇 걸음 다가서며 손을 잠시도 늦추지 않고 동시에 방어를 철저히 해서, 그녀가 죽기 직전에 돌연 취할지 모르는 공격이 대비했다.

이막수는 우선 팔이 마비되고 이어서 겨드랑이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때는 이미 두 팔이 굳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잠깐만!]

두 걸음을 내디디며 참담하게 외쳤다.

[곽부인, 저는 평소에 이처럼 마비시켜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오늘까지 살아 남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지혜로나, 힘으로나, 당신은 나를 훨씬 앞서니 당신의 손에 죽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읍니다.]

[무슨 일이오?]

황용은 두 눈을 잠시도 그녀에게서 떼지 않으며 그녀가 술수를 부려서 해약을 손에 넣지 못하게 막았다. 돌연 그녀의 두 팔이 아래로 처지면서 오므라들지 않는 것이 보였다.

[저와 사매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이 아기는 매우 귀엽고 불쌍하니 당신께서 크게 선심을 베풀어 목숨을 빼앗지 말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황용은 그녀의 간절한 이 몇 마디를 듣고서 가슴이 찡 했다.

(산처럼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이 마두가 죽기 전까지 내 딸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이 아기의 부모는 결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 만약 이 아기를 세상에 남겨 둔다면 평생 동안 고생하고......]

이막수는 이 말을 듣고서 황용의 뜻을 알고는 애원했다.

[당신은 제발 자비를 베풀어......]

황용은 다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그녀의 혈도를 누르고는, 그녀의 품속에서 해약병 하나를 꺼낸 뒤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독을 제거하는 약이오?]

[그렇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살려 줄 수는 없소. 만약 내가 그대를 살려 준다면 반드시 저 아기는 죽어야 하지. 만약 그대가 죽겠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저 아기를 살려 주겠소.]

이막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햇거니와, 황용에게 아기를 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 달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황용이 병 속에서 1개의 해약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가볍게 흔들며 자기의 대답을 기다리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저......,]

황용은 잠시 생각했다.

(네가 이렇게 망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간에 이 아기에 대한 애정만으로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 주겠다. 너는 곳곳에 원수가 있으니 이후 누군가 너를 찾아서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황용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웃었다.

[이도장, 우리 양아에게 이처   많은 관심을 써 주신 대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막수는 몹시 놀랐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자 아기의 성은 곽이고 이름은 양으로, 곽대협과 나의 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용아가씨의 손에 들어갔는데 당신이 어째서 이러한 오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이 맡아서 오랫동안 정성껏 길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고 말한 뒤, 공손히 절을 하며 해약 한 알을 그녀의 입 속에 넣어 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오?]

[내 중독은 심하니 반드시 계속해서 세 알을 먹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황용은 다시 그녀에게 두 알을 먹이고는 이 해약이 혹시 후에 필요할지 몰라 그녀에게 돌려주지 않고 약을 병에 넣어서 자기 품속에 넣었다.

[세 시간 후면 혈도는 자연히 풀리게 될 거요.]

그녀는 재빨리 숲속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했으니 부아가 혼자서 갔는지 모르겠구나? 만약 이 자매가 만난다면 이 어찌 경사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황용은 등나무 가시 울타리를 돌아서 들어가 보고는 마치 얼음 속에 들어온 것처럼 전신이 얼어붙었다. 등나무 가시 울타리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나 곽양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